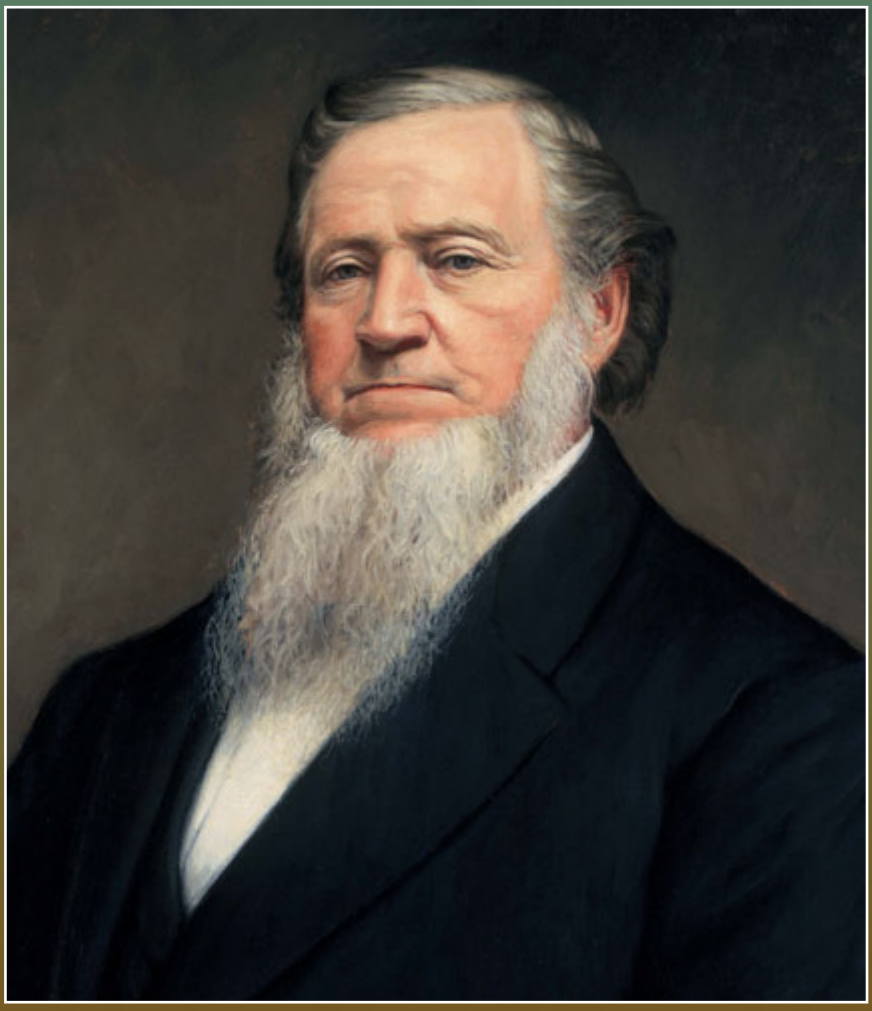
교 회 대 관 장 들 의 가 르 침

브 리 감 영



교 회 대 관 장 들 의 가 르 침

브 리 감 영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발행

8쪽, 그림: 시 시 에이 크리스턴슨, *얼음 위로 미시시피 강을 건너감.*
© 브리감 영 대학 미술 박물관 판권 소유. 허락을 받아 게재함.

48쪽, 그림: 칼 블로흐, *산상 수훈.* 덴마크 프레드릭스 보흐 성의 예배당에 소장되어 있는 원화
프레드릭스 보흐 박물관의 허락을 받아 게재함.

102쪽, 그림: 린 포세트, *마지막 포장 마차의 사람들에게* © 브리감 영 대학교 미술 박물관 판권 소유.
허락을 받아 게재함.

144쪽, 그림: 해리 앤더슨,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퍼시픽 출판 협회의 허락을 받아 게재함.

148쪽, 사진 촬영: 찰즈 더블류 카터, 유타 주 역사 협회의 허락을 받아 게재함.

170쪽, 사진: 유타 주 역사 협회의 허락을 받아 게재함.

255쪽, 그림: 시 시 에이 크리스턴슨, *메추라기를 잡음.*
© 브리감 영 대학교 미술 박물관 판권 소유. 허락을 받아 게재함.

260쪽, 그림: 시 시 에이 크리스턴슨, *1833년 미주리 주 잭슨 군에 이룬 최초의 정착지를 공격하는 폭도들.*
© 브리감 영 대학교 미술박물관 판권 소유. 허락을 받아 게재함.

264쪽, 그림: 시 시 에이 크리스턴슨, *혼즈 밀* 브리감 영 대학교 미술 박물관 판권 소유.
허락을 받아 게재함.

345쪽 그림: 클라크 켈리 프라이스, *영의 세계로부터 요셉 스미스가 브리감 영을 방문함.*
© 클라크 켈리 프라이스.

© 1997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Print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영어 승인: 10/95
번역 승인: 10/95
Teachings of Presidents of the Church: Brigham Young의 번역본
Korean

목 차

	제목	페이지
	소개	v
	생애 약사	vii
1	브리감 영의 성역	1
2	정확한 복음	15
3	복음에 따라 생활함	21
4	신회를 알고 존중함	29
5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아들임	37
6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고통	41
7	구원의 계획	49
8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55
9	회개와 침례	61
10	성신의 영향력	67
11	순종한 것을 결심함	71
12	개인적인 배도를 예방함	79
13	영원한 진보를 위해 준비함	85
14	복음의 경륜의 시대	93
15	서부에 정확함	101
16	시온의 건설	111
17	경전	119
18	신권	125
19	상호부조회와 그 회원의 책임	131
20	교회의 조직과 관리	137
21	안식일과 성찬식을 거룩하게 함	145
22	십일조와 헌납	155
23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의 결혼을 이해함	163
24	가족을 가르침	171
25	감사와 겸손함과 정직함을 키움	177
26	행복과 사회적인 즐거움	183
27	연구와 신앙으로 배움	193

28 자제심을 발휘함 ····· 203
29 지혜의 말씀에 따라 생활함 ····· 211
30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데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를 발전시킴 ····· 217
31 검소, 근면, 자립심 ····· 225
32 세상적인 부와 하나님의 왕국 ····· 235
33 선교사업 ····· 243
34 영의 은사를 통해 성도들을 강화시킴 ····· 251
35 시련과 징계와 박해의 축복 ····· 261
36 지상의 정부와 하나님의 왕국 ····· 267
37 죽음과 부활의 이해 ····· 273
38 영의 세계 ····· 279
39 영원한 심판 ····· 285
40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 291
41 성전의식 ····· 299
42 성전 봉사 ····· 307
43 진리와 개인적인 간증을 추구함 ····· 315
44 하나님의 왕국과 이스라엘의 집합 ····· 323
45 말일 ····· 331
46 부모의 책임 ····· 337
47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대한 브리감 영 대관장의 증언 ····· 343
48 단합과 간증에 대한 권고와 축복 ····· 353

소 개

예언자 브리감 영은 황무지에 삶의 터전을 건설하느라 애쓰는 성도들에게 영감과 희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간단하고 실질적으로 가르쳤다. 1세기가 훨씬 지났어도 그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으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적절한 말씀이다.

영 대관장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들인 우리는 "마음이 정직한 자 모두를 위한 생명과 구원의 교리"(*브리감 영 설교집*, 7쪽)를 갖고 있다고 선언했다. 그는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알고 이해하려는 소망을 자신 안에" 갖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그들이 "의문을 갖고 독서하며 탐구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그분은 진리에 관한 증거를 주실 것"(*브리감 영 설교집*, 450쪽)이라고 약속했다.

본서는 교리에 대한 교회 회원들의 이해도를 향상시키며 그들 안에 하나님의 것들을 알려는 소망을 좀더 갖게 하려는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바람이 담겨 있다. 본서는 성도 개인과, 신권 정원회와, 상호부조회 회원들에게 영감과 동기를 부여해 의문을 갖고, 독서하며, 탐구한 다음, 이러한 가르침에 대한 참된 증거를 얻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해줄 것이다.

각 장에는 "브리감 영의 가르침"과 "학습을 위한 제언"이라는 두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첫번째 부분은 초기 성도들에게 한 브리감 영의 설교에서 발췌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말씀에는 참고 자료가 인용되어 있기는 하지만, 회원들은 대부분의 경우 인용된 자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원래 자료들이 있어야만 본서를 효과적으로 공부하거나 가르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회원들은 이 각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치기 위해 추가된 참고 자료를 구입할 필요가 없다. 본서에 있는 내용과 경전만으로 충분히 가르칠 수가 있다. 회원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브리감 영 대관장의 가르침을 읽고 연구함으로써 복음 원리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며 그러한 원리들이 일상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발견해야 한다. 엄선된 내용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충실히 공부함으로써 말일성도들은 복음 원리에 대해 더 넓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위대한 예언자의 심오하고 영감적인 가르침을 좀더 온전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

*영 대관장의 말씀의 출처를 알려 주기 위해 본서에서 사용한 약어에 관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362쪽의 "인용한 작품과 사용된 약어"를 참조한다.

각 장의 두 번째 부분에 있는 질문은 영 대관장의 가르침에 대해 숙고하고, 개인적으로 적용하며, 토론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들이다. 회원들은 토론되는 원리들을 참조하고 이에 대한 영 대관장의 말씀을 신중하게 다시 읽어보아야 한다. 회원들은 이 가르침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심도있게 공부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좀더 확고한 결심을 하게 되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각오를 하게 될 것이다.

성도 개인과 가족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본서의 원리들을 따른다면 더 많이 헌신하게 되며 영성도 향상될 것이다. 그들은 "주님의 사자"(*교회 정사* 7:434)의 입을 통해 이러한 말씀을 직접 들은 초기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예언자이고, 선견자이며, 계시자인 브리감 영 대관장을 통해서도 똑같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교사를 위한 지침

여기에 나오는 공과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의 깊게 읽고 연구한 다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 공과 반에서 가르침을 숙지하고 이러한 원리들을 제시하고 가르치기 위한 여러 방법을 계획한다. 공과를 통해 반원들이 복음 원리가 일상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깨닫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원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에 대한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토론하도록 격려한다. 참여자들에게 배운 원리에 따라 생활하도록 권유한다.

공과 시간 동안 되도록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기 위해 크게 읽게 하고, 질문을 하며, 경험을 함께 나누게 한다. 공과를 준비할 때는 참여할 반원들의 준비 자세에 유의하면서 특별한 임무 지명을 해도 좋다. 논쟁은 되도록 피한다. 도움이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경전을 참조한다. 겸손히 주님의 영의 도움을 구하면 여러분이 가르칠 형제 자매들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런고로 전파하는 자와 받아들이는 자는 서로 이해하나니, 둘은 다 덕으로 인도되며 함께 기뻐하느니라."(교리와 성약 50:22)

생애 약사

1801년 6월 1일:	버몬트 주 위드햄 군 위팅검에서 출생
1815~1821년:	모친 사망,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가기 시작, 후일 목수가 됨(14세)
1824년:	미리암 워크스와 결혼(23세)
1832년:	침례 받고 교회에 들어와 장로에 성임됨. 부인 사망(31세)
1834년:	매리 앤 앤젤과 재혼. 시온 진영의 행군시 대장으로 활약(33세)
1835년 2월 14일:	초대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으로 성임됨(34세)
1839~1841년:	영국에서 선교 사업(38~40세)
1844~1847년:	요셉 스미스 순교. 브리감 영이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자격으로 교회를 인도함(43~46세)
1846년:	교리와 성약 136편을 계시 받음. 시현으로 요셉 스미스를 보았으며 중요한 지시를 받음(45세)
1846~1847년:	솔트레이크시티로의 대이주를 인도하고 윈터 쿼터스로 돌아옴(45~46세)
1847년 12월 27일:	아이오와 주 켄즈빌(카운실 블러프스)에서 교회 대관장으로 지지됨(46세)
1851년:	유타 준 주 주지사가 됨(49세)
1853년 4월 6일:	솔트레이크 성전을 위해 정초함(52세)
1857~1858년:	유타 전쟁. 8년 임기 후 주지사직에서 해임됨(56~57세)
1867년:	태버내클 완공. 상호부조회 재조직(66세)
1869년:	유타에 철도 부설됨. 청남 청녀 상호 향상회 조직됨(68세)
1877년 4월 6일:	세인트 조지 성전 헌납. 적절한 신권 조직에 대해 새로이 강조함(75세)
1877년 8월 29일: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사망(76세)

1847~1850년 경의 영 대관장.
"저는 우리와 같은 소리로 만방에 복음을 외치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제 한 몸을 불사르고 싶었습니다. … 외국에 나가 말일에 주님께서 하고 있는 일을 크게 외치는 것만큼 뿌듯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주간 데저렛 뉴스*, 1854년 8월 24일, 1쪽)

제 1 장

브리감 영의 성역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제2대 대관장인 브리감 영은 미국 서부에 엄청난 규모의 말일성도 사회를 건설한 주역이고 개척자였으며, 또한 헌신적인 남편이자 아버지였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이자 사도이기도 했다.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이시며 지도자"(주간 데져렛 뉴스, 1871년 5월 24일, 5쪽)라고 간증했다. 또한 "저의 신앙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반을 두고 있으며, 저는 그분으로부터 지식을 받았습니다."(주간 데져렛 뉴스, 1855년 11월 21일, 2쪽)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여 받드는 것이 생활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았다.

브리감 영의 생애

근면을 통해 배움

브리감 영은 1801년 버몬트 주에서 존 영과 애비게일 호우 영의 열한 자녀 중 아홉 번째로 태어났다. 뉴욕 주 중부의 울창한 산림 지대에서 성장한 브리감에게는 가정과 주변 환경이 교실이나 다름없었다.(*주간 데져렛 뉴스*, 1857년 4월 22일, 4쪽 참조) 그의 부모는 가난했는데, 그는 후일 이러한 말을 남겼다. "우리는 [정식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지만, 풀을 긁어 모으고, 나무를 자르며, 통나무를 굴리고, 나무 밑동 틈에서 일을 할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강이나 발 혹은 발 끝에 멍이 들기도 했습니다."(*주간 데져렛 뉴스*, 1857년 8월 12일, 4쪽) 브리감 영은 열심히 땅을 개간하거나 경작하는 일을 도왔으며 집안 일도 거들었다. 그는 아버지의 엄한 도덕적 가르침을 한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 그의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늘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의 이름을 존중하고, [성경]을 중요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머니는 성경을 읽고 그 교훈에 따르며, 가능한 한 신속히 이것들을 생활에 적용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선한 것은 모두 다 행하고 악한 것은 절대 하지 말며, 혹시 곤란에 처한 사람을 보게 되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보살펴 주라고도 했습니다."(*밀레니얼 스타 보충 자료*, 1853년, 55쪽) 브리감의 어머니는 그가 14살이었을 때 사망했다.

브리감은 그의 나이 16살 때 목수 견습공, 소목장이, 도장공, 유약 바르는 직공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기술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으며, "나를 고용한 사람들을 위해 인내하면서 정직하고 믿음이 가게 일하는 것을 나의 종교의 일부"(브리감 영 대 조지 힉콕,

1876년 2월 19일, 브리감 영 기록:1832~1878)라고 생각했다.

그는 23살에 미리암 앤젤린 워크스와 결혼했다. 이 젊은 부부 사이에 두 딸이 태어났다. 브리감은 의자, 식탁, 찬장을 수리하는 일과 창문, 계단, 벽난로 선반 등을 설치해 주는 일을 해서 가족을 부양했다. 뉴욕 주 멘던에 있는 부친 농장의 작은 시내 옆에 집 한 채와 목공소를 지었다. 물레방아를 이용해 제분 기계에 동력을 대기도 했다.

미리암이 결핵에 걸리자 브리감은 자신의 일은 물론이고 아내의 몫이던 집안 일도 맡아 했다. 미리암이 병이 악화되면서 자리에 눕게 됨에 따라 브리감은 규칙적으로 가족들의 아침 식사를 짓고, 딸들에게 손수 옷을 입히며, 집안 청소를 도맡아 했다. "그는 아내를 벽난로 곁 흔들 의자에 데려다 놓고 저녁에 다시 올 때까지 아내를 그 곳에 있게 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에는 가족을 잠에 들게 하고 자신은 집안 일을 하고는 했다.(*브리감 영의 생애 이야기*, 5쪽) 그는 어린 시절의 이런 저런 경험과 일찍 결혼해 자녀들을 돌보는 일을 통해 가족의 협조와 가사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다. 후일 그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사항에 대해 권고를 해주었고, "가사에 관한 한 지역 사회의 상당수 여성들"(*주간 데저렛 뉴스*, 1857년 8월 12일, 4쪽)보다 앞서 갈 수 있었다며 장난기 섞인 어조로 자랑을 했다.

영의 증거를 얻음

브리감과 미리암은 결혼한 그 해에 감리 교회에 들어갔다. 그런데도 브리감은 종교적 의문점들과 계속 싸움을 했다. 그는 "체계적인 의식"(*주간 데저렛 뉴스*, 1866년 7월 19일, 32쪽)과 복음의 모든 은사가 있는, 신약 성서에 나오는 모형의 교회, 즉 예수님이 세우신 모형에 따라 조직된 교회를 찾았다. 요셉 스미스의 동생인 사무엘의 선교 덕분에 브리감 영의 가족은 1830년 4월 몰몬경 두 권을 얻게 되었다. 이것은 몰몬경이 발행된 지 한 달 만의 일이었다. 브리감 영의 친 형제 자매 가운데 몇 명은 몰몬경을 읽고 진실됨을 인정했다. 그러나 브리감 자신은 몰몬경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다.(*브리감 영의 생애 이야기*, 33쪽 참조) "'서두를 필요가 어딨어'라고 나는 말했습니다.… '잠시만 더 기다려 보자! 그 책에 어떤 교리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주님이 주셨다는 계시는 대체 무슨 교리를 담고 있는지, 그것들을 유심히 살펴봐야 겠어.'… 나는 2년 동안 이 점에 관해 진지하게 탐구해 보고 나서야 그 책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거나, 손의 감촉으로 느끼며, 기타 모든 감각을 통해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절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밀레니얼 스타 보충 자료*, 15:45)

브리감 영은 스스로 깨우쳐야 했다. 후일 그는 하나님은 믿음에 관한 사항을 성도들 자신이 이해하려 하지를 않고 제3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고 가르쳤다.(*주간 데저렛 뉴스*, 1854년 8월 24일, 1쪽) 브리감은 "내게는 나 자신에 관해 주님

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주간 데져렛 뉴스*, 1875년 9월 22일, 4쪽)라고 성도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언제 여러분에게 이야기되며, 주님의 뜻이 언제 계시되는지를 알 수 있게 생활할 특권과 임무가 있습니다."(*주간 데져렛 뉴스*, 1875년 9월 22일, 4쪽)

1831년, 펜실베니아 주 콜럼비아에 있는 교회 지부의 선교사들은 멘던을 지나가면서, 하늘이 열렸고 복음과 성신권이 요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되었다고 전파했다. 브리감은 다른 가족들과 친구들과 콜럼비아 지부를 방문한 뒤 오랫동안 찾고 있었던 종교를 발견했다고 믿게 되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었다. 이 때 한 선교사가 간증을 하자 "그 사람에게서 나온 성신이 나의 이해력을 밝혀 주었으며, 빛과 영광과 불사 불멸이 내 앞에 임했음"을 알게 되었다. 브리감은 그들에 둘러싸여 충만함을 느꼈으며, 그 사람의 간증이 참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다.(*주간 데져렛 뉴스*, 1854년 2월 9일, 4쪽) 브리감 영은 1832년 4월 15일, 춥고 눈내리는 날씨 속에서, 본인 소유의 물방아용 수로에 들어가 침례와 확인을 받은 후 장로로 성임되었다.(*주간 데져렛 뉴스*, 1862년 4월 2일, 1쪽 참조) "구세주의 말씀에 따라 나는 겸손하며 어린 아이처럼 순수한 영을 느꼈는데, 이 영은 내 죄가 용서되었다고 증거해 주었습니다."(*브리감 영의 역사 기록*, 1801~1844년, 3쪽)라고 그는 회고했다. 미리암은 약 3주 후에 침례의 물가로 인도되었다.(*브리감 영의 역사 기록*, 1801~1844년, 3쪽) 브리감 영의 직계 가족은 모두 침례를 받아 충실한 말일성도로 남았다.

1832년 늦여름, 가까운 지역에서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온 브리감은 결핵을 앓고 있는 미리암을 마지막 몇 주간 동안 정성껏 보살폈다. 그런 보람도 없이 그의 아내는 1832년 9월에 사망했다.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수호하기 위해 희생함

브리감 영은 모든 정력과 관심을 오직 교회에만 쏟았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그는 형 조셉, 가까운 친구 히버 시 킴볼과 서둘러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로 떠났다. 그들은 요셉 스미스가 형제들과 장작을 패고 있는 것을 보았다. 브리감은 "하나님의 예언자와 악수를 하는 특권에 무척 기뻐"했고, "예언의 영에 의해 누구든 그를 참된 예언자로 믿을 수 있다는 분명한 간증을" 얻었다.(*브리감 영의 역사 기록*, 1801~1844년, 4쪽) 이 일을 계기로 브리감 영은 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뉴욕으로 돌아온 다음에는 재산을 상당 부분 정리하고 사업을 줄여서 더 많은 시간을 교회에 바쳤다. 히버의 아내인 빌레이트 킴볼이 자신의 딸들을 돌봐주리라는 확신이 서자 브리감은 몇 차례 선교 사업을 했다. 그는 멘던 주변의 시골에서 모임을 갖고 침례를 주었다. 또한 그는 뉴욕 북부와 캐나다의 온타리오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임을 증거했다.

브리감 영은 성도들과 함께 하라는 예언자의 권고를 따르겠다는 일념으로 1833년 9월 가족을 멘던에서 커틀랜드로 이주시켰다. 그곳에서 브리감은 "예언자의 가르침을 듣는 특권과 예전에 열심히 거래를 했던 성도들과 교제를 하는 즐거움을 맛보았다"(*브리감 영의 역사 기록*, 1801~1844년, 7쪽) 그는 가옥과 커틀랜드 성전과 기타 몇몇 공공 건물을 짓는 일에 협조했다.

브리감은 1834년 2월 18일 매리 앤 앤젤과 결혼했으며, 그로부터 10년에 걸쳐 여섯 자녀가 태어났다. 그는 매리 앤이 "가족과 하나님의 왕국의 유익을 위해 성실히 노력했습니다"(*브리감 영의 역사 기록*, 1801~1844년, 8쪽)라고 기록했다.

커틀랜드에서 있는 동안(1833~1838), 브리감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은 순종과 희생을 요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834년 봄에는 시온의 진영과 행군을 하겠다고 자원했다. 시온의 진영이란 미주리 주 잭슨 군에 있는 집에서 강제로 쫓겨난 성도들에게 필요한 도움과 식량을 줄 목적으로 요셉 스미스가 선발한 205명을 이야기한다. "우리는 걸어서 약 3천 2백 킬로미터를 갔습니다."라고 그는 후일 회고했다.(*주간 데저렛 뉴스*, 1862년 12월 3일, 1쪽) 브리감은 힘든 여행을 통해 요셉 스미스에 대한 충성심을 키우게 되었고 하나님과 그분의 예언자에게 순종하면서 값진 교훈을 얻게 되었다.(*주간 데저렛 뉴스*, 1854년, 8월 3일, 2쪽 참조)

브리감 영을 포함한 9명의 시온의 진영 선임자들이 1835년 2월 14일 특별 대회에서 초대 십이 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선택되었다.(교리와 성약 18:26~32 참조) 브리감 영은 안수로써 성임되고, "앞으로 나아가 택함 받은 자들을 모아 주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가 되도록" 축복 받았다. 그와 정원회 회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세상의 모든 나라들에게 전파하도록 부름을 받아,"(*교회 정사*, 2:196) 1835년 5월부터 넉 달 간 미합중국의 동부 여러 주로 선교 여행을 떠났다. 그는 1836년과 1837년 두 해 여름 동안 다시 선교사로 동부 여러 주를 여행했다.

영 장로는 커틀랜드 성전에 페인트 칠하는 것과 마무리 작업하는 것을 감독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그 곳에서 예비 의식을 소개할 때도 같이 있었다. 또한, 이 경륜의 시대의 최초의 성전을 짓는 데 많은 희생을 한 여러 성도들과 함께 1836년 3월의 성전 헌납식에도 참여했다(*브리감 영의 역사 기록*, 1801~1844년, 12쪽 참조; *교회 정사*, 2:428)

영 장로가 그와 같은 경험을 하면서 생긴 유대감을 충분히 맛보기도 전에, 몇몇 반대자들이 예언자에 대해 강하게 반대 의견들을 표출함으로써, 예언자로부터 교회 지도력을 앗아가려 했다. 영 장로는 1838년 1월 커틀랜드 성전에서 이러한 배도자들과 부딪치게 되었다. "나는 일어서서 분명하고 강한 어조로 요셉이 예언자임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요셉을 거칠게 비난하며 비방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가 하나님의 예언자로 임명 받은 것을 무효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랬다가는 자기 권위만 손상되며, 예언자와 하나님간의 강한 결속을 단절시키려다 스스로 파멸할 수도 있습니다."(*브리감 영의 역사 기록*, 1801~1844년, 16쪽)

책임을 받아들임

브리감 영은 요셉 스미스와 더불어 여러 날 동안, [예언자의] 목숨을 노리는 폭도를 맞아 싸울 준비를 하고 기다린 때를 기억하였다.(*데저렛 뉴스: 주 2회 간행물*, 1877년 5월 15일, 1쪽) 브리감이 전혀 흔들림 없이 예언자를 지지하니까 배도자들은 "저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브리감 영의 역사 기록*, 1801~1844년, 23~24쪽)라고 그는 당시를 설명했다. 브리감은 커틀랜드로 피했다가 미주리 서부로 가 요셉 스미스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기타 교회 지도자들과 합류했다. 하지만 상당 수의 말일성도가 계속 미주리 서부로 이주를 해오자 이곳의 다른 정착민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서 성도들이 정치, 경제적으로 지배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1838년 여름과 가을에 이르러서는 섬뜩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 주지사가 시민군에게 말일성도들을 제거하거나 주 밖으로 몰아내라고 명령을 내림으로써 긴장은 극도에 이르렀다. 요셉 스미스와 핵심적인 지도자들이 투옥되고,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부 회원들이 배도를 하거나 사망함으로써, 브리감 영은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서 새로운 중책을 맡아야 했다. 교회의 관리 정원회 회원 가운데 브리감과 히버 시 킴볼 사도만이 성도들을 도와 미주리를 떠나는 어렵고 힘든 겨울 여행을 인도할 수가 있었다. 성도들은 이들의 인도 하에, 가난한 사람을 돕고, 모든 말일성도를 미주리에서 벗어나게 하여, 다시 한번 집합할 준비를 하기로 언약했다.

추방된 성도들은 일리노이 주 커머스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는데, 후일 이곳은 나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영 회장은 이곳에 단지 몇 달밖에 머물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예언자 요셉이 잉글랜드에서 선교 사업을 하도록 십이사도를 부르는 것에 관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다. 영 회장은 1839년 가을, 자신과 가족의 건강이 안좋은데도 불구하고, 새 임무를 맡아 수행하겠다는 각오로 일리노이를 떠났다. 그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그리 멀리 걸을 수도 없었으며, 페니라는 누이가 선교 사업을 나가지 말라는 간청을 했다고 후일 당시를 회고했다. 이에 대해 브리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페니, 난 정말 건강한 걸.' 페니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으며,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날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 마.' 난 아무 말도 못했지만, 잉글랜드로 가든지 가다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각오가 섰습니다. 난 생명과 구원의 복음 안에서 내게 요구되는 것을 행하든가 아니면 그러다가 죽든지 하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데저렛 뉴스: 주 2회 간행물*, 1870년 8월 2일, 1쪽)

십이사도 정원회 소속의 회원 8명은 1840년부터 1841년 까지 영국 제도에서 선교 사업을 했고, 브리감 영이 정원회 회장으로서 이 임무를 총괄했다. 바로 이 중대한 시기 동안 십이사도들은 놀랄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영 회장은 1841년 4월 리버풀을 떠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 나와 십이사도 형제님들을 돌봐주신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리버풀에 도착했을 때와 떠날 때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그것은 기적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1840년 봄 낯선 곳에 돈 한푼 없이 도착했지

만, 하나님의 자비에 힘 입어 여러 친구를 사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영 제국의 주요 도시나 마을마다 교회를 세웠고, 7, 8천명에게 침례를 주었으며, 몰몬경 5천 부, 찬송가 3천권, *밀레니얼 스타* 2천 5백부, 소책자 5만개를 발행했습니다. 천 명을 시온으로 이주시키기도 했고… 수천 명의 가슴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열매로 인도해 줄 영원한 진리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 마실 물, 입을 옷 등이 전혀 부족하지 않았는데, 이 모두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했기에 가능했습니다."(*브리감 영의 역사 기록*, 1801~1844년, 96~97쪽)

영 회장과 동료 사도들이 기꺼운 마음으로 새 임무를 맡음으로써, 그들 자신의 역량이 향상된 것은 물론이고 십이사도 정원회 또한 단합해 교회를 위해 능률적으로 일할 힘을 갖게 되었다. 요셉 스미스는 그들의 "결집된 지혜"를 신뢰했고, 1841년 8월 나부에서 "십이사도가 대관장단 다음에 위치하도록 부름 받아야 할 시기가 왔다"(*교회 정사*, 4:403)라고 발표했다. 십이사도들에게는 더 큰 임무가 부여되었는데, 이에는 복음을 선포하고, 이주자들을 정착시키며, 토지를 구입해 나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요셉 스미스는 성전 완공에 앞서서 사적으로 영 회장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나머지 회원들에게 성전 의식을 소개해 주었다. 예를 들면 요셉은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성전 엔다우먼트, 가족 인봉 등을 알려 주면서 그들이 교회 회원들에게 이러한 의식들을 가르치길 소망했다. 예언자는 1844년 봄 십이사도들을 만나 왕국의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열쇠와 권능을 부여했다. "저는 이 교회를 인도하는 의무와 책임을 여러분들께로 넘겨드리겠습니다."라고 예언자는 선언했다. "이제 이 책무를 받아들여 당당하게 서십시오. 주님은 절 잠시 쉬게 하실 것입니다."(날짜가 없는 십이사도 인증서, *브리감 영 기록*: 1832~1878년)

그로부터 석달도 못돼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사망했다. 영 대관장은 여름에 보스톤 지역에서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요셉과 하이람 스미스가 일리노이 주 카테지에서 폭도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곧이어 그는 "요셉이 왕국의 열쇠를 지상을 떠나며 함께 가져간 것은 아닐지" 자문해 보았지만, 이내 왕국의 열쇠가 십이사도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들었다.(*브리감 영의 역사 기록*, 1801~1844년, 171쪽) 나부로 돌아온 브리감은 요셉의 제1보좌인 시드니 리그돈이 교회 지도력을 인수하겠다고 한 사실과 성도들이 이미 총회를 소집해 새 지도자를 지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영 회장은 성도들 모임에서 아주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저나 여러분이나 생애 처음으로, 또한 19세기 들어 하나님 왕국 사상 처음으로, 저는 우리의 최고되는 예언자 없이, 이 세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모임인 십이사도 정원회와 연계해 제 부름을 수행하기 위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도들을 예언자 요셉을 통해 계시로 부르셨으며, 이들은 온 세상의 하나님 왕국의 열쇠를 떠맡도록 성임되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시드니 리그돈이나 윌리암 로, 혹은 그 외 누군가가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어느 누구도 십이사도와 예언자 요셉 중간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구요? 그것은 요셉이 [권능이란 측면에 있어서] 십이사도보다 한 단계 높은 서열에 있는 지도자였기 때문이며, 요셉은 그들의 손에 전세계를 위해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의 왕국의 열쇠를 넘겨줬습니다."(*교회 정사*, 7:232, 235)

영 회장이 마치 예언자 요셉처럼 보였고 말씀도 그렇게 들렸다고 증거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가 강하고 거룩하게 공인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곳에 모인 성도 중 약 5천 명의 성도가 십이사도를 교회의 관리 정원회로 지지했다. 모임이 있고 3일 후, 영 회장은 성도들에게 "최소한 한 달은 애통해 할 특권을 갖길 원했습니다."(*교회 정사*, 7:232)고 밝히며, 다음과 같이 나지막한 소리로 슬픔을 표현했다. "요셉과 하이람을 카테지에서 [나부]로 데려온 날 [이래로] 슬픔의 시간이 계속됐습니다. 교회 안팎의 많은 사람들 평에 따르면, 정말 수많은 눈물을 흘린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생각만 해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브리감 영의 역사 기록*, 1801~1844년, 177쪽)

브리감 영은 10여 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있으면서 주님의 길에 대해 배웠다. 열심히 일을 하고 순종과 희생을 하며, 영의 속삭임을 받아 이를 실천하는 책무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는 처음에는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1847년 12월 이후부터는 교회 대관장으로 말일성도들을 인도할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그는 약 33년간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성도들에게 미국 서부와 자신의 마음 가운데, 또한 가족과 와드에, 어떻게 시온을 건설할 것인가를 가르쳤다. "위대한 사업의 기초를 놓은 것은 예언자 요셉이며, 우리는 그것을 기초로 왕국을 건설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1844년 8월 성도들에게 약속했다. "우리는 세상에 한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왕국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교회 정사*, 7:234)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그의 신앙, 헌신, 경험, 유모어 감각, 복음 교리와 의식에 대한 사랑, 신권의 반차와 교회 조직에 대한 이해는 성도들을 한마음 한 뜻이 되게 했다.

1846년 2월 일리노이 주 나부를 떠나 얼어 붙은 미시시피 강을 건너는
성도들의 모습을 한 화가가 묘사한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성도들을 결집시킴

브리감 영 대관장은 말일성도들을 나부에서 로키 산맥의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인도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도들은 결집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오하이오, 미주리, 일리노이에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다. 영 대관장은 1847년 7월 24일 그레이트 솔트레이크의 계곡을 바라보면서 요셉 스미스가 서부에 있으리라 예견했던 성도들을 위한 보금자리가 바로 이곳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 자신도 시현을 통해 이곳이 바로 그 장소임을 보았다. 영 대관장은 이렇게 기록했다. "빛의 영이 내게 임하더니 계곡 위에도 감돌았으며, 나는 성도들이 그 곳에서 안전하게 보호 받게 될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브리감 영의 역사 기록*, 564쪽) 성도들은 이곳에서 그들 스스로를 속세와는 먼 사람들로 입지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서부로의 집합은 1847년 7월 영 대관장과 개척자 부대가 도착한 것을 시작으로 수십 년 간 계속되었다. 철도를 통해 더 쉽게 여행할 수 있게 된 1869년 이전에 어려운 서부 이주를 감행한 성도는 무려 8만 명이나 되었다. 그 후로도 성도들은 정든 집을 떠나 어느 때는 가족까지 뒤에 두면서까지 시온으로 집합했다. 그들의 지리적 이동은 세상으로부터의 영적인 이주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다. 영 대관장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세상의 모든 구석으로부터 불러모아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 모든 일을 행하고, 권능과 위대한 영광 가운데 오실 인자의 재림에 대한 준비로 지상에 그리스도의 영적인 왕국을 세우게 하셨다."(*데져렛 뉴스: 주 2회 간행물*, 1868년 1월 21일, 2쪽)라고 선언했다. 그는 영적이고 현세적인 시온을 세우는 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리라고 기대했고 또 그러길 요구하기도 했다. 성도들은 산 꼭대기까지 간 것은 물론이고,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내놓아 후발로 도착하는 다른 성도들을 돕게 했다.

성도들은 영 대관장의 지시 하에 솔트레이크 계곡을 떠나 서부에 약 4백 개의 정착촌을 세웠다. 이들은 먹을 것을 재배했고,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었으며, 자기 지역에서 상업에 종사함으로써 경제 자립을 기했다. 나아가서 주님과 서로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도 했다.

영 대관장이 성도들에게 수행하도록 한 사업이 다 성공한 것은 아니다. 사실 경제적 성공이 그의 주요 관심사는 아니었다. 그는 가축을 기른다거나 돈을 버는 일보다는 서로를 도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데 더 많은 관심이 있었다. 영 대관장은 과거 경험을 통해 사람은 열심히 일하며 자신의 임무를 받아들임으로써 발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1856년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회중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곳은 사람들을 성도로 만들기에 좋은 장소입니다."(*주간 데져렛 뉴스*, 1856년 9월 10일, 5쪽)

브리감 영은 수년 간 데져렛(나중에 유타 주에 편입됨)이라는 지역에서 준 주지사 및 인디안 문제 담당 감독관으로 봉사했다. 얼마 안가 이 자리는 연방 정부가 임명한 관리가 맡게 되었다. 영 대관장은 성도들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문제를 두고 벌어진 말일성도들과 연방 정부간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다른 종파의]

성직자들, 언론인, 개혁주의자들 및 정치인들이 퍼붓는 비난과 조롱을 잘 참아냈다. 이들은 영 대관장과 성도들의 종교적 믿음 및 정치.사회.경제적 관행을 빌미삼아 그들을 공격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사람들을 성도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영 대관장의 확고 부동한 생각을 바꿔놓지는 못했다. 영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말일성도들의 지역 사회를 시현으로 보았는데, 그것은 하늘의 한 거대한 가족처럼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맡은 분야에서 몇 가지 임무를 행하면서 자기만의 발전보다는 전체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사람의 마음이 생각해 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질서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여 의로움이 지상을 덮는 것의 훌륭한 결과에 대해서도 보았습니다."(*데저렛 뉴스: 주 2회 간행물*, 1868년 1월 21일, 2쪽)

신권 의식과 신권 조직을 통해 시온을 건설함

영 대관장은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 시온을 세울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온은 신권을 통해 인도되어야 하는데, 그는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의 운영 조직"(*주간 데저렛 뉴스*, 1864년 8월 10일, 2쪽)이라고 생각했다. 영 대관장은 성도들이 "단순하면서도 신성한 운영 조직"(*데저렛 뉴스: 주 2회 간행물*, 1870년 11월 8일, 3쪽)에 따라 "모든…활동과 노력에 있어서 한 마음 한 뜻이 될"(*데저렛 뉴스: 주 2회 간행물*, 1868년 1월 21일, 2쪽) 수 있음을 알았다. 그는 교회 회원들은 신권 의식에 참여해야만 성결하게 될 수 있다고 가르쳤으며, 따라서 신권 의식과 신권 조직은 그의 가르침과 지도력의 핵심이라고 하겠다.

영 대관장과 십이사도는 1844년부터 1846년까지 나부 성전 완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엔다우먼트와 인봉 의식은 공사가 끝나기 전부터 집행되어 왔다. "성도들은 의식을 무척 받고 싶어했고 우리는 의식을 행하려는 열망으로 가득했다. 나는 전적으로 성전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데 낮과 밤을 바쳤으며, 잠도 하루에 평균 4시간 이상 자지를 못했다. 집에도 일주일에 한번밖에 못갔다."라고 영 대관장은 자신의 일기에 기록했다.(*브리감 영의 역사 기록*, 10쪽) 1845년 12월 10일과 1846년 2월 7일 사이에, 약 5,615명의 성도들이 엔다우먼트 의식을 받았으며 많은 가족이 인봉을 받았다. 그로부터 1년 후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한 지 3일째 되는 날에, 영 대관장은 이 부지를 솔트레이크 성전이 들어설 장소로 지정했다. 이곳은 시의 중심지이면서 동시에 성도들의 삶의 구심점이 될 곳이었다. 짓는 데 40년이 걸린 이 웅대한 성전은 영 대관장의 생전에는 완공되지 않았다. 한편 그는 그 밖의 몇몇 거룩한 장소들을 성전이 완공되길 기다리며 지내는 사람들을 위해 성전 엔다우먼트와 인봉이 행해질 수 있는 곳으로 지정했다. 1877년 1월 1일 세인트 조지 성전의 저층들을 헌납하는 자리에서 — 이로부터 몇 달 후 그는 죽음을 맞았다 — 영 대관장은 죽은 자를 위해 의식을 재개하는 일에 대해 열심히 강조했다.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저는 우뢰와 같은 음성이 사람들에게 이 일에 대해 일깨워 주길 바랐습니다. — 조상들이 우리 없이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그 분들 없이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밀레니얼*

스타, 39:119)

성전 의식은 여러 세대를 서로 묶어 주는 데 있어서 중요하며 거룩한 진리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데도 중요했다. 19세기 후반에 태어났거나 개종한 말일성도들은 미주리 주에서 있었던 박해를 경험한다든지 개인적으로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기억하지는 못할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초기 성도들처럼] 개척을 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어질 것이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시온을 건설하는 것에 관한 거룩한 진리를 배워야 할 것이다. 영 대관장은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장려했다. 또한 그는, "지상에서 의와 진리를 사랑하며 유지하도록 많은 사람들을 훈육하겠다." (*대관장단 메시지*, 2:288)는 소망으로, 교회 조직을 잘 정비하기도 했다. 어린이들을 위해 1849년에 처음 정립된 와드 주일학교는 1867년부터 중앙 위원회의 감리 하에 하나로 단결하여 일을 시작했다. 영 대관장의 요청에 따라, 그의 딸들을 시작으로 청녀들이 복음을 더 잘 이해하고 한층 절제된 생활을 하도록 강화하기 위한 조직체가 1869년에 결성되었다. 1875년에도 이와 유사한 조직을 만들어 청남들을 가르치며 지도력을 키우게 했다.

영 대관장은 자매들 없이는 시온을 건설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나부에서 한 것 처럼, 1867년에 상호부조회를 재조직했다. 자매들은 감독을 도와 가난하고 고통 받는 이들에게 물품을 나눠주고, 가족을 격려해 가정에서 필요한 것을 만들게 했으며, 서로 복음을 가르치고, 청녀와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힘을 모았다.

영 대관장은 말년에 신권 정원회를 정비했다. 스테이크를 나누어 재조직함으로써, 스테이크 수를 여덟에서 열 여덟로 늘렸다. 장로 정원회의 조직을 감리하면서 장로들이 현세적이고 영적인 임무를 잘 수행하게 했다. 그는 와드를 교회 활동의 기본 조직으로 강조했고, 감독의 역할을 와드의 장으로 확대시켰다. 지역의 단위 조직을 관리해 온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은 그 직에서 해임시켜 모든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으로 그 부름을 수행하게 했다. 그리하여 1877년 8월 29일 영 대관장이 별세할 무렵에는 교회가 오늘날 대부분 성도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개척을 통해 시온을 건설하려는 영 대관장의 헌신, 사업, 거룩한 성전 의식과 신권 조직 정비 등에 대해서는 그의 설교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다. 한 가지 설교로는 그가 본 광범위한 시현의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었다. 그는 어느 한 설교의 끝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저는 위대한 복음 설교의 일부 언저리만을 슬쩍 건드렸을 뿐입니다". 그는 충만한 복음은 규칙에 규칙을 더해 조금씩 가르쳐진다고 믿었다.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 아들의 복음은… 영원 무궁합니다. 마음에 시현이 열렸을 때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 많은 부분을 볼 수는 있지만, 연사가 회중의 얼굴만을 보고 말을 하듯이, 여러분도 보이는 부분만을 볼 뿐입니다. 사람들과 완전히 친해지겠다고 생각하면서, 각 개인을 쳐다보고 말하되 한 사람 당 겨우 5분을 할애한다 해도, 이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영원 무궁함에 관한 시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설명하기란 쉽

지 않습니다."(*주간 데저렛 뉴스*, 1854년 10월 26일, 2쪽) 영 대관장은 지도력과 가르침을 통해 성도들이 늘 복음의 영원한 진리를 보고 이해하도록 도우려 했다.

브리감 영의 삶은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왕국을 건설해 유지시켜 나가는 데 중심이 맞춰져 있었다. 그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늘 왕국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대상입니다."(*주간 데저렛 뉴스*, 1864년 7월 27일, 2쪽)

브리감 영이 보여 준 지도력에 대해서는 아마 그가 사망할 당시 사도로 봉사했던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예언자 요셉의 순교 이후 33년간 교회를 인도하면서 흔들린다든지 불안해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두려워 움츠려든 적도 없습니다.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 닥쳐와도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강한 확신과 신앙을 보여 줬고,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돕기 위해 격려의 말을 해줌으로써, 사람들에게서 사랑과 칭송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를 용기로써 축복하셨음은 물론이고 많은 지혜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구원은 영 대관장의 권고를 따른 사람들에게 다가왔으며, 관리자와 행정가로서 그를 앞설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가 열심히 헌신한 대가로 크나큰 성공을 안겨 주셨고, 그의 말을 존중하고 성취시켜 주셨으며, 그의 권고를 들은 사람들 또한 축복과 지지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이 된 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지목될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대관장단 메시지*, 2:298)

학습을 위한 제언

- 브리감 영은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 기꺼이 순종하고 희생하려는 마음은 브리감 영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 수호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 지금의 교회 회원들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일관되게 지지한 브리감 영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 브리감 영의 생애 가운데 그로 하여금 교회를 인도하도록 준비시킨 사건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가? 주님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봉사하도록 어떻게 준비시키시는가?
- 성도들이 집합하는 특별한 목적에 대해 영 대관장은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영 대관장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했는가?
- 브리감 영은 무엇을 "하나님 아들의 운영 조직"이라고 했는가? 영 대관장은 자신의 신권을 어떻게 영화롭게 만들었는가?
- "지상에서 의와 진리를 사랑하고 유지하도록 많은 사람들을 훈육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브리감 영은 무엇을 했는가? 오늘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브리감 영은 성도들이 복음의 영원한 진리를 알고 이해하도록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여러분은 앞으로 2년에 걸쳐 브리감 영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상고하는 것이 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1880년 대의 솔트레이크 성전.
성도들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소망으로 불탔다.

제 2 장

정확한 복음

세상은 브리감 영 대관장을, 황무지를 아름다운 터전으로 바꿔 놓도록 인도한 훌륭한 개척자로 알고 있다. 더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가르친 사려 깊은 교사였으며, 초기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기회를 부여하는 뛰어난 교리에 따라 생활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브리감 영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율법과 의식의 체계가 담겨 있음

우리 종교는 하늘의 진실된 규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즉 이것은 여러 신들과 천사들을 다스리는 율법 체계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의해 다스려집니까? 그렇습니다. 율법에 의해 다스려지지 않는 존재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쪽)

우리에게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과 원리에 관한 계획이거나 체계입니다. 이 지상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것에 엄격히 순종함으로써 아버지와 아들의 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보장을 받게 됩니다. 복음의 율법은 사람들에게 계시된 영원 무궁한 몇몇 원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에 따라 원래 자신들이 왔던 하늘로 돌아가게 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쪽)

우리가 얘기하는 하늘로부터 계시된 하늘의 율법 즉 신권이란 것은 구원, 곧 율법과 의식에 관한 완벽한 관리 체계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한 관문에서 다른 관문으로, 한 천사에서 다른 천사까지 통과해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 이르도록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30쪽)

우리는 영혼을 통해 복음이란 구원으로 이르는 하나님의 권세, 다시 말하면 영생으로 이르는 길이라는 진리를 얻게 되거나 알 수가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90쪽)

하나님이 낱낱이 주관하시는 모든 것들과 일치되는 우리 종교는 율법과 의식으로 구성된 체계입니다. 그분은 조직과 인간의 자녀의 유익을 위해 율법과 의식을 제정하셔서, 사람들이 이것들을 준수하여 해의 왕국의 율법에 따라 영생에 합당하도록 자신을 증거하는지를 확인하려 하셨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쪽)

주님은 율법을 세우셔서 그에 따라 내가 내 구두를 특정 형태로 만들도록 하지 않으셨습

니다. 그분은 내가 끝이 네모난 구두를 지을까 아니면 뾰족한 구두를 만들까를 결정지을 수 있는 율법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길이가 짧은 코트를 만들까, 혹은 스커트를 발뒤꿈치까지 내려오게 할까, 아니면 지금 입고 있는 것과 같은 코트를 만들까 결정짓는 율법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지식은 어느 정도까지는 독자적으로 활용하도록 성도와 죄인 둘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신권의 율법을 갖고 있든 없든, 또한 그들이 그것에 대해 들었는지 안들었는지는 그만두고서 말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63쪽)

여러분은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을 돕지도 않으면서 그분께 어떤 것을 해달라고 부탁해서는 안되는 것이 우리 신앙과 종교의 특색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할 마음이 없는 것을 주님께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3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진리를 수용함

모든 진리는 인간의 자녀의 구원, 즉 그들의 유익과 깨우침을 위한 것이며, 결국 그들은 거룩한 진리를 통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지식이란 진리를 말하며, 모든 진리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1쪽)

진리가 누구에게서 오든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누구에서 오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예수님 당시 살았던 베드로에게서 받아들였든지 요셉 스미스한테서 받아들였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어느 누구에게나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러 충만한 복음을 전하게 했다면 그것이 누구든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오직 진리만 알면 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1쪽)

흔히들 말하는 "몰몬이즘"은 영원히 지속될 생명과 구원에 관한 모든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진리를 누가 갖고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사 믿음이 없는 자가 진리를 갖고 있더라도 그것은 "몰몬이즘"에 속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진리와 완전한 교리 가운데 많은 부분을 갖고 있는 종교들도 많습니다. 도덕성에 관해 말하더라도 그들 중 상당 수가 우리만큼 도덕적으로 양호합니다. 무엇이든 유덕하고 사랑할만하며 칭찬할만한 것은 이 교회와 왕국에 속합니다. "몰몬이즘"은 모든 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속하지 않는 진리란 없습니다. 그것은 생명 즉 영생이며 축복입니다. 또한, 여러 신들 사이에서 그리고 신들이 누리는 영원한 세계에서 모든 것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쪽)

다시 말해 "몰몬이즘" 자체가 제 삶이 아니라면, 제 삶이 어떨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몰몬이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들은 모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몰몬이즘이 하늘이나 지상의 것들을 전부 다 내포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존재 가치를 잃게 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쪽)

저는 친구들에게 우리는 선한 것이면 무엇이든 믿는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늘

이나 지상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교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고, 진리는 우리 것이며, 우리는 진리를 앞세웁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쪽)

[복음에는] 도덕, 덕성, 빛, 훌륭한 원리, 그 밖의 선한 것들이 전부 다 담겨 있습니다. 복음은 체계적인 율법과 의식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쪽)

그러한 계획에는 교회적인 것이든 도덕적인 것이든, 철학적인 것이든 일반적인 것이든, 지상의 참된 교리 체계가 전부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에는 아담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만들어진 모든 훌륭한 율법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국가의 법 내용도 들어가 있으며, 복음 계획은 지식과 순수성이란 면에서 일반 국가 법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복음 계획에는 당대의 교리도 통합되어 있고, 진리가 어디서 발견되었든간에 그것을 수용합니다. 나아가서 모든 진리를 하나의 체계로 결속시키는 반면 무가치한 것들은 사방으로 흩어버리기도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4쪽)

우리는 예수님이 전하셨던 구원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진리는 모두 받아들이고 잘못된 생각은 전부 거부할 책임과 소명이 있습니다. 진리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한다고 하는 사람, 보편 구제설 신봉자, 카톨릭 교회, 감리교, 영국 성공회, 장로교, 침례교, 퀘이커 교도, 세이커 교도, 기타 세상의 여러 종파나 단체 등 그 어느 곳에서 발견되었든간에, 그들이 다소 진리를 갖고 있을 경우,(성도들의 맏형인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이 교회 장로들의 임무는 생명과 구원, 우리가 전하는 복음,… 과학과 철학 등에 속하는 세상의 모든 진리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세상의 수많은 나라와 족속과 방언의 민족과 백성들 가운데 어디서 발견이 되었든 그것을 수집해 시온으로 가져와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48쪽)

사람이 원하는 모든 지식과 지혜는 우리가 받아들인 신앙의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46쪽)

우리가 수용한 신앙은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에 있는 진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그러한 진실은 지구 표면, 지구 깊숙한 곳, 별이 빛나는 하늘 등에도 다 있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있는 모든 진리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48쪽)

우리의 종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해 주신 모든 것과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를 평가해 보고, 고려해 보아, 그러한 것을 종교에 포함시킵니다. 현 세계가 갖고 있는 모든 진리는 그것이 과학적인 것이든 종교적인 것이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알고서 흐뭇해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큰 책무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모두에 대해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으며, 저는 만사에 있어서 그분께 감사드립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쪽)

우리의 종교는 인간, 천사, 여러 신들이 알려 준 훌륭한 과학을 모두 포함시킵니다. 생명에 관한 진실된 과학 체계는 하나밖에 없고, 그 밖의 나머지 것들은 죽음을 가져올 뿐입니다. 이 유일하게 참된 체계는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쪽)

잘못이 다 없어져도 진리는 살아남습니다. 생명은 영생의 말씀을 부인한 사람들이 죽어

없어져도 남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좋아 하는 것은 그것이 참되고, 아름다우며, 즐거워할 만하고 본질적으로 대단히 훌륭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경탄할만한 대상이고, 하늘이나 지상에 있는 모든 지적인 존재들이 믿고 깊이 상고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9쪽)

나는 진리 안에 있음을 기뻐합니다. 진리는 스스로 계속 유지되도록 형성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영원한 진실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머지않아 다른 것들이 사라지더라도 진리는 끝까지 살아남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1쪽)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 따라 생활해 온 사람은 저마다 충실한 자를 위해 예비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과 그렇지 않은 것들, 빛과 어둠, 하늘로부터 오는 것과 그 밖의 다른 데서 오는 것들을 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말일성도들은 자신들의 종교 원리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만족과 위안을 얻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된 지식을 소유하게 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5쪽)

진리에 따라 생활하기란 참으로 쉽습니다. 여러분도 그렇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낮은 위치에 있든 사회적 지위가 높든 간에, 진리는 어느 상황에서나 항상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인도해 주는 가장 확실하고도 편리한 안내자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1쪽)

우리의 종교는 단순히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한 마디 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종교는 모든 진리를 수용합니다.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든 없든간에, 하나님이나 인간이 하는 일 중 그 어디서 진리가 발견되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쪽)

복음은 신권의 권세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생명과 구원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대표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자 왕국이며, 인간의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유일한 신앙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태초와 마찬가지 상태로 만사를 회복시키기 위해 두 손을 펴셨습니다. 또한 성신권을 행사하여 구원 받을 수 있는 자를 모두 구원하시고, 아담의 타락의 결과를 세상으로부터 말끔히 씻어내시며, 주님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 손길을 뻗치셨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쪽)

신권은… 완전한 반차이자 운영 체계입니다. 신권 만으로도 인간의 가족 구성원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으로부터 그들을 구해, 끝없는 행복을 계속 보장해 줄 수가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30쪽)

복음과 신권은 순종적인 자녀들을 구원해 그들로 하여금 주님과 똑같이 영광과 권세를 누림으로써 기뻐하고, 결국에는 영광과 불사 불멸과 영생의 관을 쓰도록, 주님께서 활용하시는 방편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5쪽)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은 신권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33쪽)

하나님이 그분의 음성으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니면 그분의 예언자, 사도 혹은 축복사의 입을 통해 전하신 의식 중에서 무용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의식과 계명과 요건은 인간 가족의 구원을 위해 필요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52쪽)

하나님의 의식과 관련해, 우리는 주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 의식들에 순종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에는 합리적인 철학이 담겨져 있으며… 그 철학은 영원한 세계로 이르는 것이며, 말일성도들은 이 철학을 믿습니다. 사람이 받아들인 진리는 저마다 하나님의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받았고, 한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계속 발전하면서, 모든 것에 관한 지식을 얻어 신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52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탁 트여 있습니다. 즉 지상에서 하늘로 이르는 길 위에 활짝 열려 있는 대문과 같으며, 이를 통해 인간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부름과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의 위치에 따라 여러 계시가 주어집니다.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왕국에 속하는 율법의 일부입니다. 또한 성신권에 속하는 의식은 인간의 자녀들이 영생으로 이르는 길을 찾을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그에 의해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되돌아가기까지의 긴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6쪽)

주님께서 이 말일에 계시해 주신 율법과 의식들은 아담과 이브의 아들딸들을 모두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쪽)

우리는 산꼭대기에서 지상의 전주민에게 우리 교회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는 것과… 우리에게는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 모두를 위한 생명과 구원에 관한 교리가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7쪽)

학습을 위한 제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구원으로 이르는 율법과 의식의 체계가 담겨 있음.

- 영 대관장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세"이다. 이 말씀은 니파이삼서 27장 13~14절에서 구세주께서 내리신 복음에 관한 정의와 어떻게 비교되는가?
- 인간에게 불사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과정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모세서1:39; 아브라함서 3:25 참조)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는 데 율법과 의식의 체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율법과 의식은 어떠한 방법으로 "인간의 자녀들[에게] 유익"이 되는가?(니파이이서 2:13, 16 참조)
- 영 대관장은 하나님은 "율법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가르쳤다. 하나님이 율법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을 앎으로써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교리와 성약 82:10 참조)

- 영 대관장은 복음을 하나의 질서 정연한 체계라고 묘사했다. 하나님은 어떠한 면에서 우리 스스로 판단력을 온전히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교리와 성약 58:26~29 참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진리를 수용함

- 영 대관장은 말일성도들에게 진리의 탐구자가 되도록 권고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진리를 수용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우리는 진리가 어디에서 발견되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리는 "모든 진리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는 영 대관장의 말씀에서 어떠한 것을 배울 수 있는가?
- 영 대관장의 말씀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 우리는 진리와 잘못을 서로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고린도전서 2:11, 14; 모로나이서 7:12~17 참조) 이 말일에 "진리는 모두 받아들이고 잘못된 생각은 전부 거부"하는 능력이 그처럼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복음 진리를 아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진리가 항상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인도해 주는 가장 확실하고도 편한 안내자"인 이유는 무엇인가? 거짓과 속임수로 생활을 하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가?(교리와 성약 88:86 참조)

복음은 신권의 권세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임

- 신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복음 계획에 있어서 신권 의식이 필수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권 정원회, 그룹과 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진리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신앙을 정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호부조회가 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누군가와 함께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를 하면서 어떠한 경험을 했는가? 여러분은 그 경험을 통해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가?
- 영 대관장은 복음은 "지상에서 하늘로 이르는 길 위에 활짝 열려 있는 대문"이라고 가르쳤다. 복음의 법과 의식과 진리에 대한 증거를 전파하도록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어떠한 책임이 놓여있는가?(마태복음 28:19~20; 잠언 22:6 참조)

제 3 장

복음에 따라 생활함

브리감 영 대관장은 위대한 개척자, 사회와 교회의 지도자, 가족의 부양을 맡은 책임자로서 실질적인 복음 생활을 하는 모범을 보여 주었다. 그는 자신의 가르침과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자 "실질적인 종교이며, 이생에서 날마다 해야 할 모든 일과 현실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브리감 영 설교집, 12쪽)

브리감 영의 가르침

우리는 배우는 원리에 따라 생활할 때, 복음 안에서 교훈에 교훈을 받아가며 조금씩 개인적으로 성장함.

우리는… 경전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율법, 규칙, 의식과 규율을 받아들이고 가능한 한 그것들을 폭넓게 실천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따라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배우며 발전을 꾀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쪽)

우리는 나쁜 사람을 선하게 만들고 좋은 사람은 더 좋게 하는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6쪽)

"얼마 전 동부로 돌아오던 한 방문자와 나눈 대화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한 개인으로서 자신을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교리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놓고 보면 짐작하시듯 불완전한 데가 많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을 온전하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영광스런 부활을 얻어 아버지와 아들이 계신 면전으로 들어가게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7쪽)

사람은 완벽하면서도 충만하게 [율법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대신 인간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오늘 조금 내일 조금,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좀더 많이, 그 다음 해에는 그보다 더 진보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현명한 방법으로 개선되려고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무지의 상태로 남아있게 되고, 주님이 드러내시는 빛은 암흑으로 보일 것이며, 하늘 왕국은 계속해서 그들로 하여금 무지와 과오의 상태로 떠돌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주님이 지상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보이시고자 하는 충만한 지식에 따라 행동하길 원한다면, 모든 진리가 계시될 때 마다 발전을 해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쪽)

저는… 말일성도들에게 복음 원리를 실생활과 언행과 기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잘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진리와 같은 것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한 인간의 전체 삶을 발전시키는 데만 바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완전함의 극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알려진 것은 적은 부분에 불과합니다만, 아뭏든 그것은 구세주의 인품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자신들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을 모두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은 그분이 자신들에게 주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1~12쪽)

성경에는 구세주께서 만물보다 낮아지신 것 같이 높이 올라가시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도 다 그러지 않을까요? 물론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물 아래로 내려갔다가 서서히 올라와야 하고, 때로 조금씩 배우면서, 영원한 세계에 이르러 그분의 충만한 영광과 위대함과 권세를 수용할 때 까지 "규칙에 규칙을,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이사야 28:9~10; 교리와 성약 98:12 참조](*브리감 영 설교집*, 60쪽)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해도 무방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쪽)

복음의 영적인 측면과 세상적인 측면은 한 가지임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리고 생명과 구원의 원리, 신권, 진리에 관한 예언, 인간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등을 이해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수고와 세상적인 수고는 서로 차이가 없이 다 한 가지입니다. 만일 내가 어떤 의무를 수행하는 중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전도를 하든, 기도를 하든, 누군가에게 훌륭한 도움을 주든, 혹은 내가 들이나 공구상에 있든, 장사를 하든, 어디서 어떤 부름을 수행하고 있든지, 나는 어느 장소에서건 힘껏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떤 일을 하든 모든 면에서 그분의 장소와 시간과 의향 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8쪽)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혹은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서로 나누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는 그것들이 모두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교리와 성약 29:34~35 참조](*브리감 영 설교집*, 13쪽)

우리는 지상에 주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과 관련된 일은, 그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든 그분의 이름에 따라 성전을 짓는 것이든, 전부 영적인 일로 생각하도록 배웠습니다. 물론 그 일을 수행하려면 물리적 힘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지만, 영적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3쪽)

우리는 세상적인 수고 없이는 성전이 건립되었을 때 거기에 들어가 영적인 축복으로 이어지는 의식들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의식들은 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충실한 자녀들을 위해 마련해 두신 영적 축복을 받기 위해 행해져야 합니다. 모든 행동은 우선 세상적인 행동입니다. 사도들은 신앙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했습니다.[로마서

10:17 참조] 그렇다면 무엇을 들려주어야 신앙을 낳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는 눈에 안보이는 영적 존재가 아니라, 우리 자신처럼 세상의 평범한 보통 사람이며, 삶의 동일한 규칙과 규율의 지배를 받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세상적인 수고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믿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적인 수고의 결과로 인한 것입니다. 침례를 받는 것도 침례를 받거나 주는 사람 모두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수고라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진실성에 대한 산 증거입니다. 실제로 저는 복음을 들음으로써 신앙을 갖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하느라고, 발이 아프고 몸이 피곤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염원하는 축복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육체적 수고를 감당할 때 주어질 것이며,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함으로써 여호와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마련한 눈에 안보이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3~14쪽)

복음은 일상 생활의 안내자 — 즉 실질적인 종교임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는 실질적인 종교이며 이생에서 해야 할 모든 일과 현실에 적용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2쪽)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승영에 대한 원리는 그것들이 우리의 역량에 맞아 이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없는 한 우리에게 무익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4쪽)

저는 복음을 현재의 시간과, 상황과, 사람들의 여건에 맞게 간결하게 가르치려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8쪽)

현재의 안전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체제가 살기에 가장 좋은 체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거나, 농장을 만들거나, 도시나 성전을 세우기에도 가장 좋습니다. 그 체계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정의의 규칙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세우신 표준은 평화, 안락함, 현세의 행복과 영원한 영광과 승영을 보장해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철저히 따르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을 보장받지 못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8쪽)

이따금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다보면, 먼 미래에 관한 주제로 엄격한 설교를 하거나 지난 시절 역사를 더듬어 보는 것이, 제 말을 듣는 일부 사람들 가운데 큰 기쁨과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제 안에 존재하는 판단력과 지식의 영은 곧 제게 그와 같은 과정을 밟는다면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적 임무에 관해 잘 깨달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일러줍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백년 후에 해야 할 임무에 대해 지시하기 보다는 현재의 일상적 언행에 대해 일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지나가는 세월과 현재의 여러 특권 속에서 어떻게 유익을 얻어, 앞날의 행복을 위한 주춧돌을 놓을 것인가를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2쪽)

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일상 생활에 관해 가르칠 사명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

에는 복천년 후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별로 염려하지 않는다고 한 내 말을 이미 오래 전에 들어 본 경우도 꽤 될 것입니다. 아담 시대에 발생한 일, 천지 창조 이전에 있었던 일, 아니면 앞으로 수천 년 뒤에 생길 일에 대해 전파하거나, 이미 일어난 일이나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것들, 혹은 자신들도 잘 모르는 일에 대해 사람들에게 허무 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장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방법으로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지금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일러 주고, 복천년의 일은 복천년에게 맡기라고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나의 임무입니다. 저는 신앙, 회개, 죄사유함을 위한 침례, 성신을 받기 위한 안수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현세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일상 생활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8~9쪽)

우리는 신앙이 없이는 들에 나가 쟁기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태로 사무실에 나가 물품을 거래하거나 회계 사무를 보지도 않습니다. 또한 우리 종교에 충실한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다른 곳에 나가 사업을 하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철도 여행이나 기타 유람을 할 때도 하나님과 종교는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8쪽)

우리는 성도들이 기량을 향상시키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말일성도 기술자들이 정말이지 정직하고 믿을만하기 때문에 철도 회사에서 "우리에게 기술자로 몰몬 장로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럼 어느 승객도 열차 타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기술자는 위급 사태 발생시 자신이 맡고 있는 승객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테니까요."라는 평을 듣기까지 장점을 갈고 닦으십시오. 저는 우리 장로들이 성실성을 충분히 인정 받아 철도 회사가 엔진 제작자, 경비, 기술자, 서기, 기타 업무 관리자로 그들을 선호하게 되길 원합니다. 만일 우리들이 신앙에 충실하며 말일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그와 같은 모든 일이 안전하게 우리에게 맡겨질 것입니다. 혹시라도 일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신앙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뜻일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32~233쪽)

우리 종교는 사람의 모든 언행을 이해하려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면 상품을 거래하는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가 아니라면 농사를 짓거나 기타 다른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가 아니라면 평의회원 중 어느 누구도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정당하고 공정하게 선과 악, 진리와 오류, 빛과 어둠, 정의와 불의를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9쪽)

구약 성경을 신중하게 읽다보면 그 옛날에 사람에게 주어진 계시의 대부분이 그들의 일상적 임무에 관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같은 길을 밟습니다. 성경과 몰몬경에 담겨있는 계시들은 우리에게 본이 되며, 교리와 성약에는 교회에 주는 직접적인 계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는 그것들을 제거해 버릴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진부하고 낡아서 한 쪽에 제쳐두는 것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날마다 계속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어둠 가운데 걷는 일은 더 이

상 없으며, 늘 생명의 빛 가운데 걷게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2쪽)

만일 시온의 영을 동반하길 원한다면, 이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 종교는 그저 단순한 이론이 아니며, 모든 사람들 마음에 현재의 기쁨을 안겨 주는 실질적인 종교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2쪽)

시온을 건설하는 일은 어느 모로 보나 실질적인 작업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론적인 신앙은 진정으로 훌륭한 면이 거의 없고 별로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론상으로만 시온이나 예루살렘의 — 상상으로만 — 유산을 상속 받는 것은 유산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이며 유익하게 유산을 상속 받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권리를 공식적으로 획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이론적인 신앙에 만족하며 안주하는 대신, 그것을 실질적이고 자기 정화적이며 자립적인 것이 되게 합시다. 또한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사랑을 유지하고, 우리를 인도하도록 주어진 모든 교훈과 율법과 말씀에 따라 생활합시다.(*브리감 영 설교집*, 12쪽)

만일 오늘 제게 주어진 일에 유의한 다음 내일 그것이 뜻하는 바를 행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면, 영원한 세계가 다가왔을 때 저는 그 곳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힘닿는 데까지 일들을 맡아할 수 없다면, 그와 같은 것을 위한 준비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렇게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1쪽)

우리들이 이곳에 존재하는 근본 목적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동식물을 잘 보살펴 이것들이 번성하도록 세상의 여러 요소들을 잘 보살피며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5쪽)

생명은 우리들을 위한 것이고, 복천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오늘 그것을 받는 것이 우리들 임무입니다. 오늘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을 택하고, 오늘의 행동을 반성하며, 혹시라도 회개할 요소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해 회개하고, 기도를 합시다. 그런 다음 아침까지 편하게 누워 잠을 청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가운데 일어나서, 새로운 기분으로 하루의 일을 시작하며,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께 하루를 온전히 드리는 생활을 하도록 노력합시다.(*브리감 영 설교집*, 16쪽)

우리 자신과 가족을 돌보는 임무를 행하기 위해 실질적이며 의미있게 복음을 적용함

저는 이 백성들을 자립적이 되게 하고, 가난하고 다리를 절며 앞을 못보는 사람들을 보살피게 하며, 세상에 여러 길이 있다는 것을 모르며 인간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일반 상식을 이해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부터 사람들을 끌어올리게 하는 길을 택하게 하려고 늘 노력했습니다. 또한 그들을 세계 도처에서 한데 모아, 지적이고 검소하며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고 애썼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6쪽)

저는 현재는 물론 과거 오랫 동안 사람들에게 만일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누구도 돌봐

주지 않을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를 놓지 않으면 기아와 추위로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또한 여름 땡볕이 무방비 상태의 우리 몸에 바로 내리쬐는 고통을 겪을지도 모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6~17쪽)

어떤 사람들이 칭찬을 받아야 합니까? 스스로를 돌보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주님이 위대하신 자비로써 자신들을 돌보시도록 늘 기대하는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나무를 심지 않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리라고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쟁기로 땅을 갈아 씨를 뿌려 수확을 하려는 수고도 없이, 주님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 자신의 잘못, 불순종, 낭비 등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도록 간구해서도 안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93쪽)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실 것인가를 찾아보는 대신에,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알아봅시다.(*브리감 영 설교집*, 293쪽)

이 계곡의 토양이 기름지고 땅에 씨를 뿌릴 수 있을 때는, 하나님께 우리를 먹여 주시도록 간구하거나 우리를 쫓아다니며 먹을 빵 한 덩어리만 달라고 구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주님이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자급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럴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도와주시도록 간구해도 충분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94쪽)

지상에서의 자신의 삶도 부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영생을 얻으려는 지혜가 있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존재, 즉 육신과 영을 허락하셨으며, 여러분을 능력으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로써 모든 지식, 지혜, 이해력 그리고 모든 영광과 영생에 대한 기초를 놓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처자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할 능력을 얻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하늘의 것들과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브리감 영 설교집*, 13쪽)

이 도시와 기타 지역에 있는 상호부조회 회원의 자격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여건을 돌아보십시오. 그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보고서, 어디로 가서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지를 결정한 뒤, 좋은 일을 하고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데 이를 활용하십시오.(*주간 데져렛 뉴스*, 1869년 8월 17일, 3쪽)

학습을 위한 제언

우리는 배우는 원리에 따라 생활할 때 복음 안에서 교훈에 교훈을 받아가며 조금씩 개인적으로 성장함

- 왜 주님은 복음 진리를 "오늘 조금 내일 조금씩" 가르치시는가?(이사야서 28:9~10, 니파이이서 28:30; 교리와 성약 98:12 참조) 좀더 많은 복음 진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앨마서 12:9~11 참조) 우리가 준비된 이상으로 복음 진리를 받는다면 어

떠한 일이 생길까?

- 왜 때때로 복음 원리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그 원리를 배우는 데 필요한가?(요한복음 7:17; 교리와 성약 93:28 참조)
-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제한하는가?

복음의 영적인 측면과 세상적인 측면은 한 가지임

- 영 대관장은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서로 나누는 것은 없다"고 말씀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함으로써 일상적 과제를 행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받아야 하는가?

복음은 일상 생활의 안내자—실질적인 종교임

- 영 대관장은 성도들이 복음 원리를 실질적인 방법으로 일상 생활에 적용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렇다면 복음은 우리의 가족, 직업, 기타 임무에 관한 결정에 어떻게 작용해야만 할까?
- 여러분은 영 대관장이 어떤 뜻으로 "우리 종교에 충실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어딘가에 가서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어떻게 하면 어디를 가든 우리 종교에 충실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좀더 영에 의지하여 어디에 있든지 우리 종교에 충실하게 될 수 있을까?
- 선교 사업과 교회 봉사 외에 우리가 지역 사회에서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 자신과 가족을 돌보는 임무를 행하기 위해 실질적이며 의미있게 복음을 적용함

- 영 대관장은 우리 자신을 돌보는 책임에 대해 무엇이라고 가르쳤는가? 어떻게 하면 영적, 교육적,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인 면에서 자립할 수 있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 자립이 복음의 중요한 요소인 이유는 무엇인가?
- 영 대관장은 우리 스스로를 부양하는 미덕과 필요성에 대해 말씀했다.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 어떠한 축복이 주어지는가? 영 대관장은 어떠한 상황에서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우리를 도우"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한 화가의 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에 대한 상상도.
브리감 영 대관장은 요셉 스미스가 신회의 진정한 본질을 계시 받음으로써
"하늘을 붙들어 지상으로 가져왔다"고 말했다.(*브리감 영 설교집*, 458쪽)

제 4 장

신회를 알고 존중함

신회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신으로 구성된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말일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쳤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한때 다른 행성에서 한 인간으로 사셨던 분으로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을 다 겪으신" 분이었다며 이렇게 가르쳤다. "그분은 경험을 하셨고, 고통도 당하시고 기쁨도 누리셨으므로 수고와 고통과 이 필멸의 존재의 생과 사에 관하여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2쪽*)

브리감 영의 가르침

하나님 아버지는 무수한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며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우리가 알 수 있고 경배 드릴 수 있는 분이심

우리는 한 하나님, 한 중보자, 한 성신을 믿는다.[신앙개조 제1조 참조] 우리는 하나님이 육체나 몸의 기관이나 열정이나 속성이 없다고는 한 순간도 믿을 수 없습니다. 속성은 조직된 인격체를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든 속성은 표현되며 조직된 존재로부터 나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3쪽)

일부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고 믿게 하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개체인 것과 같이 그분은 인격체로서 어디에나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3~24쪽)

하나님은 같은 순간에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편의 작가는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시편 139:7]라고 썼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영향력을 통해서, 그분의 통치, 영, 권세를 통해서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 곁에 임하시지만, 육신을 가지신 인격체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형상에 따라 지어졌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4쪽)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앎으로써 그분에 대한 신뢰감이 감소될 것이라는 생각을 믿거나 품지만, 제게 있어서는 지구나 하늘의 어떠한 원리나 존재를 안다는 것 자체로도 그것의 진정한 의미가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저에게 더욱 더 소중해지고 귀해지며, 그분에 대한 저의 느낌이 더욱 숭고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8쪽)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벗이 되게 합시다. [야고보서 2:23 참조](*브리감 영 설교집*, 18쪽)

이 사업을 인도하는 위대한 건축가이시고, 관리자, 감독자이시며, 통치자이시고 절대 권력자이신 그분은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다른 세계에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존재할 수 있는 또 다른 상태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을 이미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경험을 하셨고 고통을 당하셨고 기쁨을 누리셨기 때문에, 수고와 고통과 이 필멸의 존재의 생과 사에 관하여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모든 것을 겪으셨고, 그분의 왕관과 승영을 받으셨고, 이 왕국의 열쇠와 권세를 지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통치하시고, 모든 사람들과 성도들과 죄인들 사이에서 그분의 뜻을 행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영광을 받고 그분의 사업을 완수하도록 왕국과 국가와 제국들 사이에서 그분의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맺게 하십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2쪽)

그분은 이 작은 행성을 밝혀 주는 수많은 세상과 우리가 볼 수 없는 무수한 세상을 다스립니다. 게다가 그분은 그분이 창조하신 가장 미세한 것까지도 보고 계십니다. 이러한 창조물의 단 하나라도 그분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지혜와 권세로써 창조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0쪽)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지구 위에 지금까지 존재했거나, 또는 앞으로 존재할 모든 영을 낳으셨습니다.[히브리서 12:9 참조] 그들은 영원한 세상에서 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이 그분의 권세와 지혜로 인간의 필멸의 육체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영으로 창조되었고, 후에 육체를 입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4쪽)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고 경전에 쓰여 있습니다. [니파이일서 9:6](*브리감 영 설교집*, 20쪽)

그분은 우주의 최고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의 꾸짖음으로 바다가 말랐고 강이 황야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시며 뼘으로 하늘을 재시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으시며 천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언덕들을 달아 보십니다. 그에게는 열방이 물통의 한 방울 물같고, 그분은 섬들을 아주 작은 물건처럼 들어올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분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대리인인 성신의 권세로 모든 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모든 산자들이 마음에 품은 뜻이나 생각을 모두 아십니다. 그분은 만유의 아버지이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십니다.[에베소서 4:6 참조] 그분은 이 지구에 속한 만물을 다 아시며, 이 지구와 같은 무수한 행성에 관하여 모든 것을 아십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9쪽)

그분은 이 물질 세계에 형태와 움직임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늘을 밝게 하는 크고 작은 빛을 만들었습니다. 만물에게 율법으로 운행되는 때와 계절을 주셨고, 그들의 천체를 설계하셨습니다. 그분은 공중과 수중에 많은 생명체를 창조하셨고, 기어다니는 동물이 언덕과 평원을 덮게 하셨고, 인간에게 그분의 창조물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8쪽)

지구 위의 인간이든, 영의 세계의 영이든,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천사이든, 혹은 지옥의

악마들 가운데 가장 열등한 존재이든, 누가 예지를 소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모든 예지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가 우리의 것을 받은 똑같은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지, 빛, 권세, 지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야고보서 1:17 참조] 인간에게 참으로 충실하고 유익한 과학과 예술에서의 모든 발견은, 인식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의 직접적인 계시에 의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궁극적인 승리와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지구를 구원하기 위한 길을 준비할 목적으로 주어졌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8쪽)

많은 사람들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미가 지구 위의 모래알의 수를 세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제한된 예지를 가진 인간이 영원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찾고, 영원의 베일을 걷고, 태초부터 철학자들이 추구해 왔던 신비들을 밝히려는 것은 각다귀가 인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인간의 기원을 규명하려는 것 만큼이나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받은 소명과 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신들의 기원에 관하여 의문을 갖기 보다, 지금까지 존재해 왔고, 지금 존재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존재할 영원의 깊이를 탐구하려고 노력하기 보다, 무한한 우주의 경계를 알아내려고 노력하기 보다, 그들이 지금 그들의 존재의 목적과, 그들 상호의 유익과 구원에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그들이 지닌 예지를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합시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물을 알고 철저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지식을 얻기 위하여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함으로써, 그리고 가장 좋은 책들을 주의 깊게 공부함으로써 이곳에서의 그들의 존재의 목적을 익히 알기 위하여 탐구하게 합시다.(*브리감 영 설교집*, 25쪽)

육신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회개하는 모든 자의 죄를 대속하셨음

말일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절정의 시기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분의 사업을 완수하셨고, 형벌을 당하셨고, 자신을 바쳐서 인간의 원죄의 빚을 갚으셨고, 부활하신 뒤 승천하여 아버지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물 아래로 내려오신 것처럼 만물 위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올라 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 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 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사도행전 1:10~11]라고 그에 대하여 쓰여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6쪽)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아들에 집중되어 있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집중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6쪽)

말일성도를 비롯해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다른 사람들, 그리고 성신을 부인하

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가 아는 것과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마태복음 16:13~19 참조] 기적은 인간에게 이 지식을 알려 주지는 못하지만, 부합하는 증거로서 믿는 자를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들이 유대인에게 알려져 있지만, 그들은 그를 인간의 속임자, 귀신 들린 자로서 사형에 처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8쪽)

예수님은 이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책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과 의식을 소개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9쪽)

그분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지상에서 기적을 베풀었고 훌륭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요한복음 5:19 참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요한복음 5:30 참조]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과 뜻으로부터 온 것 이외에는 제시하지도, 명령하지도, 행동하지도, 혹은 그분의 능력이나 영광이나 이 지상에서의 자신의 사명을 나타내 보이시지도 않았다는 결론에 우리는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6쪽)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요한복음 10:30]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한 몸이라고요? 아닙니다.… 저와 제 아들 아이가 한 몸이 아닌 것처럼 그분들도 한 몸이 아닙니다. 제 아들이 저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제가 그에게 걸어가라고 지정해 준 길을 걸어간다면, 그의 신앙이 제 신앙과 같다면, 그의 목적이 저의 목적과 같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업을 하신 것 같이 제 아들이 제가 하는 일을 따라서 한다면, 그렇다면 저의 아들은 경전에 입각한 의미에서 저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8쪽)

주님은 우리에게 한 계획을 밝혀주셨는데, 그 계획에 의하면 우리는 이 생과 내세에서 모두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루셨고,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형제와 자매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데려가기 위해 이 지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 사업에서 그분의 역할을 수행하셨고, 우리가 우리의 몫을 하는 것만이 남아 있습니다. 인간의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이 소홀히 하셨던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수행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들과 관계없이,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에 의해서 성취되어 왔습니다.… 그는 이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고, 만인이 저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며 만인이 저의 혀로 저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모사아야서 27:31 참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실 때가 올 것입니다.[빌립보서 2:10~11 참조] 구세주로서가 아니라 추방자로서 간주된 바로 그 인물, 그는 두 명의 도둑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조롱과 멸시를 받은 그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만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으로써 환영 받게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7)

성신은 진리를 증거하는 영적 존재임

우리가 믿는 성신은 신회의 구성원…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가 셋이 되는 것이 아니고 셋이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들, 성신은 만사에서 마음이 하나가 됨으로써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입니다. 성신은 우리가 믿는 세 분 중의 하나인데 그의 직분은 진리를 사랑하는 아담의 가족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저는 세 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말을 오해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성신은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육체를 가진 인물이라고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신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모든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영향력을 두루 퍼뜨리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0쪽)

성신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가 될 때까지, 진리를 기억하게 하고, 새로운 진리를 우리에게 밝혀 주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방향을 인도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자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6쪽)

제가 모을 수 있는 최상의 지식에 의거해서, 저는 인간이 눈으로 보는 것으로 속임을 당할 수 있고, 귀로 듣는 것으로 속임을 당할 수 있고, 손으로 만지는 것으로 속임을 당할 수 있다는, 소위 육체의 모든 감각 기관으로 속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속임을 당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에게 미치는 영이고 하나님의 권세인 성신의 작용입니다. 성신은 인간에게 하늘의 일을 가르칩니다. 성신은 삶의 방식에서 인간을 인도합니다. 인간이 인간의 계획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권하는 열쇠를 성신은 인간에게 줍니다. 지금 살고 있는 성도들과 시온에 모인 성도들뿐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와 그의 사도들, 그리고 요셉 스미스가 가르치는 종교 생활을 하는 모든 국가, 모든 대륙, 모든 섬의 사람들, 그들은 또한 똑같은 간증을 전하고, 그들의 눈은 하나님의 영으로 밝아졌고,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이며, 그들의 마음이 기뻐졌고, 그들은 똑같이 느끼고 이해했으며, 주님의 교리에 관하여 그들 사이에 논쟁이 없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1쪽)

성신의 권세가 없다면, 사람은 자칫하면 의무의 곧은 길에서 이탈하여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칫 후회할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할 경우에도, 그들은 그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1쪽)

저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매 순간마다 성신과 함께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도움으로 생활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1쪽)

학습을 위한 제언

하나님 아버지는 무수한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며,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우리가 알 수 있고 경배 드릴 수 있는 분이심

- 브리감 영 대관장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쳤는가?(또한 요한복음 17:3 참조) 어떤 사람을 아는 것이 그 사람과의 우리의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영향력이 "같은 순간에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이 창조하신 가장 미세한 것"까지도 염려하신다는 예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하나님도 한때는 인간이셨고 발전하여 신이 되셨다는 교리는 이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교리이다. 하나님도 그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인간의 "수고와 고통에 관하여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는가?
- 브리감 영 대관장은 과학과 예술의 모든 유익하고 충실한 발견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로 받았다"고 가르쳤다. 이러한 분야에서의 영감 받은 진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업이 전진하도록 도왔는가?
- 브리감 영 대관장은 "인간의 자녀들의 부름과 의무"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더 잘 이해하고 지상에서의 우리의 목적을 더 잘 알 수 있는가? 어디에서 우리는 그러한 이해력을 찾을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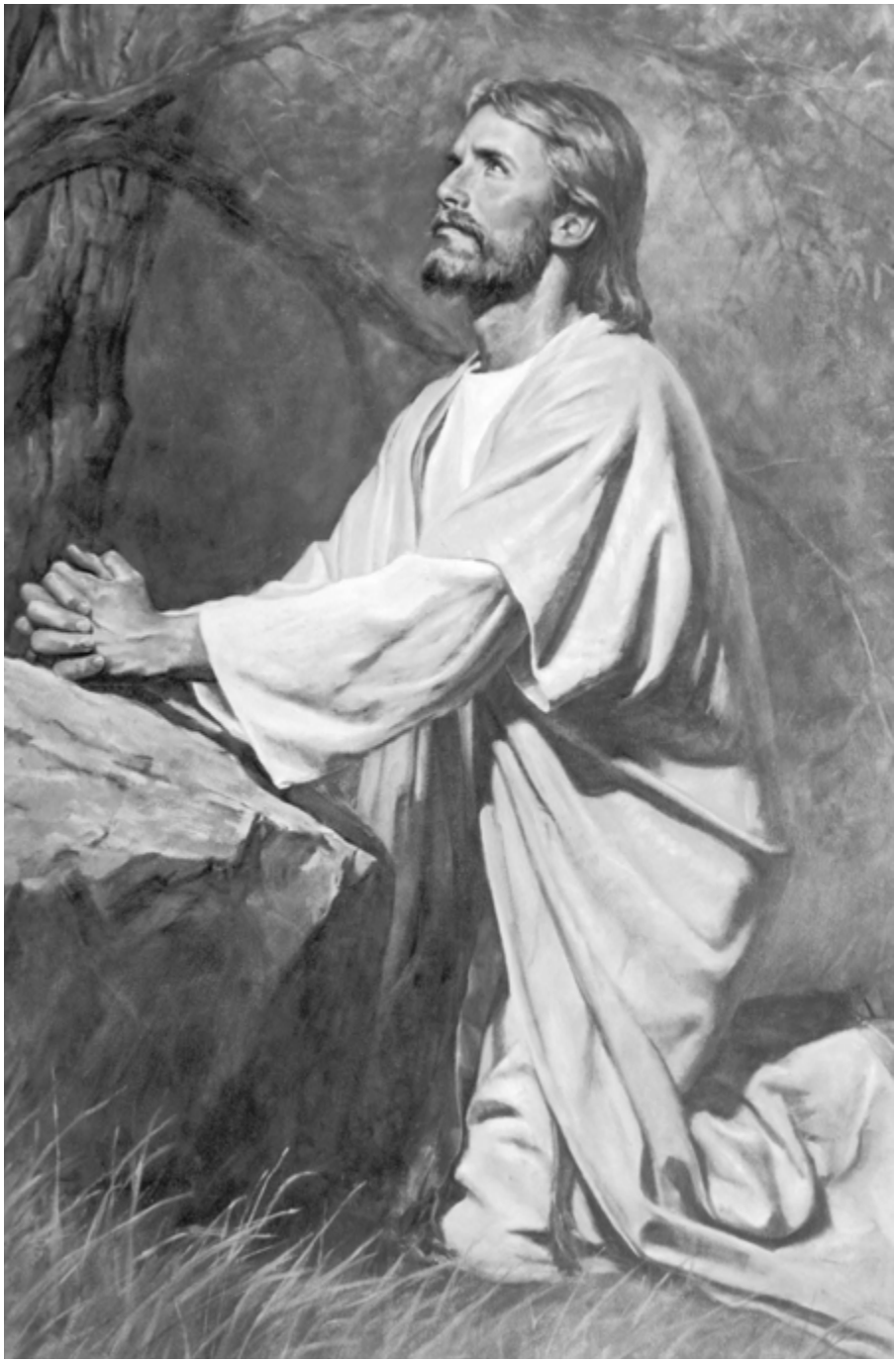
육신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회개하는 모든 자의 죄를 대속하셨음

- 브리감 영 대관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지상에서의 그분의 사명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쳤는가?
- 복음의 첫번째 원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신앙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는가?(야곱서 4:10~11과 모로나이서 7:41~42 참조)
- 모든 말일성도는 사도 베드로가 알았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다고 브리감 영 대관장은 가르쳤다.(마태복음 16:13~19 참조) 어떻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는가? 왜 기적은 기적 그 자체의 힘으로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도록 충분한 지식을 제공하지 못하는가? 왜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그렇게 중요한가?

- 예수님이 지구에 사는 거주자들에게 성역을 베풀었을 때 그는 누구의 심부름을 수행하셨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서 우리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우리 자신의 임무를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 브리감 영 대관장은 언젠가 "만인이 저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며 만인이 저의 혀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할"(모사이야서 27:31; 또한 빌립보서 2:9~11 참조) 것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켰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사는 것은 그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무엇이 여러분에게 헌신적인 제자로서 복음 생활을 할 힘을 주는가?

성신은 진리를 증거하는 영적 존재임

- 성신의 임무는 무엇인가? 성신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활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 성신이라는 개체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의 개체와 어떻게 다른가?(교리와 성약 130:22 참조) 어떻게 해서 신회를 구성하는 세 분이 하나가 되는가?
- 어떠한 방법으로 성신은 아버지와 아들의 대리인이 되는가?
-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성신의 능력을 증거하는 어떠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



브리검 영 대관장은 "그들은 그 영광이 어떠한 왕국의 것이든
그 영광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속죄의 값을 치르고 그 영광을
획득하셨기 때문에 획득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가르쳤다.(*브리검 영 설교집*, 30쪽)

제 5 장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아들임

속죄에 관하여 브리감 영 대관장은 그의 아들 중 하나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우리의 주, 구세주가 하신 무한한 속죄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다 — 우리에게 — 주어진 신성한 계명을 지키겠다는 우리의 성약과 의무를 충실하게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단지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다."(브리감 영 서신, 259쪽) 브리감 영 대관장은 구원에 대한 모든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가르쳤다.

브리감 영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에게 무한한 속죄를 베풀어 주셨음

말일성도는 구세주의 속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인간의 가족의 구속에 관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깊이 그 교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여 그들이 그 교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데저렛 뉴스: 주 2회 간행물*, 1874년 8월 18일, 2쪽)

예수님은 그의 영의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혹은 이 세상 나라들이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때 백성들이 이 지구를 통치할 영화로운 부활과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해 하나님에게로 들어 올려질 도덕적인 규범을 소개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는 또한 그의 피를 속죄의 제단에 흘릴 세상의 구세주로서 자신을 소개하고, 모든 믿는 이들에게 삶의 방식을 보여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데저렛 뉴스: 주 2회 간행물*, 1862년 8월 13일, 1쪽)

요셉 [스미스]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고 세상의 구세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구원 받을 이름이 하늘에서도 하늘 아래에서도 주어지지 아니하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역에 의해서, 그리고 갈보리산에서 그가 치룬 속죄로서만 구원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또한 우리에게 구세주께서는 모든 계명, 의식, 그리고 그의 왕국에 속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며,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의 복음에서 약속된 모든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데저렛 뉴스: 주 2회 간행물* 1862년 10월 22일, 1쪽)

구세주의 속죄가 없어지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단번에 기독교 세계가 갖고 있는

구원이라는 희망이 사라지고, 그들의 신앙의 토대가 없어지고, 그들이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질 때 하나님이 유대 국가와 이방인과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신 모든 계시가 무가치해 질 것이고, 단번에 우리에게서 모든 희망이 사라집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7쪽)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속죄라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왕국을 상속 받을 수 있음

말일성도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진리라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믿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그리고 대리인으로서 받는 죄사함을 위한 침례를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그들은 그 영광이 어떠한 왕국의 것이든 그 영광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속죄의 값을 치르고 그 영광을 획득하셨기 때문에 획득할 것을 믿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0쪽)

예수님은 태초에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돌아가시기로 예임되어 있었고, 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7쪽)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속죄(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저는 그것을 확고히 믿습니다.)에 관하여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은사를 받든지 안받든지, 그는 모든 빚을 갚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짓말하고, 훔치고, 거짓 증거하는 등 죄를 계속해서 짓는다면, 우리는 그 죄를 회개하고 버려서 그리스도가 치루신 피의 값을 완전히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속죄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회개를 해야 합니다. 잘못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잘못하기를 그칩시다. 어떠한 종류이든간에, 더 이상 죄를 지으며 살지 마십시오. 받은 계시에 따라 매일 생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십시오. 우리가 결코 우리 종교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아야 함을 기억하여야 합니다—결코, 결코! 우리 종교의 영향력과 권능 밖으로 나가서는 안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56~157쪽)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구속하심으로써 지옥으로 던져질 멸망의 자식들을 제외한 아담의 모든 아들과 딸들을 구속하셨습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악마의 천사가 되지 않는 모든 사람은 구속되어 영광의 왕국을 상속 받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82쪽)

여러분이 알게 될 그대로,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나셨습니다. 에녹, 엘리야, 모세, 그리고 이 지구 상에 살았던 어떤 다른 사람도, 아무리 엄격하고 충실하게 살았다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천사에 의해서 무덤으로부터 불리워져 나갈 때까지 결코 부활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번째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부활의 주이십니다. 부활의 영광을 받은 후에 지구 상에 사신 첫번째 분이십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74쪽)

이것은 그에게 결코 기적이 아닙니다. 그는 생과 사의 문제를 그의 권능 안에 가지고 있

었습니다. 그는 그의 생명을 버릴 권세도 가지고 있었고 다시 얻을 권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구세주의 역사와 신약에 기록된 사도의 말씀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이 권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그것을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의 유산이고, 그는 그의 생명을 버린 다음, 다시 얻을 권세를 가졌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40~341쪽)

그리스도의 속죄는 신앙을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심

암흑과 죄가 이 지구 상에 거할 수 있게 허락되었습니다. 인간은 영원으로부터 세워진 계획에 따라 금단의 열매를 먹었고 그래서 인간이 악의 원리와 악의 권세와 접촉하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그들은 쓴 것과 단 것, 선과 악을 알게 되었고, 의로움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이 끊임없이 빛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61쪽)

이 복음은 인간의 가족 모두를 구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가 정한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대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조건을 받아들여야만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7~8쪽)

성도가 되기 위하여서는 참으로 개인적으로 자신 안에 있는 모든 나쁜 영향력과 모든 사악한 욕구가 근절되고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 요구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91쪽)

이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속죄, 아버지의 자비, 천사의 동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할 것과 그 외에,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나와 해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없애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할 것이 요구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60쪽)

학습을 위한 제언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에게 무한한 속죄를 베풀어 주셨음

- 왜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셔서 그의 영의 왕국을 "세우셨는가"? 또 다른 어떤 이유로 그는 이 지상에 오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삶의 방식을 보여 주셨는가?" 우리는 어떻게 우리 가족에게 "그들의 영을 신성하게 승화시키고… 하나님에게로 승영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가?
-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의 면전에서 구원을 받고 그의 복음에서 약속된 모든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 브리감 영 대관장의 말씀에 따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다면 기독교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또한 니파이이서 9:6~9 참조)

- 속죄의 또 다른 면에 대하여 배우기 위하여 다음의 성구들을 복습한다. 모사이야서 13:28, 32~35; 앨마서 7:11~12; 34:9~12; 모로나이 8:8~12; 교리와 성약 88:6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속죄라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왕국을 상속 받을 수 있음

-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돌아가시도록 전세에서 예임되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육체적, 영적으로 분리되는 것으로부터 구제하신다. 이것이 속죄라고 불리운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그리스도의 속죄가 "여러분이 그 은사를 받든지 말든지, 모든 빚을 갚으셨다"고 말했다.(힐라맨서 14:15~18 참조) 우리는 어떻게 속죄로부터 완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 브리감 영 대관장은 예수님이 그의 속죄의 대가로 그 은혜를 샀기 때문에 어떤 왕국에서라도 어떤 영광에든지 도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는 어떻게 아담의 빚을 갚으셨는가? 그는 어떻게 우리의 빚을 갚으셨는가?(또한 니파이이서 2:8~10 참조)
- 어떻게 예수님은 "부활의 주"가 되실 수 있었는가?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속죄라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왕국을 상속 받을 수 있음

- 왜 "어둠과 죄가 이 지상에 있도록 허가 되었는가?" 아담의 타락의 결과는 무엇인가?(니파이서 2:22~25 참조)
- 속죄는 우리의 구속주에 의해 "정해진" 조건에 따라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시켜 준다. 그러한 조건은 무엇인가?(니파이이서 2:26, 교리와 성약 18:44 참조)
- 우리가 "이 세상에서 피하여 해의 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에게 기대되는 것은 무엇인가?

제 6 장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통

브리감 영 대관장은 우리의 "첫째되고 으뜸 가는 의무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영혼에 이르는 교통의 길을 여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사망 직후에 브리감 영 대관장은 요셉이 그를 방문하여 그에게 명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요셉이 우리에게 나아와서 매우 진지하지만 즐거운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겸손하고 충실하여 항상 주님의 영을 간직하면 그것이 그들을 의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하십시오. 작고 조용한 소리에 주의하여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음성이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것이 왕국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모든 교회 회원들에게 그들이 주님의 영을 따른다면,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갈 것이라고 말하십시오."(역사 일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진지하게 주님을 찾을 때 성신을 통해서 개인적인 계시를 받을 특권을 가지고 있다.

브리감 영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임하여 그들을 교화시키고 선과 악을 구별하도록 하심

주님의 영은 세상에 온 모든 사람을 교화시킵니다. 주 예수님의 영의 빛을 조금이라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이 지구 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세상에 온 모든 사람들을 비치고, 모든 사람은 때때로 진리의 영의 빛을 지니고 있습니다.[요한복음 1:9, 8:12; 모로나이 7:16; 교리와 성약 84:46 참조](*브리감 영 설교집*, 32쪽)

저는 아담의 날들로부터 오늘날까지 이 지구 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들에 의해 교화되지 못했거나 가르침을 받지 못했거나 배우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고는 한 순간도 믿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무지한 이방인도 빛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 배운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온전한 정신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칠 주님의 영을 받을 특권을 빼앗겨 왔다고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2쪽)

저는… 신학이든, 과학이든, 예술이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하지 않고 알려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확고히 믿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8쪽)

세상에는 재능이 있는 사람, 위대한 지성을 소유한 사람, 사고하는 힘이 있는 사람, 교묘한 기계 장치에 대한 지식을 지닌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그 분야에서 전문가이지만, 그들은 그

들의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영이 그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제공하지만, 주님의 영은 사람들과 아직 모든 일을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의 영이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3쪽)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그의 영향력이 우주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그의 사자를 통해 그분의 손 안에 모든 사업을 행하였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손으로 지으신 창조물 하나 하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들의 행동, 그들이 애착을 갖고 있는 것, 그들의 생각 등 모든 것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지혜와 권세가 우주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교리와 성약 88:6~13 참조] 그분의 육신이 아니라 그분의 영이 그렇게 합니다. 그는 가르치고, 안내하고, 이 지구의 국가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2쪽)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심

이 백성들은 계시를 믿습니다. 이 백성들은 주님이 하늘에서 말씀해 왔다고 믿었고 또한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요한의 간증에 따라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사자를 보내오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고 또한 믿고 있습니다.[요한계시록 14:6~7 참조](*브리감 영 설교집*, 38쪽)

하나님의 왕국이 이 지구에 세워지고 번영하기 위하여 예언과 계시의 은사가 교회에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흔히 듣습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찬 예언과 계시, 즉 계시의 영은 그들이 구원의 계획을 알고, 그들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인도할 길을 계속 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 각자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8쪽)

주님은 몸소 어디에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그를 대신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그의 대리인이 있습니다. 그의 천사, 그의 사자, 그의 사도와 종들이 그의 이름으로 임명되고 권한을 위임 받습니다. 그래서 그의 종들은 모든 것에서, 가장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될지도 모르는 것에서도 권고하고 명령하며, 그의 성도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안내할 권능을 받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1쪽)

어떤 사람도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권능 없이 이 왕국에서 권세를 얻을 수 없고, 이 왕국에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수 없고, 그의 부름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들에 대한, 그들의 종교에 대한, 혹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조만간에 그들의 신앙을 저버리게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3쪽)

어떤 한 신사가 저에게 어떻게 제가 계시에 의해서 백성들을 인도하는가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저는 계시의 영이 매일 매일 백성들이 그들 자신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의무를 그들 자신에게 명백하게 알려 줄 수 있게 생활하도록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계시를 받기 위하여서는, 백성들의 영이 저의 앞에 있는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한 장의 백지 만큼이나 순수하고 깨끗하게 되도록 생활하여 글을 쓰는 자가 그 위에 어떤 표시를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1쪽)

어떠한 지상의 논쟁도, 어떠한 지상의 이론도 지혜로우신 분의 마음을 열어서 하늘의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계시의 영에 의해서만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고린도전서 2:9~14 참조](*브리감 영 설교집*, 37쪽)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진리의 영이 모든 것을 인도하고, 그 영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이 죄와 진리를, 어둠과 빛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과 하나님의 것을 식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즉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빛의 근원인 하나님에게로 인도할 것이고, 그 곳에 문이 열려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이 빛을 받아 교화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4쪽)

아무도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지 않고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3 참조](*브리감 영 설교집*, 37쪽)

하늘로부터 온 직접적인 계시없이 어떤 사람이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8쪽)

하나님의 계시없이는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우리가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는 이 지구를 누가 창조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7쪽)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영이 한 인간에게 영감을 줄 때, 그의 마음이 열려 이 지구와 지구의 거주자들의 아름다움과 질서와 영광과, 창조물,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과 함께 창조물들을 살게 하신 데 있어서의 창조자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승영과 아버지와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 유일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이곳에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7쪽)

모든 사람들이 받는, 혹은 하늘의, 혹은 땅의 어떤 한 개인이 받는, 하나님의 계시의 모든 부분을 적절히 이해하기 위하여, 사람은 성령이 주는 빛, 즉 식별에 관련된 그러한 일들을 계시해 주시고 마음에 그것들을 알게 해주는 영이 필요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9쪽)

그러나 우리는 계시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지시를 내릴 수 있어 우리의 부모와 교사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할 수 있도록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우리의 가족들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친구와 지구의 모든 주민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디에서 만나든지, 그들에 대한 악의, 분노, 다툼, 증오가 없고, 험담을 하지 않는 생활을 하십시오. 우리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깨끗하게 생활하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36쪽)

만약 여러분이 전능하신 주 하나님으로부터 시현과 계시를 받는다면, 다시 말해서 주님이 여러분 자신에 관하여, 혹은 이 백성에 관하여 계시를 주신다면, 그러나 여러분이 적절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혹은 현재 이 백성에게 알려져서는 안되는 계시이기 때문에, 밝혀서는 안되는 계시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하늘을 닫아 단단히 봉하고 하늘이 여러분에게 잠겨 있는 것 만큼 꼭 잠그고, 무덤 속의 죽은 사람 만큼 비밀을 단단히 지켜야 합니다. 주님은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러한 사람에게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0~41쪽)

예언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방법을 압니까? 계시에 의해서 입니다. 우리는 요셉 스미스가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방법을 압니까? 계시에 의해서 입니다. 우리는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진리를 가르치는 방법을 압니까? 계시에 의해서 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8쪽)

여러분은 어떻게 말일의 사업이 참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직접 오는 계시의 영에 의해서만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 사업이 참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증명했습니까? 여러분에게 임한 계시의 영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은 매일 매일 더 많은 진리를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주님이 주실 때 진리를 더 많이 얻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완전해지고 하나님의 왕국의 더 많은 것들을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여러분의 신앙과 이해력으로 진리를 소중히 간수해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6쪽)

여러분이 여러 해 동안 충실하게 노력할 때, 이 단순한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마음이 의롭고, 여전히 계속 순종하고, 계속 하나님에게 봉사하고, 계속 기도한다면, 계시의 영이 영생을 주는 생명수와 같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9:38, 63:23 참조] 어느 누구라도 기도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이 중요한 의무를 행하는 동안에 어떠한 세상의 여건이라도 여러분을 재촉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분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도록 간구함으로써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축복을 배가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6쪽)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매일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임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모든 의무에 차이를 둔다면, 저는 우리가 하늘에서부터 지구까지, 즉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영혼까지 교통의 길을 열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을 찾는 의무를 최우선으로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길이 그분 앞에 깨끗하고 순수하게 되도록 하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41쪽)

우리가 그분에게 가까이 간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올 것이며, 우리가 그분을 간절히 찾는다면, 우리가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매일 매일 충실하고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을 쏟는다면, 그것은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쉬울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2쪽)

겸손하고, 열렬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 주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바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는 그의 영을 틀림없이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구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영을 갖게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4쪽)

주님은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축복을 받기 위하여 나에게 나아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일성도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의무감에서 기도를 하는 대신에, 기도가 우리에게 부여된 가장 큰 특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생활해야 합니다. 기도의 효력이 없다면, 한

백성으로서 그리고 한 개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브리감 영 설교집*, 43쪽)

말일성도의 의무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만사에서 주님의 손길을 인식하고 그분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2쪽)

우리 모두 일할 때에나 골방에 있을 때에나 청결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불러 간구합시다. 혼자 있거나 여러 사람과 함께 있거나 그들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삶의 방식과 구원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하고, 또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합시다.(*브리감 영 설교집*, 43쪽)

여러분이나 제가 기도하고 싶은 기분인지 어떤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기도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고 싶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4쪽)

교회 회원 중 몇몇 사람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리감 영 형제님, 제가 기도의 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을 때에도 기도하는 것이 저의 의무입니까?" 그렇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마음이 복잡하고 착찹해지며, 근심과 골치거리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쟁기와 도구들이 고장이 나 있고, 그들의 가축들이 길을 잃고 있고, 그래서 수많은 일들이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판자는 우리가 특별히 기도의 영을 갖고 있거나 없거나에 상관없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것이 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오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곳이 기도할 장소이고 바로 지금이 기도할 시간입니다. 즉시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할 기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으라고 저는 말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는 깊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이라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까? 네, 만약 기도가 끝난 후 그가 일어나서 그의 이웃들이 한 악행에 대하여 그들을 저주할 수 있을지라도, 그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입을 열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나 저는 기도의 영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의 의무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5쪽)

만약 악마가 네가 화가 났을 때 너는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할지라도, 악마에게 그것은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말하고 마음의 혼란이 물러가고 평온이 마음에 다시 찾아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45쪽)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기 전에 아내와 자녀를 함께 불러 모으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루종일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유혹과 모든 악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이 지상의 하나님의 왕국에 유익한 어떤 일을 그날에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발걸음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도록 그분에게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할 시간이 있으시지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할 시간이 있으시지요?(*브리감 영 설교집*, 44쪽)

일하러 가기 전에 항상 기도하십시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가장인 아버지는 가족을 불러

모아서 바로 그날 하루종일 그들을 인도할 성신의 안내와 인도를 구하면서 자신과 가족을 만군의 주에게로 바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를 안내하시고,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오늘 하늘에 계신 당신이나 지상의 어떤 사람에게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매일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가 살 마지막 날에 우리는 더 높은 영광을 누릴 준비가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4쪽)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지도 않고 그분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주님에게 결코 간구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종교의 한 가지 특색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나머지 부분을 해주실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3쪽)

저는 기꺼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주님께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3쪽)

제가 그분에게 인생에서의 필요 조건에 관하여, 혹은 제 자신의 진로에 관하여, 또는 친구, 가족, 자녀, 혹은 제가 관리하는 사람들의 진로에 관하여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는데, 그분으로부터 어떠한 응답도 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저의 판단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행한다면, 그분은 반드시 그 일을 받아 주실 것이며, 모든 것에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3쪽)

모든 성도들은 기도할 때, 이 지상에 의로움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를 모른다면, 제가 기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사사로이 기도할 때, 무엇을 간구하여야 할지 모른다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여러분 자신을 맡기고 그분에게 성신의 영감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이 백성을 인도하고, 지상의 그분의 왕국의 일을 지시하여 주시도록 간청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여러분이 있도록 하게 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도록 간구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느끼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45~46쪽)

모든 사람들이 그들 자신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들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때까지 열렬히 기도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무지의 소산인 시기심이 사라질 것이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이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느낌은 하늘의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아버지와 다르기를 결코 원치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하나였고 하나이십니다. 어떤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 인도된다면, 그들은 그들의 충실함을 통하여 그 사실을 깨달을 것이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얼굴을 마주 바라보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2쪽)

학습을 위한 제언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임하여 그들을 교화시키고 선과 악을 구별하도록 하심

- 그리스도의 빛이나 주님의 영의 작용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성경사전[영문] "그리스도의

빛", 725쪽; 교리와 성약 88:6~13; 모로나이서 7:12~19 참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교화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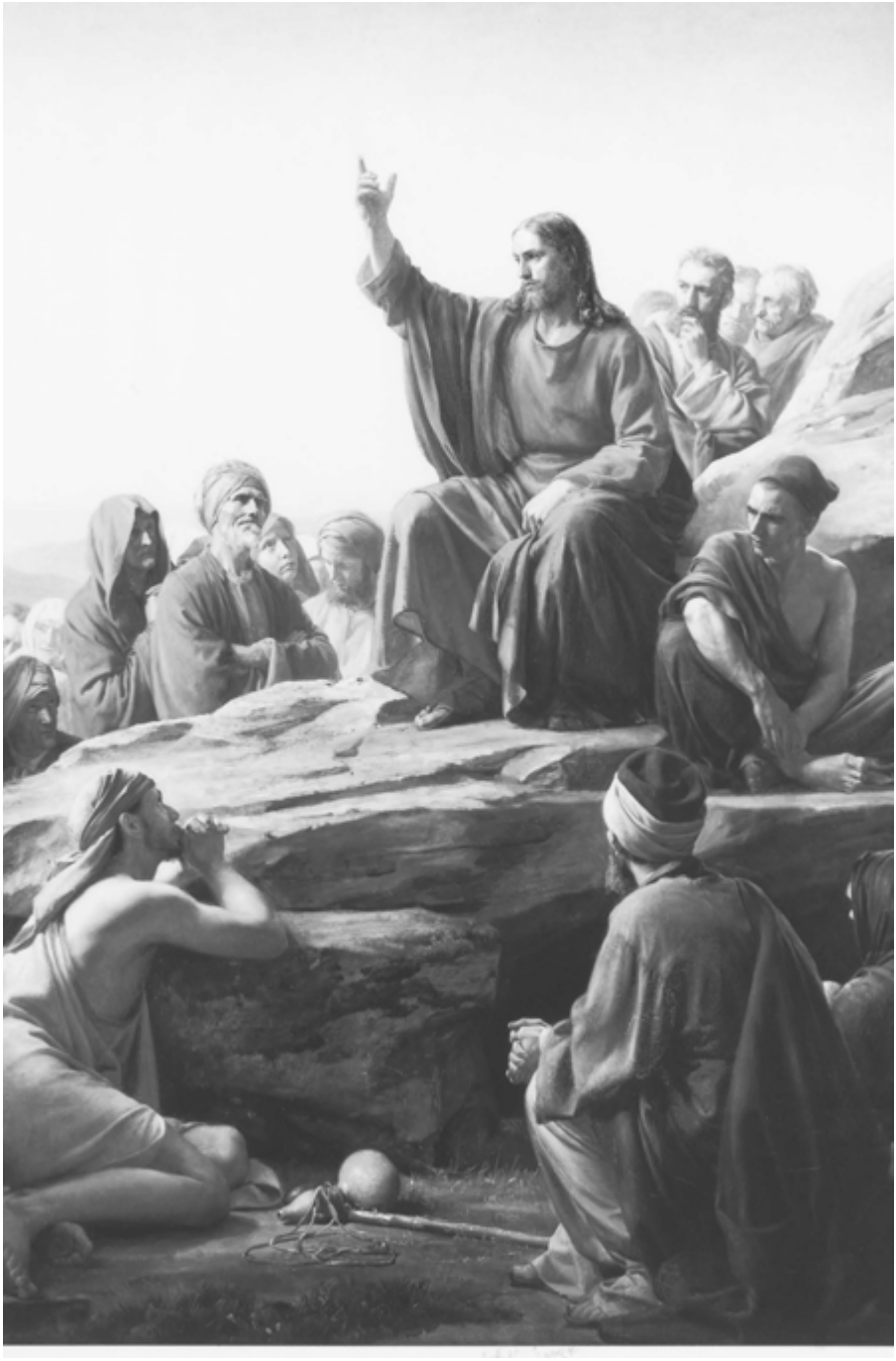
- 우리는 "정의와 불의"의 영원한 표준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영 대관장의 말씀에 따르면, 주님의 빛이 어떠한 방법으로 여전히 "그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는가?
- 주님은 우주를 채우는 어떠한 권능에 의해서 그의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가?(사도행전 17:27 참조)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해서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신다는 어떤 증거를 여러분은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심

- 주님으로부터 교회 전체를 위한 계시를 받을 권능은 누구에게 있는가?(교리와 성약 21:4~5, 28:2, 43:3~4, 90:3~5 참조) 누가 "살아 계신 예언자"인가? 살아 계신 예언자에 관하여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은 무엇인가?
- 브리감 영 대관장은 구원의 가르침은 계시에 의해서 알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주님은 개인으로서의 우리에게 어떤 계시를 주시겠는가?(니파이이서 32:5; 민수기 11:29 참조)
- 브리감 영 대관장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도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떤 조건 하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매일 매일" 계시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
- 기도, 순종, 봉사에서 오랜 동안 충실하게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기도로 여러분의 생활 속으로 성령을 끌어들인 어떤 경험을 했는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매일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임

- 브리감 영 대관장의 말씀에 따르면,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의 "첫째되고 으뜸되는" 의무는 무엇인가?
- 어떠한 조건 하에서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는 성령"을 받게 될 수 있는가?(니파이삼서 19:9, 24 참조)
- 브리감 영 대관장은 기도에 관하여 어떤 구체적인 권고를 하였는가?
- 기도할 기분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브리감 영 대관장은 어떤 강한 훈계를 했는가?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의 집에 있는 왕국의 즐거움에 나아올 때까지
사업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56쪽)

제 7 장

구원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예언자로서 브리감 영 대관장은 "최고 통치자(브리감 영 설교집, 49쪽)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그분의 자녀들이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이 위대한 "행복의 계획"(앨마서 42:16)에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각자 필멸의 이 세상에 오기 전에 그분의 면전에서 살았으며, 이 세상에 와서 죽어야 할 몸을 얻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선택의 특권을 받은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충실함에 따라 영광의 왕국으로 우리를 데려다 주실 것이다.

브리감 영의 가르침

하나님께서는 빛과 진리와 행복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발전하기를 원하심

여러분과 제가 소유하고 있는 이 생은 영원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닌 모든 권세와 재능으로 축복 받은 것들, 소멸되고, 떠나가고, 끝나는 것들, 그런 후에는 우리의 감정과 생활에 적응시키려 애쓰는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일지라도 이에 대해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오직 계시의 영에 의해서만이 이해가 가능합니다.[고린도전서 2:11 참조] 주 예수의 계시에 의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과거에 존재했던 것들, 우리에게 알려 져 온 것들, 이 생에서 현재 우리가 누리는 것들, 미래에 있을 것들이며[교리와 성약 93:24 참조], 완전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내세의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이 생에서 필요한 경험을 주려고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모든 것들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7쪽)

우리가 우리의 창조와 그 목적을 이해할 수 있다면 즉, 하나님께서 물질을 조직하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을 보듯 그것들을 볼 수 있게 하신 의도와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만큼 진정한 철학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물질들이 파괴될 수 없이 조직되고 분리되어야 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은 조직되어 예지 안에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며 더 많은 예지를 소유하고 그 예지 안에서 증식이 계속되어야 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조직된 물질이 동물과 식물이 되고 예지들이 되는 원리를 배울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지들을 만들어 내시고 승영시키기 위해 물질에 원리를 보급시키며 행하시고 작업하심을 판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지들을 승영시키려는 목적은 바로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영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 준 만족감은 참으로 그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교리와 성약 131:7 참조](*브리감 영 설교집*, 49쪽)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임

어느 누구도 자신의 존재를 조직할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위대한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입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시자이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사도행전 17:29 참조](*브리감 영 설교집*, 50쪽)

사물은 처음에 영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실제로 영들을 낳으셨으며[교리와 성약 76:24 참조], 영들은 태어나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 후 아버지께서는 그 분 자신이 육체로 창조되셨던 것과 똑같이, 이 지구를 조직하고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을 함께 하여 지상에 거할 육체를 창조하는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의 육체는 이 지상의 거친 물질들로 조직되었던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50쪽)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대의 불행은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한 브룩크린의 저명한 [헨리 와드] 비쳐 씨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대의 행운이 이 지상에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생과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그 후라야 죽음을 극복하고 죄와 부정한 것들을 극복하며 생명과 구원의 모든 원리를 저들의 일상 생활에 구체화시켜 신들과 더불어 영원히 살 특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51쪽)

이 육체 속에 거하는 영들은 창조될 때는 하늘의 것들처럼 순수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육체에 관한 한, 오염된 장막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시편 51:5] 이 성구는 혹자들의 마음에 악행의 교리를 심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한 생각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며 모두가 다 죄많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선이나 건전함이 있을 수 없으며 그들 마음속엔 영적인 건강함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옳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부에서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을 통해 우리 육체 속에 뿌려진 죄악의 씨앗이나 악의 세력과 싸워야만 합니다. 이들 육체 속에 거하고 있는 순수한 영들은 이러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과 주님께서는 그 분의 권한으로 인간의 영들에게 영향을 줄 진리의 영을 항상 보내어 인간의 육체에 주요 영향력을 행사하며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51~52쪽)

우리는 자유롭게 선과 악, 승영과 불행을 선택할 수 있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지구를 구속하겠는가, 누가 내려가서 지구와 거기 속한 모든 것을 위해 희생하겠는가?" 장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리고는 덧붙였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나 "아침의 아들, 루시퍼"인 둘째가 말했습니다. "보소서. 내가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지상에 사는 즉 언제나 지상에 살게 되는 아담과 이브의 모든 아들과 딸들을 구속하겠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다. 그들은 이 권세를 행사할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의 왕국에서의 승영을 얻기 위해서는 모두가 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야 한다. 그들은 나의 자녀들이다. 나의 자녀들은 내가 가진 속성을 가지며 자신들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야 한다. 네가 그들 모두를 구속할 책임을 지겠다면 불의와 부패 속에서 그들을 구해 내어야 한다."[아브라함서 3:23~28; 모세서 4:1~4 참조](*브리감 영 설교집*, 53~54쪽)

천국에서 모반이 일어났을 때 의로움으로 줄과 추를 삼는 심판이 있었으며 악마는 추방되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54쪽)

무리들을 어떻게 이 지상에 보낼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 천국에서는 분열이 일어났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54쪽)

그러나 그들[모반한 영들]은 천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 곳에서 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상의 거민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예지를 발전시키며 악을 극복하고 영원히 승영에 이를, 영원을 다스리는 원리를 배울 기회를 발전시킬 특권을 가지는 모든 것에 반대되는 일을 하며 인간의 자녀들을 시험하도록 지상에 내던져져야 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54쪽)

악이 무엇인지, 죄가, 슬픔이, 불행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승영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그러한 원리들을 모르고서는 승영을 이해하거나 감상하거나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55쪽)

여러분은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시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이 지상에 살거나 우리 앞서 살았거나 앞으로 살 사람들 중 주님께서 모르시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께서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알고 계시며, 모세나 바로나 아브라함, 멜기세덱과 방주를 만들어 홍수로부터 남은 자들을 구할 선택된 그릇이었던 노아를 주시하셨듯이 언제나 그들에게 눈을 떼지 않으실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55쪽)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다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모든 피조물의 의지는 공기처럼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예임설을 믿는지 질문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보다 더 강하게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예임 되셨으며, 세상의 구세주로서의 그의 사명이 하늘에서 지명되었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대한 순종을 택하든 거절하든 그분의 자유에 맡겨졌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기를 거절했었더라면 그분은 멸망의 자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영생의 원리를 택하거나 거절하거나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일어날 많은 일들을 명하시고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국가나 개인에 대한 큰 축복을 명하실 때는 어떤 조건을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국가나 개인에게 엄청

난 역병이나 파괴를 명하실 때는 그 국가나 백성이 사악함을 버리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고 명을 받았지만 니느웨 주민들의 회개로 인해 그 명은 멈추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의를 택하든 악을 택하든 자유롭게 행하게 하시면서 통치하시며 우리는 나중에 우리의 업적대로 심판 받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55쪽)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충실함에 따라 우리를영광의 왕국으로 데리고 가실 것임

이것은 구원의 계획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의 전당에 있는 왕국의 즐거움에 나아올 때까지 사업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곳에는 지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업적과 충실함에 알맞은 많은 왕국과 많은 영광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의 왕국의 율법을 지켜 그 영광을 받을 것이며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에,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에 머무르게 될 것이며 아무 영광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56쪽)

기독교인이거나 이교도이거나 간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현재 살아 있는 사람들처럼 정직하고 고결하며 강직하게 살다 가셨습니다. 기독교계는 말합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바 되었지만 주님께서는 최소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를 구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계시하셨고 우리가 전하는 구원의 계획은 가장 낮은 자와 가장 타락한 아담의 잃어버린 종족에까지 미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60~61쪽)

학습을 위한 제언

하나님께서는 빛과 진리와 행복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발전하기를 원하심

- "여러분과 내가 소유하고 있는 삶이 영원을 위한" 것인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생이 영원한 것임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인가?
- 세상을 조직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 브리감 영 대관장은 인생의 목적이 "더 많은 예지를 소유하고 그 예지 안에서 증식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예지나 빛과 진리 안에서 발전하는 것(교리와 성약 93:36, 130:19 참조)과 영원한 행복을 얻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이 사실을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임

- 여러분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임을 알 때에 어떤 느낌이 드는가?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 오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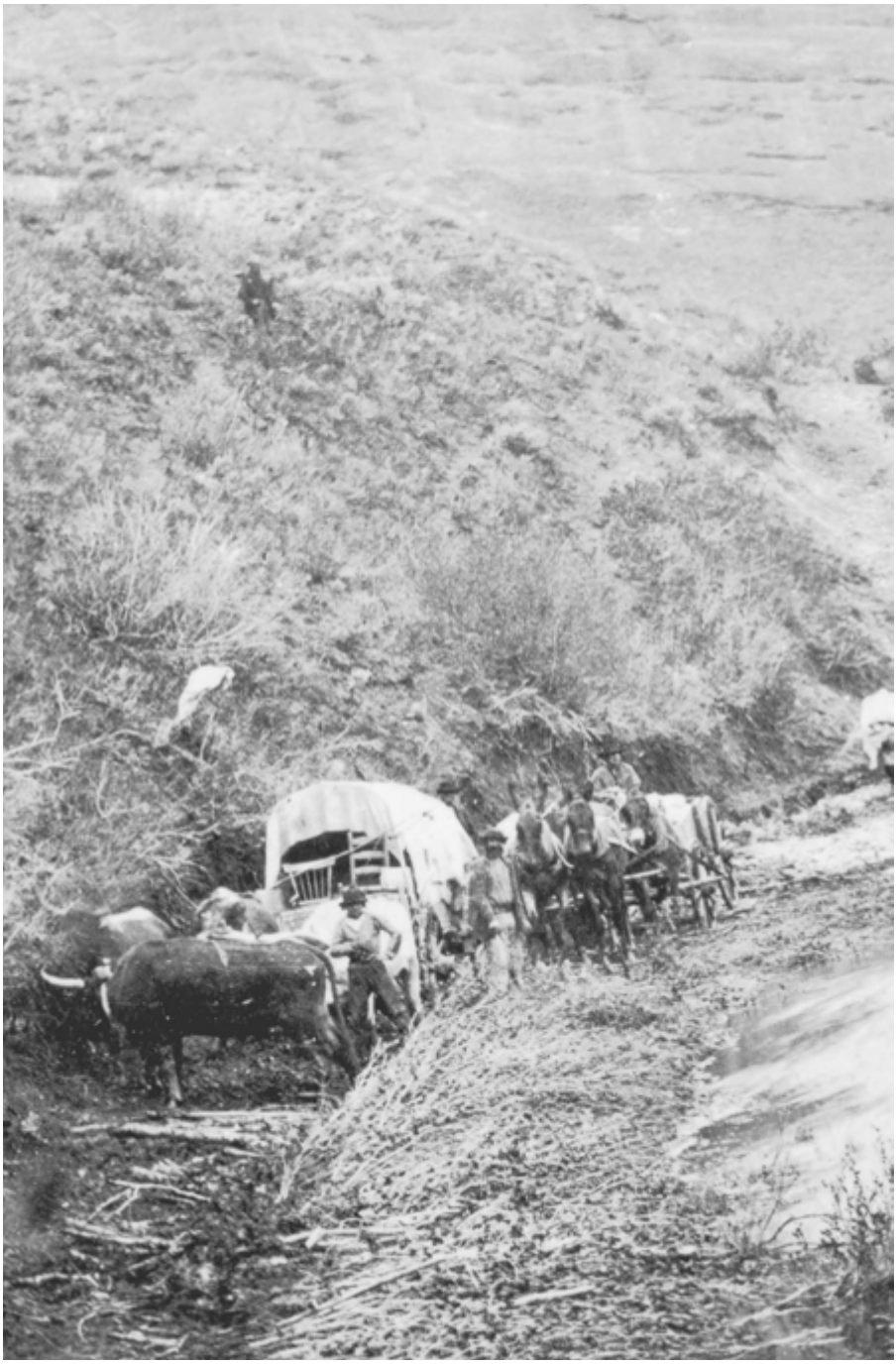
-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대의 행운"이 왜 "이 지상에 태어나는 것"인가? 교리와 성약 93편 33절을 읽고 깊이 생각해 본다. 떨어질 수 없게 결합되어 있는 여러분의 영과 육과 관련된 축복은 무엇인가?
- 브리감 영 대관장의 말씀에 따르면 인간의 타락의 결과는 무엇인가? 타락에 관한 어떤 잘못된 결론이 혹자들에게 알려져 있는가? 우리들 "내부에서 일어나는 선과 악의 투쟁"에서 진리의 영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진리의 영이 더 우세한 힘을 발휘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자유롭게 선과 악, 승영과 불행을 선택할 수 있음

- 브리감 영 대관장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승영을 얻는 데 있어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행하겠다는 루시퍼의 제안을 왜 거절하셨는가?(니파이이서 2:15~16 참조)
- 주님께서는 왜 "천국의 분열"을 허락하셨는가? 아버지의 면전에서 추방된 자들의 "일"은 무엇인가? 왜 거기엔 "모든 것의 반대"가 있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승영을 얻기 위해 "악이 무엇이며, 죄와 슬픔과 불행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만 하는가?(니파이이서 2:11 참조)
- 여러분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이루고 여러분의 최고 능력까지 발전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면서 어떻게 일을 미리 정해 놓거나 명하실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충실함에 따라 우리를 영광의 왕국으로 데리고 가실 것임

-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업은 언제 끝나는가?
-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멸망의 자식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아버지의 전당에 있는 왕국의 즐거움으로 나아 오게 된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또한 그 곳에는 많은 왕국과 영광들이 있다고 언급하셨다. "왜 그 곳에는 그렇게 많은 왕국들이 있는가? 어떤 왕국에 가게 될지를 누가 결정하는가?"
- 구세주의 대속은 어떻게 "정직하고 고결하며 강직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장 낮고 가장 타락한 자들에까지 미치는가?



초기의 성도들은 브리감 영 대관장의 지시 아래 시온에 모이기 위해서
고향과 조국을 떠나면서 주님에 대한 위대한 신앙을 나타내 보였다.

제 8 장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브리감 영 대관장의 생애에서 동기 부여를 해주는 강력한 힘이었다. 그는 구세주에 대한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혹독한 고난과 시련을 견더낼 수 있었다. 그는 이 신앙을 통해 많은 임무를 수행해 갔으며, 시온의 진영이 겪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던 커틀랜드에서의 어려운 시기 동안 복음과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대해 굳건하고도 진실된 태도를 취할 수 있었다. 그는 이 신앙을 통해 성도들을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인도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웠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교회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모두 충실해야 합니다. 그저 눈으로 보고 지나듯이 해서는 안됩니다. 성신의 빛을 누리기 위해서는 실제로 신앙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것을 게을리 하게 되면 세상의 영이 그들에게서 소유권을 탈취해 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아무런 득도 얻지 못하고 어둠, 곧 영적인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말게 됩니다."(주간 데져렛 뉴스, 1955년 4월 25일, 2쪽)

브리감 영의 가르침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복음의 첫째되는 원리이며 성령의 권세로서만이 이해될 수 있음

우리가 전도하는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권세이며 그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성경에서 설명된 바로 그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분임을 믿어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53쪽)

여러분은 주님과 그분의 복음이 주목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말하거나, 그분에게 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53쪽)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를 옳게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성령으로 교화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원리들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구원의 축복을 즐겨야만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52쪽)

모든 사람이 받은 진리의 조각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우리들은 이 진리들을 받아 모든 사물에 대한 지식을 얻고 신들과 하나님의 아들까지 될 수 있는 더 나은 영광을 향해 계속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의 영광에 있을 사람들입니다. 이들

1860년 초기 솔트레이크시티의 짐마차 사진

은 주님께서 그들의 순종을 보고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고 이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거절하지 않았으며 예수님과 하나님과 천사들이 참되신 분임을 깨달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인간 가족의 구원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52쪽)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믿음과 순종과 의로운 업적을 통해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사임

여러분이 복음의 원리를 믿고 하나님의 은사인 신앙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신앙에 신앙을 더하여 더 큰 신앙을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그의 피조물들에게 은사로서 신앙을 부여해 주시지만 피조물들은 참되게든 거짓으로든, 복음을 믿는 특권을 천부적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54쪽)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이며 하나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든 아니든 간에 믿음 없이는 삶도 예지도 존재도 없습니다. 믿음의 원리 없이 사는 것은 숨쉬지 않고 살아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신앙이라 부르는 하나님의 권능을 얻기 위해서는 진리를 믿고 진리에 따르며 진리를 실천해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53쪽)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의 기본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54쪽)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 계시를 읽거나 여러분에 관한 주님의 뜻을 듣고자 할 때, 마음에 의심이 가득하여서는 절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55쪽)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에게 그분의 비밀스런 섭리를 항상 내 보이시지는 않으시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 주시지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충실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충실하면 승리의 왕관을 씌워 주겠다고 하신 그분의 약속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56쪽)

인간은 매사를 철학적으로 연구하는 습관이 있어 소위 인간의 이성이라는데 의존한다면 실수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갖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입장에 처해질 때는 자신들의 부름에 대한 신앙과 성실함을 유지한다면 시련을 겪은 자가 행복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54쪽)

의로운 업적은 신앙을 보여 주며 강화시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가를 설명하자면 제가 쓰는 용어로 무조건적인 확신이라 말해야 합니다. 저는 저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그 신앙은 저의 행함과 일치합니다. 저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55쪽)

사람들이 매사에 선행을 할 수만 있다면 필요시에 신앙을 갖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54쪽)

마음속에 믿음이 생길 때 선행이 따르게 되며 선행은 순수한 신앙심을 증대시킬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56쪽)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 후에는 주님께서 맡으셔서 충실한 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시며 나머지 것들을 처리하실 것이라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55쪽)

삶을 지탱할 어떤 수단도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진 사람은 자신을 먹이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여 혹 까마귀가 고기를 물어 굶주린 자에게 떨어뜨려 줄지도 모를 특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권능 내에 두신 수단으로도 제 자신을 부양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례적인 방법으로 그분의 섭리를 행사하셔서 저의 부족을 충분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도울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55쪽)

주님의 영을 지닌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때때로 자신들이 진정한 성도인지 아닌지, 미심쩍어 하며 자기 신뢰 부족으로 우연찮게 의심을 받기도 합니다. 이건 쓸 데 없는 의심

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걸으며, 계명을 지키고 의식을 준수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바치려는 마음으로 더 나은 왕국으로 가기 위한 모든 것을 행하는 한 그들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영이 증거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55쪽)

말일성도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받기에 합당하게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하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산다면 이 지구상에서 그들이 간구하여 받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부와 영예와 영광과 권세를 부어 주시며, 사도와 예언자를 통해 하신 약속에 따른 모든 것을 소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56쪽)

학습을 위한 제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복음의 첫째되는 원리이며 성령의 권세로서만이 이해될 수 있음

-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가?
- 브리감 영 대관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 어떤 특별한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가?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왜 복음의 첫째되는 원리인가?(모로나이서 7:33~34; 신앙개조 제4조 참조) 브리감 영 대관장의 말씀에 따르면, 복음의 첫째되는 원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 "인간 가족의 구원을 위해 일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믿음과 순종과 의로운 업적을 통해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사임

-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 "신앙에 신앙을" 더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앨마서 32:26~28 참조)
- 왜 우리는 신앙을 얻기 위해 진리를 믿고 지키며 실천해야 하는가?(앨마서 32:21 참조)
- 브리감 영 대관장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가?(이더서 12:6~7 참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이는가?(이더서 3:11~12 참조)
- 어떻게 신앙을 의심하게 되며 인간의 이성은 어떻게 신앙에 방해가 되는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어떻게 스스로 알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우리 자신들에 대한 감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브리감 영 대관장은 "자신들의 부름에 대한 신앙과 성실함을 유지한다면 시련을 겪은 자가 행복하다"고 말씀하셨다. 어려운 시기에도 어떻게 신앙과 성실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신앙과 성실함은 어떻게 역경을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가?(힐라맨서 12:3; 앨마서 32:6 참조)

의로운 업적은 신앙을 보여 주고 강화시킴

- 브리감 영 대관장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 브리감 영 대관장은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가?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바치며 더 나은 왕국에 가기 위한 모든 것을 행하려는"자들에게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
- 브리감 영 대관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하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사는"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신앙과 영감과 함께 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겠는가?(교리와 성약 46:30; 힐라맨서 10:5 참조)

예수 그리스도를 침례 주고 있는 침례 요한.
침례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요한복음 3:5 참조)

제 9 장

회개와 침례

1832년 4월의 어느 눈 내리는 추운 날에 브리감 영은 교회에 개종한지 4개월 된 엘리저 밀러에 의해 자신의 물방앗간의 차디찬 물에서 침례 받았다. 이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겸손하고 어린이 같은 영을 느꼈으며 저의 죄가 용서 받았다는 간증을 갖게 되었습니다."(브리감 영의 역사 기록, 1801~1844년, 2~3쪽) 그는, 침례 받는 물 자체는 죄를 씻어낼 "아무런 효력"도 없지만(브리감 영 설교집, 159쪽) 먼저 회개하고 영광스런 침례로 개종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일 때 권능 가진 자들에 의해 행해지는 침례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효력을 가진다고 가르쳤다.

브리감 영의 가르침

우리의 이해가 증진됨에 따라 우리의 의무와 책임도 증진됨

죄란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나쁜 일을 하는 데 있으며, 이로서 주님의 정하신 시기에 그 응분의 벌을 받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56쪽)

지금 우리가 아는 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활이 향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지하여 잘못 행하고 그것이 잘못임을 알 때 즉각 또 영원히 그 잘못을 그만두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56쪽)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대속을 우리의 삶에 유효하게 할 수 있음

만약 제가 어떤 사람에게 해를 입혔다면 그 사람에게 고백하고 잘못한 점을 시정해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58쪽)

저는 공표되어야 할 것은 분명하고 정직하게 드러내며 지켜져야 할 것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공적인 것은 공공연하게 말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으면 그들에게 고백하십시오. 가족이나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면 그들에게 가서 고백하시고,… 개인에게 죄를 지었으면 스스로 그 사람에게 가서 고백하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158쪽)

사람이 진실로 마음을 다해 회개하고, 복음의 율법을 통하여 알려진 필요 사항을 준수

함으로서 자신의 죄를 진정 회개했음을 하늘에 증명해 보인다면 구원을 얻을 자격을 가지게 되며 어떤 권세도 그들에게 가는 훌륭한 영을 가로막지 못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56쪽)

우리들의 옛 관습 중에는 흉악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처형대 위에서는 구원에 이를 회개를 한다고 하여 사형이 집행될 때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하나님, 축복하소서. 그는 이제 하늘 나라로 갔으니 주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구속한 그 자비로 영광의 관을 받게 하소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오 제발 저로 하여금 제가 개종한 날 밤에 죽음의 장막을 건너게 하소서." 이는 기독교 사회가 받아들인, 허울 좋은 잘못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57쪽)

침례는 우리의 구원에 필수적인 의식임

우리 말일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간증과 이 말일에 주님께서 주신 계시에 따라 죄 사유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 받음을 믿습니다. 유아들은 순수하여 마음의 어떤 슬픔도 없고, 회개하고 용서 받을 어떤 죄도 없으며 따라서 죄 사유함을 위해 침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지을 경우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할 만큼 가르침을 받아야만 합니다. 유아는 이를 모르며 알 수가 없고 선과 악을 깊이 생각할 만큼 자라지 못했으며 부모나 교사나 성직자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해로운 것인지를 말해도 들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해될 때까지는 책임을 지울 수 없으며 따라서 죄 사유함을 위해 침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모로나이서 8장 참조](*브리감 영 설교집*, 158~159쪽)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는 예언자나 사도나 축복사의 입술로 전하지 않은 의식은 없습니다. 있다면 무효입니다. 모든 의식과 계명과 요구 사항은 인간 가족의 구원을 위해 필요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52쪽)

만일 여러분이 출생한 이래 지금까지 의로웠으며 세상에 알려진 죄와 범법을 범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침례를 받으십시오. 만일 여러분에게 회개할 죄가 없다면, 여러분의 거짓 이론을 버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159쪽)

모든 말일성도들은 이 교회에 들어올 때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을 맺습니다. 이들은 악마의 왕국과 이 세상의 왕국을 지지하며 신봉하는 걸 그만두겠다고 서약합니다. 그들은 다른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왕국을 지지하겠다는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을 맺습니다. 그들은 하늘과 땅 앞에서 가장 엄숙한 맹세를 하며 사악함과 거짓 대신에 진리와 의를 지지하며 이 세상의 왕국 대신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겠다는 것을 자신의 구원을 걸고 맹세하게 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60쪽)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애정과 대의를 아무리 크게 공언한다 해도 하나님 왕국의 시민이 되기 전에는 우리는 왕국의 특권과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 아들의 복음이 요구하는 바를 준수해야 합

1875년 쉬브위츠 인디언 커 투스를 침례하고 있는 데니얼 디 맥아더.
같은 날 그 부족의 130명도 침례 받았다.

니다.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죄를 회개하였으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증거하는 성령을 가졌으며,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도 그들을 사랑했건만, 그런 그들은 더 이상 이 왕국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필수 요건을 받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왕국에 이르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52~153쪽)

여러분은 자신을 침례 줄 권세도, 자신을 부활시킬 권세도 없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여러분을 먼저 침례 주고 이 권능으로 여러분이 성임 되기까지는 다른 사람의 죄 사유함을 위해 합당하게 침례 줄 수가 없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60쪽)

물 그 자체가 죄를 씻어낼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침례 물 속에 잠겨 땅속에 매장되는 것과 같이 매장된 다음 다시 태어나듯 물에서 일어나며, 진지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할 때 죄는 씻기어 지게 됩니다."[교리와 성약 128:12~13 참조] 물 그 자체가 죄를 씻어 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서 죄의 얼룩을 지워 버리게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59쪽)

학습을 위한 제언

우리의 이해가 증진됨에 따라 우리의 의무와 책임도 증진됨

- 브리감 영 대관장은 죄를 어떻게 정의했는가?(야고보서 4:17 참조)
- 브리감 영 대관장은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을 증진시킬 때 우리의 책임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셨는가?(니파이이서 9:25~27 참조)
-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앨마서 34:33 참조) 이것은 지식과 의무와 책임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대속을 우리의 삶에 유효하게 할 수 있음

- 진정한 회개의 결과는 무엇인가? 복음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왜 회개에 필요한 부분인가?
- 영 대관장은 임종시의 회개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침례는 우리의 구원에 필수적인 의식임

- 그리스도에게 나아옴에 있어서 침례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모로나이서 8:25~26 참조)
- 브리감 영 대관장은 침례 받아야 할 사람과 침례 받지 않아야 할 사람에 대해 어떻게 가르쳤는가? 책임이 없는 자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것이 왜 부적합한가?(모로나이서 8:9~14 참조) 브리감 영 대관장은 그들은 죄 없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 브리감 영 대관장은 침례를 포함한 복음의 모든 의식들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하다고 가르치셨다. 복음의 의식들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축복했는가?
- 브리감 영 대관장은 "모든 말일성도들은 이 교회에 들어올 때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을 맺는다"고 가르치셨다. 침례 받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겠다고 서약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가?(모사이야서 18:8~10 참조)
- 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만으로는 주님의 왕국의 문에 들어가기에 충분치 않는가?
- 침례를 배풀기 위해서 왜 "이 권능에 성임"되어야 하는가?

- 브리감 영 대관장의 말씀에 따르면 침례의 의미와 상징은 무엇인가?(로마서 6:3~6, 11; 모세서 6:58~60; 요한일서 5:7~8 참조) 브리감 영 대관장은 "물 그 자체로는 죄를 씻어 낼 어떤 효력도 [없다]"고 설명하셨다. 우리는 무엇으로 죄를 씻어 깨끗이 하겠는가?

영 대관장은 성신의 은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알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준다."고 가르쳤다.(*브리검 영 설교집*, 160쪽)

제 10 장

성신의 영향력

브리감 영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대중 앞에서 애기할만한 웅변술도, 재능도 없이 단지 '몰몬경이 참되며 요셉 스미스가 주님의 예언자'라는 말만 할 수 있는 사람을 볼 때, 저는 성신의 권세로,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이 저의 이해와 빛과 영광과 불멸을 제 앞에 밝히 나타내 보여 주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이런 것들로 둘러싸이고 채워져서 그 사람의 간증이 진실함을 스스로 알게 된다고 말씀했다.(주간 데져렛 뉴스, 1854년 2월 9일 4쪽) 브리감 영 대관장은 성령이 우리의 충실함에 따라 주어지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우리를 완전으로 이끌 수 있는 "아버지의 특별한 은사"(브리감 영 설교집, 160쪽) 라고 가르치셨다.

브리감 영의 가르침

성신은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충실함에 따라 얻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사임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져야 하며 성신에 의해 교화되어져야 하고, 계시를 받도록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하여 구원의 축복을 즐겨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52쪽)

책임질 연령에 이르게 되자마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늘의 법도이며 여러분과 제가 말할 수 없는 기원이며 시작도 없이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는 간단한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침례 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영원한 순수성의 전형적인 본질이 있습니다. 물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죄 사유함을 위해 침례 받은 다음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 안수를 받으십시오. 그런 다음 진리의 영, 성령을 받으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159쪽)

신약과 몰몬경에서는, 복음을 전달 받을 때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죄 사유를 위해 침례를 받고, 안수에 의해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은사이며 그분의 일을 대신 하는 성령에 대해 배우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한 영감뿐 아니라 천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도들이 마음을 연다면 영원한 것들에 대한 시현도 볼 수 있도록 예지를 주십니다. 참된 교리가 나타날 때는 비록 그 교리들이 청중들에게 새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원리들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떠올릴 수 있을 만큼 이해하기 쉽고 자연스러운 것들입니다. 이는 각 사람 속에 있는 예지의 영에 대한 진리의 영향력에서 비롯됩니다.[교리와 성약 6:15 참조] 하늘에서 오는 영향력은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60쪽)

복음의 은사는 믿는 자의 신앙을 강화시키기 위해 주어집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61쪽)

우리는 하나님의 재량과 지혜와 우리의 충실함에 따라 성령의 은사를 받을 자격을 갖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은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한도 내에서 모든 현명한 자유의지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지식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대행자로 인간의 아들, 딸들을 방문하도록 위임을 받습니다. 이 지구에 속한 모든 예지들은 같은 근원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60~161쪽)

우리는 성신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행함으로써 온전하게 될 수 있음

제가 알기로는, 신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른다면 우리 모든 남녀들은 성령의 영역 내에 들어가 현재와 미래와 과거에 있어 왔던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여러 직분과 능력에 따라 하늘의 것들, 지상의 것들, 땅 아래 있는 것들, 시간의 것들과 영원의 것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61쪽)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원한다면 이를 얻으십시오. 이는 교회와 하나님 왕국의 여러 다른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갖는 특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그리고 주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계시될 때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의 의무요 특권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의무임을 말씀드립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63쪽)

그런 다음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지상을 위해 지명하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 대로 사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15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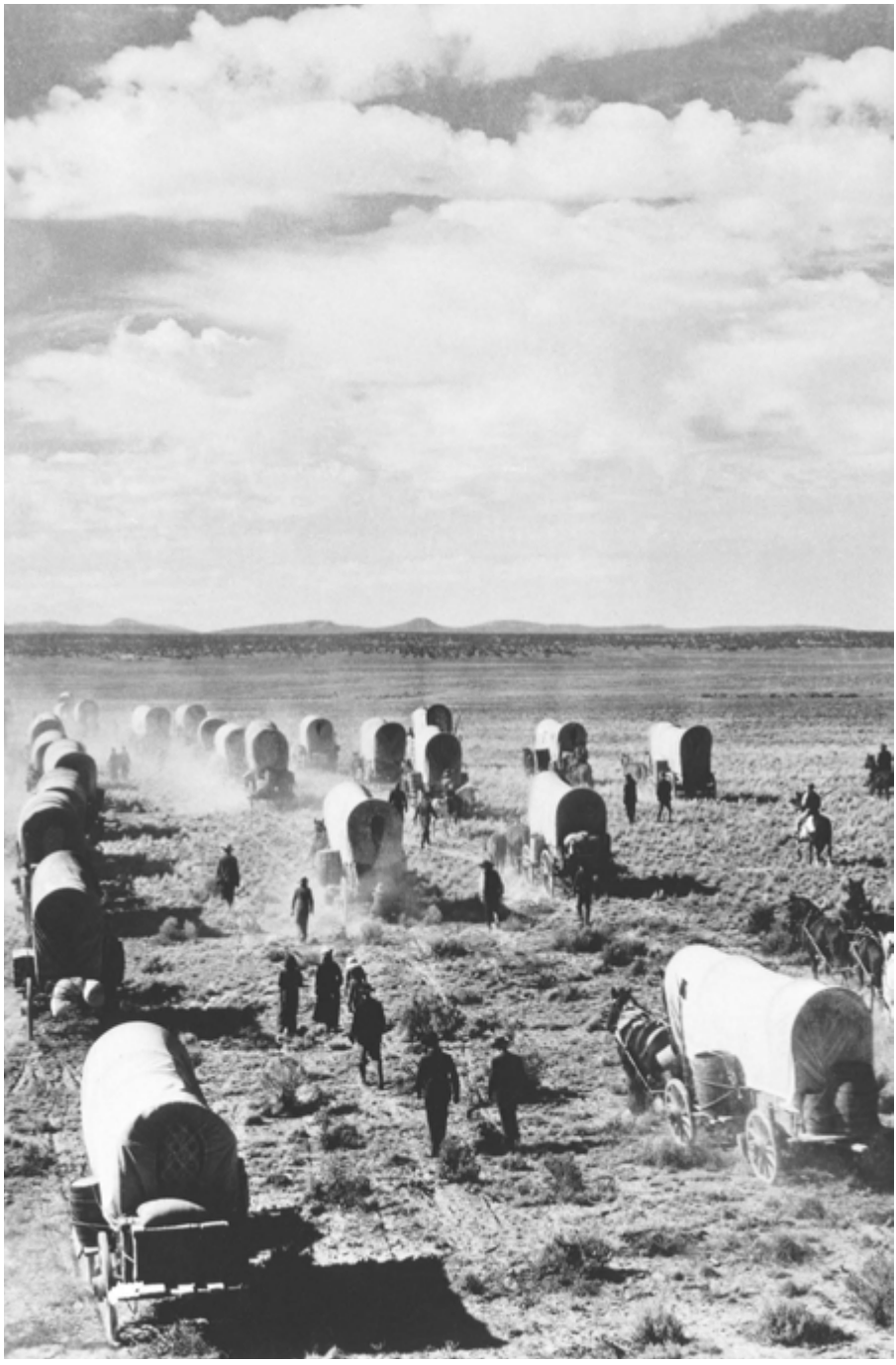
학습을 위한 제언

성신은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충실함에 따라 얻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사임

-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왜 그러한가?(이사야서 55:8~9 참조)
- 브리감 영 대관장의 말씀에 따르면 "복음이 전해 질 때" 사람들은 무엇을 배우는가? 복음을 배움으로서 오는 이 축복들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었는가?
- 여러분의 생활에서 성신의 역할은 무엇인가? 성령의 영향력은 왜 새로운 교리들이 낯설지 않도록 해주는가? 여러분의 느낌과 생각과 직관이 자신의 마음에서 온 것인지, 성신으로부터 온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영 대관장에 따르면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성신의 은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성신의 영향력이 없이 생활하거나 불경스런 지식의 영향 아래에서 생활하는 것은 어떤 위험이 있는가?
- 영 대관장은 성신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는가? 그러한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가? 일단 이 지식을 얻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가?

우리는 성신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행함으로써 온전하게 될 수 있음

-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왜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가? 성신의 속삭임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들을 구하고 따를 때 어떤 축복을 받는가?
-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일상 생활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고 따르는 데 성신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는가?(니파이일서 22:2; 니파이이서 32:2~3 참조)



초기의 개척자들은 시온으로 집합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여 포장마차로 여행을 했다.

제 11 장

순종하는 생활을 결심함

브리감 영 대관장은 수천 명의 성도들이 시온으로 이주하는 것을 진두 지휘하였다. 지친 가축과 기운찬 가축이 멍에를 같이 메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세밀한 지시도 종종 하였다. 그러는 한편, 그는 또한 성도들에게 활기에 찬 자립심을 보이며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을 격려하기도 했다. 그는 이런 권고의 말씀을 하였다. "이 사업을 기꺼이 받아들여 시온으로 모이는 사람들은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시온을 건설하며 시온의 구속을 돕는 하나님 사업을 진척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이 사업에 열정을 쏟을 때…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자원에 의존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힘과 자립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주님의 사자, 220~221쪽) 브리감 영 대관장은 또 이렇게 가르쳤다. "주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전적인 희생은 바로 우리가 자신의 성약을 엄격히 지키는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25쪽)*

브리감 영의 가르침

우리는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를 피할 수는 없음

모든 이성적 존재들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선택한 것에 따라 그 구원 받기도 하고 저주 받기도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62쪽)

사람들이 그들 앞에 상대되는 원리가 존재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이 생은 시험 기간이 될 수 없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행사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선과 악의 원리와 빛과 암흑의 원리, 그리고 진실, 덕행, 성스러움과… 부도덕, 사악함, 부패를 실제로 경험으로 알거나 이해하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브리감 영 설교집*, 66쪽)

사람은 스스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그 행동의 결과를 좌우할 수는 없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63쪽)

지상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내부에 자신을 구하기도하고 파멸시킬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67쪽)

자유의지에는 지켜야 할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사물, 모든 생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이 법칙을 범해서는 안됩니다. 인간은 생명과 사망 어느 한 쪽을 선택하여야 합니다.(힐라맨서 14:31 참조) 사망을 선택할 경우, 그는 언젠가는 자신의 생명이

단축되었으며 자유의지는 율법을 거스리면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63쪽)

옛날에 에서가 자기의 장자 상속권을 팔았듯이 사람은 자유의지라고 하는 자신의 생득권을 자기 마음 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득권을 처분한 후에는 다시는 그것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상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의인과 죄인의 차이, 영생과 사망의 차이,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이런 것입니다. 즉, 승영한 사람들은 그들의 특권에 한계가 없고 그들의 축복은 계속됩니다. 그들의 왕국, 보좌, 영토, 주권과 권세에 끝이 없으며 그들은 영원토록 증진합니다. 반면에, 이러한 좋은 제안을 거절하고 주님이 제공한 자비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주님의 면전에서 추방되어 악마의 무리에 속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즉시 그들의 자유의지가 축소되어 자유의지의 활동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63~64쪽)

주님은 아무에게도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또 복음을 받아들인 후 그들이 복음 대로 생활하도록 강요하시지도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64쪽)

주님은 선이든 악이든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는 여전히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62쪽)

먼저 피조물들의 동의가 있은 후에야 창조주께서는 완전하게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신들의 영생에 존재하는 영원한 율법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65쪽)

저는 사람들을 하늘 나라로 몰고 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강제로 하늘 나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예지는 신들의 예지처럼 독자성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강압적으로 끌려 다닐 수 없습니다. 지옥 불을 가르침으로써 모든 인간의 자녀들을 강제로 하늘 나라로 끌고 갈 수 없는 것은 마치 하루살이의 눈 속에 인간의 모든 영혼을 몰아넣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64쪽)

여러분은 여러분이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듯이 옳은 길로 인도되고 있는지 그릇된 길로 인도되고 있는지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모든 원리는 인간의 마음 속에 그 진실성이 저절로 밝혀지게 되어 있으며 진실성의 증거가 없는 일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르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65쪽)

인간이 마음 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의 권리가 박탈 당한다면 이치에 맞는 일일까요?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하여야만 될까요?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자유의지를 남몰래 행사하거나 또는 그릇되게 행사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무릎 꿇고 기도를 할 때 하늘과 땅에 있는 주민들에게 나는 자유로이 태어났으며 하나님과 천사들과 인간들 앞에서 나는 자유롭다고 분명히 말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밖에 나가서 맹세하듯이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느 시점에 가족들을 불러 모아 가족 기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도 내가 자유로운 행위자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초기의 성도들은 1900년에 와이오밍주의 빅 혼 분지에서 정착하라는 예언자의 권고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의 순종을 나타내 보여 주었다. 이 사진에는 그들의 순종이 나타나 있다.

마치 내가 자유로이 도적질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술에 취할 수 있듯이 말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65쪽)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을 때 우리는 과연 노예의 신세가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여러분이나 제가 지상에서 자유롭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만일 누가 나는 기도할 때에는 꼭 맹세하듯이 나의 의지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릇된 원리입니다.… 하늘의 요구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은 마치 열정에 사로잡힐 때 그러 하듯이 자신의 의지를 따르며 자유의지를 행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생명의 율법을 엄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희생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우리의 성약을 철저히 지키고 일심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25쪽)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전능자의 면전에 거할 수 있게 됨

순종은 우리가 익히 생각해 보고 알고 있는 가장 분명하고도, 일상적이며 실제적인 원리 중의 하나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20쪽)

주님께서 직접 어떤 계명을 주실 때 순종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직접 주시지 않은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은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20쪽)

우리가 권고의 말씀에 따를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마치 숨겨질 수 없는 산 위의 밝은 광명이나 촛대 위의 촛불과 같이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19쪽)

만일 여러분이 하늘 아버지의 은총을 받아 이를 누리시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뜻을 행하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223쪽)

하늘에서 하나님이 진리를 말씀하실 때에는 그 내용이 무엇이든 그분의 모든 백성들은 마음이 진리의 영,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 질 때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미하라! 하나님 말씀이 참되오니 저희들은 기쁘게 당신의 말씀을 받겠나이다."(브리감 영 설교집, 219쪽)

저는 형제님들이 하늘에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형제님들의 느낌과 완전히 일치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모든 영혼이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되기를 열망합니다. "이 말씀은 내 안의 영의 맛을 풍기고 나를 기쁘게 해줘요. 그것은 나의 양식이 되고 음료수가 됩니다. 영생의 물의 흐름입니다. 참으로 나의 느낌을 거스르지 않고 나의 느낌과 일치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19쪽)

여러분이 하던 일을 멈추고 언제나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한다면, 저 역시 이 주제에 대한 영의 나타내심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드릴 대답이 없습니다. 저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안다고 할 때 사실은 모르고 있어, 계시의 영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력으로 조언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현명해지고자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19쪽)

하나님 왕국에 있는 사람들은 만일 어떤 주제에 대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모두가 그 주제에 대해 똑같은 조언을 해줄 것입니다. 이럴 때 모든 사람은 한가지 마음을 가지고 한 가지 말을 할 것이며, 완전히 일치된 견해를 보여 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19쪽)

이 백성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과, 우리의 의지와 의향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에 예속시키는 것과는 별개의 일이기 때문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21쪽)

만약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말일성도들이 정치적, 사회적, 재정적인 관심사에 관한 주님의 말씀에 주의를 돌린다면 그들은 어두움의 자식들보다 단연 월등한 지혜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제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 알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문제에 있어 주님의 계시에 바탕을 둔 권고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들의 처지를 개선했던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19~220쪽)

영생과 구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그분이 정하신 원리를 따르는 순종심에 의해 받아들입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어떠한 구원의 방법이나 계획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생각할 수 없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23~224쪽)

하늘의 종교를 지상에 확립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종교를 위해 죽는 것보다는 그 종교의 가르침대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말일성도들 중에는 교회의 가르침대로 성실하게 생활하기보다 종교를 위해 죽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가르침대로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증거는 그들이 진실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기 위해 침례의 율법을 따르고 그런 연후에 매일같이 의로운 사업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보여 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21쪽)

여러분은 사람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참되기 때문에 진리에 순종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리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사랑을 받을 때에 순종하게 되는 법입니다. 진리에 엄격히 순종할 때 만이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면전에 거할 수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20쪽)

사람들을 잘 순종하게 하는 무슨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단지 한 가지가 있을 뿐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장로인 여러분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가도록 전도하는 기술을 터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잘 순종하는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기술은 이것 뿐입니다.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십시오. 사람들에게 올바른 원리를 가르치십시오.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들이 이 길을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 길을 따를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26쪽)

우리는 진리의 영을 받을 때 기꺼이 순종하고 징계를 견디는 것을 배움

교회 가르침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승영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께서 주신, 또는 앞으로 주실 어떠한 계시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이 자신에게 주어질 때에는 이렇게 말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나는 기도를 통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떠한 말씀도 내가 부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스스로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24쪽)

이러한 사람들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계시를 부인하려 하지 않고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될 때까지 보류해 둡니다. 제가 언제나 추구하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곤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24쪽)

새롭거나 기이한 일이라고 해서 그것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냉소에 부치거나 비웃지 마십시오. 그럴 경우, 우리의 구원은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24쪽)

어떤 사람들, 어떤 가족 또는 어떤 개인이 한 편으로는 진리를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다른 한 편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척 하면서 동시에 마음과 손은 악인들과 뒤섞여 행동하는 과오를 범하는 것은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지옥과 같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23쪽)

주님은 인간의 자녀들에게 율법과 계명과 의식을 보내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엄격히 준수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율법과 계명을 범하지 않고 지켜 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의식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성약을 깨뜨리지 않고 우리의 선조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아버지, 거룩한 천사들과 더불어 영원한 성약을 지키며 이 분들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20쪽)

우리는 주님에게 순종함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아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영이 우리는 주님께 속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영에게 증거해 주는 영감을 통해 아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시의 영에 의해 압니다. 우리 내부에는 계시의 영 외에는 우리에게 증거해 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의식을 지키는 행위밖에는 증거할 것이 없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24쪽)

신앙과 관습에 있어서 — 그것이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또는 국가적이든 — 불순한 것은 무엇이나 조만간에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순수하고 성스런 원리에 지배되지 않는 국가나 권력이나 개인도 결국은 멸망되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27)

구원에 관한 가르침이 주어질 때, 나는 그것을 거부하거나 수용할 수 있습니다. 가르침을 수용할 경우에는 나는 일생을 통하여 창조주와 그리고 나를 가르치도록 지명된 분에게 절대 순종합니다. 가르침을 거부할 경우에는 나는 창조주의 뜻을 따르기보다 내 자신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90쪽)

하나님은 우리 내부에 의지를 부여하셨습니다. 이 의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통제될 경우에 우리는 만족스럽게 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64쪽)

우리 성도들이 전체적으로 주님에게 순종하고 진실로 성도가 될 때까지는 우리는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26쪽)

저는 징계가 주어질 때 전혀 즐겁게 보이지 않고 불만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 무척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히브리서 12:11 참조) 그러나 사람이 징계를 받고 있을 때 만일 그가 진리의 영이 그의 마음 속에 임하도록 성령이 그에게 머물게 해 달라고 간구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주님은 그에게 징계를 견딜 수 있도록 은총을 배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징계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징계에 순응하며 그것을 감수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27쪽)

학습을 위한 제언

우리는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는 피할 수 없음

- 왜 하나님의 자녀들의 앞에는 서로 상대되는 원리가 실제로 존재할 필요가 있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자유의지를 가져야 하는가?

- 브리감 영 대관장은 "사람은 스스로 행동하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지만, 그 행동의 결과를 좌우할 수는 없다"고 가르치셨다.(교리와 성약 101:78 참조)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이 선택한 것의 결과를 피하고자 하면서 어떤 식으로 선택의 자유를 주장하는가?
- 브리감 영 대관장은 "의로운 사람과 죄인의 차이"를 어떻게 정의하였는가? 우리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행사함에 있어 어떻게 제한을 두는가? 브리감 영 대관장은 "승영에 이른" 사람들의 "특권에는 한계가 없다"고 가르치셨다. 엄격한 순종을 통해 우리의 자유는 실제로 어떻게 증진되는가?
-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또 복음을 받아들인 후 복음대로 생활하도록 강요"하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교리와 성약 88:22~25, 32 참조)
- 불순종이 자유의지의 한 행사인 것과 마찬가지로 순종도 그러하다는 것을 브리감 영 대관장이 강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왜 "철저한 순종이… 지상에서 여러분과 내가 자유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인가?(모사이야서 2:22~24 참조)

진리에 순종하면 우리는 전능자의 면전에 거할 수 있게 됨

- 순종은 왜 일상 생활의 가장 명백하고도 실제적인 원리들 중의 하나인가? 순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을 받아 이를 누릴 수" 있는데, 왜 그런가?
- "한마음, 한 뜻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순종은 우리가 그와 같이 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우리는 진리의 영을 받을 때 기꺼이 순종하고 징계를 견디는 것을 배움

- 브리감 영 대관장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교리나 계시를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전도서 12:13; 요한복음 7:17; 이더서 12:6; 교리와 성약 11:20 참조)
-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는 순종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가?
-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뜻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을 우리가 더욱 더 구세주처럼 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 우리가 온전히 주님에게 순종해야 우리 자신을 맡긴다는 무엇을 뜻하는가?
- '징계한다'라는 말을 올바르게 고치면 순화시킨다는 뜻이다. 징계는 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가?(히브리서 12:11 참조) 징계를 견딜 수 있는 방법에 관해 브리감 영 대관장은 무엇이라 가르치셨는가? 징계는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가 구세주를 배반했다. 영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사람이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회 가르침을 헐뜯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악간 배도의 영을 가지고 있음을 알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83쪽)

제 12 장

개인적인 배도를 예방함

커틀랜드에 있을 때 브리감 영 대관장은 바로 성전벽 안쪽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대해 나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일단의 배도자들과 우연히 마주쳤다. 당시의 상황을 영 대관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나는 일어서서 분명하고 강력하게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은 예언자요. 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소. 당신들이 마음대로 그를 욕하고 중상할지라도 하나님의 예언자로서의 그의 지위는 변함이 없소. 당신들은 스스로 당신들의 권위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예언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 당신 자신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릴 뿐이오'"("브리감 영의 역사", 주간 데져렛 뉴스, 1858년 2월 10일, 386쪽) 영 대관장은 커틀랜드, 미주리, 나부, 유타에서 배도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의 사생활이 황폐화되는 것을 목격하였다. 배도자들 중에는 그와 가장 가까운 동료였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영 대관장은 배도는 흔히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회원들에게 아무리 사소한 나쁜 일도 신중한 태도로 경계하라고 힘주어 경고했다.

브리감 영의 가르침

배도는 교회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신앙을 부인하는 것임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배도는 극히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늘이 방향을 정확하게 가리켜 주지 않는 나침판을 사용할 경우, 바늘이 처음 조금이라도 벗어나 있으면 얼마의 거리를 이동한 후에는 우리의 위치가 목표 지점의 한 쪽 끝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83쪽)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게을리 하거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로 정해진 날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신의 영을 잃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분노하거나 악담을 하고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일컬으면서 욕설을 퍼붓는 짓을 일삼는다면, 그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요컨데, 어떤 일이 그릇된 것인 줄 알면서도 행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성령의 동반을 누리지 못하고 어두움 속을 걷다가 결국은 신앙을 부인하게 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85쪽)

남녀를 막론하고 사람이 일찌기 영원한 것들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외면하여 세상적인 것들과 눈에 비치는 탐욕스런 것들 그리고 육욕적인 것들에 휩쓸리게 되면 영원한 것에는

눈을 감아 버리게 되어 생명의 원리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된다는 것은 모든 예지의 원리에서 볼 때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82쪽)

오늘 아침 이곳에서 언급된 이야기입니다만 일찌기 배도한 사람 치고 실제로 범법을 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범법을 초래하게 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82쪽)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것입니다. "저는 말일성도입니다. 결코 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말일성도입니다. 죽는 날까지 말일성도일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선언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혼자서는 아무런 힘이 없으나 우리의 조직체는 지혜와 지식과 힘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씩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 홀로 남아 있을 때에는 나는 아무런 힘이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께 나아가면 나는 그분의 이름으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같이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복음 안에서 배웠다고 생각합니다.[앨마서 26:12 참조](*브리감 영 설교집*, 84쪽)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시현과 계시를 여러 차례 받았던 사람이 만일 주님의 성스런 계명으로부터 돌아선다면,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지닌 분별력과 이해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의의 판단력마저 빼앗겨 암흑 속에서 걷고 벽을 더듬거리는 장님과 같은 신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이사야 59:9~10; 신명기 28:29 참조](*브리감 영 설교집*, 82~83쪽)

많은 사람들은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자신의 판닥력으로 확신합니다. 그들이 격렬한 논쟁을 벌리는 경우에도 정정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이성적으로는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여 복음의 제1원리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성령의 권세에 의해 가르침을 받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예는 종종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86쪽)

교회 지도자들을 헐뜯을 때, 우리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함

언제든 교회 회원들 중에서 대관장이 매사에 교회를 지휘 감독할 권리가 있는가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경향이 보일 때에는 명백한 배도의 증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좀더 발전하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 결국은 파멸로 나아갈 것입니다. 어디에서든, 그가 무슨 자격으로 하든, 합법적으로 성임된 교회 역원에 대해 반대하는 경향이 있는 곳마다 거기에는 똑같은 결과가 뒤따를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며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훼방하려 합니다."[베드로후서 2:10 참조](*브리감 영 설교집*, 83쪽)

어떤 사람이 "이것 또는 그것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 같이 보입니까?"라고 말하면서 이것 저것 그리고 여타의 일을 케물어 약점을 찾기 시작하면 그때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다소의 배도의 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왕국 또는 이 지상에서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에만 노력하는 사람은 자기와 관계 없는 일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고 편리하게 마음을 쓸 수 있는 정도의 일에만 관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그들이 자신을 지키는데 성공한다면 그들은 시간과 마음을 잘 쓴 셈이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바른 사람이 되도록 마음을 쓰셔야 합니다. 떠오르는 태양 아래 죄와 어리석음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83쪽)

사람들을 꾀어 한번도 가르쳐진 일이 없는 원리를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그런 환상에 빠지는 순간, 악마가 그들을 성스럽지 못한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자신들에게 위세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은 오래 전에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야 할 교훈입니다. 그러나 이 교훈은 요셉 스미스 생존 당시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가르쳐졌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77~78쪽)

[그러한 사람들]은 거짓 예언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예언의 영으로 예언합니다. 그들은 자기는 예언자이며 예언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에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영 이외의 다른 영과 권세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듯이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82쪽)

배도의 첫 단계 중의 하나는 자기의 감독의 결점을 찾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는 — 그들이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한 — 곧 그 다음 단계가 취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얼마 안 있어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그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독의 결점을 찾는 일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시렵니까?(*브리감 영 설교집*, 86쪽)

어떤 사람도 교회 내에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한 힘은 악의 근원으로부터 얻게 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72쪽)

그러나 사람들은, 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암흑, 즉 죄와 무지에 빠져들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민주적인 투표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바꿔 말하면 말일성도들 가운데 관리 신권 지도자 후보를 2명 두어야 한다고 결정한다면 이는 바로 그 날에 그들이 배도자가 되기로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혼란, 분열, 다툼, 적대, 증오, 악의 따위의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제, 관리 신권 지도자 후보 문제에 양쪽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이 문제에 오로지 일방 통행만이 있을 뿐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85쪽)

영을 잃은 사람은 암흑과 혼란에 쌓이게 됨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이 사업의 영을 사람들이 잃을 때, 그들은 신앙을 갖지 않은 비기독교인과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경이 참된지 아닌지 알지 못합니다, 몰몬경이 참된지 아닌지 알지 못합니다. 새로운 계시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않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이 사업의 영을 잃어버릴 때, 그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것들에 대한 지식을 잃을 것입니다. 영원히 잃을 것입니

다. 결국은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83~84쪽)

사람들은 배도하기 시작할 때에는 자신에게 있지도 않는 힘을 가지고 있는 척하며, 그들이 인간의 지혜라고 말하는 것들을 끌어 모을 때까지 자신들을 조금씩 조금씩 미혹시키는 원수들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혼란에 쌓이게 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84쪽)

말일성도들이 배도하면 잃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하고 순수하고 성스럽고 경건한 모든 것, 생각을 고양시키고 고상하게 하고 생각을 넓혀 주는 모든 것,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두신 인간의 지적 능력입니다. 반면에 그들이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몇 마디 말로 이를 포괄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할 단어는 죽음, 지옥, 무덤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받는 결과입니다. 그들이 겪게 될 결과를 세부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적인 어두움, 무지, 의심, 아픔, 슬픔, 괴로움, 통곡, 기타 불행을 겪을 것이며, 고난 당할 때 위로해 줄 자가 없을 것이고, 재난 당할 때 의지할 데가 없을 것이며, 버림 받고 외로울 때 동정해 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죽음, 지옥, 무덤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죽음, 지옥, 무덤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으로부터 배도한 데 대한 결과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85쪽)

전에는 교회에서 활동적이고 민활하고 매우 지성적이었던 사람들을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떠난 후 이해력이 줄고 지성이 어두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그들에게 불가사의한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에 관해서도 그들은 여타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떠 어떠한 일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빌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처지를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 갇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술취한 사람들과 같습니다. 술취한 사람은 자기 외의 모든 사람들이 술 때문에 나빠졌으며 그 근처에서 술 취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한 사람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배도자들은 자기 자신 외에는 모두가 그르다고 생각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84쪽)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공중에 이리 저리 날려 다니는 깃털과 같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신앙, 판단, 마음의 생각은 공중에 떠다니는 깃털처럼 불안정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복음에 대한 신앙뿐입니다.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84쪽)

우리는 교회의 가르침 대로 생활하고 성령을 구함으로써 굳세게 설 수 있음.

배도는 아직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다가 후에는 배도한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한 동안 잘 나가다가

중도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85~86쪽)

사람들은 왜 배도를 합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시온의 정든 배"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배는 바다의 한 복판에 있습니다. 폭풍이 불어 옵니다. 선원들이 말 한대로 배는 몹시 고전을 합니다. 한 탑승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기 안 있을테야. 이 배는 시온의 배가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바다의 한 복판에 있는 걸. 상관 없어. 여기 안 있을테야" 그는 이같이 말하면서 상의를 벗고 배에서 바다로 뛰어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빠져 죽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는 "시온의 정든 배"입니다. 우리들은 이 배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합시다.(*브리감 영 설교집*, 85쪽)

하나님께서 이 큰 배를 조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느낌이 좋습니다.… 배도하고 싶은 사람은 배도하게 내버려 둡시다. 그러나 구원 받아야 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실 겁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86쪽)

만일 사람들이 신앙에 따라 생활한다면 배도는 없을 것입니다. 불평도 험담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영생의 말씀을 갈구하고 혼신을 바쳐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전념한다면, 모두가 잘 준비되어 이 사업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겠지만 우리는 전진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84쪽)

우리는 매일, 매시간, 매분 성령을 지닐 수 있도록 살아가야 겠습니다. 모든 말일성도들은 임무 수행에 있어 자기를 인도해 줄 하나님의 영을, 곧 성령의 권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82쪽)

학습을 위한 제언

배도는 교회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신앙을 부인하는 것임

- 브리감 영 대관장은 배도의 원인으로서 사소하게 보이는 일 몇 가지를 설명하였고 바늘이 정확하지 않은 나침판을 예로 들어 비유하였다. 복음은 왜 정확한 진짜 나침판과 같은가? 일상 생활에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가능성이 있는 사소한 일 몇 가지는 무엇인가? 어떠한 진로 수정을 하여야 하는가?
- "저는 말일성도입니다. 결코 배도하지 않습니다"라고 큰 소리치는 사람들에 대해 영 대관장은 어떠한 말씀을 했는가?(니파이이서 28:25; 교리와 성약 20:31~34 참조)
-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다가 후에 "계명으로부터" 돌아서 버린 성도들에 대해 영 대관장은 어떠한 예언적 경고를 주었는가?
- 우리가 영생의 길을 따라 가는 데 지적인 추론만으로는 왜 불충분한가?

교회 지도자들을 헐뜯을 때, 우리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함

- 현임 지도자들의 영감에 대해 의문을 품기보다 우리 자신의 부름에 충실하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 와드, 그 밖의 회원 집단으로서 어떻게 강화되는가?
- 와드 또는 지부 지도자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브리감 영 대관장의 경고는 무엇이었는가? 우리 자신의 감독, 지부장 또는 기타 교회 지도자를 지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와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선의의 의견 차이가 생길 때, 우리는 단결하기 위해 어떤 지침을 따라야 하는가?(마태복음 18:15; 누가복음 11:34 참조)
- 영 대관장의 말씀에 따르면, 교회에서 "관리 신권 지도자 후보 2인 중 민주적인 투표 실시"란 있을 수 없게 되어 있다.(교리와 성약 28:2, 6~7 참조) "만장 일치"에 의한 지지는 "민주적인 투표"와 어떻게 다른가?(교리와 성약 20:65, 26:2 참조)
-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거수 지지를 하도록 권유 받는다.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을 기꺼히 지지하는 것은 왜 교회 전체를 강화시키는 것이 되는가? 교회 지도자들을 지지하기를 꺼려하는 것은 왜 교회를 약화시키는 것이 되는가?

영을 잃은 사람은 암흑과 혼란에 쌓이게 됨

- 영 대관장이 배도자들은 자기들에게 있지도 않는 힘을 가지고 있는 척한다고 말씀했을 때, 그는 무엇을 뜻하였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에 의지할 때 어떤 위험이 있는가?(힐라맨서 4:13 참조) 어떤 사람들은 왜 영에 의해 계시된 하나님의 지혜보다 인간의 지혜를 선택하는가?(이사야 29:13~14, 고린도전서 2:12~14)
- 다음 질문에 대한 영 대관장의 답변을 읽는다. "말일성도들이 배도하면 잃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받는 결과는 무엇인가?"
- "공중에 이리 저리 날려 다니는 깃털과 같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가?

우리는 교회의 가르침 대로 생활하고 성령을 구함으로써 굳세게 설 수 있음

- 왜 배도는 교회 안에 계속 존재하는가? 우리는 배도의 원인이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과거에 "한 동안 만 잘 나가"고 싶은 유혹을 받은 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다른 회원들과 영의 영향력은 우리가 계속 충실하도록 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가?
- 우리가 "시온의 정든 배"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다면, 우리는 어떤 약속을 받는가?

제 13 장

영원한 진보를 위해 준비함

브리감 영 대관장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었다. 그는 처음에 가구 제작 상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선교사, 식민지 개척자, 지사, 그리고 예언자가 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연마해 갔다. 그는 이 생을 죽음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지 않고 풍족하게 생활하고 성장하고 영원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았다. 그는 성도들에게 가치있는 활동을 하고, 이해력을 넓히고 깊게 하며, 자기 완성을 추구하면서 진리를 쌓아가라고 권고하였다. 성도들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 영광스럽고 영원한 진보의 길로 들어서기 위하여 결국은 그분의 권고를 따라 전진하려고 하였다.

브리감 영의 가르침

매일같이 배우고 발전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함으로써 영생을 준비함

우리는 왜 여기에 왔습니까? 우리는 생을 더 많이 즐기는 방법을 배우고 지식과 경험을 쌓기 위해 왔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87쪽)

이 생의 목적은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우는 일을 한번에 조금씩 할 수 있을 뿐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87쪽) 전체적인 인간의 필멸적 존재는 유한한 인간이 높은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들에게 주어진 준비 마당인 것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87쪽)

발전의 원리는 노소를 막론하고 인간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인류의 가장 큰 관심사이며, 그들이 알든 모르든 모든 행동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증진의 원리, 승영의 원리,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늘리는 원리는 인간의 행동의 고상한 동기이자 원인이 됩니다. 인생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이 모든 능력을 보유하는 것, 이것은 인간들이 무슨 일에 종사하든,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든, 어떤 사람들과 교재하든,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든, 무슨 정치를 하든지 간에 그들의 행동의 주된 동력인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87쪽)

우리는 해의 왕국, 달의 왕국, 별의 왕국, 지옥, 그 밖의 다른 처소들 중에서 어느 왕국 또는 처소에 들어가기에 합당한지 시험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왔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87쪽)

이 세상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는 마당입니다. 인간의 일생은 우리가 무지하고 미약한 가운데서, 그리고 원수가 지배하는 환경 속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하나님께 증명해 보이는 시험의 기간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친구들이며, 그분의 빛을 받아들이며, 우리 자녀들의 지도자 되기에 합당하며... 주님 중의 주님, 왕 중의 왕이 되기에 합당하며, 해의 왕국에서 존귀와 영광과 불사불멸과 영생의 관을 쓰게 될 우리 가족들 중의 분깃을 온전히 통치하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증명해 보이는 시험의 날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87쪽)

모든 말일성도 여러분,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은 이 시험 기간 동안의 시간을 무익한 일에 허비하면서 어리석게도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헛되이 보내시렵니까? 여러분은, 만일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을 다 이루고 의로운 길을 좇으며 해의 왕국의 율법 조항을 지키며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영원히 견딜수 있게끔 조직되고 태어나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87쪽)

창조주께서는 인간들이 그들의 생애 동안 매일같이 적극적으로 선행을 하고, 자신과 이웃들의 정신적, 육체적 상태를 향상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하십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88쪽)

우리는 살기 위하여, 또 사람들에게 예지와 지식을 전해 주기 위하여 지상에 왔습니다. 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가족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저의 자손들을 번성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제 능력으로 가능하면 살아서 이 땅으로부터 온갖 죄와 불법과 부패, 악마의 세력과 그 밖의 온갖 종류의 가증한 것들을 추방하기 위하여 여기에 왔습니다. 이것이 저의 종교관이며 저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단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러고 나서 죽기 위하여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여기에 온 것입니다. 즉 신권을 일으키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인간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창조된 목적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즉 그들 내부에 온갖 예지의 근본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여기에 온 것입니다. 예지의 근본이 발현되기 시작하는 마당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인간의 유기체 안에 있는 기초, 충만한 영원한 지식과 영광을 받기 위한 기초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저 세상으로 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발현시켜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88쪽)

이곳 고산들의 계곡 일대와 전세계 도처에 있는 말일성도들은 우리가 이 땅에 무엇하러 왔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증진하고 번성하고 확장하기 위하여 여기에 왔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자손들을 집합시키고 시온을 구속하고 우리 하나님의 시온을 건설하기 위하여 여기에 왔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온갖 가증한 원리들이 소멸되고, 이 땅이 낙원의 상태로 돌아가고, 주님께서 오셔서 땅의 거민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분께서 선조인

아담과 그랬듯이 땅의 거민들과 함께 걷고 이야기하실 날이 올 때까지 신들 안에 있는 영원한 예지를 끌어내어 이 땅에 심고, 뿌리내리게 하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여기에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단지 죽음을 준비하는 데 우리의 온 정력이 소모되게 해서는 안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89쪽)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시온을 건설하며, 이스라엘 지파의 자손들을 집합시키고 충만한 수의 이방인들을 들어오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땅을 우리 능력으로 회복시키고 축복하여 에덴 동산처럼 되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이해력 속에 지식과 지혜를 축적하고 우리의 마음을 순화시키며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을 맞을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88쪽)

우리는 지식과 경험을 쌓음에 따라 진보할 수 있음

이 사업은 진보의 사업입니다. 말일성도들에게 가르쳐지는 이 교리는 본질적으로 승영이요 증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지는 대로 알 수 있고 보이는 대로 볼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더욱 더 폭넓게 확장하는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90쪽)

우리는 지금 학교에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지상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는 배우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되며, 장막을 통과한 후에도 계속해서 배우고 지식을 쌓아가고자 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는 우리가 모든 지식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충분히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지식을 쌓아가지 않으면 안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91쪽)

주님은 겸손히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조금 주십니다. 그들이 그것을 늘이면 내일은 조금 더 주십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늘려갈 때마다 그 다음 날 조금씩 더 주십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그것을 늘리지 않으면 더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을 계속해서 증진시켜야 할 것이 요구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지혜의 보고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90쪽)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주신 분들이 복음에서 가리키신 길을 단순히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에 이르는 길, 즉 영원한 증진으로 가는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얻은 것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모으고 축적하고 증진하고 확장하고 끝없이 연장하는 진로를 따르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만족스러워 할 증진의 원리를 성취할 것입니다. 이 증진이라는 말이 내포하는 모든 의미에서 영원히 증진하는 특권은 참으로 불멸의 영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93쪽)

우리는 아직도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해의 왕국의 지식과 지혜를 우리의 이해력 속에 수용할 수 있을 때까지 확대되고 끝없이 계속되도록 조직되어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90쪽)

우리는 영원히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을까요?(디모데후서 3:7 참조) 그렇습

로간 성전의 사진. 영 대관장은 구원의 의식과 개인적인 충실함은 우리에게 "더욱 영광스럽고 승영된 위치"에 이르게 하는 "영원한 진보"를 할 수 있게 준비시켜 준다고 가르쳐 주었다.(*브리감 영 설교집*, 16쪽)

니다. 저는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희망이요, 기대요, 기쁨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90~91쪽) 우리는 온전해질 때까지 지식, 경험 등을 증진하고 계속 증진하며, 진리를 확장하고 수용하고 축적하는 원리를 우리 자신 내부에 지니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91쪽)

우리는 어떤 것을 얻으려고 준비할 때, 신속하게 준비하는 만큼 일찍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95쪽)

여러분은 주님에게 더 많이 달라고 간청하는 대신, 여러분 자신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 성실하라고 호소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언제 무슨 말을 해야 하며 무엇을 고백해야 할 것인가를, 그리고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알라고 자신에게 호소하십시오. 여러분이 만일 은밀하게 간직해야 할 것은 은밀히 간직하여 주고,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은 나누어 주며, 여러분의 지식을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동료들에게 나누는 방법을 배우겠다는 것을 주님에게 일찍 증명해 보인다면, 주님은 그만큼 속히 여러분에게 주시고, 또 주시고, 계속 주실 것이며, 마침내는 여러분에게 이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대는 탈락하지 않을 것이니라. 그대의 구원은 그대 자신에게 인봉되어 있느니라. 그대는 성실하기 때문에 영생과 구원에 이르도록 결봉되어 있느니라."(*브리감 영 설교집*, 93쪽)

영생은 영원히 진보하고 증진하는 능력임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은 예지적 존재에게 부여되는 최상의 은사인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96쪽)

경전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은사는 영생의 은사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최대의 성취는 천군의 무리들 가운데 영속하는 신으로서 우리의 신분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말씀을 복음을 통해 받았습니다. 이 영생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그 귀중한 은사를 얻게 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96쪽)

내 안에 있는 예지가 존재하기를 그친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느낌이 듭니다. 그것은 견딜수 없는 일입니다. 이 예지는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어딘가에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내가 올바른 길을 따르고 예지를 그 유기체 안에 간직하고 있는다면, 나는 영생을 보유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96쪽)

우리는 충만한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과 권세와 지식을 누릴 것이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식들을 두고 있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97쪽)

여러분이 영생을 보유하는 특권을 가지는 것과 이 축복을 살아서 영원히 향유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이것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축복과 비견할 만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영속성과 비견할 만한 축복은 무엇입니까?(*브리감 영 설교집*, 96쪽)

주님은 신들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 축복을 하나님의 가장 큰 은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손이 없이 천사가 되는 영생의 은사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은사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산자들의 아비가 되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경전에 쓰여진 산자들의 아비란 어떤 사람입니까? 영원토록 계속되는 자손들을 두는 사람입니다. 이 축복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입니다만 이 축복을 받고 그는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그는 산자들의 아비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던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97쪽)

사람이 충실하다면… 그는 창조주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즉 그와 창조주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같이 일하고 활동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든 그 아들도 그와 같이 할 것이고 또 그들은 매사에 영원토록 그와 같이 계속할 것이기 때문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97쪽)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왕관을 쓸 수 있도록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택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만이 하늘에서 번성하고 증진하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만 못한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는 이러한 특권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느냐, 하위의 영광을 받을 것이냐는 우리 자신이 선택하기에 달려 있습니다.(*데저렛 뉴스: 주 2회 간행물*, 1876년 8월 8일, 1쪽)

학습을 위한 제언

매일같이 배우고 발전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함으로써 영생을 준비함

- 우리가 영원히 진보하는 데 도움이 될 이 생의 시련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진리를 배우는가?(교리와 성약 122:7~8 참조) "영원히 견디는" 원리에 관하여 영 대관장은 무슨 말씀을 하였는가?(교리와 성약 121:7~8; 니파이삼서 15:9 참조)
- "매일같이 적극적으로 선행을 하는 것"은 "충만한 영원한 지식과 영광을 받기 위한" 기초를 어떻게 쌓아주는가?(앨마서 5:41; 26:22; 교리와 성약 58:26~29 참조)
- 영 대관장의 말씀에 따르면, 인생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는 배우는 것이다. 어떤 것이 우리로 하여금 배우지 못하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복음 공부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경험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가? 여러분은 경험과 영의 영향력을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진리를 배웠는가?
- 영 대관장은 우리가 지상에 있는 목적 서너 가지를 들어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들 목적을 어떻게 더 잘 성취할 수 있는가?(교리와 성약 81:5 참조)
- "주님을 맞이할 사람을 준비"시키는 데 도움되는 몇 가지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이런 일을 하는 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우리는 지식과 경험을 쌓음에 따라 진보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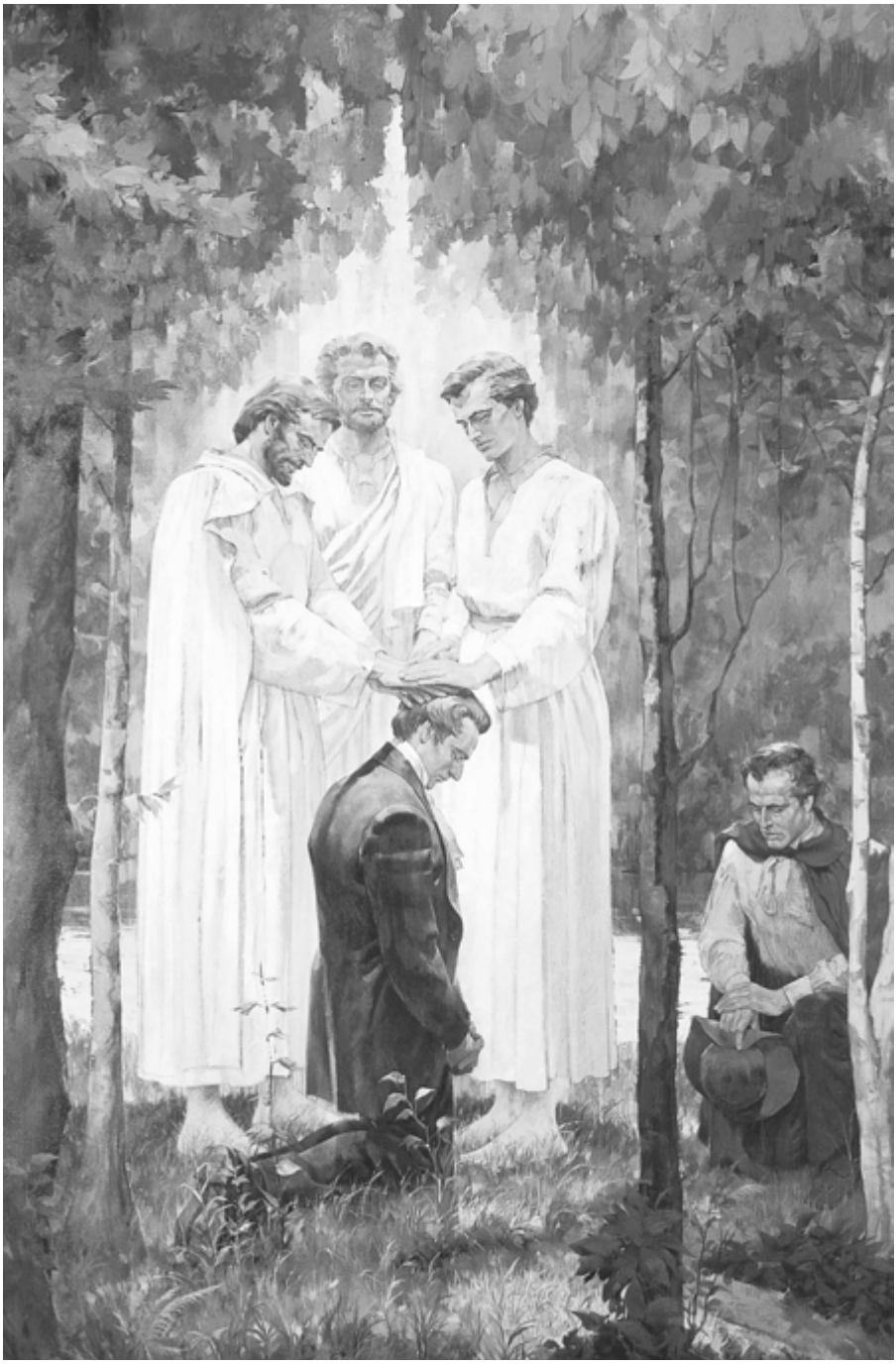
- 영 대관장은 우리는 지식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받는다고 말씀하였다. 이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데 어떻게 적용되는

가?(니파이이서 28:30; 교리와 성약 130:18~19 참조)

- 영원한 증진에 관하여 영 대관장은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가?(교리와 성약 93:12~14 참조)
- 영 대관장은 "우리는 온전해질 때까지 지식, 경험 등을 증진하고 계속 증진하며, 진리를 확장하고 수용하고 축적하는 원리를 우리 자신 내부에 지니고 있다"고 말씀하였다. 지식을 얻으려는 우리의 노력은 우리가 승영을 준비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교리와 성약 50:40; 93:24, 26~30; 130:18~19 참조)

영생은 영원히 진보하고 증진하는 능력임

- 영 대관장은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은 예지적 존재에게 부여되는 최상의 은사"라고 말씀하였다. 그는 "최대의 성취"는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달성하는가?(교리와 성약 14:7; 130:20~21 참조)
-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란 무엇을 뜻하는가?(로마서 8:17 참조)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왕관을 쓴" 자들에게만 속하는 축복은 무엇인가?



지나간 경륜의 시대들의 열쇠를 회복해 준 베드로, 야곱, 요한을 묘사한 그림.
때가 찬 경륜의 시대는 "그 영광과 장엄함에 있어 지상의 모든 사람에게 언약되어 온
모든 경륜의 시대를 능가할 것"이라고 브리검 영은 말씀했다.(*브리검 영 설교집*, 442쪽)

제 14 장

복음의 경륜의 시대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복음을 제정하여 가르치셨으며, 배도 기간에도 여러 경륜의 시대마다 새롭게 복음을 계시하셨고, 이제 이 마지막 시기에 이를 회복하셨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모든 경륜의 시대 가운데서도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가 "그 영광과 장엄함에 있어 지상의 모든 사람에게 언약되어 온 모든 경륜의 시대를 능가할 것"이라고 말하며 환호했다.(브리감 영 설교집, *442쪽*)

브리감 영의 가르침

하나님께서는 맨 먼저 필멸의 상태인 아담에게 구원의 계획을 계시하셨으며, 그 이후로 그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그의 왕국을 회복해 오셨음

구원의 계획이라 불리우는 이 위대한 계획은 영원한 곳에서 존재하는 모든 예지에 속하는 교리와 개념을 가르치며 훈련시키는 체계(*브리감 영 설교집*, 56쪽)로서, 인간이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도록 하늘에서 마련한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48쪽)

이 왕국이 어느 때이건 [지상에] 조직될 때는 충실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왕국의 영이 거하는 한편, 왕국의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율법, 의식, 도움, 정부, 관리, 통치자 및 기타 여러 가지 세상적인 요소들도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게 됩니다.[모세서 6:7; 교리와 성약 22:3 참조](*브리감 영 설교집*, 441쪽)

아담. 지상의 자녀들은 한때, 우리가 서로를 알 듯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상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처럼 아담도 그를 지상에 두신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친자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인 아담을 자주 방문하러 오셔서 더불어 함께 걷고 이야기하셨으며, 아담의 자녀들도 어느 정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지상에 거한 최초의 인간들은 우리 자녀나 아내들이 집안의 정원과 친하듯이, 노련한 여행자가 태평양에 이르는 길을 잘 알 듯이 하나님과 하늘에 속한 것들과 친숙했습니다.[모세서 3:15~21, 4:14~30, 5:4~5, 9, 12, 6:51 참조](*브리감 영 설교집*, 104쪽)

아담이 창조되어 에덴 동산에 놓여진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계획과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계시는 오랫동안 배도와 사악함 때문에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적도 있었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의 복음과, 그리스도와 사도 시대의 복음, 그리고 19세기의 복음이 각각 달라야 한다는 성경상의 증거는 없습니다. 그와는 달리,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동일

한 분이시며, 자녀들을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끝나는 날까지 구원의 계획은 하나인 것입니다.[모세서 6:51~68 참조](*브리감 영 설교집*, 103~104쪽)

아담의 시대로부터 메시야가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는 복음이 있었으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태초부터 있었고 끝날까지 있을 것입니다.[모세서 5:58~59, 교리와 성약 20:25~26 참조](*브리감 영 설교집*, 103~104쪽)

에녹. 오랫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걷고 이야기했던 에녹은 사람들이 거의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예지와 지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서에 따르면, 에녹이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를 따랐던 소수만이 복음의 충만함을 누렸고, 나머지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하였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05쪽)

에녹은 360년이란 기간 동안 그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친 후에야, 비로소 저들을 안식에 들어가도록 준비시킬 수가 있었으며, 그런 다음에 거주지, 집, 정원, 가축 등 그들의 소유물과 함께 자신과 그의 백성들을 변형시킬 권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모세서 7:68~69 참조](*브리감 영 설교집*, 105쪽)

에녹과 에녹을 따랐던 무리들은 지상으로부터 들리워졌으며, 노아 시대에 대홍수로 쓸어버릴 때까지 세상은 죄악이 계속 무르익어 갔습니다. "인자가 오실 때에도 노아 시대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창세기 6:5, 모세서 6:26~7:69 참조](*브리감 영 설교집*, 105쪽)

노아. 태초에 인간을 위해 지구를 마련하신 다음, 주님께서는 에덴의 동산이 만들어졌던 곳인 오늘날의 미대륙이라 불리는 곳에서 그분의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02쪽)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아들, 아담에게 복음을 주리라." 이 복음은 아담으로부터 므두셀라가, 므두셀라로부터 노아가 받았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05쪽)

노아의 시대, 방주의 날에 노아는 백성들을 지구의 반대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지구는 나뉘어졌으며, 거기에 그는 자신의 왕국을 세웠습니다.[창세기 6:1~8:21 참조](*브리감 영 설교집*, 105쪽)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참 하나님께 충실했습니다. 그는 부친의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따라[교리와 성약 107:2~3 참조]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교리와 성약 84:14 참조] 신권을 얻었으며, 그의 후손이 번성하여 끝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성신권을 받을 때 여러분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되도록 길이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음으로써,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졌던 약속과 모든 축복도 가지게 되었습니다.[창세기 12:2~3, 13:16, 14:18~19, 15:5, 아브라함서 1:2~4, 18~19, 2:9~11, 교리와 성약 84:14 참조](*브리감 영 설교집*, 106쪽)

모세. 아담의 때로부터 메시야가 오실 때까지 인간의 자녀들 사이에는 복음이 있었으며

이 복음은 태초로부터 끝나는 날까지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의 율법이 주어졌습니까?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 곧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선택하고 그의 이름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자손들의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이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과 그의 계명을 모반하게 되자,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갈라디아서 3:24 참조] 그러나 이 율법은 지키기가 어려운, 육체적인 계명이었습니다.[교리와 성약 84:23~27 참조](*브리감 영 설교집*, 104쪽)

만약 이스라엘 자녀들이 신성하고 거룩했더라면, 모세와 더불어 엔다우먼트와 멜기세덱 신권을 받는 데 일년도 채 안 걸렸을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84:23 참조](*브리감 영 설교집*, 106쪽)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을 맡으셨습니다. 그분은 왕국의 율법과 의식들을 소개하셨습니다.[마태복음 16:18~19, 에베소서 1:22~23, 4:11~15 참조](*브리감 영 설교집*, 29쪽)

신권 및 왕국의 충만한 복음은 대배도의 기간 동안 지상에서 사라졌음

초기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들 간에는 자기들의 믿음과 관행에 관한 많은 공론들이 난무했으며, 이러한 생각들은 널리 퍼져 분열과 교리의 불일치를 조장시켰습니다. 사도들 시대에서조차,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블로에게, 나는 게바에게[고린도전서 1:10~13 참조]라고 경전에 쓰여 있을 정도로 상당한 분열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배운 것에 나름대로의 기호를 가지고 있어서 독특한 교리들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공표되지도 않았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07쪽)

그들은 왜 진리와 의로움의 길에서 그렇게도 멀리 벗어나 방황해 왔을까요? 신권도 없었고, 안내자나 지도자도 없었으며, 무엇이 참인지 아닌지를 알아낼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권이 교회에서 거두어졌다고 말하지만, 그보다는 교회가 신권을 버리며 주님의 계명을 등지고 다른 의식들을 행하면서 계속 황야를 맴돌았습니다.[갈라디아서 1:6~8; 디모데후서 1:15; 요한삼서 1:9~10 참조](*브리감 영 설교집*, 107쪽)

그들은 조금씩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기 시작했고, 이리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세우신 왕국의 복음과 신권은 지상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24:5; 데살로니가후서 2:1~12; 요한계시록 12:6; 교리와 성약 1:15 참조](*브리감 영 설교집*, 107쪽)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그의 복음과 신권의 권능을 회복하셨음

복음의 음성을 들을 특권을 갖지 못한 채 여러 세대가 왔다 갔으며, 이제 그 복음은 시현과 천사들에 의해 하늘로부터 요셉 스미스에게 계시되어 우리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겐 복음과 성신권의 열쇠가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1:17~23, 30; 27:5~13; 110:11~16; 128:18~21 참조](*브리감 영 설교집*, 107~108쪽)

우리는 태초로부터 번성하고 발전하는 백성들입니다. 이 번성과 발전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상에 그의 왕국의 재건설을 시작하기 위해 그의 지혜로 판단하신 그분의 사업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08쪽)

그러나 구세주의 시대처럼 이 새로운 경륜의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미국 땅의 백성들의 생각이나 관습이나 선입관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사자는 소위 정통 교파의 어느 저명한 목사에게 오지 않았으며, 그들의 성경 해석을 채택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선 권세와 영광을 지닌 채 하늘의 군대와 함께 오시지 않았으며, 한 비천한 가정의 연약하고도 보잘 것 없는, 그러나 진지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한 소년과 대화하게 하려고 사자를 보내면서 하늘의 진리 이외의 갑옷을 입히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미천한 사람, 즉 훗날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가 된 요셉 스미스 이세에게 천사를 보내어 모든 교파가 다 그르며 그들이 주 예수보다 사람의 교훈을 따르므로 그 당시의 어느 교파에도 속하지 말라는 지시를 주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주님 앞에 충실함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수행해야 할 사업이 있었습니다.[요셉 스미스서 2: 11~26 참조](*브리감 영 설교집*, 108쪽)

요셉 스미스는 이 세상의 마지막 경륜의 시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아들의 충만한 신권의 열쇠와 권세를 받을 자라고 지상의 기초가 놓이기 오래 전 하늘의 평의회에서 이미 정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눈여겨 보았고 그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그의 선조들에게로 눈을 돌려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에서 홍수, 홍수에서 에녹, 에녹에서 아담에게로 계속 눈을 돌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기원부터 요셉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내려온 가계와 혈통을 주시하셨습니다. 그는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를 관장하도록 영원한 곳에서 예임되었습니다.[니파이이서 3:6~15 참조](*브리감 영 설교집*, 108쪽)

뉴욕 주 페이엣트에 있는 피터 휘트머의 복구한 통나무 집 내부.
교회는 1830년 4월 6일, 원래 모습의 이 집에서 조직되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전히 살아 계시며, 말일에 세계의 사방에서 선민을 모으실 것을 세상의 거민에게 보여 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공표하기 위해 수세기 동안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 책[몰몬경]을 내보일 방법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일에, 그의 왕국을 건립하고 이를 세상에 내놓는 것과 관련된 관한 모든 것을 명령하고 지시하셨습니다.[니파이일서 13장, 교리와 성약 20:6~16 참조](*브리감 영 설교집*, 109쪽)

여기에 몰몬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유대 나라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이 몰몬경에는 미대륙의 원주민의 역사가 들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책을 통해 예수님이 이 대륙을 방문하시어 복음을 전했으며 십이사도를 성임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믿지만 여러분에게 그 사실을 믿어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하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심 성의를 다하여 성경을 믿게 된다면, 여러분은 몰몬경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진리임을 하나님의 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09쪽)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던 올리버 카우드리(몰몬경의 세 목격자 중 한 사람)가 나중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는 금판을 보여 준 천사를 보고 대화하였으며 그 판을 만져도 보았습니다. 진리를 외면하고 교회를 떠나 여러 해를 홀로 방황하던 그에게 어느 날, 한

신사가 그의 법률 사무소로 들어와 말을 건넸습니다. "카우드리 씨, 몰몬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그 책이 참되다고 믿습니까?" 이 말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뇨 그렇지 않아요!" 그러자 그 신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 생각이 어리석었음을 알게 되었고, 한때 당신이 참되다고 공표하던 것들을 부인하기로 결심했다는 결론 같은데요." "잘못 아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몰몬경이 참되다고 믿지 않습니다. 몰몬경이 참되다는 믿음은 지난날의 것이지요. 지금은 몰몬경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제 앞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아직도 천사를 보았다고 간증합니까?" "그래요, 지금 제가 당신을 보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몰몬경도 참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10쪽)

요셉 스미스는 말일에 하나님 왕국의 기초를 놓았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58쪽)

저는 요셉 스미스를 알았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할렐루야를 외치고 싶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시고 성임하셔서, 지상에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고 유지할 열쇠와 권세를 주신 예언자입니다. 주님께서 요셉 스미스에게 주신 이 열쇠는 이 백성들에게 언약되었던 것처럼 만물이 인자가 오는 날을 위해 준비될 때까지 우리에겐 요셉이 착수한 사업을 계속할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이 말일성도의 사업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58쪽)

지금은 때가 찬 마지막 경륜의 시대이므로 사악한 자들이 이 왕국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모든 경륜의 시대 중의 경륜의 시대로 그 영광과 장엄함에 있어 지상의 모든 사람에게 언약되어 온 모든 경륜의 시대를 능가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시온을 가져오실 것이며, 그의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지상에 그의 기호를 세우실 것이며, 그의 왕국의 율법을 세우실 것이고, 그 율법은 만방에 퍼질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42쪽)

학습을 위한 제언

하나님께서는 맨 먼저 필멸의 상태인 아담에게 구원의 계획을 계시하셨으며, 그 이후로 그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그의 왕국을 회복해 오셨음

- 영 대관장은 "구원의 계획이라 불리는 위대한 계획"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가?(아브라함서 3:21~28 참조)
- 주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의 계획을 계시하시고 지상에 그의 왕국을 조직하신 때는 언제이며, 그 "완전한 수행에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 영 대관장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선 지상의 자녀들에게 언제 구원의 계획과 신권을 소개하셨는가?(모세서 5:58~59, 6:7 참조)
- 복음의 주요 경륜의 시대를 이끌었던 각 예언자들의 특별한 부름은 어떤 것이었는가?

신권 및 왕국의 충만한 복음은 대배도의 기간 동안 지상에서 사라졌음

- 영 대관장에 따르면, 초기의 그리스도 교회는 왜 지상에서 거두어졌는가?
- 초기 그리스도 교회와 신권이 지상에서 사라진 몇 가지 증거는 무엇인가?(요셉 스미스 서 2:17~20 참조) 초기 교회 회원들이 어떻게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방황했는가? 신권이 어떻게 "참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알아내는 수단"이 되었는가?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그의 복음과 신권의 권능을 회복하셨음

- 하나님께서는 한 비천한 가정의 연약하고도 보잘 것 없는, 그렇나 "진지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한 청년에게 그의 진리를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나 성심으로 진리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부름을 완수하는 데 요셉의 어떤 성품이 도움이 되었는가?
- 복음을 회복하는 데 있어 몰몬경의 역할은 무엇인가?(교리와 성약 20:6~16 참조) 여러분은 몰몬경에 대한 올리버 카우드리의 간증으로부터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가?
- "말일의 성도들의 사업"에 관해 브리감 영 대관장은 어떻게 간증했는가?

1848년에 일종의 재앙과도 같이 메뚜기 떼들이 무서운 기세로 성도들의 농작물을 덮쳤다.
열렬한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께서는 이 그림이 보여 주는 것처럼
갈매기를 보내어 메뚜기들의 피해를 막게 하셨다.

제 15 장

서부에 정착함

브리감 영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선포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이 이 백성들이 거주하며 번성할 장소임을 저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성도들이 함께 하며 땅을 소유하기에 족히 강건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기후를 살기 좋게 조절해 주실 것이며, 우리는 이곳에 도시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드릴 성전을 건립할 것입니다. 우리는 동서남북으로 우리의 정착지를 늘려 나갈 것이며,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함께 모여 수백, 수천의 성도들의 손으로 마을과 도시를 건설할 것입니다. 이곳은 국가들의 중요한 고속도로가 될 것입니다.(제임스 에스 브라운 자서전)

브리감 영의 가르침

일리노이 주에서의 충돌과 성도들의 서부로의 탈출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우리가 이동해 온 것과 관련된 것들을 사람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낸 것은 하나님의 권세이며, 제가 그러한 계획을 짜내지는 못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80쪽)

이 백성들이 이 산에 이르도록 길을 열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제가 만들어 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 일이 있기 전에 수년 동안 이주에 관해 깊이 생각했었지만 이 곳에 올 수 없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80쪽)

요셉이 살아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이 나라를 이야기하며 장시간 앉아 있었습니다. 요셉은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충실한 남자들 백여 명과 함께 로키 산맥에만 있다면 폭도들에 대한 자비 등을 요구할 필요도 없이 행복할텐데."(*브리감 영 설교집*, 480쪽)

우리는 1839년부터, 교회의 적들이 다시 요셉과 말일성도들에 대한 박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던 1844년까지 일리노이 주에 살았습니다. 반역자! 반역자! 반역자! 그들은 우리를 살인자, 도둑, 거짓말쟁이, 간통자 등 세상의 가장 나쁜 명칭을 다 갖다 대며 소리치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요셉과 하이람을 붙들어 갔으며 자기네들의 안전을 위한 보장으로 일리노이 주의 문장에 토마스 포드 지사의 서약을 받았습니다. 요셉과 하이람은 마치 성난 폭도들로부터의 안전을 위하는 것처럼 일리노이 주 카테지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주지사는 폭도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었으며, 폭도들은 감옥으로 들어와 총을 난사하여 그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때 같이 감옥에 있다가 총을 맞았던 존 테일러는 그 뒤 몇 달 동안의 병상 생활 후 오늘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폭도들은 이들 살인자들을

1847년에 영 대관장은 "열심히 일하지 않는 한 어떤 사람도 여기서 산다는 건 불가능했지만 말일성도들이 번성하기엔 최상의 장소이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 (*브리검 영 설교집*, 474쪽)인 서부로 성도들을 인도했다.

교사한 후 우리에게 와서 집과 곡식을 불태웠습니다. 형제들이 불을 끄려고 밖에 나가면 폭도들이 울타리 밑에 몸을 숨기고 엎드려 한 밤중 어두움 속에서 그들을 쏘곤 했습니다.(*브리검 영 설교집*, 473쪽)

1845년에 저는 합중국 내의 모든 주의 주지사들에게, 그들 구역 내에 말일성도들의 피난처를 부탁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제의에서, 무언의 경멸이나 노골적인 거절로 우리의 특권을 거부당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구역이나 주의 경계선 내로 우리가 들어 갈 수 없도록 하는 데 합의했습니다.(*브리검 영 설교집*, 474쪽)

1845년 가을에 세 명의 의원이 나부로 와서 십이사도를 비롯한 몇 명의 형제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미국을 떠나길 바랬습니다. 그들과는 이미 있을 만큼 있었다고 판단한 우리는 종교적인 편견이 만든 결과로 더 이상 평화스럽게 머물 수 없는 일리노이주를 떠나는 데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세 명 중에 우리와 친면이 있던 스티븐 에이 더글러스가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압니다. 요셉 스미스도 압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사악한 자들의 편견이 문제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신사 여러분, 여기 있으면 여러분은 평화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떠나기로 했고 이리하여 1846년 2월에 나부를 떠났습니다.(*브리검 영 설교집*, 473쪽)

저는 교회 회원들과 함께, 그 당시에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산 속의 훌륭한 장소로 우리를 직접 인도해 주시리라고 굳게 믿으며 그 곳을 향하여 미시시피 강을 건넜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82쪽)

우리는 상습적인 적들의 잔인한 박해로 온갖 협박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거나 가진 것들을 다 남겨둔 채 추방당한 수백 명의 가족들은 극도의 빈곤 상태에서 유랑자들처럼 방황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82쪽)

우리는 적들이 미칠 수 없는 곳으로 가야겠다는 생각 외에는 어디로 갈지 모른 채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집도 없었고 짐마차와 천막 외에는 비축된 양식이나 옷도 없었으며, 일용할 양식을 벌기 위해서는 가족을 외딴 지역에 안전히 남겨 두고 적들 사이로 일하러 가야 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78쪽)

우리는 서부로 여행하면서, 여러 곳에 머물어 거주지를 만들고, 더 이상 일행을 따라 여행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임시로] 거기에 남겨 두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74쪽)

몰몬 대대의 징병과 행군

우리에게 호전적이라고 알려진 인디언들의 한 가운데에 있을 때, 멕시코에 가서 멕시코와의 전쟁[1846~1848년]에 참가하도록 오백 명의 남자들이 소집되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76쪽)

저는 직접 형제들 몇 명과 함께 몇몇 여행 경로를 따라 2,3백 킬로미터마다 설치된 모든 야영지에 들러 우리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지원병을 모집했으며, 집결하라는 날짜[1846년 7월 16일, 아이오와, 카운슬 블라프스]에 맞추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것은 징용이 발표된 지 20일 만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79쪽)

포트 리번워스에서 산타페에 이르는 길을 계속 행군하며 뜨겁고 지루한 사막을 지나 드디어 캘리포니아의 저지대에 안착한 그 대대의 장교들 및 모든 충성스런 남자들은 기쁨에 넘쳤습니다. 그들이 도착할 무렵, [스티븐 더블류] 커니 장군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를 돕기 위해 부대를 거느리고 행군해 왔던 [그 대대의 새로운 지휘자인] 조지 쿡 대령도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일을 올바르게 고쳐 놓을 수 있는 청년들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 대대의 청년들은 그들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그 작은 대대를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정부에 충성하고 있음을 증명해 보인 것들이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77쪽)

우리의 그 대대는 몇달 간 쉴 새 없이, 길도 없는 사막과 메마른 평야를 지나 3천킬로미터 이상을 걸어서 증기선 상의 편히 잠자는 곳이 아닌 실전의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2년여 동안 가족과 합류하지 못한 채 온갖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도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며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중재로 다시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79쪽)

보살핌을 받아야 할 노인들, 어린 것들, 여인들을 나머지 사람들 손에 맡기고 떠나야 하는 힘든 상황하에서도 우리의 가장 유능한 장정, 오백 명은 야영지를 떠나 부름에 응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78쪽)

뒤에 남은 우리들은 일하며 광야에서 먹을 양식을 재배했습니다. 우리는 학교 선생님의 보수도 지불해야 했고, 우리 자신을 위한 빵도 재배해야 했으며, 자신의 의복도 벌어서 입어야 했습니다. 그 외에는 달리 길이 없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76쪽)

"가난한 사람들의 진영"은 주님의 자비로 보호 받음

뒤에 남겨진 몇 명의 극빈자들과 병자와 노인들은 다시 폭도들의 공격을 받아 폭행당하고 집은 불탔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73~474쪽)

이들 형제, 자매들은 [아이오와 주 모트로스 위, 강둑을 따라] 빈곤과 비탄에 잠겨 힘든 행보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한번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 주시지 않았다면 굶어 죽었을 거란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 새들은 그들의 짐마차로 날아와 부딪혀 죽거나 떨어졌고, 형제 자매들은 이 새들을 모아 광야로 나아갈 때까지 여러 날 양식으로 충당했습니다. [브리감 영은 구조대를 보내어 멀리 떨어져 있는 이 행렬을 친척과 친구들이 있는 야영지로 데려오도록 했다.](*브리감 영 설교집*, 474쪽)

1847년, 브리감 영의 개척대가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향함

우리는 인디언들이 지나간 흔적을 따르기도 했고, 어떤 때는 나침반이 가르키는 대로 따르며 미시시피 강을 떠나 플랫[강]을 따라 갔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엄청난 양의 방울뱀을 죽였으며, 등이 아프도록 길을 만들고 다리를 놓았습니다. 강 위로 다리를 놓을 수 없는 곳에서는 배로 건넜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80쪽)

[1947년 6월 28일] 빅 샌디강에서 만난 [와이오밍 브리지 요새의 주인]인 브리저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씨, [이 산맥]에서 옥수수 한 자루라도 키우는 걸 본다면 천불을 내겠소." 저는 말했습니다. "18개월만 기다려 보시오. 그러면 한 자루가 아니라 많은 옥수수를 보게 해주리다." 제가 지닌 지식으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니, 그것은 저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얼어붙는 듯한 추위와 불모지인 이 땅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것과 자연 환경을 계산해 볼 때, 우리에게는 뭔가를 키워 보겠다는 최소한의 용기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곡식을 키울 수 있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으로 손해본 일이 있었습니까? 천만에요, 신앙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불신앙에 빠졌을 것이고, 우리 생계를 위한 모든 방편은 끝장이 났을 것이며, 그 어떤 것도 결코 재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81쪽)

[1847년 6월 30일], 개척대가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계곡 동쪽, 약 80마일 지점의 그린 리버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새뮤엘 브래넌과 다른 몇 명을 만났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캘리포니아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저의 소견을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로 간다면 거기서는 5년 이상 머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산맥에 머문다면, 우리는 스스로 감자를 재배하여 먹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 머물 생각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동물의 척추처럼 뼈대와 근육이 튼튼한 이 산맥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옥이라도 이 산맥의 성도들을 해할 수는 없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75쪽)

저는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이민자의 협곡이라 이름 붙인 곳을 나와, 크고 작은 산맥을 지나서 남쪽으로 약 4분의 3마일쯤에 있는 계곡으로 내려 왔습니다.[올슨 프랫과 에라스터스 스노우는 1847년 7월 21일에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들어 왔으며, 선발대와 본대대는 7월 22일에 도착했다. 브리감 영 대관장과 함께 한 후방 대대는 산악 열병으로 인해 고통을 겪으면서 7월 24일에 계곡으로 들어 왔다.] 우리는 자리를 정하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도착했고 남서와 북서를 흐르는 시티 크릭의 두 분기점 사이에 진을 쳤습니다. 여기에다 이 성전을 지을 표시로 깃발을 꽂았으며, 그보다 좀 높은 곳에 야영지를 세우고 여기 머물러 정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74쪽)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통해 서부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함

여기에 도착하여 우리가 발견한 것은 몇몇 인디언들과 늑대와 토끼와 귀뚜라미들이었습니다. 시티 크릭 가장자리의 양버드나무와 버드나무 몇 그루 외엔 푸른 나무나 과일 나무나 푸른 들판 같은 것은 어떤 종류라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여기 도착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왔던 모든 것들을 2천킬로미터 내지 2,10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운반해 왔습니다. 집을 떠날 때, 우리는 폭도들이 훔쳐 가지 못했던 말과 황소와 송아지를 끌고 왔는데 몇몇 여인들은 스스로 자신의 가축 떼를 몰고 왔습니다. 미주리 강을 출발 할 때 166킬로그램이었던 식량이 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씨앗, 농기구, 옷장, 책상, 찬장, 소파, 피아노, 큰 거울, 멋진 의자, 카페트, 좋은 삽과 부젓가락 및 응접 세트를 비롯하여 요리용 스토브 등등의 기타 가구들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부녀자 및 어린이들과 함께 난장판으로 쌓인 물건들을 지친 말이나 한쪽 다리가 없는 황소, 젖꼭지가 하나뿐인 암소들로 운반해야 했습니다. 이 동물들은 우리의 유일한 운송 수단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건들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만져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80쪽)

계곡에 왔을 당시 성도들은 가난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75쪽)

그들은 녹비, 영양 가죽, 양가죽, 들소 가죽으로 각반과 신발을 만들었으며, 들소 가죽으로 몸을 둘러쌌습니다. 담요를 가진 자들도 있었으나 없는 사람도 많았으며, 제가 알기로는 셔츠조차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나 가족의 셔츠가 없다고 제게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75~476쪽)

이 계곡에 왔을 당시 제 가족 중 4분의 1은 신을 신발이 없었음을 감히 애기드릴 수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76쪽)

우리는 신앙을 갖고 신앙으로 살며 신앙의 힘으로 이 계곡으로 왔습니다. 저는 종종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왔습니다. 몇 마디 표현이 다소 거칠고 적나라하게 들릴 지 모르겠지만 이 말이 거의가 사실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81쪽)

우리는 이 땅에 대해 기도했고, 이 땅과 물과 공기, 그 밖에 이들이 속한 모든 것을 주님께 헌납했으며, 하늘은 이 땅에 미소를 보내셨습니다. 땅은 생산을 시작했고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곡식과 과일과 채소를 거두게 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83쪽)

말일성도들이 여기 오기 전에는 이 산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곳을 지나 여행하는 사람들조차 이 계곡에서는 옥수수 한 자루 재배할 수 없다는 믿음이 그들이 알고 있는 모두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풍부한 옥수수와 밀이 생산될 것임을 알고 있으며, 소와 말, 기타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종류의 가축을 키울 수 있는 훌륭한 장소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음을 압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85쪽)

아담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신 이 땅보다 더 축복 받은 땅은 결코 없었습니다. 우리가 충실하고 겸손하며 밀과 옥수수, 귀리, 과일, 채소, 가축 및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 그분께 감사하며, 지상에 그의 왕국 건설을 위해 그것들을 사용할 때, 이 땅은 앞으로도 더욱 더 축복 받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83쪽)

우리는 이 땅의 개척자들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74쪽)

우리는 이전의 두 개를 제외하고는, 첫번째로 신문을 발행했고, 과수원을 처음 시작했으며, 첫 밀을 재배했고, 첫 학교를 열었으며, 미시시피 강에서 태평양에 이르는 대부분의 길이 우리를 통하여 개척되었습니다. 마침내 여기에 도착함으로써, 우리는 완전히 폭도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눈을 피할 수 있을 만큼 멀리 가고자 생각했으며, 아브라함처럼 누군가와의 지속적인 충돌이 없는 낯선 땅으로 가길 원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76쪽)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디든 가야 했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하여 오지는 않았지만 이곳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장소였다는 점을 낯선 사람들이 이해하길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고 적과 맞서서 싸우며 투쟁하지 않는 한 어떤 사람도 여기 산다는 건 불가능했지만 말일성도들이 번성하기엔 최상의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여기 살면서 축복 받을 것이며 이곳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 것입니다. 전지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그의 성도들을 보호하셔서 그들이 주님의 뜻을 행한다면 적으로부터 방어해 주시고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느끼는 한 가지 두려움은 우리가 올바르게 행하지 못할 경우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행한다면, 우리의 빛이 숨기우지 않는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74쪽)

우리가 나부를 떠난 지 7년이 된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성전을 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꺼이 우리가 해낸 일을 회고해 봅니다. 여기에 우리들이 누렸던 특권을 갖지 못한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특권이냐고 묻고 싶습니까? 혹독한 시련을 통과한 특권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강탈당하거나 빼앗기지 않았고, 죽음과 폭도들의 한 가운데 있지도 않았으며,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가졌었던 그 특권을 가져 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82쪽)

여러분은 우리가 이 산맥에서 머물 것이냐고 묻습니다. 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꺼이 행하는 한, 예라고 대답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계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 주 하나님 기억하기를 배우고 기꺼이 주의 길을 걸을 때까지 우리는 적들에게서 쫓겨나 박해 받으며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83쪽)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여기 얼마 동안 머물 것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만큼만 여기에 머물 것입니다. "우리는 쫓겨나게 됩니까? 언제 갑니까?" 우리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고, 우리들 집에서 우리 스스로를 내몰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들에게서 쫓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얻을 수 있는 한 가장 좋은 지혜를 구하십시오. 어떻게 일할 것인지 배우십시오. 좋은 집을 짓고, 훌륭한 농장을 만들며, 사과와 배와 그 밖에 여기서 자랄 수 있는 과실 나무, 산 까치밥 나무와, 떨기나무 덤불을 심고, 딸기 모판을 가꾸며 아름다운 도시를 세우고 꾸미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483~484쪽)

이 산맥의 6백 마일에 걸친 우리의 정착촌을 표시하십시오. 그리고는 다리를 만들고 초원과 산들과 협곡을 지나며 여기로 올 때 만들었던 길을 표시하십시오. 우리는 낡은 짐마차에 무일푼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의 친구들은 "더 이상 얻을 수 없을테니 가져갈 수 있는 한 모든 비품을 가져가라, 거기서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을 테니 곡식 낟알도 가능한 모두 가져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가난한 사람도 한데 모았습니다. 주님의 분노와 격렬한 노여움이 얼굴을 지나갈 때까지 얼마동안 주님께선 우리를 숨겨 주시리라 약속하시면서 이 계곡에 우리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브리감 영 설교집*, 475쪽)

하늘의 은혜로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었으며, 오늘날 여기 이 산맥

의 응접실에 함께 모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없으며, 우리의 박해자로부터나, 또한 옛날에 살았던 세상의 소란과 혼동으로부터도 떨어져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82쪽)

학습을 위한 제언

일리노이 주에서 충돌과 성도들의 서부로의 탈출

- 브리감 영 대관장은 성도들을 로키 산맥과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계획에 대해 누구의 공적으로 돌렸는가?
- 어떤 상황이 성도들을 일리노이 주에서 쫓겨나게 했는가? 브리감 영 대관장은 성도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할지 어떻게 알았는가?

몰몬 대대의 질병과 행군

- 교회 지도자들은, 서부 이동의 그 중요한 시기에 왜 5백 명의 지원자들이 가족을 떠나 몰몬 대대에 참가하도록 격려했는가?
- 몰몬 대대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었다. 전투에 임하라는 정부의 요청 때문에 성도들은 어떤 고통을 겪었는가? 왜 그들의 희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 경험으로 얻은 이익은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들의 진영"은 주님의 자비로 보호 받음

-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배고픔을 어떻게 잠시 덜어 주셨는가? 주님께서는 필요시에 어떻게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 계시는가?

1847년, 브리감 영의 개척대가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향함

- 교리와 성약 136편에는 "서부로 향하여 여행 중인 이스라엘 진영에 관한 주님의 말씀과 뜻이니라."(1절)라고 되어 있다. 이 계시는 1847년 1월 14일 윈터 쿼터스에서 브리감 영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 136편에 기술되어 있는 조직 이외에 어떤 조언이 서부로 여행 중인 성도들에게 주어졌는가?
- 짐 브리저는 영 대관장에게 어떻게 관심을 표명했는가? 브리저씨에 대해 영 대관장이 강력한 반응을 보인 근거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신앙을 행사함으로써 따른 성공적인 결과를 어떻게 경험해 보았는가?

- 영 대관장은 왜 캘리포니아로 가지 않고 로키 산맥에 머물기를 선택했는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통해 서부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함

- 성도들은 어떤 방법으로 가난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했는가?
- 영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담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신 이 땅보다 더 축복 받은 땅은 결코 없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계속 보장 받기 위해서 어디에 살든 상관없이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가 보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성도들은 로키 산맥의 개척자들로서 무엇을 하였는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 교회를 짓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영 대관장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 "여기에 우리들이 누렸던 특권을 갖지 못한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강탈당하거나 빼앗기지 않았고, 죽음과 폭도들의 한 가운데 있지도 않았으며,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가졌었던 그 특권을 가져 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영 대관장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어떤 점에서, 솔트레이크 계곡이 "말일성도들이 번성할 최상의 장소"였는가? 곤경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축복했는가? 가장 큰 시련을 맞이했을 때라도 그것을 발전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브리검 영 대관장은 미국 서부의 산촌에 정착촌을 세운 위대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1877년에 맨타이 성전(위쪽에 건설 중인) 부지를 헌납했다.

제 16 장

시온의 건설

브리감 영 대관장은 시온 건설에 혼신의 힘을 다 바쳤다. 그는 근 십만 명에 이르는 말일성도들이 로키 산맥의 계곡에 집결하는 것을 감독했으며 약 4백 개의 도시와 마을을 정착촌으로 만들었다. 그는 성전과 태버내클을 세웠으며, 미국 서부 전역에 걸쳐 스테이크와 와드를 조직했고, 지상의 거의 모든 곳에 선교사를 파견했다. "우리는 천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시온을] 세울 것입니다."라는 그의 말처럼 브리감 영 대관장보다 희생과 요구된 노력을 더 잘 이해한 사람은 없었다.(브리감 영 설교집, 443쪽)

브리감 영의 가르침

시온은 마음이 청결한 자임

시온에 관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온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라면 우리가 바로 시온입니다. 왜냐하면 "시온은 마음이 청결한 자"이기 때문입니다.[교리와 성약 97:21 참조](*브리감 영 설교집*, 118쪽) 시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조직된 곳에 있습니다. 시온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영적으로 거하므로, 시온의 영을 항상 지니고 있다면 우리는 시온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18쪽)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이며, 세상이 시작된 이래 모든 예언자가 말하고 기록해 온 시온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공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시온의 사업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18쪽)

시온은 결국엔 이 세상 모든 곳에 뻗어나갈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구석도 시온이 없는 세상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시온이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20쪽)

인생의 목적은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여 우리 하나님의 시온을 건설하는 것이어야 함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시온을 건설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이방인이 가득 차게 하며, 우리의 능력으로 지구를 회복하고 축복하여 에덴 동산으로 만들며, 지식의 큰 보화를 비축하고, 지혜로우며, 우리 마음을 순화시키며,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는 것

이어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88쪽)

하나님의 시온을 건설하고 세우는 것 이외의 다른 사업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뜻을 따라 행해야 하며[교리와 성약 105:5 참조], 에녹이 건설하여 하늘로 들리워짐으로써 시온이 도망하였다 하는 말이 세상에 퍼졌던[모세서 7:69 참조] 그 옛날의 완전한 시온의 모형과 질서를 좇아야 합니다. 얼마 있지 않아 그 시온은 다시 돌아올 것이며, 백성들이 변형되도록 에녹이 준비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신앙을 통하여 지상에 돌아올 시온을 맞이하고 그 영광과 광명을 함께 하기 위해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43쪽)

우리는, 이 지상에 새 예루살렘이 건설되어 에녹의 도시가 합류[모세서 7:63~64 참조]되기에 앞서 주님께서 새로운 예루살렘 건설을 준비하실 그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있기 전에 죽음의 잠을 자고 있든 아니든, 우리는 그 날을 즐길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부모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기대와 확신으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그곳에 함께 있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만약 그 곳에 우리가 없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올 것입니다. 어느 경우라도 우리는 그분이 오실 때 거기 함께 있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2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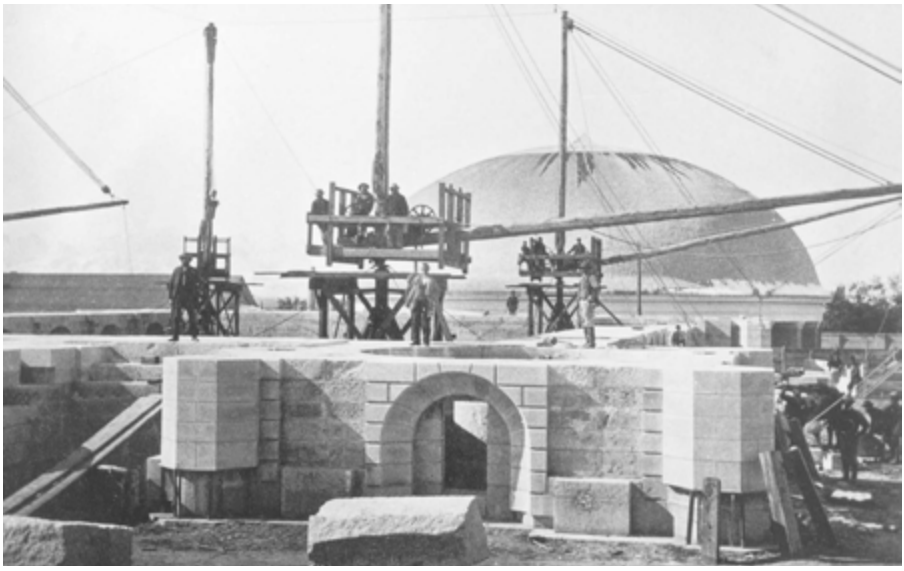
시온 건설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의식을 통하여 성결케 되는 것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신을 갈고 다듬어 순화시키며,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설립할 확실한 목적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이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온 세상 모든 곳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의 거룩한 신권의 의식을 [받으러] 나아와, 성도가 되어 주님의 재림을 완전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21쪽)

인봉 의식은 [아들]을 [아버지]에게로, 여인을 남자에게로, 자녀를 부모에게로, 아버지 아담에게까지 완전한 세대 고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빌론을 떠나[교리와 성약 133:5, 7, 14 참조] 함께 모여 자신을 정결케 하며, 하나님의 시온을 건설하기 위해 이 땅이 하나님과 천사들의 거주지로 준비하고 성결케 될 때까지, 황야를 문명지로 만들면서 도시와 성전들을 세우라는 계명을 받았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07쪽)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시온을 세우도록 방편을 마련하심

현세에서나 영원히 시온을 누리려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시온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신의 세상에 있는 시온을 스스로 조직하고 설계하고 강화하고 완전케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시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브리감 영 설교집*, 118쪽)



건설 중인 솔트레이크 성전 사진. 영 대관장은 시온 건설에 인생을 바쳤으며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 하나님의 시온 건설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브리감 영 설교집*, 88쪽)

시온을 만들 결심과 동시에 우리는 시온을 만들 것입니다. 이 사업은 각자의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자신의 가정에서 시온을 만들기 원할 때, 그는 이 훌륭한 사업의 선도자가 되어야 하는데, 자신이 시온의 영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가족을 성결케 만들기 전에 자신이 성결해져야 하며,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 그의 가족이 성결케 될 수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18쪽)

주님께서는 이 사업에서 그분의 몫을 다 하셨습니다. 그분은 밀, 고기, 아마, 양모, 비단, 과일을 비롯하여 말일의 아름답고 영광스런 시온 건설에 수반되는 모든 요소들을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셨으며, 이 요소들을 우리가 현재 가진 지식과, 충실함을 통하여 하늘에서 받을 수 있는 지혜에 따라 우리의 필수품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지상에 시온을 다시 가져 오실 것이며, 그 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94쪽)

사람들이 시온을 만들겠다고 일단 결심만 하면, 지상의 시온 건설을 위해 하나님의 손이 닿는 모든 사업에서 부족함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밀을 재배하거나 집을 짓고 사는 것과 같은 원리처럼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지상에 하나님의 시온을 만들 것입니다. 여기에 옥수수나 밀이나 그 밖의 것 등을 만들 재료가 없던 적은 없었으며, 항상 존재하는 재료의 현명한 관리와 배열을 통해 하나님의 시온을 지상에 세울 수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18쪽)

시온 건설은 엄청난 희생과 노력을 요구함

모든 말일성도들은 시온을 건설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시온의 도시는 아름다움과 웅장함에 있어 오늘날 지상에 알려진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저주는 지상에서 사라질 것이며 죄와 타락은 쓸려나갈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업을 누가 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시온의 중심 스테이크를 구속하시고 미화시켜서, 자신의 노력이 없는데도 사람들을 그곳에 데려다 놓겠다고 그들을 확신시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전과 태버내클과 바우어리(나뭇가지나 잎으로 지붕을 엮은 네덜란드인의 정자)를 짓거나, 과실수를 심거나, 무화과 잎이나 염소 가죽으로 앞치마를 만들거나, 놋쇠와 철로 작업을 하시려고 여기 오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이들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무를 행하려면 시온을 건설해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20쪽)

저는 이 회중들 속에서 시온의 중심 스테이크[미주리 주 잭슨 군; 교리와 성약 57:2~3]에서 쫓겨난 몇몇 남녀를 봅니다. 그들이 어떤 슬픔과 고난을 겪었는지 물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계명을 충실히 지키고 행해야 할 바대로 주님의 면전에서 생활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아름다운 땅을 보여 준 다음, 그들이 받을 수도 있었던 축복에 관해 물어 보십시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그의 짐은 가벼우니, 기꺼이 그의 멍에를 지고 계명에 순종하며 살면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었을 것을, 이기심과 탐욕에 절하며 마음으로 호색을 쫓아 그 결과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게 되었다고 자신들의 심경을 토로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13~114쪽)

훌륭하고 사랑스러우며 거룩한 것으로 기뻐할 때까지 우리 마음을 수양시킵시다. 이를 위해 예배당과 태버내클과 성전과 거리 등, 미화시키기에 편리하고 필수적인 여러 가지 것들로 구성된 시온을 효과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예지를 계속 탐구합시다. 평생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모든 과학 기술의 지식으로 정신을 함양시키며, 모든 창조물에 대한 위대한 계획과 설계를 이해하도록 부지런히 모색해 나갑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해야 하며, 우리의 손이 닿는 범위 내의 시설물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47쪽)

우리는 시온 건설을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어떻게 일할까요? 노력을 결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마음처럼 단합된 신앙으로 일하러 가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축복을 받고 번영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규모의 일이 놓여져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84쪽)

많은 말일성도들은 자신들이 복음에 순종해 왔으며, 집과 부모와 남편, 아내, 자녀, 농장, 조국, 기타 귀중히 여기는 것들을 위해 희생했으니 이제 사업은 끝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업은 지금 막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온을 세우기 위해 준비하고 우리 자신을 순화시키는 사업은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생각될 때에도 막 시작된 것에 불과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44쪽)

시온 건설과 관련 있는 모든 것은 사실상 힘든 노동을 요구합니다. 노동 없이 어떤 왕국이라도 건설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그것이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또 영적이든, 우리 조직의 모든 분야가 다 노동을 요구하며, 이것이 하나님 왕국 건설의 유일한 방법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91쪽)

우리가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야 하거나 시온을 세워야 한다면, 우리는 손으로 일하고, 마음으로 계획하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91쪽)

저는 끊임없이 시온을 봅니다. 우리는 천사나 에녹과 그 일행이 와서 시온을 세우도록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울 것입니다. 우리는 밀을 재배하고 집을 지으며, 농장과 울타리를 치고 포도밭과 과수원을 가꾸며 우리의 육체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 모든 것을 생산할 것이며, 이런 방법으로 지상에 시온을 세워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고 순수하게 지킬 생각입니다. 우리가 경작하는 토양, 우리가 짓는 집, 모든 우리의 소유물 전체에 걸쳐 우리의 신성한 영향력이 미치게 합시다. 부패와의 제휴를 끊고 우리들 마음과 집에, 도시와 나라 전역에 하나님의 시온을 세운다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지구를 정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구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가시와 엉겅퀴 대신에 이 땅엔 인간이 먹기에 좋으며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모든 유용한 식물이 피어 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43~444쪽)

주님께서는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제가 시온 건설을 시작할 때부터 항상 저를 축복해 주셨으며, 저는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로 말하자면 실로 엄청난 성질의 것이어서, 형제 자매님들은 "도저히 믿기 힘들다"라고 속으로 얘기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52쪽)

저의 영적인 즐거움은 제 자신의 생활에서 나온 것이어야 하지만 공동 생활의 안락함으로 더욱 커집니다. 행복하게도 저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제 자매들이 신앙 생활을 하며 스스로 복음의 빛과 영광을 누리려면, 순종하며 겸손하고 충실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뻐하며, 부름 받은 일에 참여하고 나쁜 일을 결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19쪽)

그러면 거리에서나 집에서나 모든 것이 화평하고 기쁘며 평온할 것입니다. 법률 소송은 사라질 것이고, 고등평의원과 감독의 재판소 앞에는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며, 법정이나 소란이나 투쟁은 모르게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19쪽)

그러면 우리는 시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이 청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19쪽)

제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지상에 그의 왕국을 세우며, 시온과 그 법을 만들고, 백성을 구하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의 보상이 어떤 것이 되든, 제 왕관이 크든 작든 어떤 것이든, 소유가 많든 적든 전혀 없든 간에 저의 모든 노동에 있어서라도 이러한 생각을 결코 제 마음에 품어 본 적이 없었음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결코 이것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의견을 가져 본 적이 없으며 그에 대한 어떤 것에도 마음을 쓴 일이 없습니다. 제 마음속에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일하는 것이 저의 의무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거민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원리가 본질상 순수하고 거룩하며 우리 마음을 고양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원리들 안에 영광과 영원한 증진이 있으며, 그 원리들이 빛에서 빛으로, 힘에서 힘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지식에서 지식으로, 권세에서 권세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52쪽)

학습을 위한 제언

시온은 마음이 청결한 자임

- 영 대관장은 시온을 어떻게 정의했는가?(교리와 성약 97:21 참조)
- 누가 시온의 의로운 거민들이며, 시온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시편 102:16, 니파이사서 15~17, 교리와 성약 109:39 참조)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여 우리 하나님의 시온을 건설하는 것이어야 함

- 영 대관장은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시온을 건설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교회 회원으로서 시온을 건설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이 사업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도울 수 있는가?
- 에녹이 세우고 완성시킨 옛날 시온의 "모형과 질서"란 무엇인가?(모세서 7:10~11, 17~21 참조) 오늘날 우리 가정이나 와드, 지부에서 어떻게 그와 똑같은 모형을 따를 수 있는가?
- 가족들이 자신의 집을 어떻게 시온으로 만들 수 있는가?

시온 건설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의식을 통하여 성결케 되는 것임

- 우리는 자신과 가족들을 어떻게 성결케 할 수 있는가?
- 왜 "바빌론을 떠나 시온으로 함께 모이라는 계명"이 주어 졌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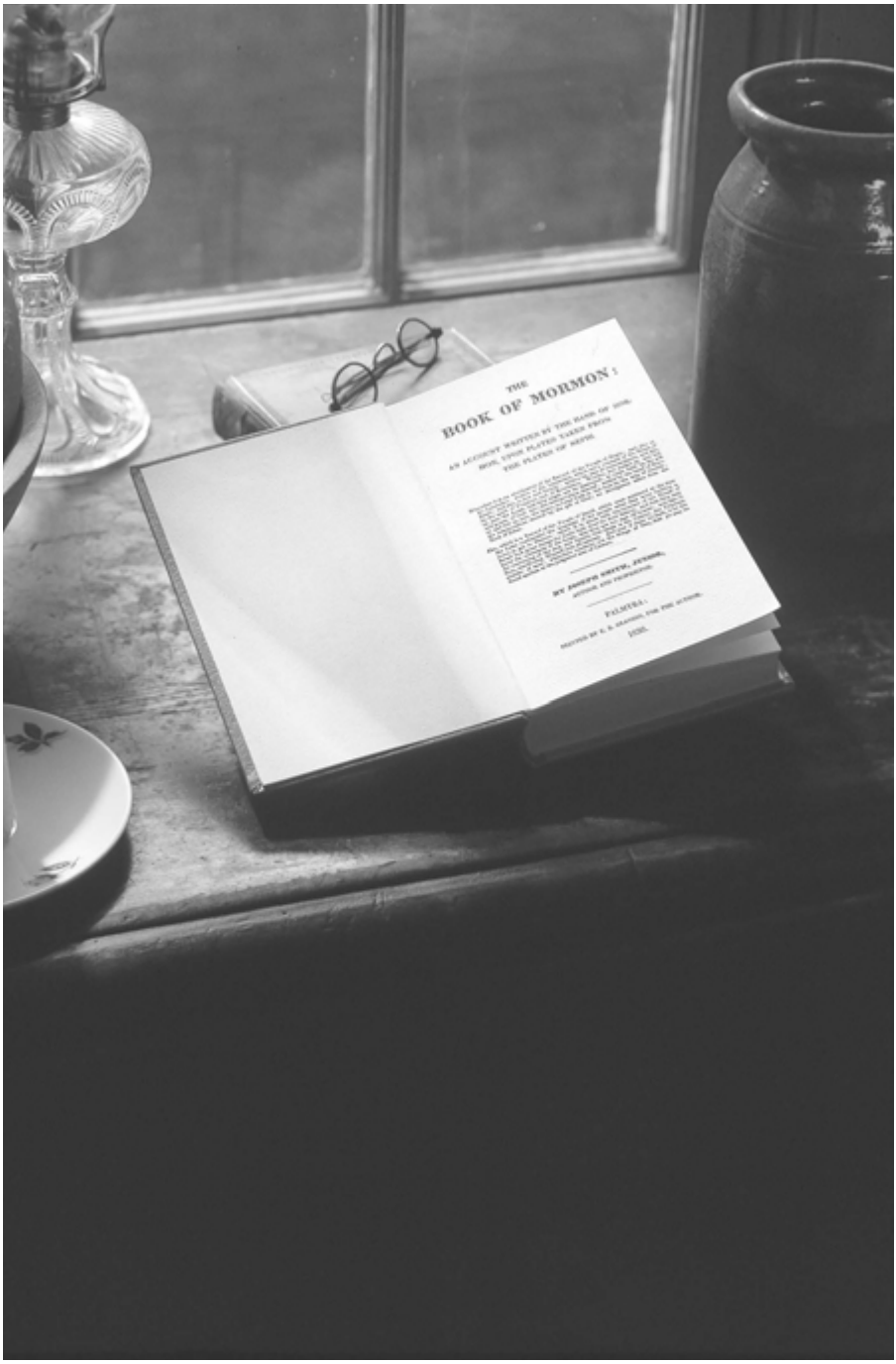
• 시온 건설과 성신권의 의식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시온을 세우도록 방편을 마련하심

- 주님께서는 우리가 시온 건설을 위해 바칠 수 있도록 무엇을 마련하셨는가?
- 시온은 "각자의 마음"에서 시작한다. 여러분은 시온 건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은사나 재능을 가지고 있는가?

시온 건설은 엄청난 희생과 노력을 요구함

- 교회의 초창기에 시온의 중심 스테이크가 계시되었다.(교리와 성약 57:2~3 참조) 영 대관장의 말씀에 따르면, 그 당시 성도들의 시온 건설을 막고 이것이 그들의 유산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은 무엇인가?
- 주님께서는 어떻게 시온 건설을 하실 것인가?(교리와 성약 105:5~6)
- 시온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의 수양"은 왜 중요한가?
- 영 대관장은 시온 건설을 위해 우리의 노력을 결집시켜야 한다고 가르쳤다. 우리의 가족과 정원회와 와드와 지부에서 어떻게 이것을 달성할 수 있는가?
- 주님께서는 시온 건설에 있어 왜 "사실상의 힘든 노동"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는가?
- 영 대관장은 "주님께서는 제가 시온 건설을 시작할 때부터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시온을 건설하겠다고 성약한 자들을 위해 어떤 축복이 마련되어 있는가?(이사야 51:11 참조)



브리감 영은 몰몬경을 읽고 그에 대한 기도를 하여 몰몬경의 진실성에 대한
간증을 얻을 수 있었다. 사람들이 자신의 모범에 따라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일한다면,
몰몬경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브리감 영은 가르쳤다.(*브리감 영 설교집*, 109쪽)

제 17 장

경 전

브리감 영 대관장은 저녁마다 기도의 종을 울려 식구들을 불러모아 찬송가를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등 가족 기도회를 열었다. 그는 경전을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음과 같은 비유를 이야기했다. "경전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리키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경전이 가리키는 방향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빛의 샘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27쪽) 그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고하였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2천년 전 또는 5천년 전의 시절로 되돌아가 경전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경전을 읽으십니까? 경전을 기록한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경전을 읽고 계십니까? 이러한 느낌을 느끼시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일상의 대화나 산책하는 것에 익숙해 있다든지 또는 여러분의 일꾼이나 집안 일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에 민감하여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의 특권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28쪽)

브리감 영의 가르침

경전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에 따라 생활할 경우, 생활에 필요한 영감과 지시를 받을 수 있음

하나님에 관한 기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전의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부여된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경전은 구약, 신약, 요셉 스미스가 전해준 몰몬경 및 교리와 성약을 말하며, 이것은 죄와 무지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경전은 바다의 등대나 또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리키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경전이 가리키는 방향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빛의 샘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27쪽)

저는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교리는 참되며, 이 교리에 따라 생활할 경우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 민족 또는 가족은 높이 들리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교리대로 생활하는 사람은 모두 지고의 상태로 들리움을 받을 것입니다. 교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지식, 지혜, 및 사랑을 더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은 자비로 가득 차게 되며, 비탄에 빠져 있거나 고통을 받고 있거나 타락의 상태에 빠진 사람들의 욕구를 보살필 것입니다. 경전의 가르침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집안이나 밖이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공의로우며, 참되며, 덕스러우며, 화평스러울 것입니다. 성경의 교리대로 생활한다면, 남자는 훌륭한 남편이 될 것이며, 여성은 모범적인 아내가 될 것이며, 자녀들은 순종하는 자

녀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이며, 민족은 부유하고 행복하게 되며, 세상적인 것을 초월하여 높이 들리움을 받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25쪽)

성경을 길잡이, 행동의 규범과 신앙의 초석으로 삼을 것을 권고합니다. 성경은 도시를 가리키는 이정표, 또는 산과 강의 위치를 알려 주는 지도로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지구 표면상의 경도 및 위도를 가리켜 줍니다. 따라서 성경을 믿는 것만큼 확실한 대안은 없습니다. 말일성도는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순수한 신앙과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25쪽)

우리는 성경이야말로… 어떤 목적지를 가리키는 길잡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담대히 전파하여야 하는 참된 교리입니다. 우리가 이 교리대로 생활하고 가르침대로 행할 경우, 성경은, 여러분을 보이는 그대로 볼 수 있고, 교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할 수 있으며, 천사들의 방문을 받을 수 있고, 꿈과 시현과 계시를 받을 수 있으며, 스스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여러분에게 지주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선조들의 걸어온 길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조들이 본 것을 볼 수 있으며, 그들이 체험한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26쪽)

성경, 몰몬경, 및 교리와 성약[이 성명을 발표할 당시에 값진 진주는 아직 경전으로 인정 받지 못했다.]의 원리 사이에 서로 모순되는 점은 없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오늘날의 형제들 모두가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기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면, 그들이 가르친 교리에 서로 모순된 점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언제나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생활을 할 경우, 결국 교리에서 벗어나 타락하는 사람도 생길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26쪽)

우리는 주님께서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교회에 주신 몰몬경과 교리와 성약이 참되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주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고 이해와 영적인 통찰력을 지니지 못하여 계시의 영에 의해 전해진 것을 있는 그대로 깨달을 수 없을 경우, 경전의 수와 관계없이, 경전은 우리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담 시대 이후부터 전해진 계시를 가졌다 해도 사람들 가운데 거하는 계시의 영을 지니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해의 영광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28쪽)

교리와 성약은 특히, 말일성도의 일상의 생활과 행동 규범을 위해 말일성도에게 주어진 책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28쪽)

성경에는 구원의 교리가 들어 있음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한 가지 설교로 일관되어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26쪽)

우리가 가르치는 교리는 바로 성경의 교리로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계시로 전해 주신 교리입니다. 한때 교리에 순종했다가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자신이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며, 자신이 진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훈계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26쪽)

성경은 참된 것입니다. 번역 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성경의 편집과 번역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귀중한 사실들이 고의로 누락될 수도 있겠으나[니파이일서 13:24~27], 구세주의 말씀과 행하신 일들이 기록되었다면, 그러한 사실을 누락시킨 것은 바로 세상이라는 것을 한 사도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요한복음 21:25 참조] 저는 세상 사람들이 구세주의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록 상에 가지고 있는 내용은 물론 경전에 설명된 구세주의 성품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기록 상의 내용은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것 중의 하나이며, 성경의 번역이 정확하게 되었다[신앙개조 8조 참조]는 것을 전제로, 그것을 일단 이해하기만 하면, 성경처럼 간단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오로지 진리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지한 자를 제외하고 진리에는 비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계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과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2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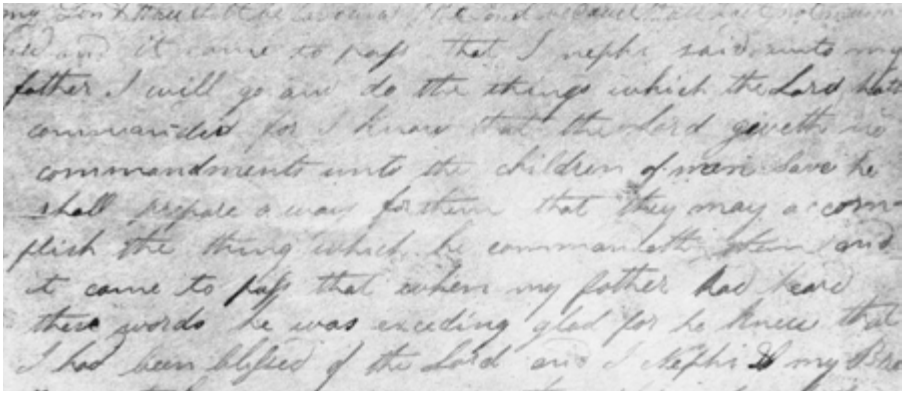
우리는 신약을 믿으며, 신약과의 일관성을 위해 새로운 계시, 시현, 천사, 성신의 은사, 경전 속에 실린 모든 약속을 믿어야 하며,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24쪽)

우리는 성경을 거룩하게 여기며 굳게 믿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24쪽)

경전을 읽으면 복음이 신약 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실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와 예언자들은 교회의 배도를 직접 목격했고 예언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필요할 때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진실과 신권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들의 사악함 때문에, 그들은 의식을 마음대로 고치고, 성약을 어기며, 율법을 범하여, 필경에는 지상에서 신권이 거두어지게 되고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배도와 암흑 속에 버림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모세와 예언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24~125쪽)

말일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천군의 천사들과 지상의 사람들 앞에서 구약과 신약의 번역, 영과 의미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경전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대로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25~126쪽)

몰몬경은 성경이 참되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고, 성경은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으며, 두 경전은 서로가 참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유다의 막대기입니다.[에스겔 37:15~19 참조] 여러분은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에 살았으며 주님께서 유다를 축복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구약과 신약의 기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막대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요셉의 막대기의 행방을 알 수 있습니까?



몰몬경의 최초 원고의 일부를 실은 사진

요셉의 막대기는 바다를 건너 미대륙으로 건너온 요셉의 자손이었습니다. 미대륙은 요셉의 자손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몰몬경 또는 요셉의 막대기는 요셉 자손들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에브라임의 손에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백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백성은 지상의 온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집합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며 그들을 집합시키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27쪽)

경전의 메시지는 주님의 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결하고 이해하기 쉬움

우리의 여건은 수천년 전의 선조들의 여건과 다릅니다. 선조들은 그들의 조상의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알려면 예언자나 예언자들에게 문의하거나 직접 계시를 받아야 했던 반면에, 우리는 먼저 살다간 사람들의 기록, 성령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록만 보면 간증을 구하는 모든 사람이 만족스런 답을 얻을 수 있으며, 믿고 있는 바를 읽을 수 있으며,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및 필멸의 생과 관련된 인류의 목적과, 슬픔의 계곡 저편에 있는 충만한 영광을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살다 간 선조들보다 유리한 여건에서 살고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28쪽)

어디서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경전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여러 가지 성구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경전을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며,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변화 무쌍한 인간의 상상에 따라 경전의 내용을 이해해서는 안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28)

브리감 형제님,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태도로 저는 성경을 믿어야 할까요? 형제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성경을 믿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저 기록된 대로 경전을 믿습니다. 경전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주님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기록된 것이 아니라면, 경전에 인간의 해

석이 가미된 것은 일체 믿지 않습니다. 분명하고 단순하며 있는 그대로의 경전 기록을 왜곡하려는 해석자와 해설자는 필요 없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26쪽)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 즉 계시의 영을 이해하고 구원의 복음이 미약한 인간의 능력에 맞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성경이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계시(교리와 성약 58편 참조)처럼 간결하고 이해하기가 쉽게 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28쪽)

성경의 어법은 수세기 전에 사용되었던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언어의 형태야 어찌되었든, 당시의 관습에 따라 쓰여진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상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대해 구약과 신약에서 가르친 교리, 그들의 구원을 위해 행한 역사, 그들의 구원을 위해 만드신 의식, 그분 아들의 은사와 대속 등은 모두 참되며 우리 말일성도는 이것들을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29쪽)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올바르게 이해할 경우, 복음은 이해하기가 쉬우며, 인간의 능력에 맞춰서 원리와 기타 모든 면에서 복음의 계획이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진실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경우, 복음의 메시지는 쉽고 명백하게 전해지며, 진리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구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흔쾌히 받아들이게 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29쪽)

계시의 영이 내면의 존재 또는 영혼과 대화를 하거나 영향을 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합당한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려면 우리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족, 이웃 사람들, 친구들 및 지상의 모든 사람들을 어디서 마주치든, 그들에 대해 시기, 원한, 분노, 분쟁, 좋지않은 감정을 품지 않아야 하며, 욕을 해서도 안됩니다. 양심에 부끄럼없는 깨끗한 생활을 합시다.(*브리감 영 설교집*, 36쪽)

학습을 위한 제언

경전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에 따라 생활할 경우, 생활에 필요한 영감과 지시를 받을 수 있음

- 영 대관장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왜 주님의 교리를 경전에 기록된 대로 공부하여야 하는가? 영 대관장은 성경과 기타 경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가?
- 수백, 수천 년이 된 기록은 어떤 방법으로 오늘 날 우리의 생활을 인도하는가? 경전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의 생활을 인도하였는가?
- 영 대관장은 교리와 성약이 전해진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일상적인 생활과 활동"에서 교리와 성약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교리와 성약 4:3~4,

84:43~44, 86:11, 121:41~42, 45)

성경에는 구원의 교리가 들어 있음

-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한 가지 설교만을 가르치고 있다고 영 대관장은 말씀했다. 그 설교란 무엇인가?
- 경전은 "구세주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 유다의 막대기와 요셉의 막대기란 무엇인가? 성경과 몰몬경은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요셉의 막대기는 어떤 목적으로 "에브라임의 손"에 맡겨졌는가?

경전의 메시지는 주님의 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움

- 경전에 대해 줄곧 인간의 해석을 구하는 자에게 영 대관장은 어떤 훈계를 주었는가?
- 우리가 경전으로 된 예언자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이점이 있는가?
- 경전에서 어려운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점만을 보지 말고 우리의 생활을 인도할 귀중한 원리와 교리라는 점에 주목할 것을 영 대관장은 권고하였다. 그가 구체적으로 언급한 교리는 어떤 교리인가? 이러한 교리는 왜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가?
- 영 대관장에 의하면, 경전은 어떤 사람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며 이해하기 쉽다고 하였는가?
- 계시의 영이 내면의 존재 또는 영혼과 대화를 하거나 영향을 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합당한 생활을 하여야 한다고 영 대관장은 가르쳤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계시의 영을 지녀 경전의 메시지를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제 18 장

신권

브리감 영 대관장은 경륜의 시대에 초대 십이사도의 일원으로 성임되었다. 성임과 동시에 받은 축복으로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이한 일을 행하며, 악령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며, 세상의 방방 곡곡 어디든 갈 수 있도록 그에게 거룩한 신권이 부여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교회 정사, 2:188~189) 그에게 부여된 신권은 "다스림, 율법과 의식을 위한 완전한 체계"이며,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경우", 의로운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축복, 지식 및 계시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고 그는 천명하였다.(브리감 영 설교집, *130, 131*쪽)

브리감 영의 가르침

주님은 신권을 통하여 하늘과 지상에서 그분의 사업을 주관하심

하나님 아들의 신권의 참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권은 세상이 현재 존재하며, 과거에 존재하였으며, 앞으로 영원히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율법입니다. 신권은 세상을 창조케 하고, 그 세상에 사람을 살 수 있게 하며, 날짜, 주일, 월, 년, 계절 및 시대 등 순환 주기를 정해 주며, 땅이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려 지고의 상태로 변화할 수 있게 하는 체계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30쪽)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들의 신권은 다스림을 위한 완전한 질서임과 동시에 체계입니다. 따라서 신권만 있으면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악으로부터 인간의 가족을 해방시킬 수 있고 내세에서 가족에게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30쪽)

이 신권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상에 존재하였습니다. 아담은 신권을 지녔으며, 셋도 신권을 지녔으며, 에녹도 신권을 지녔으며, 노아도 신권을 지녔으며, 아브라함과 롯도 신권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이 신권은 고대 선조들의 시대가 끝나고 상당한 세월이 흘러 예언자들의 시대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대신권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높은 반차에 속함으로 모든 신권을 관리하며, 지시하며, 다스리며, 통제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31쪽)

우리가 하늘에서 계시에 의해 전해진 해의 왕국의 율법, 즉 신권을 말할 때, 이는 곧 우리가 이 문에서 저 문으로, 한 파수꾼 곁에서 다른 파수꾼 곁으로 통과하여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의 면전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구원의 원리, 다스림, 율법 및 의식의 완전한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30쪽)

두 개의 위대한 세력, 즉 그리스도와 벨리알[악령]이 분쟁을 벌이게 된 진짜 원인은 제가 퀘이커 교도, 감리교도 또는 "몰몬"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상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고 인간에게 그분의 이름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능과 권세를 부여하는 성스러운 신권을 회복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76쪽)

복음으로 인해 우리는 성신권을 받게 되었고, 이것은 인간의 자녀들에게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신권의 열쇠는 이 지상에 있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권의 열쇠를 가진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베풀 수도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30~131쪽)

여러분의 섬세한 판단력으로 하나님께서 성신권을 계시하셨고, 지상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셨으며, 충만한 복음을 회복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집합시키는 일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쁘게 받아들일 경우, 여러분은 천국에 가서 직접 눈으로 모든 것을 보듯이, 여러분이 알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29쪽)

이 율법이 늘 지상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율법이 없었을 때, 다른 율법을 인간의 자녀들에게 주어 그들이 발전하고, 그들이 배우는 데 지침으로 삼게 하였고, 또한 그들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려 하였습니다. 오늘날 소위 전통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생겨난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30쪽)

신권이 없이는 말일성도는 행동할 수 없고, 의무도 필요 없으며, 시간을 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설교를 하든, 사업을 하든, 또는 이 생을 위해 필요한 합당한 처신과 관련하여 기타 어떠한 행위를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은 신권의 주관 하에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3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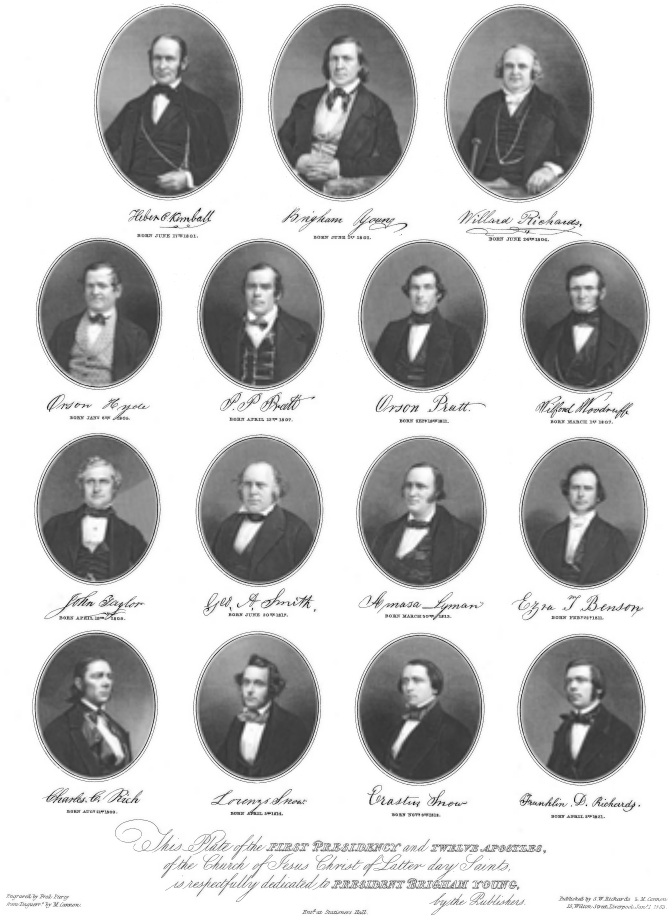
전지 전능하신 주님은 다시는 신권이 지상에서 거두어지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31쪽)

신권을 소유한 충실한 장로들은 영의 세계에 갈 때, 그들이 필멸의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 누렸던 권세와 신권을 그대로 지니고 갈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32쪽)

말일성도의 권세에 대해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권세를 가진 말일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한 것일까요, 아니면 신권에 대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권에 대한 것입니다. 말일성도가 신권에 따라 생활할 경우,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시작하고 매사에 승리를 거둘 수 있으며, 영광, 불사 불멸 및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으며, 그들이 영의 세계에 들어갈 때, 그들의 사업은 이 지상에서 신권의 열쇠로 축복 받지 못한 그 어떤 사람들의 사업보다도 훨씬 훌륭하게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31~132쪽)

신권의 열쇠로 "주님의 보물함을 열 수 있음"

신권과 신권의 열쇠는 인간에게 부여됩니다. 신권의 열쇠를 잘 이해하면, 그 열쇠로 주님의 보물함을 열 수 있고 넘치도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점이 많고 연약



1853년의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한 인간이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31쪽)

사악한 무리들이 요셉의 생명을 앗아갔다고 해서 "몰몬주의"를 말살할 수 있을까요? "몰몬주의"는 아직도 이 지상에 건재하고 있습니다. 신권도 이 지상에 있습니다. 왕국의 열쇠도 이 지상에 있습니다. 요셉이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그것들마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사악한 무리가 저의 생명을 앗아가는 데 성공한다 해도, 왕국의 열쇠는 교회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34쪽)

하나님의 집에서 베풀어지는 여러 가지 의식은 인간의 가족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늘에 계신 전지 전능한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지식을 가진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지상에 이러한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이상, 이 열쇠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사

용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의식이 집행되는 성전은 구원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필요한 곳이며, 성도들에게 설교하기에 영광스러운 주제가 되는 곳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96~397쪽)

우리는 진실만을 말하건대, 요셉 스미스 이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언자였고,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에 따른 성신권의 열쇠를 받고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성임 받았으며, 또한 그가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집합시키며, 구원을 믿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며, 범법 때문에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권세를 받고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성임 받았다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 목숨을 다할 때까지 주님을 믿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 모두의 이름과 함께 양의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이며, 그들은 영광, 불사 불멸과 영생의 왕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5쪽)

신권의 권세를 받고 행사하려면 의로워야 함

신권을 소유하고, 부름에 계속해서 충실하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들을 수행하는 것을 끊임없이 기뻐하며, 주어진 모든 임무를 목숨이 다할 때까지 실행하는 자는 하나님에 관한 기사를 받을 수 있는 특권 뿐만 아니라 이 기사에 대한 지식과 이 기사를 받을 수 있는 방편을 받게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며, 옳고 그름,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과 속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신권, 즉 인간의 육신 속에 거하는 영은 계속해서 자라서 마침내 생명수의 샘과 생명의 나무가 될 것이며, 나아가서 당사자에게 주어지는 예지와 교훈의 계속적인 근원이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32쪽)

성신권을 담은 그릇이며, 영생의 말씀을 세상에 전할 책임을 진 사람들은 지고하신 분의 성직자이며 동시에 대표자로서의 부름과 직분을 최대한으로 영화롭게 하기 위해 자신의 언행과 일상적인 품행을 합당하게 하여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30쪽)

성신권이 지상에 있고 백성들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였을 때, 주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주신 율법, 교리 및 의식을 철저하게 따라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32쪽)

합당한 대상에 대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집중시키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며, 생활이 정결하고 거룩하며, 부여된 신권과 능력에 따라 자신의 임무나 부름을 낱낱이 행할 경우, 여러분은 성신으로 채워질 것이며, 누구라도 여러분을 기만하여 파멸의 길로 이끌 수 없으며, 여러분은 오히려 용광로와 같은 뜨거운 불 속에서도 타지 않는 깃털과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32쪽)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기심과 개인적인 욕심을 지우고 오로지 만인의 복지에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성신권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33쪽)

성신권은 개인과 가족들에게 성스런 축복을 가져다 줌

성신권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인봉의 의식으로 선조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인류에 이르기까지 연결하는 완전한 줄을 형성할 때까지(교리와 성약 128:18 참조), 성신권의 권능으로 우리와 선조들 사이에 연결의 줄이 맺어질 것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저는 날이면 날마다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여 성신이 그들의 변함없는 동반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며, 감독, 관리 장로, 고등 평의원 및 하나님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관리 임무를 수행하며, 가족과 친구들을 친절함으로 이끌고 그들을 진리와 유덕함의 길로 인도하여 종국에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라고 권고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36~137쪽)

학습을 위한 제언

주님은 신권을 통하여 하늘과 지상에서 그분의 사업을 주관하심

- 영 대관장은 신권을 무엇이라고 하였는가?(교리와 성약 84:17~22 참조)
- 이 생에 필요한 합당한 처신과 관련하여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왜 신권을 따라야 하는가? 신권은 가정, 교회, 학교 및 직장에서 우리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신권을 통해서 충실한 장로들은 영의 세계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 교회 회원인 우리는 왜 신권의 원리와 반차에 따라 생활하여야 하는가?(교리와 성약 20:38~60 참조) 신권은 우리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어떻게 하면 신권의 영향과 권세가 여러분의 생활과 가족 생활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까?

신권의 열쇠로 "주님의 보물함을 열 수 있음"

-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사망으로 신권의 열쇠가 교회에서 없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신권의 열쇠가 어떤 방법으로 "주님의 보물함을 열고" 인간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가?
- 영 대관장은 신권의 열쇠에 대해 무어라고 가르쳤는가?(교리와 성약 107:18~20, 35, 132:7 참조) 신권의 열쇠는 주님의 종들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가?

신권의 권세를 받고 행사하려면 의로워야 함

- 신권 소유자의 개인 생활은 주님을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개인적인 의로움은 왜 그토록 중요한가?(교리와 성약 107:99~100, 121:41~46 참조)
- "신권을 담는 그릇인 인간"은 자신의 직분과 부름을 어떤 방법으로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자신의 부름에서 주어진 임무를 이행하는 회원들에게 어떤 축복이 내려지는가?
- 이기심과 신권의 권세는 어째서 양립할 수 없는가? 신권을 영화롭게 하려면 왜 이기심을 버려야 하는가?(교리와 성약 121:37 참조) 오늘날 이기심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가? 어떻게 하면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가?

성신권은 개인과 가족들에게 성스런 축복을 가져다 줌

- 신권은 어떤 방법으로 가족을 축복하고 강화시켜 왔는가? 신권의 권능이 영원한 가족을 만드는 데 중요한 까닭은 무엇인가?(교리와 성약 128:18, 131:19 참조)
- 신권 소유자가 "가족과 친구들을 친절로 이끌고 그들을 진리와 유덕의 길로 인도" 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제 19 장

상호부조회와 그 회원의 책임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조직한 나부의 여성 상호부조회는 1842년부터 1844년까지 가난한 자들을 돕고 나부의 자매들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요셉 스미스가 순교를 당한 후, 상호부조회는 여러 해 동안 중단되었다. 1854년에 브리감 영 대관장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매들이 벌인 사업에 힘을 입어 유타의 몇몇 와드에 상호부조회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1857년에 미국 정부가 존스턴의 군대를 유타로 파견하자, 상호부조회를 비롯한 와드의 조직들은 다시 중단되었다. 1867년 말, 영 대관장은 자매들의 조직이 없이는 가난한 자들의 필요 사항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그는 감독들에게 상호부조회를 조직할 것을 요청하였다. "자, 감독님 여러분, 장차 아내가 될 수 있는 총명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와드의 여성 상호부조회를 조직할 수 있는 일을 맡깁시다. 우리에게 재능이 있는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호부조회를 조직하는 일에 그들의 도움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 일이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으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매들이 이러한 운동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매님들에게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을 빌려 주십시오. 그들에게 여러분의 영향력을 빌려 주십시오. 그들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인도하고 지시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매님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뭔가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독님 여러분께서는 보다 신속하게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데져렛 이브닝 뉴스, 1867년 12월 14일자, 2쪽) 오늘날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서로 협동하여 가족과 지역 사회를 도우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다.

브리감 영의 가르침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을 받고 있는 자를 보살피는 일을 도움

저는 자매들을 위해 짤막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감독과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시를 받아 상호부조회를 창립하고 형제들의 지시를 받아 직접 조직하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218쪽)

이해력이 뛰어난 자매님들을 지도자로 삼은 다음, 이해력이 있는 남자들에게서 도움이 되는 조언을 듣도록 하십시오. 여성 특유의 직감을 이용하여 여성 고유의 고상한 성품을

완전하게 파악하십시오.(*데져렛 뉴스: 주 2회 간행물*, 1867년 4월 28일자, 2쪽)

자매로 하여금 고통을 받고 있는 자와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호소하게 합시다. 여성이 같은 여성들에게 호소할 경우, 거의 틀림없이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방법으로 활동을 할 경우, 현재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가난한 자들의 궁핍한 사정을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데져렛 이브닝 뉴스*, 1867년 12월 14일자, 2쪽)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자들을 기쁜 마음으로 먹이고 언제나 준비된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면, 길거리에서 먹을 것을 달라고 구걸하는 사람이나 아이들이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마땅히 상호부조회를 조직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과부와 고아들의 마음은 아낌없이 쏟아지는 넘치는 축복으로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17쪽)

자매 여러분, 이웃의 아이들이 옷도 변변히 입지 못하고 맨발로 돌아 다니는 일이 없는지요? 그런 일이 있다면, 상호부조회 여러분은 그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그들을 학교에 보내야 합니다. 젊거나, 중년이거나, 나이든 여성들로서 궁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신들을 스스로 부양해 갈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줍시다. 하지만 게으른 자를 구해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 이유는 능력이 있으나 일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도우면 사회에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17쪽)

여러분의 이웃에 어려운 사람들의 궁핍함을 구해 줍시다. 이러한 일은 감독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상호부조회의 능력과 권한에 속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18쪽)

여러분은 이 도시와 계곡 어디서나 상호부조회 회원으로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여러분의 현재 여건을 살펴봅시다. 이러한 점을 스스로 고려한 다음, 일을 시작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영향력에 대해 알아 보십시오. 그런 다음, 선행을 행하며 가난한 자들을 구하기 위해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주간 데져렛 뉴스*, 1869년 8월 14일자, 2쪽)

이러한 여성 상호부조회가 한 일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호부조회 회원들이 지상에서 그들의 고귀한 부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이 받은 권고를 열성적으로 충실하게 수행한 사람들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밀레니얼 스타*, 31:269)

자기의 수완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자매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진전시킬 수 있음

자매님들이 상호부조회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대부분의 자매님들이 많은 일을 해주신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들이 계속해서 상호부조회 일을 수행하고 발전시켰으면 합니다. 상호부조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몇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경륜을 많이 쌓은 자매님들께서 어린 소녀들이 부족한 것을 과하게 책정하여 이를 충족시키려는 과한 욕심을 부리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것만을 가지도록

엘리자 알 스노우(1804~1887)의 판화. 그녀를 종종 "시온의 여시인"이라고도 하였다.
그녀는 나부 상호부조회 초대 서기를 지냈으며,
20년 간 제2대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했다.

가르쳤으면 합니다. 허영이란 끝이 없는 법입니다.… 우리는 허영에 쉽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로 인도된다면, 잘못된 판단을 시정할 수 있으며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18쪽)

숙녀 여러분께서 모든 사람들이 빚만 잔뜩 지게 하는 일을 하여 그들을 비참하게 만든다면, 여러분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남자들도 여성들처럼 낭비벽이 없는지요? 그렇습니다. 남성들이라고 해서 어리석지 않다는 법은 없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13쪽)

훌륭한 살림꾼은 절약하고 아끼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훌륭한 살림꾼이 되도록 가르치고 그들이 책임 맡은 모든 것을 알뜰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일러 줍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13쪽)

여러분의 자녀들이 빵과 기타 식량을 낭비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여분의 빵이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자녀들이 빵을 함부로 낭비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아이들이 소중한 의복을 함부로 다루게 해서는 안되며, 그들에게 질기고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입혀야 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절약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수집해 놓은 것들을 주어야 합니다.(*주간 데저렛 뉴스*, 1861년 5월 29일자, 2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축복과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방법과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의 시간, 재능 및 일체의 행동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53쪽)

지상에서 소비하는 시간은 곧 우리의 생명이며, 자산이며, 자본이며, 재산이기 때문에, 시간을 유익하게 써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17쪽)

자매 여러분, 이러한 점들을 명심하신다면, 시간은 곧 지상에 존재하는 소중한 자원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시간을 황금처럼 여겨야 합니다. 시간은 곧 재산이므로, 이용만 잘 한다면, 여러분에게 위안, 편리 및 만족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그 이유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발전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는 것이 남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14쪽)

자매들은 자기의 생활을 "영화롭게 하고, 더욱 알차게 하며, 귀하게 여겨야 함"

이곳에는 이미 온갖 풍상을 겪으며 경험을 쌓은 젊거나, 중년이거나, 나이 든 여성들이 있습니다. 자매님들께서 자기의 생명을 영화롭게 하고, 알차게 하며, 귀하게 여기기 위해 능력에 따라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족과 형제들을 위해 수행해야 할 피할 수 없는 의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밀레니얼 스타*, 31:267)

자매 여러분은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합니다. 미신을 좋아하고 무지한 나머지 이것을 자랑으로 생각한다면, 교만이 주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여 천상의 전지전능함과 신들의 세계에 존재하는 아름다움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사를 볼 수 있다면, 아름답고 사랑스런 창조물을 어떤 것인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함과 아름다움이 넘친 천사처럼 자신을 가꾸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215쪽)

이브는 우리의 최초의 어머니에게 부여된 이름, 또는 칭호입니다. 그것은 이브가 이 지상에 살게 되는 모든 산 자의 어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은 사람으로 창조되었다고 생각합니다.(*밀레니얼 스타*, 31:267)

우리는 즐거움, 고통 및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역겨운 것에 기뻐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래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선한 것에 기뻐해야 합니다.(*밀레니얼 스타*, 31:267)

여러분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서 질서와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구합시다. 도시와 이웃을 가꿉시다.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스럽게 가꾸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자비로 채웁시다.(*브리감 영 설교집*, 200쪽)

자매 여러분,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면,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의 빛을 사람들 앞에서 비추게 합시다. 여러분이 무지하거나 게으른 자매들을 가르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웃 사람들과 지역 사회에 증명해 보입시다.(*주간 데저렛 뉴스*, 1859년 6월 15일, 2쪽)

제가 여성 상호부조회에서 자매님들에게 종종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매님들이 공부만 한다면, 남자 못지 않게 훌륭한 수학자나 회계사가 될 수 있는 자매님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매님들은 이러한 지식의 분야를 공부하여 그들이 부여 받는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특권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여성들은 집안을 청소하며, 설거지를 하며, 잠자리를 정돈하며, 아기를 키우는 일 뿐만 아니라 계산대의 일을 맡으며, 법률이나 물리를 공부하여 우수한 장부 계원이 되고 회계 사무소에서 사업을 하는 등 매우 쓸모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여성들은 사회를 위해 자신들의 유용성의 영역을 더욱 넓혀 갈 수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16~217)

여성 상호부조회의 자매님들은 지금까지 참으로 큰 일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들과 딸들이 얼마나 많은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양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수행하는 훌륭한 사업은 영원의 세계까지 계속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16쪽)

학습을 위한 제언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을 받고 있는 자를 보살피는 일을 도움

- "가난한 자를 기쁜 마음으로 돕고 언제나 준비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자매들에게 영 대관장은 어떤 축복을 약속하였는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 개인, 가족, 또는 지역 사회는 기타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기쁜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왜 중요한가?
- 능력이 있으면서 자발적으로 일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면 왜 "사회에 해가" 되는가?
- 영 대관장은 "이웃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의 궁핍한 상태를 해소해 줄 것"을 자매들에게 권고하였다. 사람들은 어떤 유형의 궁핍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 여러분 주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궁핍한 상태를 목격하였는가? 가족, 와드 또는 지부, 사회에서 어

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도울 것인가?

-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선행을 실천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협동하여 일을 할 때 개별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큰 일을 성취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 상호부조회의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 상호부조회를 통해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자기의 수완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자매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진전시킬 수 있음

- 영 대관장은 어린 소녀들의 궁핍한 상태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들을 가르칠 것을 상호부조회 자매들에게 권고하였다. "허구의 궁핍한 상태"와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간의 차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갈망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현재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해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가?
- 우리가 가진 자원을 지혜롭고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성도들이 검소한 생활을 할 경우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자원을 보다 지혜롭게 이용할 수 있을까?
- 영 대관장은 시간을 "자본", "재산", "부"라고 하였다. 시간은 왜 그토록 중요한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을까?

자매들은 자기의 생명을 "영화롭게 하고, 더욱 알차게 하며, 귀하게 여겨야 함"

-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활을 "영화롭게 하고, 더욱 알차게 하며, 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
- 어떻게 하면 직업상의 질서와 청결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질서와 청결함은 왜 중요한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자비로 채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떻게 하면 말일성도 여성이 "자신들을 선함과 아름다움의 천사처럼" 만들 수 있을까?
- 여성들이 자기의 재능을 발전시키는 것은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여러분은 어떤 재능을 바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은 일상적인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제 20 장

교회의 조직과 관리

브리감 영 대관장은 그의 연세가 77세 되던 해에 신권 사업에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성도들을 하나가 되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보살피기 위해 신권을 조직하였다. 영 대관장의 보조 보좌인 조지 큐 캐넌 장로는 영 대관장이 마지막으로 마무리한 중요한 사업이 가져올 효과를 높이 기렸다. 캐넌 장로는 영 대관장이 "지상에 교회가 조직된 이후 처음으로 신권을 반석에 올려놓았고, 사도,… 칠십인,… 대제사,… 장로,… 소신권 등의 하나님의 권능의 임무를 기록에 분명하게 명시된 바에 따라 명백하게 규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가 실수를 범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라고 말하였다.(교회 정사, 5:507)

브리감 영의 가르침

하나님은 교회의 대관장을 통하여 교회에 그분의 뜻을 밝히심

하나님은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발전시키고 건설하는 문제에 관한 교리를 계시로 전하시고 그분의 뜻을 알리고자 하실 때 오직 한 분의 입을 빌려 자신의 참뜻을 백성들에게 알리게 합니다. 주님께서 계시를 백성들에게 전하고, 새로운 교리를 그들에게 주시며, 또는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오직 그분께서 직분과 부름을 주신 자를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교회의 나머지 직책과 부름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지체를 통한 교화 등의 일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조직의 모든 지도자, 감독, 장로, 제사, 교사, 집사 및 회원들은 신권의 반차와 직분이 서열에 따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세상의 하나님의 양의 무리를 치는 목자 역할을 하며, 교회의 대관장단을 돕는 일을 수행하여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37쪽)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의 대관장단, 이스라엘의 장로 및 기타 모든 역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을 지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집합시키며, 시온을 구원하며, 세상을 구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그들의 마음을 늘 그러한 간절한 소망으로 채워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37쪽)

교리의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나서 그러한 결정을 유효하게 하려면, 의견, 신앙 및 결정이 만장 일치로 수렴되어야 합니다. 교리와 성약에 기록된 말씀처럼, 제시되는 어떤 문제에 대해 의로운 결정을 내리려면, 세 분의 대관장단은 정원회의 자격으로 의견 일치를 보아야 하며, 십이사도 정원회 역시 의견 일치를 보아야 합니다. 이들 정원회가 만장 일치에 의한 결정을 내릴 때, 이 결정을 참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107:27 참조] 장로들은 함께 모여 신앙을 행사하며 참된 마음을 가지고 어떤 문제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볼 때, 여러분은 이러한 결정이 참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33쪽)

전지 전능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자기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경우,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도록 방치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이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할 필요없이, 아기가 엄마의 품에서 편하게 잠을 자듯 안심을 해도 좋습니다. 그 이유는 지도자들이 잘못하여 여러분을 표류하게 할 경우, 주님께서 그들을 이 지상에서 재빨리 몰아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능력의 범위내에서 교회를 이끌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37쪽)

십이사도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신권의 열쇠를 가지고 있음

사도의 부름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신권의 열쇠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직분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의 면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에 필요한 모든 신권, 모든 열쇠, 모든 은사, 엔다우먼트와 기타 모든 것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것들은 사도직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밀레니얼 스타*, 15:489)

우리가 미주리 주에서 돌아온 후, 조셉 영 형제님과 저는 모임에서 설교를 마친 후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나서, 요셉 스미스 형제님은 "저와 함께 저의 집으로 가십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집으로 가서 그의 선창에 따라 장시간 노래를 부르고 나서 그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그동안 생각해 왔습니다만, 그는 처음으로 십이사도와 칠십인에 대한 화제를 꺼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들, 저는 십이사도를 부르려 합니다. 시온까지 따라온 사람 중에서 십이사도와 칠십인을 선택하려 합니다.…" 1835년 1월 말인가 2월인가에 매일 회의를 열었습니다. 요셉 스미스 형제님은 [2월 14일에] 십이사도를 불렀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41~142쪽)

십이사도를 부른 목적은 만방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권세의 열쇠를 가진 사람은 바로 사도이며, 그 밖에 다른 사람은 이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사도가 자기의 부름을 영화롭게 한다면, 그는 곧 늘 백성들에게 전해 주는 주님의 말씀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39쪽)

형제 여러분, 저는 신권의 반차를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남자가 사도로 성임되면, 그의 신권은 멜기세덱 신권처럼 생명이 시작되는 날이나 끝나는 날이 없습니다. 생명이 시작되는 날이나 끝나는 날이 없다고 말한 것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멜기세덱 신권을 두고 한 얘기입이다.(*브리감 영 설교집*, 141쪽)

성신을 변치 않는 동반자로 삼고, 늘 계시의 영이 임하는 가운데 살며, 자신의 임무를 알고 자신의 부름을 이해한다는 것은 십이사도의 의무이자 특권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또한 교회 대관장단의 의무이자 특권이기도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39~140쪽)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성신권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며, 그 신권의 권세는 그의 머리 위에서 인봉됩니다. 이로써 그는 진리를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게 됩니다. 그들이 흠없는 신권을 받고서도 진리를 외치지 않을진대 그 죄는 그들 자신의 머리 위에 머무르게 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36쪽)

소신권은 사도직의 권한의 범위에 속하는데, 사도직을 가진 남자는 임무의 필요에 따라 대제사, 고등 평의회의 일원, 축복사, 감독, 장로, 제사, 교사, 집사 및 중요한 직책에서 작은 직책에 이르기까지 교회에 속하는 기타 모든 직분 및 부름을 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40쪽)

십이사도가 부름을 받고 성임을 받으면, 그들은 세 사람의 대관장단과 동일한 권세와 권위를 가진다는 것이 계시에 언급되어 있으며, 여러분은 이를 읽었을 것입니다. 계시를 자세히 읽으면, 이 신권에서 나오는 직분과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07:22~26 참조] 칠십인은 이와 동일한 권세와 권위를 가집니다. 칠십인은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온전한 상태로 세우고, 건설하고, 규제하고, 성별하며, 성임하기 위해 [임무 지명에 의해 권세를 위임 받습니다.] 우리에게 대제사 정원회가 있으며, 그 수는 많습니다. 대제사 정원회는 지역의 조직으로 정원회에 속한 대제사들은 지역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칠십인은 여행을 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대제사가 부름을 받을 경우, 그들 역시 이러한 일을 합니다. 정확히 말해서 대제사는 칠십인, 십이사도 및 대관장단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가 이 신권의 모든 권능, 권세 및 열쇠에 대해 성임 받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제사일뿐입니다. 그들이 이 신권(부름)을 영화롭게 할 경우, 그들은 경우에 따라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권위와 권세를 받게 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40쪽)

감독 직분은 아론 신권에 속하며 속세에 관한 일과 영적인 일을 관리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짐

[관리 감독]의 직분은 소신권인 [아론] 신권에 속합니다. 감독은 아론 신권의 최고직의 역원으로 천사의 성역을 베풉니다. 감독이 신앙을 가지고 있고 신앙에 따라 생활할 경우, 아론이 누린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43쪽)

감독은 자신의 부름과 임무에 따라 항상 교회 내에서 봉사를 합니다. 그는 해외에서의 복음 전도를 위해 부름 받지 않았으며, 국내에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독은 해외로 나가지 않으며, 성도들과 함께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44쪽)

감독은 매사에 와드에서 온전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44쪽)

감독이 자신의 부름과 직분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고 이를 영화롭게 하려 한다면, 와드 내의 모든 회원에게 적절한 부름을 주고 와드를 위해 최대한으로 봉사의 기회를 줄 것입니다. 감독은 모든 성도로 하여금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게 할 것입니다. 와드 내에서 그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그는 회원들의 형편, 행동 및 감정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디모데전서 3:1~4 참조](*브리감 영 설교집*, 145쪽)

감독은 자신이 신뢰하고 있고 정직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을 망대의 파수꾼으로 삼아야 하며, 그들로 하여금 고통 받고 있는 자를 찾아내게 하여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45쪽)

각 감독에게 자신의 와드를 충실하게 보살피게 하고, 모든 남녀가 충실하고 보람을 느끼며 자신의 부름을 잘 수행하는지 살펴야 하며, 병든 자와 노인들이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살피게 해야 합니다. 각 감독은 와드의 온유하고 너그러운 아버지가 되게 하여 필요한 곳이면 어디서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들려 주고, 권고의 말씀을 하며, 징계의 말씀을 하게 해야 하는데, 단 공평한 태도로 하여야 합니다. 그는 사람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와드 소속 모든 사람의 복지를 진지하게 걱정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며, 참된 목자의 주의 깊은 관심으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켜야 하며, 이리와 들개들이 양의 무리에 뛰어들어 선한 양을 해치게 해서는 안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44~145쪽)

이것은 곧 감독 여러분의 임무이자 부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와드 내에 성도들이 거하는 곳에 여러분이 모르는 곳이 있어서는 안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46쪽)

감독은 교사들을 통하여 와드 내의 능력이 있는 모든 가족이 금식일에 당연히 소비하게 되는 것을 가난한 자에게 기부하게 하여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45쪽)

교회의 선도는 사람들이 의로움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됨

하나님께서 친히 지상에 계시면서 다스리시듯 우리가 그분처럼 다스릴 수 있는 준비를 갖추기 전에는,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권위의 열쇠가 우리에게 맡겨지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46쪽)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이 지상에 조직되면, 하나님의 왕국에는 율법에 따르지 않거나 어기는 자들을 관리하고, 옳은 일을 하기를 소망하고 있으나 복음의 율법과 원리에 따라 살 수 없는 자들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모든 역원, 율법 및 의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이같은 권세와 권능이 존재하게 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46쪽)

감독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선도 위원회나 민사 법원에 서로 고소하는 회원들을 재판합니까? 와드의 형제들이 불화를 일으키고 있는지요? "그런 일이 있다구요?" 이런 경우에 감독은 어찌하여야 합니까? 감독은 정해진 규칙대로 형제들을 화해시켜야 합니다. 제 생각으로 형제들 사이에 일어나는 불화의 대부분은 원한과 사악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형제애의 정신으로 문제를 서로 의논하기보다 다툼으로써 필경에는 과실을 범하게 되어 스스로 죄를 짓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99가지 선한 일을 하다가 어쩌다 한 가지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잘못만 생각하고 선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서로를 심판하기 전에, 마음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그 의도가 사악한 것이라면, 그 사람을 징계하고 그를 의의 길로 인도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49~150쪽)

어떤 사람이 고등 평의회, 감독 및 판사들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 그들이 이 사람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이해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도록 성신의 권세가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독과 기타 역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권세와 지혜를 받아 그들 앞에 제기될 모든 사건의 참된 성격을 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33쪽)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몽둥이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는 것은 알지 못하고, 다만 여러분이 달콤한 당밀을 빨아 먹을 수 있도록 빨대를 건네준 것만을 생각하는 한 장로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 한 마디나 가벼운 징계에도 마음 상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기처럼 감정이 유약하며 불길 앞에서 양초처럼 녹아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심하게 징계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충분히 헤아리는 입장에서 징계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에게 온종일 얘기했으나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란 다 같을 수 없습니다. 그들을 있는 그대로 대하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150쪽)

여러분이 서로 질책할 경우, 즉 형제들이 여러분을 만나서 "이런 점에서 당신은 잘못한 것입니다"라고 말할 경우, 여러분은 그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감사를 하며, 잘못된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흔히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시인하고 이렇게 말하여야 합니다. "저를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가 그렇게 인도되어 서로를 강화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나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이 필멸의 육신으로 있는 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50쪽)

형제 자매 여러분, 지도자로부터 징계를 받을 경우, 여러분의 적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언제나 징계를 친구의 우정어린 친절로 받아들이고 적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다고 여겨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의 지도자가 여러분의 적이라면, 그들은 여러분이 잘못을 저지르도록 그대로 버려둘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면, 당연히 징계를 받게 되며,[히브리서 12:6 참조] 징계를 기쁘게 받아 들여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33쪽)

학습을 위한 제언

하나님은 교회의 대관장을 통하여 교회에 그분의 뜻을 밝히심

- 주님은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 대관장, 대관장단 및 십이사도를 어떻게 활용하시는가? 교회의 기타 직분을 맡고 있는 지도자들은 이들을 어떻게 돕고 있는가?(교리와 성약 107:21~38, 132:7 참조)
- 교회의 관리 정원회를 어째서 신뢰할 수 있는가?(교리와 성약 107:27을 참조)
- 주님은 왜 예언자가 교회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도록 방치하시지 않을까? 영 대관장은 임무를 완수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었는가?(교리와 성약 선언문 1 참조)

십이사도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신권의 열쇠를 가지고 있음

- 사도직의 신권의 열쇠는 무엇인가?
- 사도의 임무는 무엇인가?(교리와 성약 107:23~24, 33, 58 참조)
- 사도의 부름과 멜기세덱과 아론 신권의 기타 직분간의 관계에 대해 토론한다.(교리와 성약 107:58 참조)
- 칠십인이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지시를 받아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칠십인의 임무는 무엇인가?(교리와 성약 107:34 참조)

감독 직분은 아론 신권에 속하며 속세에 관한 일과 영적인 일을 관리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짐

- 감독은 어떤 열쇠, 권세 및 권능을 가지고 있는가?(교리와 성약 84:26~27, 107:13~17 참조) 아론 신권 회장을 맡고 있는 감독의 책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와드의 관리 대제사인 감독의 책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브리감 영에 의하면, "자신의 와드를 충실하게 보살피는" 감독은 어떤 일을 하여야 하는가?(디모데전서 3:1~7 참조)
- 우리가 가정 복음 교사 또는 방문 교사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교회를 지키는 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교회의 선도는 사람들이 의로움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됨

- 영 대관장은 범법자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 "형제들 사이에 일어나는 불화의 대부분은 원한과 사악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영 대관장은 말씀했다. 오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는 어떤 권고의 말씀을 하였는가?
- 영 대관장은 선도 조치 평의회가 어떤 일을 하기를 바라시는가?(교리와 성약 107:71~84, 134:10 참조) "하나님의 권세와 지혜"는 사람들이 선도 조치 평의회에서 재판을 할 때 어떤 도움이 될까?(교리와 성약 121:41~42 참조)
- 교회의 선도 조치 평의회에서 재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선도 조치를 받게 될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 영 대관장은 "선도를 받게 될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충분히 헤아리는 입장에서 징계하는 것"에 대해 무어라고 말씀하였는가?(니파이삼서 18:28~32 참조)
- 영 대관장은 우리가 지도자들로부터 징계 받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가르쳤는가?(교리와 성약 95:1 참조)

성찬식은 "우리가 굳건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믿고 있으며 그분을 따르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께 증거"하는 데 필요한 의식이다.(*브리감 영 설교집*, 171쪽)

제 21 장

안식일과 성찬식을 거룩하게 함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하던 날, 브리감 영 대관장은 개척자 진영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관해 간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황무지를 개간하며 곡식을 심는 등, 시급한 현안들이 산더미 같은 가운데, 그는 "형제들에게 일요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하며, [만약 일을 한다면] 그렇게 함으로써 얻은 수확의 다섯 배를 잃게 되리라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일요일에는 낚시를 하거나 사냥해서도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윌포드 우드럽의 일지, 1847년 7월 25일) 영 대관장은 자주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거룩한 종교를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킬 것을 권고했습니다.(브리감 영의 설교집, *165쪽*)

브리감 영의 가르침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써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 축복을 받음

이 책(교리와 성약)을 펼쳐서 성도들은 안식일에 함께 모이라[교리와 성약 59:9~16 참조]는 이 구절을 읽어보십시오.… 말일성도라고 불리우는 이 백성은, 주님의 여러 계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 날에 함께 모여야 합니다. 이 계명에 의하면, 우리는 함께 모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며,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통을 기억하여 [성찬]을 취하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64쪽)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고자 함께 모일 때 세속적인 염려를 세속에 그냥 버려두어야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 예배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성령을 받기에 적합한 상태가 되어, 사물을 그 자체의 영원한 견지에서 듣고 이해하게 되며, 하나님의 섭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마음이 열려, 그들은 하나님이 그분의 영을 통해서 나타내어 보이시는 그분의 감추어진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67쪽)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일 때 모두가 정숙해야 합니다. 온전히 정숙을 유지해야 함을 기억하고 또 노력하십시오. 귓속말을 하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발을 끌거나 하지 마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167~168쪽)

하나님께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자 잠시 동안 밭을 내버려 둔다면, 우리가 종일토록

밭에서 일할 때보다 더욱 풍성한 수확을 거두리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장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주고, 심고, 힘들여 일을 할지라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망각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날 때, 우리의 건강과 영이 더욱 나아지고, 우리는 훨씬 좋아 보일 것이며,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 주위에 더욱 풍성히 늘어나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즐겨야 할지 보다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67쪽)

우리는 스스로의 세상적인 영리와 영적인 복리를 위하여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에 어느 농부가 추수를 하고, 건초 더미를 쌓고, 울타리를 치고, 가축을 한데 모으는 일 등으로 바쁘게 하루를 보내는 것을 볼 때, 내게는 그가 신앙이 약한 사람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는 다소 종교의 영을 잃은 사람입니다. 일하는 데는 6일이면 충분합니다.[출애굽기 20:9~11] 놀고자 한다면, 6일 동안에 놀도록 하십시오. 소풍을 가고자 한다면, 6일 중 한날을 택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일곱 번째 날에는 예배의 장소로 나아오도록 하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165쪽)

안식일을 온통 노동으로 채우려 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적은 활동을 하도록 하십시오. 음식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조차 하지 않아도 된다면, 더욱 좋습니다. 그렇지만, 진실로 제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로운 성약 하에서 일 주일 중의 한 날을 휴식의 날로서, 주님의 안식과 성도들의 안식을 기념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지킬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세속적인 자신의 영달을 얻기 위해서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인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바로 그 목적 때문에 제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책(성경)에 안식일은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안식일은 인간에게 축복입니다. 그 날에는 노동이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그날은 계시에 따라[교리와 성약 59:10~12 참조], 지정된 장소에 함께 모여, 죄를 고백하고, 십일조와 헌물을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안식의 날로서 성별 되어야만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64쪽)

형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에 얼음지치러 가거나 사륜 마차 타기(유희의 일종)를 하거나, 또는 소풍가는 사람들은 — 이러한 일들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 신앙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그들이 누리는 종교의 영이 그들의 가슴과 마음에서 새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곧 머지않아 그들은 형제에게서, 교회의 교리에서, 조직에서 결점을 찾게 될 것이며, 마침내 하나님 왕국을 떠나 파멸의 길에 접어 들 것입니다. 저는 진실로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여 이웃들에게 전해 주기를 바랍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65쪽)

가난하든 부하든 간에, 우리가 기도와 성찬식을 소홀히 한다면, 주님의 영을 소홀히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암흑의 영이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70쪽)

우리는 매주 안식일마다 이곳 또는 와드 모임에 함께 모여 서로 가르치고, 대화를 나누

며, 함께 기도하고 노래하고, 서로를 간곡히 타이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거룩한 종교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러한 관례는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너무나도 쉽게 방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일 주일에 한번, 두 번, 혹은 세 번이라 할지라도 되풀이하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않을 때, 우리는 우리들 각자의 우상으로 되돌아 갈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65쪽)

주님께서는 우리들 내면에 신성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 신성한 불멸의 영은 양육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음식이 영을 양육하는 그러한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음식은 단지 영이 육신에 머무르는 한 이 육신의 생명을 지탱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안에 내재한 신성은 그 기원이 되는 생명의 샘으로부터 나오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은 땅에서 난 소산이 아니라, 하늘에서 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신성함에서 비롯된 영생의 원리만이 유일하게 불멸의 영을 먹이며, 진정한 만족을 줍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65쪽)

일 주일 중에 하루는 이 태버내클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나, 그 외의 다른 모든 시간에는 마음의 끌림이나 의지대로 행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처럼 행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완전히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 태버내클에 있든, 또는 다른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그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66쪽)

일요일뿐만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등 모든 날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온전히 성취할 수 없습니다.[교리와 성약 59:11 참조](*브리감 영 설교집*, 166쪽)

서로를 강화시키기 위해 함께 모임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는 함께 만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강화하며, 서로에게 좋은 일을 해줄 수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67쪽)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이상, 서로에게 위안의 말을 나누도록 합시다. 거룩하고 순수한 영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는 여러분의 빛을 밝히십시오. 그러나, 만일 사탄이 여러분을 시험하거나 미혹하거나 매질하고 있다면, 입을 떼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자신에게 집중시키십시오. 왜냐하면, 말은 선하든 악하든, 그 본질에 따라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66쪽)

한 [사람이] 기도로 모임을 시작하거나 마칠 때, 회중 가운데 성도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를 막론하고 모두 마음으로나 입으로도 전체 회중을 위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사람의 말 이외에 어떠한 바램이나 말도 해서는 안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70쪽)

가끔 제가 어떤 형제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듯이, 만일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모임에 활

1875년, 솔트레이크시티 제13와드 상호부조회 회장인
레이첼 리지웨이 그랜트(앞줄 가운데)와 보좌 및 서기들. 상호부조회는 전세계의 자매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계명을 지키도록 가르침으로써 그들을 축복하고 있다.

력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 모임에 가서 활력을 넘치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무가 됩니다. 여러분이 속한 지역의 모임에서 주님의 영과 권세가 증진시키는 일에 여러분의 본분을 다하도록 합시다.(*브리감 영 설교집*, 170쪽)

나는 회중에게 전하는 말씀 지명을 받은 형제에게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하는 설교는 간결해야 합니다. 생명력과 영으로 채워지지 않은 설교라면 더욱 짧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대회에서 우리는 말씀 지명을 받은 모든 장로들에게 긴 설교를

할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를 고무시키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흔들리는 자를 굳건하게 하여 하나님 왕국을 나아가게 하는 몇 마디의 조언의 말씀, 혹은 간증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은 드릴 수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67쪽)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가지 청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십시오. 만일 전할 말이 없을 경우, 제 권고를 받아 들여 그냥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하지만 전할 말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전하도록 하십시오. 다 전했을 때에는, 말씀을 끝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그래야 하듯이, 진리와 의 가운데 기뻐하며, 영생의 원리에 의거하여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절제하도록 하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167쪽)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바라는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들여지기에 합당하도록 말씀을 전하는 것이며, 듣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말을 하는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68쪽)

회중 앞에서 연설하고자 노력할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제게 그분의 영을 주실 것과 제가 전하기를 바라시는 것들을 제 가슴에 담아 둘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68쪽)

저는 회중의 주의와 신앙을 지닌 사람들의 신앙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백성들을 교화할 수 있도록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영이 함께 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지난 37년간 대중 연사로 활동해 왔지만, 청중 앞에 설 때면 저는 거의 언제나 어린 아이 같은 두려움을 느끼곤 하였습니다. 므두셀라만큼 산다 하더라도, 제가 그러한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지로 빛나는 사람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저는 그 얼굴에서 제가 섬기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신성의 일부를 지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육신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이 필멸성은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물려 받은 그 신성 앞에서 움츠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68쪽)

연사가 회중에게 말씀을 전할 때, 비록 어설픈 몇 마디 말밖에 전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만약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이 순수하다면, 그같은 어설픈 문장이 주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은 위대한 웅변보다도 더 가치가 크며, 하나님과 천사와 모든 훌륭한 인간들이 보기에 더 참된 가치를 지닌다. 기도를 드릴 때, 기도의 말씀이 비록 몇 마디밖에 되지 않고 그 표현이 어눌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순수하다면, 그 기도는 키케로[기원전 1 세기경의 로마의 웅변가]와 같은 대웅변가의 능변보다도 더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표현 양식에 관해 온 인류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는 어떠한 면에 마음을 두고 계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단순하고 정직한 가슴에서 나오는 기도를 사람들이 내는 허식과 교만과 장려함과 능변으로 가득한 기도보다 낫게 받아들이십니다. 진지함, 정직, 어린 아이와 같은 단순함 등으로 충만한 마음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영원한 원리를 확인하십니다.… "그것은 내 왕국의 영이요,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준 영이니라."(*브리감 영 설교집*, 169쪽)

저는 선하고 사랑스러우며 기품 있고 칭찬할 만한 모든 것을 본받는 것이 우리의 의무

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훌륭한 연사의 모범을 따르며 우리의 생각을 서로에게 가장 훌륭하고 선별된 언어로 전달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할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대체로 제가 구사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언어를 사용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69쪽)

[그렇지만] 비록 제가 식자들이 달성한 모든 언어의 기술을 익혔다 할지라도… 제 영혼은 가장 학식 있는 사람들의 문예체의 말보다는 단순한 언어로 아이들이 나누는 듯한 담백한 대화를 더욱 기뻐할 것입니다. 생각을 평이하고 명료한 방법으로 나타내는 것이 가장 즐겁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69쪽)

금식일은 궁핍한 자를 돕고 간증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여러분은 매달 첫째 목요일[현재는 첫째 일요일]이 금식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금식일의 유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십일조가 지불되기 전에는, 헌물로 궁핍한 사람들을 지원하였습니다. 궁핍한 사람들이 커틀랜드에 있던 요셉에게 찾아와 도움을 청했을 때, 요셉은 금식일이 있어야겠다고 말했고, 그로부터 금식일이 제정되었습니다. 요즘과 마찬가지로 금식일은 한달에 한번 가졌는데, 그날에 먹었을 밀가루나, 고기, 버터, 과일, 그 밖의 것들을 금식 모임에 가지고 가, 그 헌물을 관리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임무를 맡은 사람에게 넘겨줍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69쪽)

성도들은 금식일 모임에 함께 만나 자신들의 느낌을 표현하며 거룩한 복음을 믿는 신앙으로 서로를 강화시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69쪽)

여러분은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과 그들이 직접 체험한 것들에게 대하여 간증하는 것을 통하여 예지의 영, 지식의 영, 위안을 주는 성신의 영향력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복음 진리를 나타내 보이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마음에 생생하게 느껴보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이 강화되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증거를 더욱 크게 갖게 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되리라는 것은 가장 확연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간증할 때, 그 간증이 고대에 성도들이 "서로 자주 이야기하라", "형제를 강화하라" 등과 같은 권고를 지킨다면, 고대와 마찬가지로 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70쪽)

성찬을 취함으로써 우리는 구세주를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맺은 우리의 성약을 새롭게 함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집에서의 의식, 특히 안식일에 주님 만찬을 기억하는 성찬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종교의 영과 하나님과 형제들과 함께 맺은 성약에 의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의무입니다. 그런 다음, 와드 모임과 정원회 모임 등에 참석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71쪽)

지금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성찬식] 의식은…, 우리가 맏형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께 그분의 이름을 기꺼이 짊어질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할 때, 몸과 마찬가지로 마음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임에 올 때 온전한 사람으로 오기를 바랍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71쪽)

저는 형제 자매 모두에게 안식일마다 함께 만나 이 의식을 받아들일 것을 간곡히 권고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의식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순종할 때 주어지는 약속된 축복을 얻고자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구하기를 간구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성찬식을 지킬 것을 가르치며, 그 필요성을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 율례를 지키는 것이 사람들을 성결케 하기 위해 제정된 다른 의식과 계명에 못지 않게 우리의 구원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사 그들에게 그분의 영을 주시며, 그들이 자신들을 영생에 굳게 맬 수 있도록 안내하실 것입니다. 어린이들의 마음에 이 중요한 의식의 성스러움을 깊이 새기도록 하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171~172쪽)

우리는 구세주의 죽음을 기억하여 [성찬을 취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시기가 언제든 그에 상관없이 성찬을 취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세대가 왔다 간다 할지라도, 그를 믿는 사람들은 그가 다시 오기까지 그의 죽음과 고통을 기억하여 빵과 포도주[오늘날에는 물]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왜 그들에게 이러한 것이 요구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천사들에게 자신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며, 영적으로 거듭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의 왕국을 세우고, 그의 이름을 경외하며, 그를 진심으로 섬기는 일, 곧 그리스도를 따름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것이 말일성도가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 의식을 행하는 이유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72쪽)

우리가 이 의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은혜는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의식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그에 따르는 모든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72쪽)

우리가 주님과 천사와 다른 사람들 앞에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맺은 성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세상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열망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실증해 보이는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72쪽)

학습을 위한 제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써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 축복을 받음

-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에 대해 주님은 어떠한 요구를 하시는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때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가?(교리와 성약 59:9~16 참조)
- "우리는 매주 안식일마다 이곳 또는 와드 모임에 함께 모[일]…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영 대관장은 말씀했다. 영 대관장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자 함께 모일 때"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했는가? 어떤 것들이 안식일에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려는 우리의 마음을 흐트려 놓는가?
- 영 대관장에 따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조금씩"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영 대관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안식일에 하는 활동의 합당성 여부를 결정지을 때 우리가 자신에게 어떠한 질문을 물어 볼 수 있겠는가?(예: 이 활동은 우리의 영적인 복리를 위한 활동인가?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증진시켜 주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남을 축복하도록 하는 활동인가?)
- 왜 우리는 안식일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주님을 경배해야 하는가?(교리와 성약 59:11 참조) 주일에 경배하는 것과 안식일에 경배하는 것의 상이점이 각각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매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을까?

서로를 강화시키기 위해 함께 모임

- 안식일에 예배드리기 위해 함께 만나는 것은 왜 중요한가? 안식일 모임에서 우리가 서로 인사를 나누고, 말하거나 가르칠 때 어떠한 의도를 갖고 해야 하는가?(교리와 성약 43:8~9) 다른 말일성도와의 교제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는가?
- 영 대관장은 교회 모임에서 말씀하도록 지명받은 사람에게 어떠한 권고를 주셨는가? 왜 성신의 영향이 수려한 언어보다 더 중요한가? 그는 회중에게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우리 모임에 "활력을 줄 수" 있을까?(교리와 성약 50:21~2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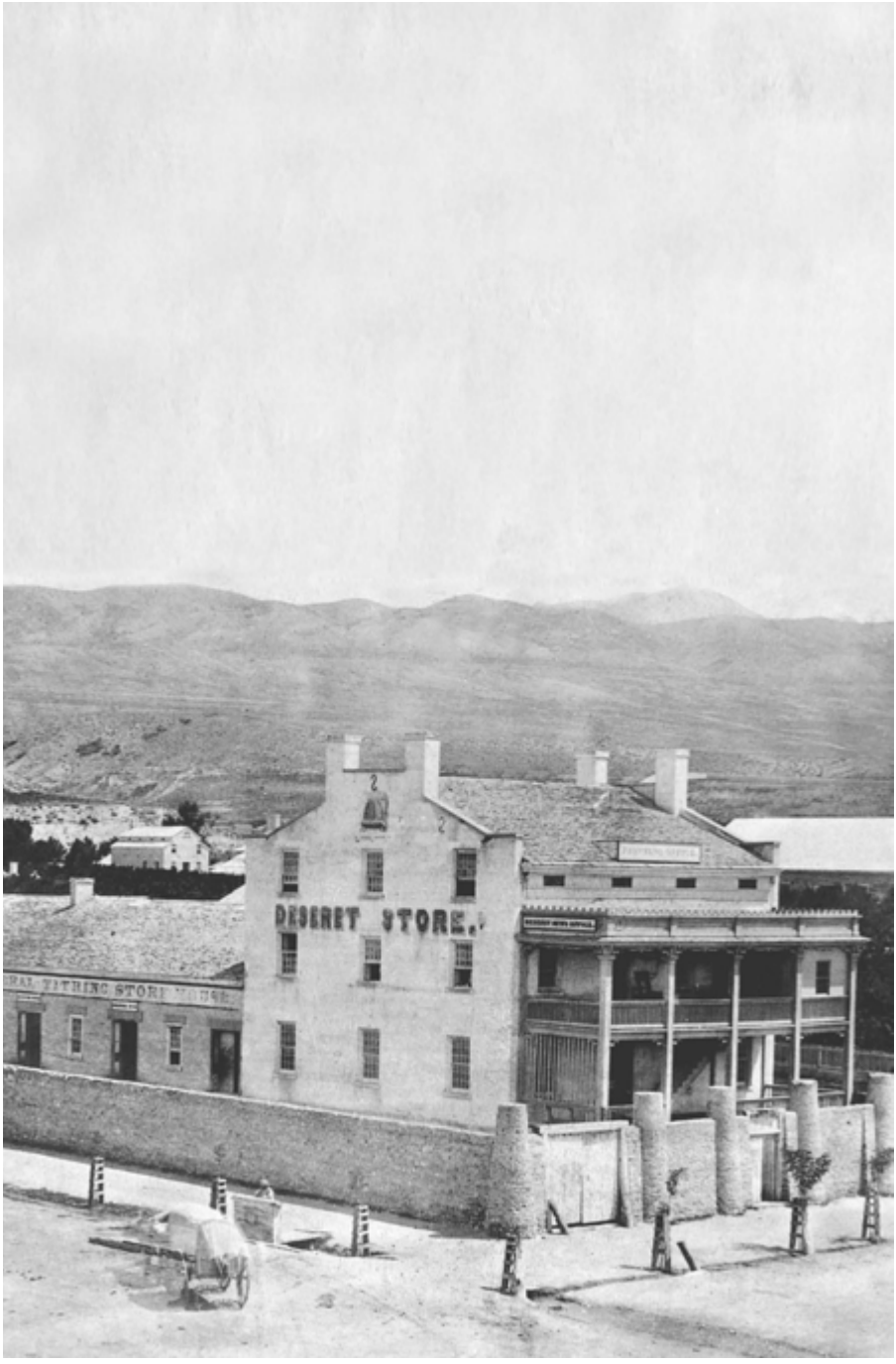
금식일은 궁핍한 자를 돕고 간증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 영 대관장에 의하면, 금식일은 왜 제정되었는가?
- 후한 금식 헌물을 헌납하는 것은 수여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우리는 금식 주일에 서로 간증을 나누는 기회를 갖는다. 간증을 나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간증을 전하고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것들에 관해 간증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강화되었는가?

성찬을 취함으로써 우리는 구세주를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맺은 우리의 성약을 새롭게 함

- 우리가 일요일 모임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찬을 취하는 것이다. 주님은 왜 숙고하는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라고 하시는가?(교리와 성약 27:2 참조)
- 우리는 성찬을 취하면서 어떤 성약을 맺는가?(교리와 성약 20:75~79; 모로나이서 4:5 성찬 기도문 참조)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주님은 온전한 소망을 갖고 성찬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우리는 이 약속된 축복들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 성찬을 취하는 것은 한 주일 내내 구세주께 헌신하겠다는 결심을 어떻게 강화시켜 줄 수 있는가?(교리와 성약 59:9~12 참조)



1860년 경 솔트레이크시티의 십일조 창고.
영 대관장은 십일조의 법은 "하나님이 인간 가족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과 승영을 위하여 제정하신 영원한 율법"이라고 가르쳤다.(*브리감 영 설교집*, 177쪽)

제 22 장

십일조와 헌납

브리감 영은 그 앞에 닥친 모든 시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며, 우리가 버리는 것만이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에게 승영을 준비시켜 주는 것이므로, 그에게 희생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었다."(주간 데저렛 뉴스, 1854년 8월 24일, 1쪽) 그는 우리가 희생이라고 부르는 것을 "나쁜 상태를 더 좋은 상태"(주간 데저렛 뉴스, 1854년 8월 24일, 1쪽)로 바꾸는 기회로 보았다. 영 대관장은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임을 인식하고 우리 소유물의 일부를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것인 십일조와 헌납의 법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브리감 영의 가르침

우리는 십일조를 바쳐서 주님에게 속하는 것의 일부를 돌려드림으로써 주님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저는 이 교회 안에 십일조를 내는 의무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는 한 순간도 생각한 적이 없으며 그 주제에 대하여 매년 계시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십분의 일을 바치는 것은 율법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74쪽)

십일조에 대하여 너무나 질문이 많아, 귀찮을 정도입니다. 주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신권을 지지하기 위하여… 십분의 일을 바치는 것은 인간을 위한 율법입니다.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은 자신의 의류, 회수 불능의 빚, 토지 등등을 정산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합니다. 저들이 얻은 모든 이익 중 십분의 일을 바치는 것은 율법입니다.[교리와 성약 119:4 참조](*교회 정사*, 7:301) 십일조의 법은 영원한 율법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그의 백성들 가운데 존재하는 십일조의 법이 없이는 이 지구에 주님의 왕국을 결코 세우지 않으셨으며 앞으로도 결코 세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족의 유익을 위하여, 즉 그들의 구원과 승영을 위하여 하나님이 제정하신 영원한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신권 안에서 존재하지만, 우리는 어떤 누구에게라도 그들이 기꺼이 하려 하지 않는 한, 그 법을 지키도록 강제하지 않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77쪽)

이 백성들은 십일조를 바치도록 강요 받지 않습니다. 기꺼이 바치고 싶은 경우에 십일조를 바칩니다.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의무의 문제로만 강조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77쪽)

우리는 어떤 사람이 십일조를 기꺼이 바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십일조를 내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십일조를 바친다고 감히 말한다면, 정직하게 바치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177쪽)

모든 사람은 십일조를 바쳐야 합니다. 가난한 여인은 생계를 위하여 그 값어치의 열 배를 더 얻게 된다고 할지라도, 열 번째 닭을 바쳐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78쪽)

가난한 자가 부자보다 십일조를 더 잘 바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자가 십일조를 바친다면 우리는 많은 십일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충실하게 선뜻 십일조를 바치지만 부자는 십일조를 바칠 마음의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이 십 달러만 가졌다면 그는 일 달러를 바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일 달러만 가졌다면 십 센트를 바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그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백 달러를 가진 사람은 십 달러를 바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천 달러를 가졌다면 그는 잠시 생각해 보고 "나는 십일조를 바칠거야, 어쨌든 바치기만 하면 되겠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십 달러 혹은 백 달러를 간신히 바칩니다. 그러나 만 달러를 바쳐야 할 만큼 부자라면, 그는 아주 여러 번 생각해 보고는 "돈을 조금 더 벌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주 많이 바쳐야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동방의 노신사처럼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 신사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죽을 때까지 십일조를 바치기를 미루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다가 마침내 소위 죽음이라는 것이 예고도 없이 와서 그들을 데려가 그들은 십일조를 바칠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은 너무 늦었고, 세상 일은 그런 법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75쪽)

사실상 저는 아무 것도 바칠 것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서 주님에게 어떤 것을 바치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주님은 저를 데려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셨고, 바람직한 물건들, 즉 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모으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축복하기 때문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76쪽)

저의 감독이 저의 재산을 평가하러 왔을 때, 그는 십일조로 무엇을 가져 가야 할지 물었습니다. 저는 감독이 가져갈지도 모르는 나의 말, 소, 돼지, 혹은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고 있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저는 주님의 사업, 즉 그분의 위대한 왕국의 공익에 저의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제가 가진 어떤 것이라도 가져가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76쪽)

복음대로 생활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십일조를 바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76쪽)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값을 지불 받고 팔린 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금과 은, 우리의 밀과 고운 밀가루, 우리의 포도주와 우리의 기름, 우리의 가축, 그리고 우리가 소유물로 가지고 있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것의 십분의 일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간에, 십일조로 십분의 일을 바쳐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76쪽)

사람이 어떤 것을 바치기를 원한다면 그가 가진 제일 좋은 것을 바치게 하십시오. 주님

은 저에게 제가 소유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제 소유의 단 일푼도 저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당신은 말하는 그대로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할지 모릅니다. 네, 저는 참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걸치고 있는 이 옷옷은 저의 것이 아니며, 한 번이라도 제 자신의 소유인 적이 없었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주님이 그것을 저의 소유물로 놓으셨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분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그리고 그것을 입고 있는 제 자신을 원하신다면, 그분이 그 모든 것을 가져가시도록 환영합니다. 저는 집 한 채, 혹은 단 하나의 농장 부지, 말, 노새, 수레, 마차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준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만약 그분이 그것들을 원하신다면, 그분은 그것들에 관하여 말씀하시든지 안하시지든지 간에 그분의 뜻 대로 그것들을 가져가실 수 있으며, 어떤 때는 아무 말씀도 없이 가져가시기도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75쪽)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일 따름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78쪽)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해의 왕국에서 왕관을 쓰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큼 독립할 때까지는 제가 완전히 독립하는 그날이 오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제 자신의 유산을 받지 못하였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저에게 임대된 것이기 때문에 저의 것이 될 때까지 그분에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77쪽)

우리의 책임은 십일조를 바치고 십일조 기금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것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조직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신 한 사람, 브리감 영이 여기 있습니다. 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부분과 분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의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성역을 베풀기 위하여, 선교사와 선교사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가난한 자와 노인과 절름발이와 장님을 먹이기 위하여, 그들을 열국으로부터 안식처로 모으기 위하여, 그들이 모인 후 그들을 돌보기 위하여 내 두뇌, 심장, 신경, 근육, 하체, 살, 뼈, 그리고 내 모든 기관의 십분의 일을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나의 아들아, 너희 동료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파하고, 백성들을 왕국으로 데려오는 선하고 건전한 사업을 위하여 네 자신의 십분의 일을 바치라.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한 계획을 세우라.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할 일을 지시하라. 지상의 나의 왕국의 발전을 위하여 십분의 일이 정확하게, 주의깊게, 그리고 신중하게 바쳐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76쪽)

성전, 교회 집회소, 학교 건물을 짓기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지구의 열국으로부터 가난한 자들을 모으고, 노인과 절름발이와 장님을 안식처로 데려오고, 그리고 그들이 시온에 도착했을 때 편히 거할 수 있는 집을 짓기 위하여, 그리고 신권을 지지하기 위하여 나의 능력의 십분의 일을 바치도록 주님이 요구한다면, 이 일에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나 그것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그분의 종의 권세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저의 권리가 아닙니다. 만약 제가 십일조를 바치도록 요구 받는다면 그것을 바치는 것이 저의 의무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74쪽)

저는 [십일조]라는 용어가 경전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어떤 말보다도 오히려 그 말을 사용할 것입니다. 주님은 십일조를 제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시대에 실행되었고, 에녹과 아담과 그의 자녀들도 그들의 십일조와 헌물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요구하신 것에 관하여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십일조와 헌물을 바치는 것을 게을리한다면 주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말일성도라고 자처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일이 언젠가는 꼭 일어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십일조와 헌물을 바치기를 게을리한다면, 우리는 다른 것도 게을리 하게 되고, 우리가 게을리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대단히 큰 영향을 미쳐 복음의 영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나버려서, 암흑 속에 있게 되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74쪽)

주님은 그분이 저에게 주신 것의 십분의 일을 요구하십니다. 저는 저의 양떼가 늘어나면 그것의 십분의 일과 제가 가진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바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해야 합니다. "십일조로 무엇을 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시온의 경계를 넓히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장로들을 선교부에 보내고 그들의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쓰여집니다. 얼마 후에 우리는 성전을 몇 개 짓게 될 것이고, 십일조의 교리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축복, 즉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산맥 전역에 걸쳐, 이 땅의 골짜기에, 그리고 이웃 땅의 골짜기에, 그리고 마침내는 이 산맥 골짜기 곳곳에 성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엔다우먼트 집에 가기 전에 우리의 감독으로부터 우리가 십일조를 바쳤다는 추천서를 받아 가지고 그 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78쪽)

성도들이 바친 십일조를 관리하는 것은 저의 업무입니다. 십일조가 자신에게 속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장로의 업무가 아닙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78쪽)

만약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을 올바로 인도하고 있지 않다는 암시를 악마로부터 받고, 그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거하도록 허용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이 여러분을 배도로 인도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자신이 의심하도록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여러분은 기도를 게을리하고 십일조를 바치지 않고 교회의 관리 역원의 결점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배도자들이 하는 말인 "십일조가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되풀이하게 될 것입니다.(*데저렛 뉴스: 주 2회 간행물*, 1976년 8월 29일, 1쪽)

헌납은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기꺼운 마음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임

저는 시현으로 말일성도 지역 사회를 보았고 그들이 하늘의 한 위대한 가족으로서 조

직된 것을 보았습니다. 각자가 근면하게 자신의 여러 임무를 수행하고, 개인의 강화를 위한 것보다는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위대한 가족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인간의 마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질서와 하나님의 왕국이 설립되고 지상에서 의로움이 전파되는 가장 위대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이 백성들이 만물의 이러한 질서에 과연 이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받으시기에 앞서 참되고 충실한 사람들 사이에서 조직될 그 축복사의 반차에 따라 생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이 필멸의 존재가 죽을 때, 그래서 그 죽음과 함께 육신의 염려와 불안, 자신을 사랑하는 것, 부를 사랑하는 것, 권력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 육신과 관련된 모든 상충되는 이해 관계 등이 사라지는 그때, 우리의 영혼이 그 영혼을 주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모든 요건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의 위대한 가족으로서 함께 살 것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때 우리의 관심사는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없습니까?(*브리감 영 설교집*, 181쪽)

우리가 이 백성을 한 가족으로서 시작하고 조직할 날이 언젠가 올까요? 올 것입니다. 우리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언젠가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본향으로 돌아갈 때, 그 가족 안에 있고 싶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들, 즉 그분의 재산, 그분의 부, 그분의 권세, 그분의 존귀, 그분의 지식 및 지혜의 상속자로서, 그 가정에 대한 권리와 그 가정의 일원이 되는 신앙을 가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딸로서 인정 받는 것이 우리의 가장 높은 포부이고 소망이지 않겠습니까?(*브리감 영 설교집*, 179쪽)

그리고 이 백성이 하나가 될 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똑같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회색, 푸른색, 검은색 눈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성품, 축적하고 나누는 노력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시간, 재능, 부의 처리에 있어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 만큼이나 다를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를 원하시는 중요한 점은 그분의 권고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모두는 한 가족으로서 행할 수 있도록 인도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80쪽)

우리는 모두 다 근면하고 충실하고 분별있는 사람들로 조직된 지역 사회를 보기를 원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80쪽)

여러분이 가질 수 없는 것은 절대로 탐내지 말고 여러분의 수입 안에서 생활하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180쪽)

주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을 헌납하는 것에 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쳐 주시는 계시를 주셨을 때, 그 백성들이 그때 사태를 있는 그대로 정확히 이해하고 그 계시에 순종할 수 있었더라면,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고 그것의 주인이신 그분에게 다 넘겨드리는 것에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78쪽)

주님은 에녹과 그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그의 백성들이 성약을 맺는 것이 주님의 뜻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온의 중심이 되는 스테이크를 건설하는 특권을 갖기에 앞서 갖추어야 할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그 곳에 임재하여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그 곳에서 거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78쪽)

모든 재산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헌납하는 것이 시온으로 가는 모든 사람들의 의무라고 말하는… [아마도 교리와 성약 42편] 또 하나의 계시가 있습니다. 이 계시는… 이 백성이 그들 자신들을 하나의 교회로, 한 조직으로, 지구 위의 하나님의 왕국으로 조직하는 특권을 받은 후에 그들에게 주어진 첫번째 계명, 즉 첫번째 계시의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때에 지켰지만, 지금 저는 그것이 그 백성들이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와 선택으로 그들의 마음 속에 받아들이고 이해하여서, 준수하고 가장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기쁨으로, 특권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으로서 생각할 마지막 계시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79쪽)

이 지구 속과 위에는 많은 자원과 금과 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사람에게 조금 또 저 사람에게 조금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보기 위하여 의로운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사악한 사람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은 이 백성에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소유로 주어진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힘써 안 다음 가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한다면, 우리는 비합법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합법적인 일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하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든, 십분의 일을 바치는 것이든, 혹은 남은 잉여분을 바치는 것이든 간에, 주께서 지시하는 대로 그것을 처리하는 것입니다.(*주간 데져렛 뉴스*, 1873년 4월 23일, 4쪽)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아야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어서, 즉 이 산맥도 주님의 것이고 이 골짜기, 이 목재들, 이 물, 이 토양, 요컨대 이 지구와 이 지구를 채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어서 우리가 주님에게 헌납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까?[교리와 성약 104:14~18, 55 참조](*주간 데져렛 뉴스*, 1855년 6월 20일, 5쪽)

그렇다면 이 백성들이 어디에서 희생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움직일 때마다, 나쁜 상태가 더 좋은 상태로, 무지가 지식으로 바뀌었고 미숙함이 성숙함으로 바뀌었습니다.(*주간 데져렛 뉴스*, 1854년 8월 24일, 1쪽)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두고 떠나라는 명령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희생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부끄러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에게 지식과 이해와 권세와 영광을 부여할 수단이며 그가 왕관과 왕국과 보좌와 주권을 받도록 준비시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면서 영광스러운 왕위에 앉게 되도록 준비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주간 데져렛 뉴스*, 1854년 8월 3일, 2쪽)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승영을 얻기 위하여 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은 이 과정을 취하지 않고는 승영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것에 애착을 가져 그것이 주님께 헌납하는 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모든 것을 헌납할 수 있도록 맨 먼저 그것을 헌납하십시오.(*주간 데저렛 뉴스*, 1854년 1월 5일, 2쪽)

이 백성이 에녹의 교회만큼 거룩하게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 위한 기질을 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 이유의 전부입니다. 만약 저의 마음이 이 사업에 온전히 바쳐지지 않는다면, 저는 저의 시간, 저의 재능, 저의 손, 그리고 저의 재산을 저의 마음이 순종하도록 동의할 때까지 바칠 것입니다. 저는 저의 마음이 한결같이 이 사업을 받아들일 때까지 저의 손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일하게 할 것입니다.(*주간 데저렛 뉴스*, 1854년 1월 5일, 2쪽)

저는 여러분에게 승영을 얻기 위하여 추구해야 하는 길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첫번째 것이 되어야 하고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목적과 왕국을 건설하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여야 합니다.(*주간 데저렛 뉴스*, 1854년 1월 5일, 2쪽)

학습을 위한 제언

우리는 십일조를 바쳐서 주님에게 속하는 것의 일부를 돌려드림으로써 주님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영 대관장이 "십분의 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모든 문장을 확인한 다음 그가 우리의 십일조 의무에 포함시킨 모든 것을 열거한다. 무엇으로 십일조를 바치며 누가 그것을 지불해야 하는가?(또한 교리와 성약 119:3~4 참조)
- 왜 영 대관장은 그가 바칠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는가?(또한 모사이야서 2:19~24. 교리와 성약 104:14~18, 55 참조) 우리가 십일조로 바치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보도록 맡기신 주님의 것의 나머지 십분의 구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또한 야곱서 2:17~19 참조)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말라기 3장 8~12절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 역대하 31장 5~6절을 주의 깊게 읽는다. 그 백성들은 언제 그들의 십일조를 바쳤는가? 십일조를 바치는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의 책임은 십일조를 바치고 십일조 기금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것임

- 영 대관장이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요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뜻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의 십분의 일을 헌납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을 위하여 십일조를 바치는 것 이외에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을 바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축복 받았는가?
- 영 대관장은 십일조를 바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 말씀했는가? 십일조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교회와 회원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영 대관장은 십일조가 무엇을 위하여 쓰인다고 말했는가? 누가 십일조 기금을 지불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가?(또한 교리와 성약 120편 참조) 십일조 기금의 지불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한 영 대관장의 태도는 어떠한가?

헌납은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기꺼운 마음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임

- "말일성도의 지역 사회"가 "하늘의 한 위대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 헌납의 법이 "그 백성들이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와 선택으로 그들의 마음 속에 받아들이고 이해하여서, 준수하고 가장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기쁨으로, 특권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으로 생각하게 될 마지막 계시 중의 하나"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주님은 왜 재산을 우리의 소유로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의 소유의 청지기로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또한 교리와 성약 3:2, 야곱서 4:14 참조) 영 대관장의 말씀에 따르면, 십일조와 헌납에 관한 "우리의 합법적인 업무"는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너무 지나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거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만큼 잘못이 될 수 있는가?
-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받기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헌납하여야 하는가? 그 이유는?(또한 교리와 성약 84:38 참조)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은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하는 모든 것을 헌납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동료 교회 회원들 및 여러분이 교제하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제 23 장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의 결혼을 이해함

1847년 봄에, 브리감 영 대관장은 윈터 쿼터즈에 있는 그의 가족을 떠나서 성도들의 첫번째 대대를 서부로 인도했다. 그의 아내 메리 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이동을 준비하는" 그 대대의 노력을 묘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난 속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동반자, 나의 아내여,… 당신이 보낸 다정한 편지에 열백 번도 더 감사하며 당신의 친절한 행동에 더욱 특별히 감사하오. 또한 당신의 친절한 마음이 더할 나위 없이 고맙소. 나는 당신과 아이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소. 주님은 이 지구상에서 어느 남자보다도 가장 훌륭한 가족을 주시는 축복을 나에게 주었다고 생각하오."(브리감 영의 서신) 영 대관장에게 있어서 복음은 성도들에게 영생, 즉 궁극적인 목표로서 결혼하여 가족을 가지는 생활을 준비시키는 것이었다.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의 결혼은 "우주를 위하여, 천사들을 위하여, 신들을 위하여" 기초를 놓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95쪽)

브리감 영의 가르침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의 결혼은 영생을 위한 기초를 놓음

영원한 결혼은 시작한 날도 끝나는 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관해 몇 가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지를 지닌 인간이 영광과 불사 불멸과 영생의 관을 쓰게 되도록 우주를 위하여, 천사들을 위하여, 신들을 위하여 기초를 놓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구원의 거룩한 복음, 즉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주는 끈입니다. 그 연륜은 결코 다함이 없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95쪽)

이 교회와 왕국의 회원들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의로운 길을 택하고 그들의 모든 힘을 다해서 그들의 온 생애 동안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도록 노력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한 자녀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백 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여야 하는 대로 자녀들에게로 그들 자신을 인도하여 그들의 신앙과 기도로써 자녀들을 주

님에게 묶는다면, 저는 그 자녀들이 어디로 가든지 걱정하지 않으며, 그들이 영원한 끈에 의해 그들의 부모와 묶여 있어서 지상이나 지옥의 어떠한 힘도 그들을 영원히 그들의 부모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생긴 근원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08쪽)

우리는 결혼 적령기에 이르렀지만 아직 독신으로 남아있는 꽤 많은 젊은이들을 봅니다.… 우리의 젊은이는 신과 함께 하는 그들의 구원과 승영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구에 대한, 그들의 부모에 대한, 그리고 미래의 세대들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생각하여야 합니다.(*데져렛 뉴스: 주 2회 간행물*, 1870년 10월 25일, 2쪽)

저는 결혼할 연령에 이른 이스라엘의 젊은이 각자에게 즉시 가서 훌륭한 자매와 결혼하여 시의 한 부지에 울타리를 치고 정원과 과수원을 가꾸고 가정을 꾸미라는 임무를 줍니다. 이것은 제가 이스라엘의 모든 젊은이에게 주는 사명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96쪽)

현재의 사태를 있는 그대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지역에 사는 젊은이치고 합당하게 결혼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영국까지라도 기꺼이 여행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의 축복을 원하는 젊은 여성 중에서 성전 결혼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결혼하고자 하는 여성은 우리의 지역 사회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삭이 사라에게서 태어날(창세기 17:17 참조) 때의 사라만큼 늙을지라도 당연히 성전 결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결혼하지 않고 살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깊이 고려하지 않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자녀들을 결혼시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같은 이해력으로 이를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95~196쪽)

이스라엘로 불리우는 가족의 첫번째 범법 중의 하나는 그들이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하여 다른 가계나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녀들이 저지른 큰 잘못의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금하셨고 이 문제에 대한 매우 엄격한 율법을 주셨음(창세기 28:1~2 참조)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서 다른 가계와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들은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려 했습니다.[창세기 24:3 참조](*브리감 영 설교집*, 196쪽)

오,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여, 주의하십시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가르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밖에서 결혼하라고 미래의 여러분의 딸들에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그와 같이 하는 분들에게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만큼 분명히 우리의 왕관을 잃고 말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96쪽)

육신을 얻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순수하고 거룩한 영의 무리가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모든 영들에게 육신을 준비시키는 것이 모든 의로운 남자와 여자가 할 수 있는 그들의 의무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97쪽)

1866년의 개척자 신혼 부부 사라 파 스미스와 존 헨리 스미스.
영 대관장은 영원한 결혼은 "구원의 거룩한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주는 끈입니다.…
그 연륜은 결코 다함이 없습니다." 라고 가르쳤다.(*브리감 영 설교집*, 195쪽)

아버지들은 그들이 그들의 가족을 사랑하고 가르치고 부양할 때 그리스도를 따라야 함

저는 대관장단과 사도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감독과 모든 정원회와 특별히 역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이웃과 이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이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같이 나를 따르십시오."라고 여러분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모든 것이 잘 되고, 우리는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게 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98쪽)

남편이요 아버지 되는 분들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시키고 그 다음에 반항

적이고 죄짓기 쉬운 성향을 억제하고 용감하고 충실하게 되는 방법을 그들에게 보이면서 교훈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범으로 아내와 자녀들과 또한 이웃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십시오. 이와 같은 과정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마음에 작용하는 신성을 더럽히는 영향력을 진압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98쪽)

여러분의 생활에서 단 하루라도 성신이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들이 이 축복을 누리고 아내에게서 갓태어난 아기들이 그들의 어머니의 태 안에서부터 성령을 부여 받도록 아버지들은 결코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한 국가가 온전한 성신과 권세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 이것이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입니다.(브리감 영 기록, 1852년 4월 8일)

우리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이러한 계시된 진리에 관하여 가르치거나 지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저주가 부모인 여러분 위에 임하거나 적어도 부분적으로 그 비난이 부모에게 올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07쪽)

아버지가 가장, 즉 그 자신의 가족의 주인이 되게 하고 천사가 그 가족에게 대하듯이 그가 그들[가족]을 대하게 하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197~198쪽)

남편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생활의 안락함을 주는 방법, 분노와 화를 자제하는 방법, 가족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친구들의 존경을 받는 방법을 배우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198쪽)

온화한 얼굴, 친절한 행동, 친절한 말, 그리고 어린이를 대하는 훌륭하고 거룩한 태도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 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묶어 줄 것입니다. 학대와 불친절은 자녀들을 우리로부터 몰아낼 것이며, 그들을 우리에게 묶어 주고 우리 모두를 함께 살게 할 영원한 성약에 묶어 줄 모든 거룩한 끈을 산산히 끊어 놓을 것입니다. 만약 저의 가족이… 친절함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할만한 생활을 기초로 한다 하더라도 저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때에 모든 영향력에 작별을 고하십시오.(*주간 데저렛 뉴스*, 1864년 12월 7일, 2쪽)

아버지는 어머니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녀의 애정이 세상의 근심으로 손상되지 않고, 하나님과 의에 대한 사랑이 그녀의 몸 전체를 통해서 살아 숨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을 통치하도록 계획된 한 존재가 되기에 필요한 모든 자질들을 부여 받은 자손들을 잉태하여 데려오도록 어머니를 기쁘게 하고 기운을 북돋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99쪽)

이 땅의 모든 남성들은… 아내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직접 일터에 나가 땅을 경작하거나 공장에서 일하거나 정직하게 장사를 해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직한 수입 범위 내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절제하고 진리와 덕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성들은 보살핌을 받고 양육되고 존경 받고 축복 받아 그들의 조상들보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훨씬 더 완전하게 발전된 혈통의 영광스러운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나라에서 변혁을 일으킬 것이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선의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94~195쪽)

남편이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부엌과 찬장과 침실을 고치게 하고 정원과 사육장 등을 개선하게 하고 길을 포장하고 가로수를 심어 여러분의 집과 그들의 주변을 아름답게 가꾸게 하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198쪽)

어머니들은 그들의 가족을 사랑하고 가르치고 그들 주변의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어야 함

어머니들과 자매들에게 맡겨진 의무와 책임과 그들이 미치는 영향을 곰곰히 생각해 볼 때, 저는 이곳에 우리가 오게 된 주요 원인과 동기로서 그들을 바라봅니다. 남자가 처음 창조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이 지구의 왕으로서 지구를 통치하러 이곳에 놓여졌지만 어머니 이브가 왔을 때 그녀는 아담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매우 좋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99쪽)

어머니의 의무는 자녀를 돌보는 것과 신생아 시절에 받은 느낌들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그들이 태어나자마자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험으로 어렸을 적에 받은 느낌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커다란 비중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것을 스스로 압니다. 어린이는 어머니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어머니의 외모가 어떻든지 간에 그의 어머니가 최고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어머니로 생각하게 하는 본능적인 애착을 갖습니다. 이것은 제 자신에 대한 말입니다. 자녀들은 그들의 어머니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합당한 노력을 한다면, 그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자녀들의 마음에 스며들게 할 수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01쪽)

여러분은 물론 몰몬경에 나오는 이천 명의 젊은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 젊은이들은 자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에게 봉사한다면 어떠한 권세도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싸우러 나간 그들의 기사를 기억할 것이며, 그들은 너무나 담대하고 그들의 신앙이 너무나 강해서 적이 그들을 죽이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힘과 신앙을 그들의 어머니의 가르침을 통해서 얻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01쪽)

아내와 어머니는 가정을 남편과 자녀에게 바람직하고 호감이 가게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자신이 창조한 조그만 천국의 가운데에서 자신을 이브로 만들고, 자신의 남편의 사랑과 신뢰를 확보하고, 영원한 유산을 받기 위하여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자손을 자신에게 묶으면서, 집 안으로 들여 보내지는 모든 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아는 것은 아내와 어머니의 부름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98쪽)

수많은 자매들이 자식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 애통해 합니다. 여러분은 슬하에 수백 만 명의 자녀들을 둘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성약에 충실하다면, 열방의 어머니들이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00)

저는 자매님들에게 그들의 남편에게 불순종하라고 권고하지 않습니다. 저의 권고는 여

러분의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관하여 저는 낙천적이면서 단호합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악마에게로 향해 있는 남편을 따르라고 여성들에게 권고하지 않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00~201쪽)

어머니들은 열국의 운명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움직이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당장 알겠지만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려 하는 것은 어머니들이 모든 남성에게 열정을 주는 기계이고 지구 위의 남자들의 운명과 인생을 인도한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99~200쪽)

학습을 위한 제언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의 결혼은 영생의 기초를 놓음

- 영 대관장은 영원한 결혼은 "우주를 위하여… [그리고] 영광의 왕관을 쓸 이해력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초를 놓는다고 말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결혼을 그 영원한 목적에 바칠 수 있는가? 매일 그러한 시각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어떤 구체적인 일을 할 수 있는가?
- 영 대관장은 모든 청남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그것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 영 대관장이 젊은이들에게 "올바르게 결혼하라"고 권고했을 때, 그는 무엇에 대하여 언급하였던 것인가?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일들을 한 사람들에게 오는 축복은 무엇인가?(또한 아브라함서 2:9~11 참조쪽)
-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일부가 저지른 큰 실수 중의 하나는 결혼의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 밖에서 결혼한 것이었다.(창세기 28:1~2 참조)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 밖에서 결혼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거절되는가? 반드시 이 결혼 성약에 합당하게 남아 있어 언젠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 "모든 의로운 남자와 여자"의 의무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을 위하여 육신을 창조하는 것이 왜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의 그토록 중요한 책임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책임을 성취하였다는 것을 부부는 어떻게 알게 되는가?(*교회 지침서*에서 주어진 권고에 관하여 여러분의 감독이나 지부장의 말씀 참조)

아버지들은 그들이 그들의 가족을 사랑하고 가르치고 부양할 때 그리스도를 따라야 함

- 모든 아버지는 아내와 자녀들 앞에서 어떠한 모범을 보여야 하는가? 사람이 그리스도

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람은 어떻게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방법을 배우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자신을 순종시켜 온 아버지로부터 여러분은 무엇을 배워 왔는가?

-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진리들을 가르쳐야 하는가?(교리와 성약 68:25 참조)
- 영 대관장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는 가정에서 가족을 어떻게 통솔해야 하는가?(교리와 성약 121:41~46 참조) 남자는 그의 가족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어떠한 행동이 자녀들을 부모와 영원한 성약에 묶어 줄 모든 거룩한 끈을 산산히 끊어 놓는가? 친절함과 영으로 가득 찬 남자는 어떤 방법으로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그들의 역할을 완수할 수 있게 하는가?
- 영 대관장은 남편이 자신의 가족을 충실하게 부양한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하는가?(또한 교리와 성약 83:1~2 참조) 이것이 어떻게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가?

어머니들은 그들의 가족을 사랑하고 가르치고 그들 주변의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함

- 영 대관장의 말에 따르면, 아내와 어머니의 의무는 무엇인가?
- 영 대관장은 자녀가 없거나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위안을 주는가?
- 말일성도 여성들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지역 사회에 어떠한 방법으로 영향을 미쳤는가?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이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 영 대관장이 "나는 여성에게, 악마를 향해 있는 남편을 따르라고 결코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무엇을 의미했는가? 어떻게 아내는 그녀의 남편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가? 함께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오는 축복은 무엇인가?
- 영 대관장은 어머니들이 "열국의 운명을 인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들은 어떻게 이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가?

에드워드 마틴과 그의 가족, 1870년. 에드워드는 1856년에 조직된 불운의 마틴 손수레 부대 대장이었다. 그는 훗날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사진사가 되었다.

제 24 장

가족을 가르침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신앙의 정신이 살아 있도록 생활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평화와 기쁨과 행복과 만족스러움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참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와 권속과 이웃을 즐겁게 해주며, 마을과 도시를 기쁨에 넘친 곳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것은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저는 참으로 말일성도들이 이러한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04쪽*)

브리감 영의 가르침

가족은 현세와 영원을 통해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조직하신 것임

말일성도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성도라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의 의무를 행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 말고는 아무 것도 듣고 느끼고 실행할 것이 없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03쪽)

남자와 여자가 [성전에서 영원을 위해] 자신의 엔다우먼트와 인봉을 받은 후 자녀를 갖게 되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에 속한 모든 축복과 약속의 상속자로, 이 세상에서 [합법적인 상속자가] 되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95쪽)

인봉 인식을 통해 세대의 고리가 선조 아담에게 완전하게 이어질 때까지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맺어지는 인봉 의식이… 이 세상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천사들의 임재하심을 위해 세상이 정화되고 준비될 때까지 바빌론에서 나와 자신을 정결케 하고, 우리 하나님의 시온을 건설하기 위해… 함께 모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07쪽)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함

우리는 어머니의 팔에 안겨 있는 아기를 봅니다. 이 아기는 무엇 때문에 이곳에 있을까요? 이 작은 아기가 창조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이 아기가 가진 출발점이자 예지의 씨앗인 이러한 기초가 발전하고 확대되어 성인으로, 그 다음에는 천사의 능력으로, 또 그 후로도 영원한 승영으로 계속 이어지도록 계획되었음을 압니다. 그러나 이 생은 출발점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배움을 시작하는 첫번째 장소이며 언덕의 기슭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05~206쪽)

저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첫번째 스승이자, 그 어린 영혼에 첫인상을 심어 주는 사람인 어머니는 대단히 엄격해야 합니다.” 어머니들은 어린이들의 마음에 결코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모든 면에서 정확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한 어린이들에게 어떤 것도 가르쳐서는 안됩니다. 특히 어린이가 듣고 있는 데서 부도덕한 말은 한 마디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06~207쪽)

어머니들에게 아이들이 무릎에 앉아 있을 때부터 가르치게 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여러분도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도록 가르치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206쪽)

어머니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할 것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두려움을 갖고 자녀들에게 그들이 가야 할 길에 대해 훈련시키고, 생명과 구원의 길에 대해 꾸준하고 완전하게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나이가 들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잠언 22:6 참조]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이 태양이 빛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이며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이 의무를 게을리하고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06쪽)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양육하십시오. 그들의 성격과 기질에 대해 연구하시고, 그것에 따라 그들을 대하십시오. 결코 화가 난 상태로 그들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여러분을 무서워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을 사랑하게 가르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토록 기꺼이 주신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계시의 중요성과 우리 신앙의 거룩한 원리의 아름다움을 배우는 것이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사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그것들에 대해 항상 소중히 여길 것이며 결코 진리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07쪽)

부모 여러분, 권고와 모범으로 자녀에게 은혜의 보좌를 향해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십시오.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연에서 생활 필수품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또한 그들이 자신을 건강하게 지키고 다른 사람들을 보살필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는 인생의 법칙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의 원리를 가르칠 때, 그것들이 참되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늘에서 내려 준 진리라는 것과, 복음은 하늘에 대한 것이든 땅에 대한 것이든 또는 지옥에 대한 것이든 간에 모든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또한 그들에게 우리가 영생의 열쇠를 갖고 있으며, 그들이 이 거룩한 신권에 속한 의식과 율법을 따르고 지켜야 한다는 것도 가르치십시오.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녀의 승영을 위해 계시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던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07쪽)

우리가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계시된 이러한 진리에 관해 가르치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모로서 그것에 대해 전적으로, 혹은 최소한 일부라도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07쪽)

부모는 올바른 모범으로 인도함으로써 가족이 의로운 방침을 수립하도록 도울 수 있음

우리는 결코 자녀에게 가르친 것과 다르게 행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06쪽)

자녀들이 하지 않기를 바라는 일은 어떤 것이든지 우리 스스로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본받기를 바라는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까? 꾸중하면서 순종과 훌륭한 태도와 친절한 말씨, 그리고 즐거운 표정과 상냥한 목소리와 밝은 눈빛을 요구하는 부모를 우리는 아주 자주 봅니다! 그 자녀의 마음은 쓰라린데 말입니다. 참으로 모순되고 터무니 없는 일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08쪽)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자녀들이 본받을 만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승인하실 만한 모범을 계속적으로 보인다면 그들은 자녀들의 감정의 조류와 흐름을 바꿔 놓을 것이며 자녀들은 결국 악보다 의를 더 원하게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08쪽)

이 교회와 왕국의 회원인 아버지와 어머니들로 하여금 의로운 길을 걷고, 온 힘을 다하여 결코 그릇된 것을 행하지 않고 일생 동안 선을 행하도록 노력하게 하십시오. 자녀가 한 명이든 일백 명이든 신앙과 기도를 통해 자녀를 주님께 묶어 주고 해야 할 바를 행한다면, 저는 그러한 자녀들이 어디로 가든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유대로 부모와 맺어져 있으며, 이 세상이나 지옥의 어떠한 권세도 그들을 그들의 부모에게서 영원히 갈라 놓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근원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08쪽)

우리가 오직 우리의 신앙에 따라 생활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진리를 사랑할 것입니다. 부모는 그들의 자녀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저는 저의 부친이 이웃을 속이거나 이용하는 것을 결코 본 적이 없으며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취하시는 것도 결단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분은 오로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정직하고 진실하고 유덕하며 친절하고 부지런하고 신중하며, 늘 선행을 행하거라.'" 부모가 자녀에게 준 그러한 가르침은 자녀들이 성신을 거스르는 죄를 짓지 않는 한 영원히 그들의 마음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09쪽)

우리가 어린 싹을 지혜롭고 솜씨있게 돌보고 보살피고 손질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에게 건전하고 유익한 영향력을 미치며, 적절한 가르침을 주고 자녀의 정신을 참다운 전통으로 채운다면 이것이 인생에서 그들의 방향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09쪽)

자제심과 친절한 훈육은 강한 가족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됨

엄격한 자기 훈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영향력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우리의 첫번째 문제이며,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죄없이 자라나

구원에 이르도록 그 길을 닦기에 앞서 수행할 일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03쪽)

여러분의 어린 딸이 어떤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잘 해내면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네."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어머니들은 "아뇨, 잊어버렸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딸이 잘못을 저지른다면 벌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네." 약속을 지켰습니까? 여러분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즉시 마음속으로 엄마가 거짓말을 했다, 즉 이러저러하게 하겠다고 말하고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은 어머니들이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코 그릇된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배울 수 있는 쉬운 교훈입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십시오.… 자녀에게 선물을 주고 싶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벌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약속을 지키십시오. 단 신중하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210쪽)

부모는 결코 자녀를 강압해서는 안되며, 그들의 마음이 지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그것을 전해 주며 이끌어야 합니다. 즉시 벌을 주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부모는 회초리보다는 오히려 신앙으로 자녀를 다스리며, 훌륭한 모범을 통해 친절하게 그들을 모든 진리와 거룩함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08쪽)

여기 모인 회중들 가운데는 회초리를 사용함으로써 자식을 몰아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엄격하면 부모와 자녀 모두의 마음에 애정이나 자식으로서의 감정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는 아버지와 가까워지기보다는 오히려 멀어질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03쪽)

천성과 기질이 어떻든 간에 말일성도들, 특히 하나님의 왕국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집안이나 집 밖 어디서라도 일상적인 생활에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화가 날 때조차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성미가 까다롭고 화를 잘내며 무뚝뚝하고 또 냉혹하고 신랄하며 모진 말을 하고… 집안을 어둡고 우울하게 만들며, 가족이 그들을 사랑하기보다는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런 불행과 불쾌한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가슴 속에서 노여움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되며, 화난 말이 입 밖으로 나오게 해서도 안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킵니다.]"[잠언 15:1]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같거니와"[잠언 27:4]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입니다.]"[잠언 19:11](*브리감 영 설교집*, 203~204쪽)

여러분 모두는 아니라 할지라도 일부는 자녀들 가운데 다툼이 있는 것을 많이 듣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다투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을 수 있는 것에 관하여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항상 온유해지는 것이 첫번째 단계입니다. 결코 화내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이들은 힘이 넘쳐 흘러 가만히 있을 수 없을 만큼 활기있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생명력과 힘과 활동력이 넘칩니다. 그들은 그러한 것들을 처리해야만 하므로 서로 싸우게 됩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항상 그들에게 공감하고, 달래 주십시오. 온화하고 상냥하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209~210쪽)

저는 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어린이와 어린이,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 사이의 사소한 다툼과 싸움에 존재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서로를 충분히 올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을 배웠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03쪽)

학습을 위한 제언

가족은 현세와 영원을 통해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조직하신 것임

- 가족이 영원히 인봉되는 것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교리와 성약 128:18 참조) 가족 관계의 영원한 중요성과 신성한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가족끼리 서로 영향을 미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 여러분은 가정에서 세대간의 유대를 강화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행동은 여러분의 선조와 후손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함

- 자녀를 가르치는 일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부모는 자녀가 의롭게 되도록 가르치는 일을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영 대관장은 부모들에게 자녀들의 첫번째 교사로서의 역할에 관해 어떻게 권고했는가?
- 영 대관장은 부모들에게 "자녀가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양육"해야 한다고 말씀했다.(교리와 성약 68:25~28 참조) 여러분은 어떻게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칠 수 있는가?
- 영 대관장은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 어떤 원리를 말씀했는가? 만일 부모가 자녀를 알맞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부모는 올바른 모범으로 인도함으로써 가족이 의로운 방침을 수립하도록 도울 수 있음

- 자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모범이 왜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인가? 여러분은 주위의 어린이들에게 어떤 종류의 모범을 보여 주고 있는가?
- 영 대관장은 자녀들이 "그들이 나온 근원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에게 이 약속이 특별히 위안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부모는 잘못된 길을 걷는 자녀가 가족에게 돌아오고 싶어 하도록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여러분은 부모님에게서 어떤 긍정적인 가치관을 배웠는가? 여러분은 자신의 자녀가 여러분에게서 어떤 가치관들을 배우기를 바라는가? 여러분은 이러한 가치관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징후를 통해 자녀가 여러분에게서 가치관을 배우고 있

다고 생각하는가?

- 자녀들이 더욱 의롭게 되는 데 "참다운 전통"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어떤 의로운 전통이 여러분의 가족을 강화시켜 주었는가? 여러분의 가정에 수립하고 싶은 의로운 전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제심과 친절한 훈육은 강한 가족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됨

- 자녀를 "강압하는 것"과 "이끄는 것"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자녀에게 의로움을 가르치는 데 있어 자녀를 이끄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 다른 사람들, 특히 자녀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화가 났을 때조차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 때때로 가정에서도 말다툼과 싸움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이러한 일들은 왜 가족에게 해가 되는가?(모사이야서 4:14 참조) 영 대관장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주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했는가? 여러분은 가족끼리 어떻게 더 잘 의사를 교환하고 이해하도록 장려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가족이 서로에게 자신의 사랑을 더욱 자주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일을 행했는가?

제 25 장

감사와 겸손함과 정직함을 키움

브리감 영 대관장은 단순하고 참된 원리들을 믿었으며 그에 따라 생활하였다. 그는 목수와 도급자로서의 경험을 통해 튼튼한 벽을 세우고, 다시 보수할 필요가 없는 문짝을 달며, 일터를 떠날 때 자기 주머니에 주인의 도구나 못을 몰래 넣어가지 않는 정직한 일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웠다. 그는 모든 직업 종사자에게 "눈을 떠서 정직하고 올바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고 깨닫도록 하라"고 권고했다.(주간 데져렛 뉴스, 1857년 12월 2일, 4쪽) 또한 영 대관장은 박해와 가난과 굶주림 등의 시련으로 고통을 겪고 있던 초기 성도들에게 주님이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참으로 강화시켜 주시는 것에 대해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시련을 받아들이도록 격려했다. 그의 말씀과 생애는 주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축복해 주시든 간에 그것을 향상시킴으로써 성실함과 감사함을 보여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임을 역설해 주는 것이었다.

브리감 영의 가르침

우리의 생활에서 주님의 손길을 인식함으로써 감사한 마음을 키울 수 있음

저는 용서 받을 수 없는 죄를 제외하고는 배은 망덕의 죄보다 더 큰 죄를 알지 못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28쪽)

어려운 시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여러분에게 굶어죽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도 풍족한 곳으로 가도록 떠나 보내라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노새의 귀 끝에서 꼬리 끝까지 먹어 치울 때까지는 굶어 죽는 것을 염려하지 않기 때문에 굶주림에 대해 조금도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곧 봄이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 이상의 고통을 겪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눈에 보이는 주님의 손길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지껏 받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를 감사드립니다. 수년 전에 저는 말일성도들의 동정심과 신앙과 감사,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손길과 축복을 주시는 방법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들이 자신이 받은 풍성한 축복을 낭비하고 함부로 여기는 것을 보고 몹시 가슴이 아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

님의 축복을 짓밟았으며, 그러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곧잘 저주해 왔습니다. 그들은 밀과 옥수수, 좋은 밀가루와 늘 땅에서 자라는 훌륭한 야채 대신 금과 은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식물을 짓밟았으며,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귀한 축복을 무시했습니다.(*주간 데저렛 뉴스*, 1856년 2월 6일, 4쪽)

우리는 주님이 우리편이시며, 우리가 더 큰 권세와 완전을 얻게 할 명확한 목적으로 약하게 만들어진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성도들은 모든 면에서 기뻐해도 좋습니다. 박해에 대해서조차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성도들을 정결케 하고 사악한 자들에게 자신의 운명을 준비시키는 데 꼭 필요한 것이며, 비록 병과 고통 가운데서 견디기는 힘들지라도 그로 인해 고통과 슬픔, 그리고 필멸의 인간들이 견딜 수 있는 모든 시련과 친숙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경험을 통해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신앙이 존재하고, 주님이 지상의 주민들을 통치하시며, 그들 가운데서 뜻하시는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지극히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악마가 지상의 주민들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인류를 괴롭히는 것을 제가 기뻐하느냐고 묻고 싶습니까? 저는 아주 자신있게 '예'라고 대답합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기뻐합니다. 저는 제가 고통을 겪기 때문에 기뻐하며 가난한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또한 저는 낙담하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다시 들어 올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것을 기뻐하며, 위로 받고 완전한 행복의 축복을 누릴 준비로서 고통 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반대되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행복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28쪽)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가 겪는 이 생의 시련과 고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이 이 생에서의 짧은 기간 동안 자신의 종교에 충실함을 증명해 보인 후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원한 구원과 영광의 관을 얻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이곳에서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이 겪어야 했던 손실과 시련과 낙담과 슬픔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뭐 어쨌단 말인가? 그러한 일들은 단지 한 순간에 불과했고 이제 우리는 이곳에 있어. 우리는 필멸의 짧은 기간 동안 충실하였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승인 속에서 모든 무한한 지식과 발전의 무수한 단계를 통해 진보할 힘을 지니고 영생과 영광을 누리고 있어."(*주간 데저렛 뉴스*, 1859년 11월 9일, 1쪽)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또 다른 항목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그것들을 배울 때까지는 결코 해의 왕국을 상속 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이 생에서 무엇을 해야 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현세의 축복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배울 목적으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르침들을 배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영원한 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작은 것에 충실한 자가 많은 것을 맡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마태복음 25:21 참조]… 우리는 소떼가 늘어나는 축복을 받은 후 주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소홀히 함으로써 그분의 노여움을 초래하여 벌을 면할 수 없게 만듭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만일 그분이 기쁘게 여기는 아들이 계속적으로 축복을 낭비하

고 아무 것도 아닌 것에 탕진한다면 그 아들에게 무슨 축복을 주겠습니까? 얼마 후 아버지는 지원을 보류하고 그것들을 더 합당한 자녀에게 줄 것입니다. 주님은 육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자비로우시지만 만일 우리가 그것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지 않고 그것들이 우리 손 안에 있을 때 잘 돌보지 않는다면 그분의 은사가 거두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와 말을 잘 돌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공의에 따라 견책 받게 될 것입니다.(*데져렛 뉴스*, 1865년 10월 29일, 2쪽)

우리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축복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만일 그분이 우리에게 땅을 주셨다면 그것을 더 낫게 만드십시오. 집을 지을 특권을 주셨다면 그것을 활용하십시오. 아내와 자녀를 주셨다면 그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고, 인류가 처해 있는 어둡고 타락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따라 세상에서 말일성도들을 부르시고 열국으로부터 모아 그들에게 지상의 한 장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것 중 하나는 사악한 자들의 심술과 세상의 불행과 소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통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충실한 청지기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특권을 갖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실제로 제 것이 아니며, 주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면 제가 돌려드릴 것은 명백합니다. 그것은 그분께 속한 것이며 항상 그분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의 소유주가 아니며 결코 그것을 소유한 적이 없었습니다.(*데져렛 뉴스*, 1855년 6월 20일, 4쪽)

경험을 통해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보다 향상시키려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단 하나의 생활 상태나 한 시간의 체험은 없습니다.(*주간 데져렛 뉴스*, 1862년 7월 9일, 1쪽)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주님께 의지하고 있음을 인정함

우리는 겸손해야 하며 감정 면에서 작은 어린 아이와 같아져야 합니다. 복음의 영에서 나오는 빛을 맨먼저 받기 위해 겸손하고 영적으로 어린 아이같이 된다면, 우리는 발전하여 지식과 지혜와 이해력이 증가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28쪽)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외의 어느것도 아닙니다.(*주간 데져렛 뉴스*, 1857년 10월 28일, 5쪽)

사람이 자신의 상태를 살펴볼 때,… 만일 자신이 하나님과 형제들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음을 발견한다면 지극히 기쁨을 느끼고 더욱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교만하고 오만할 때는 우쭐함으로 인해 자만심으로 가득 차서 다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커지고 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28쪽)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감사드려야 하겠습니까? 극복해야 할 강한 욕정이나 악한 욕망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극복하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하지만 여전히 죄 가

운데 있는 사람입니까? 그의 장점과 신앙과 판단력은 압도되고, 밤낮없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악한 성향으로 인해 계속 죄를 짓는 사람 말입니다. 누가 가장 감사드릴 만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까? 비교적 극복해야 할 강한 욕망이 없는 사람은 형제들보다 더 의롭다고 자랑하기보다 오히려 끝까지 겸손의 골짜기를 걸어야 합니다. 형제애와 인간적인 유대를 통해 우리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동료로 받아들여야 할 의무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밀과 가라지를 분리해야 할 때라고 보시기 전까지, 즉 의인들을 따로 모으고 악인들을 불태울 준비로써 다발로 묶고[교리와 성약 86편 참조], 양과 염소를 분리할 때까지[마태복음 25:31~34 참조] 우리는 이러한 일을 견뎌야 합니다. 매일매일 극복해야 할 강한 욕망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겸손하게 생활해야 하며 만일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범하고 있다면 가능한 한 그들의 잘못을 너그럽게 볼 수 있도록 형제애와 천사 같은 친절한 감정을 가득 지녀야 합니다.(*주간 데저렛 뉴스*, 1860년 8월 22일, 1쪽)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끊임없이 기쁨과 위안으로 가득 채워집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28쪽)

정직한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과 주님께 진실함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살아야 하며 부름과 지상 생활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교리는 강퍅한 마음을 없애 줍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32쪽)

우리는 천사들이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배우고, 익히고, 연구하고, 알며, 이해해야 합니다. 이 지역이 완전히 정직하고 올바르게 되면 여러분은 결코 가난한 사람들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궁핍하지 않을 것이며 모두가 풍족할 것입니다. 모든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가 다 정직해지는 그 순간부터 그들 모두는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역의 대다수 주민이 부정직하면 정직한 주민들은 가난해집니다. 왜냐하면 부정직한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의 돈으로 자신들의 필요 사항을 채우고 풍족해지기 때문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32쪽)

저는 사람들이 부정직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했으며, 그런 방법으로 그들을 정직하게 만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만일 제가 하루에 3달러를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목수를 고용했는데 그가 훌륭한 일꾼이 하루에 한 개나 한 개 반씩 만들 수 있는 문짝 하나를 3일 걸려 만들었다면 저는 그 대가로 그에게 하루에 3달러를 주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일에 대해 대가를 받고 싶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판단력이나 분별력이나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이 없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정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 마찬가지로 부정직합니다.(*주간 데저렛 뉴스*, 1857년 12월 2일, 4쪽)

[모든 근로자들이] 실력을 향상시키게 하십시오.…우리는 많이 향상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향상될 것입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언행이 진리의 표

준에 이를 때까지, 담을 세우기 위해 석공을 고용하면 그가 정직하게 그 일을 수행하고 다른 모든 일꾼들도 그렇게 하도록 계속 발전합시다. 그러면 자신의 임금 만큼 일하지 못한 사람은 그 돈을 요구하거나 가져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얻은 것을 붙잡고, 정직하든 아니든 그들이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며,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간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결코 정직해질 수 없습니다.(*주간 데져렛 뉴스*, 1857년 12월 2일, 5쪽)

성도라고 공언하면서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자신에게 정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형제들에게 정직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31~232쪽)

어린이들은 정직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 것이 아니면 핀 하나도 가져서는 안되며, 어떤 것이든 바꿔치기 해서도 안되고, 모든 것을 항상 제 자리에 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성장해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어떤 것을 주으면 주인을 찾아주게 하십시오. 만일 이웃이 쓰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대로 두십시오. 서로에게 완전히 정직하십시오.(*주간 데져렛 뉴스*, 1872년 10월 23일, 5쪽)

정직한 마음은 정직한 행동을 낳습니다. 거룩한 소망은 그에 상응하는 행위를 낳습니다. 여러분의 계약을 이행하고 여러분의 약속을 신성하게 지키십시오. 저는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을 동료로 여기지 않습니다. 단순한 진리, 소박함, 정직, 올바름, 공정함, 자비, 사랑, 친절, 만인에게 선을 행하고 누구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음 등과 같은 원리에 따라 생활하는 것은 참으로 쉽습니다! 그것은 속이는 것보다 천 배는 더 쉽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32쪽)

여기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며 악을 버리고 멀리하는 것이 부정직한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길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배운다면 그대로 실행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32쪽)

학습을 위한 제언

우리의 생활에서 주님의 손길을 인식함으로써 감사한 마음을 키울 수 있음

- 영 대관장은 성도들이 금과 은보다는 오히려 밀과 옥수수와 야채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했다. 우리는 각자 무엇에 대해 감사해야 하는가?(교리와 성약 59:7, 21 참조)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족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시해 왔는가?
- 영 대관장이 왜 성도들에게 박해와 병과 고통과 시련에 대해 기뻐하라고 가르쳤다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어떤 축복이 올 수 있는가? 고통과 시련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어떻게 인생의 어려움을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도록 배울 수 있는가?
- 영 대관장은 "우리는 이 생에서 무엇을 해야 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현세의 축복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배울 목적으로 모였습니다."라고 말씀했다. 우리가 현세의 축복

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배움으로써 감사함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모사이야서 2:20~21 참조) 우리의 축복에 대한 감사함을 나타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모든 축복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주님께 의지하고 있음을 인정함

- 영 대관장은 "복음의 영에서 나오는 빛을 맨먼저 받기 위해" 어린 아이같이 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그렇게 되면 지식과 지혜가 커질 수 있다고 말씀했다. 여러분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것이 참되다는 어떤 증거를 본 적이 있는가? 겸손해짐에 관해 어린이들은 어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특성들을 갖고 있는가?
- 영 대관장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외의 어느것도 아닙니다."라고 가르쳤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고자 하시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겸손해지겠는가?(모사이야서 3:19 참조) 주님은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셨으며 여러분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셨는가?
- 영 대관장은 "비교적 극복해야 할 강한 욕망이 없는 사람은 형제들보다 더 의롭다는 것을 자랑하기보다 오히려 끝까지 겸손의 골짜기를 걸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했다. 우리의 장점과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비교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가?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이더서 12:27 참조)

정직한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과 주님께 진실함

- 가족과 지역 사회에서 서로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에 대해 천사들은 어떻게 본보기가 될 수 있는가?
- 영 대관장은 정직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모두 풍족할 것이라고 말씀했다. 이 말이 왜 참된가? 부정직은 우리가 사는 지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정직은 우리 지역 사회에 어떻게 유익을 주는가?
-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이 정직하게 되도록 가르칠 수 있는가? 생활의 모든 면에서 정직하게 되는 것은 왜 중요한가?
- 영 대관장의 말씀에 의하면 정직해지는 것이 왜 "속이는 것보다 천 배는 더 쉽고 세상에서 가장 쉬운 길"인가?

제 26 장

행복과 사회적인 즐거움

브리감 영 대관장은 행복은 의로운 생활을 통해서만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생활에서의 많은 즐거움은 건전한 여가 활동과 오락을 통해서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연극, 춤, 그리고 기타 사교적인 오락 등을 좋아했으며, 사람들의 복지에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그러한 오락들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는 솔트레이크의 사교 모임을 위한 건물을 관리하였는데, 그 곳에서는 무도회가 열리고 연극이 공연되었다. 그 사교 모임을 위한 건물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 곳은 성찬이 집행되는 곳이 아니라, 우리들의 즐거움을 위해 마련된 건물입니다. 우리는 그 건물이 지어진 목적에 따라 그 곳을 헌납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곳에 어떤 영이 임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 곳에 우리 교회의 회원이 아닌 지사, 판사, 의사, 변호사, 상인 및 잠깐 들렀다 가는 사람 등이 있었는데, 그들 모두가 한결 같이 말한 내용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저는 제 온 생애 동안 어떠한 파티에서도 여기에 있을 때처럼 편안함을 느껴 본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곳에서만큼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범사에는 그 때와 장소가 있습니다."(주간 데져렛 뉴스, 1862년 3월 26일, 1쪽)

브리감 영의 가르침

진정한 행복은 의로움과 봉사를 통해 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행복입니다. 저에게 영광과 권세와 부와 명성과 동료들에 대한 영향력을 주신다 해도, 그로 인해 제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가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36쪽)

우리는 모두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소망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가 이것을 위해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바로 이 생에 있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그처럼 열망하는 행복을 즐기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브리감 영 설교집*, 236쪽)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거룩한 종교의 영을 소유함으로써, 우리는 아침에도, 낮에도, 그리고 저녁에도 행복합니다. 그것은 사랑과 화합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기 때문이며, 그분이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모든 말일성도들은 침례와 안수례를 통하여 그들의 죄사함을 받은 후에, 자신들이 기쁨과 행복과 위안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들이 고통을 겪거나, 과오를 범하거나, 가난한 상태에 있거나, 또는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기뻐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36쪽)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세와 사랑으로 가득 찰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온몸이 행복으로 가득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밀레니얼 스타*, 15:48)

행복의 결과로 모든 세상이 있게 됩니다. 행복은 은이나 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화평과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35쪽)

무엇이 인간에게 기쁨을 줍니까? 행복은 인간에게 화평을 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35쪽)

인간이 성실하고 의롭다면, 그는 행복하게 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35쪽)

지상에 거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안락과 즐거움을 누리는 데 계명이 그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지 않으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봉사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하늘 아래나 땅 위에서 진정한 화평과 진정한 행복은 없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행복은 봉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봉사에 화평과 위안이 있는 바, 영혼이 기쁨과 화평과 영광으로 가득 찰 때 완전히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모든 충실한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지 조그마한 지식만을 가지고 있습니다.(*주간 데저렛 뉴스*, 1857년 7월 15일, 4쪽)

인간은 하나님이 즐기시는 모든 것을 즐길 수 있고, 하나님이 상속하신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권세와 그분이 지니신 모든 신성을 소유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사물은 그분의 충실한 자녀들에 의해 인도되어 그분께 종속되어 집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그분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이해력의 문이 열린 모든 이들의 가슴에 화평을 가져다 줍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37쪽)

말일성도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들의 종교에 따라 생활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뜻을 다하여 자유의 복음에 순종하며,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진정 자유롭게 됩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구원의 의식에 따르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열망했던 그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36쪽)

제가 이전부터 생각해 왔고 말해왔듯이, 의무가 요구될 때 저는 외출할 때나 집에 돌아올 때나 항상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게 요구하시고 또 의무라고 알고 있는 것을 제가 행할 때, 그것은 제게 가장 큰 기쁨이요, 위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제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이든 말입니다. 이러한 행동 지침은 제게 기쁨과 화평을 가져다 줍니다.(*데저렛 뉴스*, 1856년 2월 6일, 4쪽)

1866년 유타 주 아메리칸 포크, 브라스 밴드.
성도들은 음악을 사랑하였으며, 거의 모든 지역에서는 밴드가 있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특권을 누리며, 자신이 받은 축복에 어떻게 감사드리는가를 아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36쪽)

우리는 모든 사람의 얼굴이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것과, 모든 사람의 눈이 미래의 행복에 대한 소망으로 빛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36쪽)

만일 여러분이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을 누리길 원하신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말일성도가 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대로 생활하십시오.(*데저렛 뉴스: 주 2회 간행물*, 1874년 1월 30일, 1쪽)

지상에서 하나님 왕국의 지식에 대한 경험을 누리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지상의 그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35쪽)

올바른 영으로 즐기는 레크리에이션은 우리의 신체적, 영적 복지를 증진시켜 줄 수 있음

우리는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방법, 즉 이 지상에서의 필멸의 생활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계시의 영으로, 그러한 것을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하며, 필멸의 감정들을 고양시켜 줄 수 있는 기쁨, 평안, 즐거움 등

인간이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주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 그것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그들이 안락함을 취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 그분은 그에 대한 어떤 교리도 계시하시지 않았지만, 계시의 본질은 화평과 영광을 채우며, 보잘것 없고 슬프며 치명적이고 거짓되고 비굴한 감정을 넘어선 가슴의 감정과 영향을 높여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해의 왕국에 속한 완전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바라시며, 지상에 거하는 사람들 사이에 널리 만연한 모든 우울하고 어둡고 치명적인 감정에는 작별을 고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37쪽)

여가 활동에 어떠한 부도덕한 것이라도 있습니까? 제가 저의 아들과 딸들이 이야기하고, 방문하며, 말을 타고, 파티나 무도회에 가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을 볼 때, 거기에 무슨 부도덕한 것이라도 있습니까? 저는 매우 조심스럽게 살펴봅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신성한 것이나 훌륭한 도덕적인 특성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고 쳐다보거나 조소할 때, 저는 그 순간 그것을 느낍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선으로 인도되지 않을 것을 따른다면, 그것은 악마입니다. 그것이 생명과 예지의 근원으로 인도되지 않는다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따르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237쪽)

선한 것을 즐기는 것은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지구와 그 곳에 가득한 만물은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리와 성약 104:14 참조] 그분은 당신의 충실한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탐욕과 이기심의 영 — 욕망의 영이 없이 복음의 영 안에서 즐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태양은 우리를 위해 부드럽게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의 날들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만물은 성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을 주면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37쪽)

우리 스스로 행복해지는 것은 인간의 존재의 위대한 계획과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어찌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도록 배웠습니다. 만약 제가 선을 행할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만약 제가 어떤 것을 성취할 수 없다면, 저는 그것 없이 만족할 것입니다. 이것은 저를 항상 행복하게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36쪽)

그런 다음 여러분이 특권을 가졌을 때 행복해지는 것을 배우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235쪽)

우리는 지금 우리의 오락을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만찬인 성찬식 시간에 종종 함께 만나서 찬양하고, 기도드리며, 설교하고, 금식함으로써 주님을 경배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교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휴식을 취하고, 우리의 신체가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적합한 여가 활동을 하고 모든 영과 육체에 건강한 활동을 증진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40쪽)

저는 자주 이 오락의 장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만약 그들이 주님의 영을 가지고 그 곳에 갈 수 없다면, 그들은 집에 머무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40쪽)

여러분의 모든 사교적인 교류나, 또는 여러분의 사교 활동이 무엇이든지간에, 모든 어둠과 불화와 중언부언과 불행하고 비참한 감정들과 같은 악한 열매들이 나무에서 예고없

브리검 영 대관장은 성도들이 문화 활동 및 사교 활동에 참여하도록 그들을 격려하였다.
이 사진은 1858년도에 찍은 솔트레이크시티의 사교 모임을 위한 건물의 모습이다.
당시 많은 성도들은 이곳에서 서로 재능을 나누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 조용히 떨어지게 합시다. 또한 여러분의 이웃에게 그러한 것들이 전파되지 않도록 이 땅에서 소멸시켜 버립시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쁨과 행복, 빛과 예지, 진리와 미덕을 지니게 된다면, 그 열매들을 여러분의 이웃에게 풍성하게 나누어 줍시다. 그러면 그 열매는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게 될 것이며, 그들을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40쪽)

우리는 복음의 표준과 일치하는 건전한 오락을 추구해야 함

저는 우리 지역 사회의 청소년들이 오락을 찾기 위해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며 뛰어다니지 않도록, 그들의 관심을 끌고 그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극장을 지었습니다. 극장을 짓기 오래 전에 저는 감독님들께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파티와 오락을 위한 장소를 지으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243쪽)

극장 안에, 무도회장 안에, 예배당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그리고 세상에 해악이 있습니까? 예,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장소에서 사탄의 일을 행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말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자신들을 사탄의 일을 행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일상적인 대화를 위한 그들의 단순한 모임에도 해악이 있을 수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43쪽)

극장의 무대 위에서는 해악과 그 결과, 선과 그에 따른 행복한 결과와 보상, 인간의 나약함과 어리석음, 미덕의 고귀함과 진리의 위대함들이 공연될 수 있습니다. 무대는 지역 사회의 사람들의 마음에 미덕과 같은 삶의 기쁜 면, 또는 죄의 흉악성에 대한 적절한 공포심과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 등을 각인시킴으로써, 연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43쪽)

비극은 바깥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저는 비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살인과 그에 따른 모든 공포와 사악함들이 우리의 부녀자들과 어린이들 앞에서 묘사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린이들이 검과 단검의 공포를 지닌 채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악몽으로 인하여 밤에 고통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연극들이 관객들의 기분을 편안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는 연극을 공연하는 사람들이 대중의 마음을 증진시키고 지역 사회의 문학적인 감식력을 고양시켜 줄 수 있는 연극들을 선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43~244쪽)

여러분이 춤추기를 원하시면 춤을 추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성도라면, 전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였듯이 여러분은 무도회가 끝난 후 기도회 모임을 위해 자신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도라면,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여쭈어 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춤을 추는 동안에도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43쪽)

그러나, 춤을 추는 동안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사할 수 없는 사람들은 춤을 추지 말아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43쪽)

저는 춤추고 노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일부분이 아니라는, 바로 그 점을 명확히 이해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들

은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인가요? 저는 이렇게 대답해 드립니다. 저의 육체는 저의 마음과 함께 화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의 마음도 인간이 나무를 베며 일하는 것처럼 항상 힘쓰며 일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제가 이러한 오락들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그러한 오락들은 저에게 모든 것을 제쳐놓고, 온몸을 흔들며 즐길 수 있는 특권을 주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저의 육체는 운동을 할 수 있고, 저의 마음은 재충전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구요? 저의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힘을 얻게 하고, 활력을 되찾게 하며, 활기를 띠게 하고, 생기가 넘치게 하며, 또한 기운을 북돋게 하기 위해서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42쪽)

조상들의 관습과 전통 및 그릇된 종교의 요구로 인해, 자신들이 말일성도가 되기 전까지는 한번도 무도회장이나 극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나이 드신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분들이 우리의 자녀들보다 이와 같은 오락들을 즐기기를 더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자신들의 영을 고무시키고, 육체를 활기 있고 강하게 하도록 마련된 그러한 오락을 오랫동안 갈망해 왔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신체와 마음에 대한 활동을 해보지도 못한 채 그와 같은 활동의 결핍으로 인해 죽어갔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하기 위하여 상호 간의 양육을 필요로 합니다. 신체와 마음 양자의 모든 재능과 힘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신체와 마음의 건강한 활동을 생성시키고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데 사용되는 수단이 지옥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결코 말하지 마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242쪽)

여러분이 춤을 추고 싶으시거나, 도보 경주를 하고 싶으시거나… 또는 공놀이를 하고 싶으시거나, 하고 싶은 것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단련시키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재충전하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243쪽)

성약을 지키고 하나님께 봉사해 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휴식을 주고 신체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운동하기를 원한다면, 가서 춤을 추면서 마음껏 즐기십시오.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에 그랬던 것처럼 이것에 대해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게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42쪽)

우리의 일, 우리의 매일의 노동, 우리의 전반적인 삶들이 우리 종교의 영역 내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바이며 우리가 실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분이 결코 명하지 않으신 수많은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주님은 결코 제게 춤을 추라고 명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춤을 추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제 삶은 세상 사람들이 지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게 그것을 하도록 한 번도 명하신 적은 없지만, 그분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소년들에게 가서 공놀이를 하라고 명하신 적은 없다고 생각되지만, 그분께서 그것을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극장을 지으라고 명하신 적이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만, 그분은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레크리에이션과 오락 활동은 우리의 삶에서 더 중요하게 추구하는 것만큼 우리의 복지에 있어서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38쪽)

저는 극장 안에서 발을 구르고, 손뼉을 치며, 휘파람을 불고, 여러 가지 소음을 내며 떠

들썩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부적절하고 엉뚱한 행동이며,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몰지각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친구의 얼굴을 기쁘게 하는 만족스런 행복한 미소와, 인간에 대한 인간의 저주를 가져오는 모욕적인 비웃음과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41쪽)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기쁨을 노래하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신체의 모든 부분으로 발산되도록 합시다. 우리의 모임의 목적은 바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40쪽)

학습을 위한 제언

진정한 행복은 의로움과 봉사를 통해 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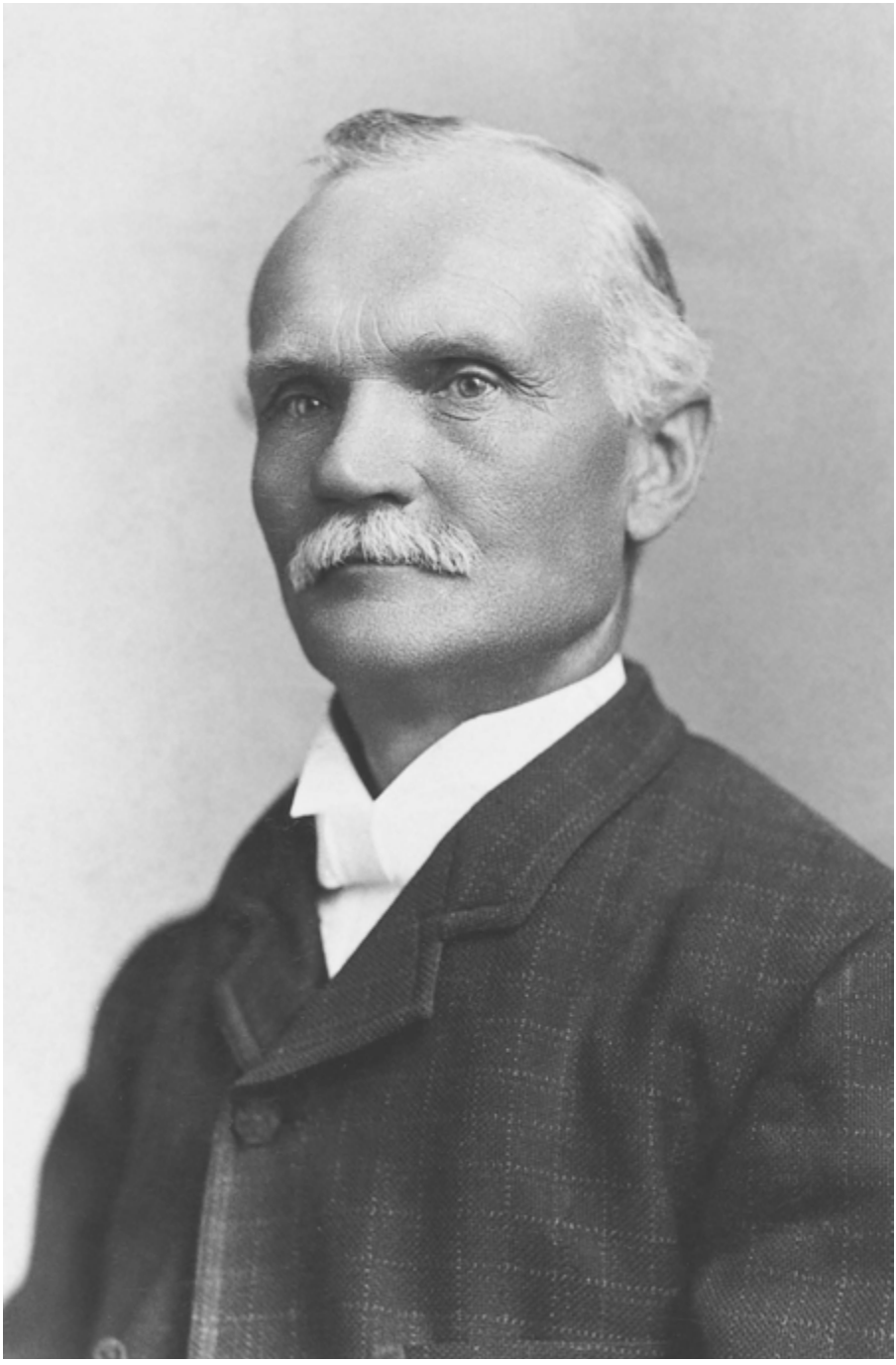
- 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가? 우리는 어디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가? 어떻게 복음은 "고통과 과오와 가난과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들을 덜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 여러분이 직접 경험했거나 보았던 것 중에서 어떤 상황이 그 반대의 상황—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며, 반면에 불순종은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에 비추어 실제로 참되다는 것을 보여 주는가?
- 여러분이 "하나님이 즐기시는 모든 것을 즐기"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때,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느끼는가?
- 영 대관장은 말일성도들이 행복해지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였는가?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것은 당신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드는가?

올바른 영으로 즐기는 레크리에이션은 우리의 신체적, 영적 복지를 증진시켜 줄 수 있음

- 여러분은 왜 영 대관장이 레크리에이션을 장려했다고 생각하는가?(교리와 성약 136:28 참조) 어떻게 우리의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우리를] 화평과 영광으로 채우며, 가슴의 모든 감정과 영향을 높여" 주는가?
- 만약 우리의 활동이 우리에게 신체적, 영적으로 축복을 주는 것이라면, 우리가 레크리에이션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의무들을 먼저 수행하여야 하는가?
- 영 대관장은 레크리에이션이 올바른 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가르쳤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는 복음의 표준과 일치하는 건전한 오락을 추구해야 함

- 오락과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브리감 영 대관장은 음악, 춤, 그리고 연극의 몇 가지 구체적인 혜택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였는가? 그는 극장과 무도회장이 해악의 장소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였는가?
- 적절한 오락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우리의 표준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이 오락이나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중에도,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모든 생각들 속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어떻게 부모는 자신들이 선택한 오락의 유형으로 그들의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가?
- 왜 레크리에이션은 "우리의 삶에서 더 중요하게 추구하는 것만큼 우리의 복지에 있어서도 필요"한 것인가?
-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자녀들, 또는 여러분의 지역 사회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안전하고 건전한 레크리에이션과 오락 활동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브리감 영 대학교의 전신인 브리감 영 아카데미의 첫번째 교수인 칼 지 매서의 사진

제 27 장

연구와 신앙으로 배움

브리감 영 대관장은 단 11일밖에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그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지혜 모두를 공부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책을 공부하고, 경전을 연구하며, 또한 주님의 계시로부터 배우는 것을 결코 중단한 적이 없었다. 그는 성도들에게 학교를 설립하고 배움을 즐기도록 가르쳤다. 1850년 그는 데저렛 대학교를 설립하였는데, 훗날 이 대학은 유타 대학이 되었으며, 1875년에는 유타 주 프로보에 현재 브리감 영 대학교의 전신인 한 전문 학교를 설립하였다. 1877년에는 말일성도들의 정착지에 흩어져 있던 학교의 교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로간에 브리감 영 전문 대학이 설립되었다. 교육에 대한 이러한 헌신의 일환으로, 그는 또한 그의 생애의 마지막 12년 동안 그의 집 근처에 가족 학교를 운영하였다. 여러 대학교의 설립자이며, 깊은 학식을 지닌 교사로서 영 대관장은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아버지처럼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다.

브리감 영의 가르침

우리는 영원한 원리로 배우고 살아가며 "연구할 의무"가 있음

지상의 주민들이 정신이나 육체적인 면에 있어서 그들의 모든 재능을 없어져 버릴 것들에 허비하고 있는 반면, 자신들을 말일성도라고 자칭하며, 거룩한 복음의 원리들을 받고 이해할 수 있는 특권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그러한 원리들을 연구하고, 알아보며, 실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원리들은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계속되도록 계획된 원리들입니다.(*주간 데저렛 뉴스*, 1854년, 7월 20일, 20쪽)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는 사람들을 하나님에 관한 일들에 정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 내에서 도덕적인 미덕과 순수함을 발전시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지식과 예지, 메카니즘의 모든 부분, 또는 예술과 과학을 증진시키도록 모든 가능한 격려와 동기를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지혜 및 모든 예술과 과학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또한 그러한 것들은 그분의 백성들의 선을 위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47쪽)

인간의 자녀들에게 알려지고 그들에 의해 연구되어지는 모든 예술과 과학은 복음 안에 포함되어진 것들입니다. 인간이 지난 몇 년 동안 과학과 메카니즘 분야에서 이루었던 그

와 같은 큰 성과를 가능하게 했던 지식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우리는 그 지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 자신의 관심사로 인하여, 다른 사물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인간들에게 전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습니까? 인간 스스로 그것을 발견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절대주로부터 지식을 받았습니다. 또한 모든 예술과 과학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그 영예가 인간 각 개개인에게 주어졌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디에서 지식을 얻습니까? 그들은 그 지식을 스스로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인위적으로 풀 한 포기도 자라게 할 수 없으며, 사람의 머리카락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도 없다면[마태복음 5:36 참조] 사람들은 그들이 빈곤한 자나 무지한 자들과 마찬가지로 절대주께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현 시대의 놀랄 만한 업적인 노동력을 절감해 주는 기계를 고안할 수 있는 지식을 사람들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하늘로부터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우리는 천문학에 대한 지식과, 광활한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천체 망원경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입니까? 한때 이 지상에 살았던 모든 천문학자, 예술가, 수학자들은 그들의 지식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 왔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46쪽)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지, 또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의 결핍일 수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47쪽)

말일성도들이 받아들인 종교는, 단지 조그마한 이해만 있어도, 그들이 지식을 부지런히 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줍니다.[교리와 성약 88:118 참조]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말일성도보다 더 진리를 찾고, 들으며, 배우고, 이해하고자 열망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47쪽)

여러분은 가능한 한 빨리 배움에 대한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힘과 신앙의 원리를 한데 모으십시오. 그런 다음 여러분의 지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247쪽)

우리는 시온을 온전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예지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소망하며, 모든 과학적이고 기계적인 지식에 대해 우리의 마음을 증진시키고, 모든 창조물에 대한 위대한 목적과 계획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구하면서, 선하고 사랑스럽고, 거룩한 것을 기뻐하며 우리의 생활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의 손이 닿는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는지를 알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킵시다.(*브리감 영 설교집*, 247쪽)

우리는 영원을 위한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도록 부름 받음

매일매일, 그리고 매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성장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고, 사업이며, 또한 우리의 부름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48쪽)

저는 제가 살아 있는 동안에 배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물론 영의 세계에 가서도 마

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그 곳에서 더 훌륭한 재능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다시 육신을 얻게 되면, 저는 천 배나 더 절약된 시간으로 천 배나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배움을 멈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저의 연구를 계속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48쪽)

우리는 배울 필요가 없는 시대를 결코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목표 없이 살 수 있는 시대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능력과 지식이 더 이상 진보되지 않을 정도가 된 시대를 목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보다 더 진보하고 더 향상하도록 격려할 필요가 없는 시대도 목격하지 못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48쪽)

우리가 만약 므두셀라의 나이만큼 오래 살 수 있다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원리를 추구하면서 우리의 생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을 마쳤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는 단지 어린 아이와 같았으며,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에 속하는 것들을 방금 배우기 시작한 아기와 같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49쪽)

우리는 언제 배우기를 그만두게 될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그것에 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코,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249쪽)

경험으로 우리는 메카니즘의 어떤 부분들, 또한 우리가 완전히 정통하고자 하는 원리와 아이디어들에 대해 배우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어떠한 정확한 원리에 보다 밀접하게 적용시킬 때, 그들은 보다 빠르게 진리에 대한 지식 속에서 성장하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감정을 억제하는 것을 배울 때, 그들은 얼마 있지 않아 그들이 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그들의 깊은 생각과 사고를 조절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연구하고 배우기 원하는 주제로부터 그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는 느낌이나 영의 유혹에 지게 될 때, 아주 오랫동안 그들은 결코 그들의 마음을 조절할 수 없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50쪽)

인생을 통하여 굳세고 변함없는 의로움의 과정은 사람들이 진정한 예지를 성취하리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45쪽)

우리는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을 배우기 위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함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을 배우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고양시킴으로써, 그들은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지상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우리가 마시는 물, 그리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51쪽)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국어의 기초에 대해 적절하게 교육 받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런 다음 그들이 보다 높은 차원의 것들을 계속 배우도록 하십시오. 어린이들이 그들의 아버지들보다 더 진실되고 유용한 배움의 모든 분야를 잘 알게 되도록 하십시오. 어린이들

이 그들의 언어를 매우 잘 알게 될 때, 그들이 다른 언어를 공부하도록 하십시오. 또한 어린이들이 외국의 풍습, 관습, 법률, 정부, 문학, 민족, 그리고 언어에 대해 완전하게 습득하도록 하십시오. 또한 어린이들이 예술과 과학 속에 있는 모든 진리들에 대해 배우도록 해 주시고, 그러한 것들을 그들의 세상적인 관심사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하십시오. 어린이들이 땅 위에 있는 것과 땅 속에 있는 것, 그리고 하늘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252쪽)

저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음악을 공부하고 연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들에게 배움의 모든 유용한 부분들에 대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우리는 종교와 과학과 철학에 대해 지상의 어떠한 인류보다도 미래에 더 많은 것을 성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56쪽)

학교에 갈 수 있는 수백 명의 청소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들이 학교에 가는 것은 그들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일입니다. 다른 언어를 공부하고, 지식과 이해력을 증진시키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생애의 모든 날들을 훌륭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52쪽)

학교에 가서 공부하십시오.…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예술과 과학을 배우는 데 그들의 매력을 끄는 학교를 갖기를 원합니다. 적정 연령에 이른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학교에 보내십시오. 저는 제가 걷고 있는 곳과, 제가 숨쉬고 있는 공기의 특성, 그리고 마시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등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화학, 생물학, 그리고 광물학을 배우는 것보다 더 하고 싶은 일은 없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53쪽)

우리는 깊은 학식을 지닌 사람이 되어야 함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깊은 학식을 지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언어에 익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랑스로 갈 수 있는 선교사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해당하는 나라의 언어에 익숙하기 때문에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각 나라로 선교 사업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54쪽)

우리는 또한 그들이 여러 나라의 지리, 습성, 관습 그리고 법률 등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에서 권고되고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88:78~80, 93:53 참조]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가장 좋은 책에서 배웠으며, 이렇게 하여 우리는 우리의 정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계의 지리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최소한 세상 사람들에 대한 것이 글로 쓰여 있는 한,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 대해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54~255쪽)

우리는 위대한 학교인 지상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책이 양서이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모든 책을 다 읽으라고 추천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배우는 데 부지런해야 하며, 계속해서 하늘과 지상의 지식들을 쌓아가야 합니다. 좋은 책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영의 도움으로, 좋은 책에서 가능한 한 많은 지혜와 이해력을 얻기 바랍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48쪽)

저는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역사에 관한 서적 등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을 읽으시도록 권고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책에서 그와 같은 지혜를 찾으시도록 권고드리는 바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56쪽)

우리가 과학과 예술에 속한 모든 원리들을 이해하게 되고, 자연의 모든 복잡한 작용에 대해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모든 화학적인 변화에 대해 잘 알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탐구해야 할 진리와 힘의 끝없는 영역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는 하늘, 천사와 천상의 사람들, 그들의 거주지, 그들이 삶의 방식, 그리고 한층 더 높은 완전의 등급을 향한 그들의 진보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물질적인 현세에 속하는 것 조차, 그 망망한 정보의 바다의 기슭으로 단지 접근해 가고 있는 것과 같을 뿐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55쪽)

인간의 가족에 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우리가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모든 배움입니다. 이 지식의 많은 부분은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깊이 고찰해 왔던 인간들에 의해 쓰여진 책 속에서 얻어집니다. 또한 예수님의 계시는 그들이 그것을 알고 있든지 또는 그것을 인식했든지 안했든지에 상관없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57~258쪽)

우리의 종교는 어떤 특별한 점에서 과학의 사실과 상반되거나 모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질학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과학입니다. 저는 그 지질학 교수들의 모든 결론과 추론이 참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질학의 주요한 원리들은 사실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무 것도 없는 무에서 이 지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며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아브라함서 3:24; 교리와 성약 131:7 참조] 하나님께서는 결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과거에 존재했었고, 현재 존재하며, 미래에도 존재할 것이라는 법칙이나 경제적인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충만한 물질이며, 우리가 주님과 그분의 계획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그것으로부터 이 물질을 취하셔서 이 지구를 조직하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조직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 관해 저는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창조의 과정을 이해했다면, 그것에 관해 신비스러운 것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창조는 모든 것이 합리적이며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무지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에 대해 신비스러움을 느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상에 존재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배워 왔던 것에 의해 알게 된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58~259쪽)

1885년경의 브리검 영 아카데미의 교수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내는 특권을 가지고 있음

지상이나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내는 것은 인간의 특권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진정한 기쁨이며, 진정한 지혜는 사려깊음이요, 이해력은 진정한 위안이 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62쪽)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데 전념하며, 이해력을 부지런히 구하는 사람은 자라서 이스라엘에 힘이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61쪽)

지혜의 씨앗을 여러분의 가슴에 뿌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금과 은과 다른 어떤 값진 것들보다 더 여러분께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서 지혜가 솟아 나오게 하여 잘 가꾸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261쪽)

우리가 집이나 성전을 짓기 위하여 재료를 준비하듯이, 인간은 영원한 지혜를 받기 위해 스스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집을 지을 재료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것들을 우리의 목적에 맞게 준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원한 진리가 거하는 곳으로 가서, 그 곳에서 지혜를 부지런히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는 루비보다 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욥기 28:18 참조](*브리감 영 설교집*, 261~262쪽)

가장 좋은 책 등에서 지혜를 구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있은 후에… 모두를 위한 열려진 원천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야고보서 1:5 참조](*브리감 영 설교집*, 261쪽)

여러분이 성신을 지닐 수 있도록 생활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즉시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사이의 차이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물을 판단할 수 있으며, 그들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23쪽)

모든 말일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데 엄격해지기 위해, 모든 선한 말씀과 일을 수행하고, 자비를 사랑하고, 악을 피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계속해서 기쁘게 행하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연마하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261쪽)

인간이 지혜를 얻게 될 때 그 유일한 원천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인간이 그들 스스로의 지혜와 묵상과 숙고에 의해 발견했다는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빚지고 있는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59~260쪽)

학습을 위한 제언

우리는 영원한 원리로 배우고 살아가며 "연구할 의무"가 있음

-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능력을 없어져 버릴 대상에 사용"하고 있는 반면, 말일성도들은 그들의 시간과 정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무엇이 "없어져 버릴 대상"인가? "장차 올 세상에서 계속되고… 증가하도록 계획된 그와 같은 원리들"의 몇 가지 목록을 작성해 본다.
- 지식에 있어서 모든 위대한 성취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누구인가? 사람들은 이러한 성취를 위해 대체로 누구를 신뢰하는가?
- 복음은 어떠한 방법으로 교회 회원들이 "지식과 예지를 증진"시키도록 격려해 주는가? 왜 "진리를 찾고, 들으며, 배우고, 이해하고자 더 열망하는 사람들"이 없는가? 왜 우리는 배움을 결코 멈추어서는 안되는가?
- 어떻게 우리는 "선하고 사랑스러우며 거룩함으로 우리가 기뻐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킬 수 있는가?

우리는 영원을 위한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도록 부름받음

- 브리감 영 대관장에 의하면, 언제 사람들은 배우기를 멈추는가?
- 우리 마음의 승리를 얻고 진정한 예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과정을 따라야 하는가?

우리는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을 배우기 위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함

- 영 대관장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도록 명하셨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교육을 받도록 격려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우리는 세상적인 지식을 얻는 것과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가? 어떤 면에서 이런 목표들을 함께 이뤄야 하는가?
-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선생님, 부모, 그리고 다른 성인들의 책임은 무엇인가?

우리는 깊은 학식을 지닌 사람이 되어야 함

- 왜 우리는 "깊은 학식"을 구하여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왜 우리는 경전 이외에 더 많은 것들을 읽어야 하는가?
- 영 대관장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책들을 공부"하도록 권고하였다. 영 대관장은 어떠한 종류의 책들을 언급하였는가? 우리는 어떻게 좋은 책과 나쁜 책을 구분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가장 좋은 책들"로 분류할 수 있는 어떤 책들을 공부함으로써 유익한 도움을 받았는가? 좋은 책을 공부하는 것 이외에 우리는 어떻게 지식을 얻을 수 있는가?
- "우리가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모든 배움"의 원천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는 그러한 원천으로부터 더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가?
- 영 대관장에 의하면, 참된 종교와 "과학의 사실"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내는 특권을 가지고 있음

- 영 대관장은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모든 금과 은과 다른 어떤 값진 것들보다 더 여러분께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였다. 어떻게 참된 지혜는 "기쁨"과 "위안"이 될 수 있는가?
- 우리는 "영원한 지혜"를 구하기 위해 누구에게 가는가? 우리는 영원한 지혜를 받기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는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사이의 차이점을 알" 수 있는가?

영 대관장은 성도들이 그들의 생활의 모든 면에서 자제심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가르쳤다.

제 28 장

자제심을 발휘함

브리감 영 대관장은 종종 강하고 독립심이 있는 사람들을 시온으로 이끄는 과정에서 승리감과 분노심을 느끼는 순간들을 경험했다. 1848년, 브리감 영이 인도하던 2,000명의 성도들로 구성된 포장 마차 부대는 들소 떼와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영 대관장은 캠프의 사냥꾼들을 지명해서 여행자들에게 식량으로 필요한 만큼만 들소 떼를 죽이도록 했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들의 팀을 남겨 두고 하루 종일 말을 타고 들소 떼를 쫓으면서 사냥하여 대초원 위에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들소 떼가 총에 맞아 나뒹굴게 되었다. 영 대관장은 그러한 행동에 대해 그들을 책망했다.(브리감 영 서신, 1848년 6월 29~30일, 7월 2일 참조) 그는 훗날 이렇게 말씀했다. "여러분 스스로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십시오."(주간 데져렛 뉴스, 1860년 8월 15일, 1쪽) "여러분 스스로를 이기고 절제함으로써 여러분과 친구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격정을 다스리고, [또한] 여러분의 모든 재능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원리에 순종하게 하지 않을진대, 여러분은 여러분이 고대하는 행복, 기쁨, 화평 및 영원한 행복에 결코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주간 데져렛 뉴스, 1860년 8월 15일, 1쪽)

브리감 영의 가르침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제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음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은사이며, 신들의 성품의 특성입니다. 하늘이나 땅위의 모든 예지의 인간들에게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 있는 힘인 자유의지가 주어졌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64쪽)

사람의 생의 모든 면을 볼 때 가장 첫째가 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의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의 사랑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들의 자유의지에 반하여 그들이 옳은 일을 행하도록 그들을 두렵게 하거나, 채찍질하거나, 그들을 불태울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가족들은 그들의 자유의지를 충족시키기 위해 죽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관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사람들의 영향력과 힘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64쪽)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며, 우리는 전능하신 그분의 뜻에 의해 관리된 그 자유의지를 갖는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옳은 일에 대하여 결코 굴복하지 않게 합시다. 부모들은 어린이들의 자유의지를 굴복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고귀하고 신과 같은 힘은 대체로 어리석고 겁쟁이 같은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적절하게 단련시키고, 현명하게 관리하도록 합시다. 그 반대의 과정을 따르려 하지

맙시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정의의 명분을 압도할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의 영도 깨뜨리지 맙시다. 다만, 영의 가장 큰 즐거움과 가장 높은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 조절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느끼도록 영을 인도합시다.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육체적으로 파고드는 사탄을 극복하는 데 있어 하나님과 같게 되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소망하고 행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64쪽)

여러분 스스로를 절제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옹기장이의 손 안에 있는 진흙처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법을 배우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265쪽)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에 이르는 모든 유혹을 이기고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결심하게 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체에 머물게 하신 영이 지배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여러분의 형제들과 대화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일할 수 있으며, 함께 여기 저기를 다닐 수 있으며, 이 일 저 일을 할 수 있고, 함께 거래할 수 있게 합시다.(*브리감 영 설교집*, 265~266쪽)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에 모든 것을 순종"할 때까지 절제할 수 있음

각 개인이 자신의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빛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릇된 것을 행하게 하거나, 말하게 하거나, 또는 생각하게 하는 유혹을 견디어 내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는 사탄의 모든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빨리 얻게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66쪽)

인간의 삶의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수천 수만 가지의 사건은, 주의 깊음과 신중함에 따라 그것이 선을 위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악을 위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67쪽)

여러분의 욕망이 여러분 내부에 살아 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신 영에 종속되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은 영생을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말씀은 여러분의 영의 아버지, 즉 그분이 이러한 육체에 넣어 주신 그러한 영들의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영에 완전히 종속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육신은 영생을 상속 받기 위하여 높이 들리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율법에 순종하게 될 때까지… 부지런히 구하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266쪽)

저는 제 자신을 스스로 교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러한 일에 성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한, 우리는 친구들과의 교제에 있어서도 자제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교화시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기에 합당하도록 자신을 준비시킨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받기 위해 부분적으로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특별한 은사는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있는 그분의 자녀들이 영원한 빛의 처소에 거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기를 원하시며,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화, 예지, 영광, 권세 및 모든 자격을 말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66~267쪽)

저는 종종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가장 위대한 은사는,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게 해주는 선하고 건전하며 순수한 감정이라고 말씀드려 왔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65쪽)

먼저 자신을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지 않는 한, 자신에게 영예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 지상을 현명하게 다스렸던 사람이나, 앞으로 다스릴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가족, 이웃, 국가를 올바로 통솔하는 데 있어 자신의 지식을 온전히 적용할 수 있기 전에 먼저 자신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65쪽)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열정을 극복하고, 모든 인간의 감정과 욕망을 하나님의 뜻에 종속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왕국에서 승리의 완전한 쟁취에 이르기까지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율법에 순종하게 할 때까지, 우리 자신을 이기고 극복하며 단련시키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67쪽)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확실히 승리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65쪽)

우리는 우리의 격정과 감정을 절제할 수 있음

여러분은 의의 표준에 대해 가르침 받아 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다루기 힘든 격정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알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보다 나은 것을 받아들이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265쪽)

이러한 시험 기간에, 우리에게는 싸울 악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결코 그것을 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65쪽)

의로운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며, 계속해서 자신의 내부에 있는 악에 대항하여 싸울 것입니다. 또한 그는 그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있는 악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싸워 나갈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67쪽)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폭력적인 기질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수치스러운 행동에 대하여 변명하려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방안에 있는 분 중에서 저보다도 더 완고한 기질을 가지신 분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진지하게 노력한다면, 이 세상에는 자신의 격정을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격정을 느끼게 되면, 인적이 드문 곳으로 떠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보거나 여러분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러한 감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것을 떨쳐버릴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시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로님들께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의 가족에 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도할 시간이 되었는데도,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의 영이 없고 여러분의 무릎이 기꺼이 꿇으려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십시오. "무릎아, 거기에 꿇으라." 여러분은 무릎을 꿇고, 주님의 영을 얻을 때까지 거기에 남아 계십시오. 만약 영이 육신에 굴한다면 타락하게 되는 것이지만, 육신이 영에 순종한다면 그것은 순수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67쪽)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화를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어떠한 기회가 올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원수를 도울 수 없을 정도로 화를 내지 않도록 하십시오. 심지어 여러분께 최악의 원수일지라도 말입니다. 화에는 사악한 화가 있는가 하면, 의로운 화도 있습니다. 주님께선 그분의 마음속에 사악한 화가 있게 함으로써 고통 받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가슴에는 화가 있으며, 그분은 계속해서 열국과 다투실 것이며, 열국을 채질하실 것이며, 어떠한 권세도 그분의 손에 머물 수 없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69쪽)

다른 사람의 나쁜 행동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노여움의 감정이 일어날 때, 저는 제가 야생마를 붙잡은 것처럼 그러한 감정을 붙잡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승리를 쟁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화가 나고 흥분했을 때, 독선적이고 무례한 언어로 그러한 행동을 표현하는 것이 자신들의 기분을 좀더 낫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그 것은 여러분의 기분을 나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분을 더욱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을 더 나아지게 한다고 생각하고 말할 때, 여러분은 거짓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의 분노와 비통함이,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말로 표현되어 서로에게 심한 상처를 줄 때, 그러한 분노의 감정이 한 번 생기고 난 이후에는 사소한 일에도 마음속에 분노의 불길이 일어나게 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66쪽)

이제 저는 여러분께 화를 내지 말도록 다시 한 번 엄중히 권고의 말씀을 드리며, 자신에게도 스스로 타이르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안돼, 브리감, 결코 너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해서는 안돼, 결코, 결코! 여러분이 사람들을 징벌하고 날카롭게 꾸짖기를 원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결코 분노가 일지 않게 하십시오. 결코 안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65쪽)

여러분의 분노와 화를 멈추시고, 기쁨과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훈과 모범으로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 수 없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저에게 동정을 기대하신다면, 저에게 여러분도 그러한 동정심을 베푸십시오. 여러분이 제게 친절한 말과 친절한 행동을 바라신다면, 여러분이 소망하신 것과 똑같은 축복을 제게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구원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68~269쪽)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분노의 감정에 지게 된다면, 모든 행동은 그러한 분노의 불길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과 다투는 사람들에게 쉽게 화를 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치 격정을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자신에게 그러한 감정을 표출시키도록 말하십시오. 그러나 나쁜 말을 하고자 하는 유혹은 무시해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곧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만큼 여러분 자신을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혀를 길들이고 제어하지 못하면…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느낄 때, 말할 수 있거나 침묵을 지킬 수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69쪽)

우리는 우리의 기질을 다스리고 제어하기 위하여 우리 내부에 영, 지식, 권세, 그리고 원리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전능하신 분의 영에 의해서 [분노]를 억제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많은 [화]를 내는 것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 지상의 모든 예지의 인간들은 이 지

상에서는 영광과 미와 뛰어남과 지식을 위해, 그리고 다음에 올 세상에서는 불사 불멸과 영생을 위해 적합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달성하려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영의 통제하에 완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만약 제가 가장 높으신 분의 영에 의해 그렇게 관리되게 될 때, 저는 왕인 것입니다. 자아의 통제에 관한 한, 저는 최고의 위치에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64~265쪽)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제할 수 있음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말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면, 그런 다음 여러분은 여러분의 판단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여러분은 실제로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67~268쪽)

여러분은 혀가 나쁜 말을 결코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의 혀를 여러분께 복종시키는 데 성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판단력과 분별력에 혀가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거룩한 복음의 뜻에도 완벽하게 순종하도록 해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68쪽)

우리는 종종 사람들이 자신들의 거친 행동과 무례한 언어에 대해, "나는 위선자가 아니야."라는 말로 변명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실제로 전혀 칭찬 받지 못할 것에 대해 칭찬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악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이 행동으로나 말로 표현되지 않게 합시다. 나는 정직하고 위선자가 아니라는 거짓된 가정 하에 그러한 사악한 생각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말고, 그것을 이겨내십시오. 여러분의 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사악한 말을 입 밖으로 표현하지 못하게 합시다. 다만, 선이 악을 이겨낼 때까지, 또한 여러분의 분노가 사라지고 선한 영이 여러분의 혀를 움직여 축복과 친절한 말을 하게 할 때까지 여러분의 혀가 침묵을 지키도록 명합시다.(*브리감 영 설교집*, 266쪽)

만약,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습관에 젖은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내일, 그리고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그러한 행동을 멈추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곧 그러한 습관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씀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68쪽)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웃들에 대한 이야기나, 그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들을 공공연하게 말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단지 아는 것이라고는, 영희네 아주머니가 말하기를 자기의 사촌 길수가 영순이 고모의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 그 고모가 이웃집의 미환이 어머니로부터 이러저러한 말을 하는 걸 들었다든가, 누가 어떤 꿈을 꾸었다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사실의 외양만 짐작하게 되며, 여러분은 아무 가치도 없는 것들이거나, 또는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여러분의 시간을 매우 어리석게 낭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 행했다는 것으로 시작되는 한 소문이 있었는데, 이 소문은 널리 전파되어 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 와전되거나 개악되어져 그 사람들의 정신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서로가 이것으로 하나가 되어 말하기를

"그것은 진실이다.… 너의 주장은 틀림없다, 네가 정확히 옳다, 그리고 그 사람은 분명히 그르다." 그들은 그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는 것입니다. 결국 이유없는 나쁜 감정만 양산해 놓은 결과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비난하기 전에, 하늘이 아버지, 형제, 자매, 아내, 남편, 또는 이웃들에 대한 잘못을 분명히 지적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늘이 누군가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고 하더라도, 성신이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것이 잘못이라고 분명하게 나타내어 보일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실제로 잘못이라고 여러분께 밝히 보여 주시도록 합시다. 어떠한 사람도 고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있고, 잘못된 사람을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바로 그 때가 여러분이 판단할 때인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60쪽)

이 지상에는 훔치는 습관을 가진 어떠한 남자나 여자도 없지만, 만약 자신의 마음속에 훔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습관을 그만둘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쟁이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그는 거짓말을 멈출 수 있으며, 거짓말을 더이상 하지 않으며, 진실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 또는 그녀는] 단지 그것을 할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지는 거짓말쟁이를 진실되게 만들고, 도둑을 정직하게 만들며, 욕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거친 말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64쪽)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한, 위안과 위로의 말을 합시다. 여러분이 거룩하고 정결한 영의 영향력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빛을 밝게 비춥시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탄에 의해 시험 받고 유혹 당하며 괴롭힘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마음속에 간직합시다.… 여러분의 입을 닫읍시다. 왜냐하면 말은 그것이 선하든 악하든 그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66쪽)

여기에 다음과 같은 하나의 금언이 있는데, 많은 경우 중에 뛰어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행동하기 전에 세 번 생각하십시오." 만약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그 일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시킨다면, 우리는 선을 구별할 수 있는 이해력과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며, 악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68쪽)

몇몇 사람들은 그러한 은사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혹은 양자 모두에게 유익을 주고 혜택을 주는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침묵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지식을 얻는 것은 특별한 은사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68쪽)

학습을 위한 제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제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음

- 영 대관장은 의지는 "신들의 성품의 특성"이라고 가르쳤다. 그는 또한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 받은 축복 또는 은사라고 말하였다. 어떠한 과정에 의해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처럼 되는가?(모사이야서 3:19 참조) 어떻게 부모와 지도자들은 "어느 누구의 자유의지도 굴복시키지 않고" 자녀들과 다른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지도자들은 어떤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여서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성공적으로 인도하여 왔는가?

- "옹기장이의 손안에 있는 진흙처럼"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으며, 동시에 우리의 개성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에 모든 것을 순종"할 때까지 절제할 수 있음

- 어떻게 한 가지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모든 유혹을 견디어 내기 위한 우리의 능력을 증진시켜 주는가? 영 대관장은 우리의 욕망을 "영에 종속"시키는 것은 "영생을 상속받기 위해 들리워"지는 데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쳤다.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보다 영적인 성향이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준비하도록 준비시켜 주는가?
- 자신을 절제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는가?
- 왜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기 전에 자신을 절제해야 하는가?
- 영 대관장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가장 위대한 은사는,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기 위한 선하고 건전하며 순수한 감정"이라고 가르쳤을 때, 여러분은 이러한 영 대관장의 말씀의 의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스릴 수 있으며, 동시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순종할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격정과 감정을 절제할 수 있음

- 어떠한 것들이 우리가 절제해야 하는 "다루기 힘든 격정"인가?
- 어떻게 우리는 때때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과 같은 "의로운 분노"와 "사악한 분노"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는가?(니파이이서 1:26 참조)
- 우리의 분노의 감정을 버리는 결과는 무엇인가?(야고보서 3:5~6 참조) 분노를 억제하기 위한 영 대관장의 권고의 말씀은 무엇인가? 영에 복종하는 것은 우리가 분노를 억제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주는가?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제할 수 있음

-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가?
- 위선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무례하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영 대관장은 어떻게 권고하였는가?
- 우리가 (1)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2)우리의 이웃에 대해 험담하며, (3)다른 사람들의 명성에서 결점이나 불명예스러운 점을 찾고(교리와 성약 136:23~24 참조), (4)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점잖지 못한 일을 하거나 난처하게(교리와 성약 52:16 참조) 하려는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혀를 어떻게 억제할 수 있는가?
-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불친절한 생각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혜의 말씀에는 곡물들이 우리의 육체에 건강을 주는 좋은 식량 중의 하나라는 가르침이 나와 있다.

제 29 장

지혜의 말씀에 따라 생활함

브리감 영 대관장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실제적인 종교였다. 1867년,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던 아들들에게 보낸 두 통의 편지에서, 영 대관장은 지혜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고 있던 솔트레이크시티의 성도들을 칭찬했다. "위스키 거리의 상인들은 거의 가게 세도 내지 못할 만큼 장사가 안되는 것 같더구나. 사람들은 지혜의 말씀을 지키고 영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문제에도 순종하라는 권고의 말씀을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 왔던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결심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단다. 거기에는 어떠한 강제도 없었고, 요구된 성약도 없었단다. 단지 원리가 실시되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실행할 준비가 되어있는 것 같았지. 이곳 솔트레이크시티에는 화평과 건강이 가득하단다." (브리감 영 서신, 88쪽) 그는 주님께서 우리의 지상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하나님의 지상의 왕국에서 우리가 더욱 효과적으로 일하며, 우리가 우리의 창조의 완전한 목적을 수행하도록 돕기 위하여 지혜의 말씀을 계시해 주셨다고 가르쳤다.

브리감 영의 가르침

우리는 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믿음

예언자의 학교가 시작되었을 때, 주님께서 당신의 종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셨던 첫번째 계시 중의 하나는 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학교의 일원들은 처음에는 단지 몇 명밖에 되지 않았으나, 예언자는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교리에 대하여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언자는 그들이 성취하도록 부름 받은 위대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보다 잘 준비되도록,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데저렛 뉴스: 주 2회 간행물*, 1868년 2월 25일, 2쪽)

감독, 이스라엘의 장로, 대제사, 칠십인, 십이사도, 대관장단 및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라, 오 나의 백성이여!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서로를 지지하고, 신앙의 권속들을 지지하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183쪽)

저는 몇몇 사람들이 이러한 점에 대한 계시가 계명으로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는 계명을 받았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82~183쪽)

영은 저에게 말일성도들이 홍차, 커피, 담배는 말할 것도 없고, 알코올 성분이 든 음료

도 취하지 말라는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라고 속삭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이 저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바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이 그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지도자를 통하여 이같은 것을 속삭여 주었는데도, 그들이 들으려고도, 또는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불순종에 따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것들에 대한 깨우침이 부족한 것은 그들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의 영 갖기를 멈출 것이며, 그들의 불순종에 비례하여 그들의 마음속엔 세상의 영이 점차 증가하여 마침내 하나님과 그분의 길로부터 완전히 배도하게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83쪽)

인간이 지닌 신체는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 주어야 하고 소중히 다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신체의 자연스런 능력을 넘어 강제로 힘을 내고 자극을 주기 위해 아무것이나 섭취할 때마다, 그것은 생명을 단축하게 합니다. 저는 그러한 것을 충분히 알만한 의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권고의 말씀에 따른다면, 여러분의 삶은 충만할 것이며 완전한 건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예지와 기쁨과 위안을 더욱 증가시킬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83쪽)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이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권고의 말씀처럼, 이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 안에는 삶,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은 지금 현재의 삶이며, 다음에 올 삶이기도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84쪽)

지혜의 말씀은 영감으로 주어진 건강에 관한 율법임

이 지혜의 말씀은 뜨거운 음료와 담배의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혜의 말씀에 커피와 홍차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계시가 주어졌을 때, 사람들이 뜨거운 음료로 즐겨 마시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커피와 홍차입니다. 우리는 물을 그렇게 뜨겁게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커피와 홍차를 뜨겁게 해서 마셨던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82쪽)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혜로운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들이 만약 더 오래 살고 싶고 좋은 건강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이틀 치의 일을 하루만에 하는 대신에, 열심히 일한 다음에는, 육체가 완전히 지치기 전에 육체에 휴식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지칠 때, 몇몇 사람들은 더 많은 힘을 내고 쳐진 힘에 자극을 주기 위해 사용했던 커피, 홍차, 알콜성 음료, 담배 또는 몇 가지 마약성 물질과 같은 자극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자극제를 사용하는 대신에 그들은 휴식으로 다시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덜 일하고, 덜 입고, 덜 먹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해지고, 건강해지며, 부유해질 것입니다. 샘이나 산 위의 눈이 녹아 흘러 나오는 차갑고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음료를 발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셔야 하는 음료수입니다. 이러한 깨끗한 물은 언제나 우리의 음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콜성 음료와 담배

를 사용하는 데도 건강하다는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만일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지혜의 말씀"으로 주어진 계시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87쪽)

우리가 말일성도들의 정착지로 여행을 떠나 교회 회원들의 집에 멈출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브리감 형제님, 형제님과 함께 오신 일행에게 저희들의 성의를 보이고 싶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 드리지만, 단지 옥수수빵 한 조각만 주시도록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들의 파이와 타트(과일이 든 파이: 역자 주)와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을 받는 것보다 옥수수빵 하나만을 먹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저는 주님의 영을 받고, 또한 두통이나 여러 종류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체력을 지탱해 주며 저의 위와 신체 전반을 깨끗한 상태로 남겨 둘 음식을 취하고 싶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89쪽)

전국적으로,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부도덕한 생활과 지나칠 정도록 풍부한 음식 등으로 자신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30분 정도는 먹어야 하는 데도 3분만에 음식을 삼키고 있으며, 음식 덩어리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로 눈 깜빡할 사이에 먹어치워 버리는 식탁 밑의 [개들]처럼 음식을 꿀꺽 삼켜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습관을 개선하기를 원한다면, 제가 방금 여러분께 드렸던 권고의 말씀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한 식사에 여러 종류의 많은 양의 음식을 줄이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행하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을 고통이나 질병이나 죽음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89쪽)

여러분은 그렇게 생활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완전하게 절제될 수 있음이 특권임을 알고 있습니까?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육체와 건강을 지켜나가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절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90쪽)

생각하는 부분은 불멸 또는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신적인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러한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 형성되고 조직된 육체는 정신적인 일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야기합니다. 육체가 정신과 함께 일하게 합시다. 그리고 그것들이 두 가지 일을 공정하게 함께 하게 합시다. 몇 가지 예외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은 강한 마음과 강인한 육체를 얻게 될 것이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강해질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91쪽)

여러분의 육체를 잘 관리하시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현명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여러분이 현재 소모하고 있는 활력과 힘을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을 잘 간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실천에 옮길 때 비로소 여러분은 완전히 하나님의 왕국에서 훌륭한 일꾼이 되며 현명한 청지기가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93쪽)

그런 다음, 몸에 해로운 물질을 사용하는 데 탐닉함으로써 우리의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합시다.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신체에 질병과 죽음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몸에 해로운 물질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리하여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약한 인간의 또 다른 세대들이 장차 이 지상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어린이들은 불충분한 뼈와 근육과 체격을 갖게 되므로, 자신의 육체를 그들 스스로나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85~186쪽)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의 목적을 더욱 잘 달성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창조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지상에 살 수 있도록 주님께 그의 백성들에게 순종하도록 바라시는 훌륭한 권고의 말씀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지혜의 말씀이라는 계시로 주신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목적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지상에서 그들의 생이 다할 때까지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켜 주시며,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에 힘과 끈기를 주시며, 위대한 지혜와 이해력을 주실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충실함과 선한 마음으로 기꺼이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면, 이것은 그들에게 축복으로 주어질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84쪽)

이 교회의 첫번째 장로들이 받았던 첫번째 가르침은 그렇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그들의 생활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을 통하여 세상에 계시로 보내주신, 그분의 위대한 목적인 생명과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86쪽)

일반적인 선에 대해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습관에 빠진 사람은, 그 습관이 계속적인 영향을 끼치는 한, 자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에 있어서도 적이 됩니다.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선에 반하는 해로운 습관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한 마디로, 일반 대중의 발전을 위한 그의 열망과 소망이 덥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사람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86쪽)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이 교회와 왕국에서 권고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삶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고의 말씀이며, 우리는 이 다음 세상의 삶의 모든 것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생 이후의 삶에서 우리는 예지, 지혜, 빛, 지식, 권세, 영광 및 승영의 더 숭고한 상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모든 건강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또한 일, 공부, 휴식 및 레크리에이션의 적절한 균형을 이룸으로써, 현세의 생활을 최대한으로 연장시키도록 노력해 봅시다. 그렇게 하여 더 나은 생을 준비하도록 노력합시다. 이러한 원리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칩시다. 그리하여 그들이 아직 어렸을 때, 그들은 자신의 육체에 대하여 건강과 활력과 체격과 힘의 기초를 세우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86쪽)

학습을 위한 제언

우리는 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믿음

- 지혜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

리를 더 잘 준비시켜 주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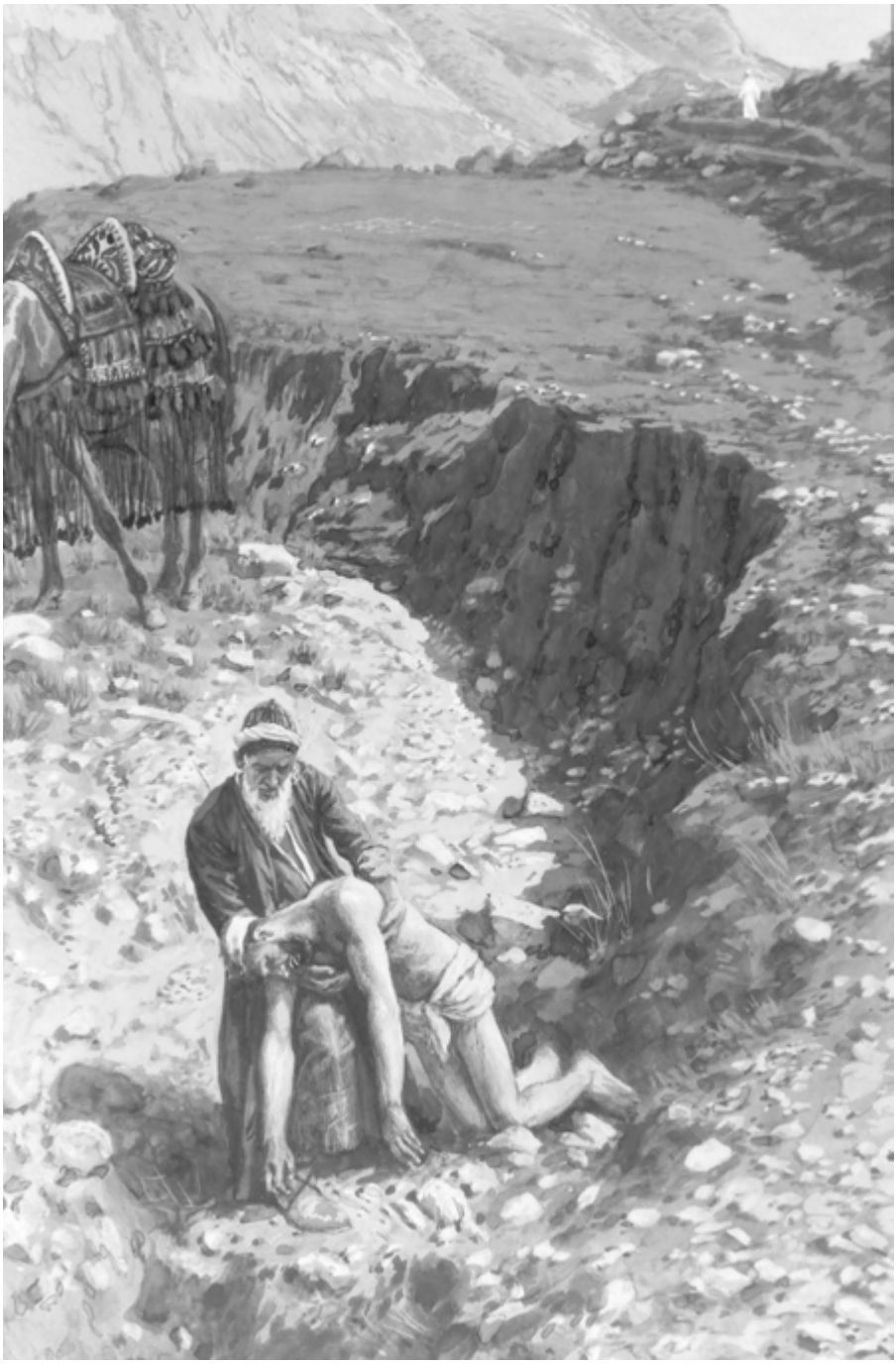
- 브리감 영 대관장은 지혜의 말씀(교리와 성약 89:2 참조)을 포함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는 계명을 받았습니다."라고 말씀했다. 어떻게 지혜의 말씀이 단지 여러분이 그 원리에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좋은 조언이 아니라 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지혜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오는 결과에 대해 영 대관장은 무엇이라고 말씀했는가?
- 영 대관장이 지혜의 말씀 안에 "삶,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했을 때, 여러분은 영 대관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지혜의 말씀은 영감으로 주어진 건강에 관한 율법임

- 영 대관장에 따르면, 지혜의 말씀의 목적은 무엇인가?(고린도 전서 3:16~17; 교리와 성약 89, 93:35 참조)
- 극도의 피로를 피하기 위한 영 대관장의 권고의 말씀은 무엇인가? 어떻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활에 그 분의 권고의 말씀을 지도 원리로 적용시킬 수 있는가?
-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육체가 정신과 함께 일하게" 하는가?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지혜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영을 받도록 준비시킬 수 있는가?
- 영 대관장은 "몸에 해로운 물질을 사용하는 데 탐닉함으로써 우리의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합시다."라고 말씀하였다. 어떻게 그와 같은 해로운 물질이 우리의 사명을 방해하는가?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의 목적을 더욱 잘 달성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지혜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교회로서 어떻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완수해 가는 데 도움을 주는가?
- 지혜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의 영성을 증진시켜 주는가? 지혜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영혼에 해를 입히는가?
- 우리가 지혜의 말씀에 순종할 때, 왜 우리는 더욱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가?
- 어떻게 우리는 "모든 건강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또한 일, 공부, 휴식 및 레크리에이션의 적절한 균형을 이룸으로써, 현세의 생활을 최대한으로 연장시킵시다."라는 영 대관장의 권고의 말씀에 따를 수 있는가?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더 완전하게 살아가는 데 어떻게 도움을 주는가?



구세주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기 위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인용하셨다.

제 30 장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데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를 발전시킴

브리감 영 대관장은 보다 더 안락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과 같은 사랑이 필요함을 알았다. 루시 그로브스 자매에 대한 그의 행동은 다른 사람에 대한 그의 친절과 봉사의 본보기이다. 서부로 가는 여행길에, 루시 자매는 포장 마차의 바퀴 밑으로 떨어져, 다리와 몇 개의 갈비뼈가 부러졌다. 영 대관장은 부러진 다리를 맞춰 놓고 그녀에게 축복을 주었다. 며칠 후, 루시 자매의 딸이 그녀의 다리 위로 넘어지는 바람에, 또 한번 다리가 부러지게 되었다. 황소가 걸을 때마다 그 고통이 극심했던 루시 자매는 남편에게 포장 마차 대열에서 빠지도록 부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놔두고 계속 여행을 하도록 했다. 영 대관장은 결코 위험한 지역의 길가에 그들을 남겨 놓고 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였다. 그는 몇몇 남자들에게 지시하여 루시 자매를 위한 침대를 만들게 하였으며, 그물 침대처럼 매트리스와 스프링이 편안하게 흔들리도록 마차 양 옆의 나무 가로대에 그 침대를 매달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영 대관장은 루시 자매에게 다시 축복을 주었으며, 그녀가 더 이상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며칠 동안 그녀 곁에서 말을 타고 함께 여행했다. 루시 자매의 손자는 그 일에 관해 이렇게 기록했다. "온화함과 친절함으로, 영 대관장님은 루시 할머니와 그 후손들의 사랑을 얻었습니다."(랄프 프로스트의 역사, 157~158쪽)

브리감 영의 가르침

사랑의 끈으로 옷을 입힘

우리 말일성도들은 여기에 고립되거나 외로이 있는 게 아니고, 나머지 인류와는 다른 사람들로 다르게 구성되고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 인류의 가족에 속해 있으며 그 일부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서로 서로에게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71쪽)

말일성도는 형제들의 관심 사항이 바로 자신들의 관심 사항이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해의 왕국에서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71쪽)

주님께서는 사랑, 친절함 그리고 선행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80쪽)

사랑. 만약 성도들이 소중히 하고 실행한다면, 수천 수만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입증해 줄 한 가지 미덕, 속성 또는 원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 용서와,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인내를 수반하는 사랑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주간 데져렛 뉴스*, 1860년 1월 11일, 1쪽)

우리는 사랑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이브의 잃어버린 아들과 딸들을 개심시키고,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구원받도록 그들을 다시 데려 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행할 때, 우리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백성들 중에 널리 펼쳐지도록 계획된 그 범위까지 최대한 퍼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73쪽)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마태복음 22:39 참조]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십시오.[마태복음 6:12 참조](*주간 데져렛 뉴스*, 1852년 3월 20일, 3쪽)

사람들이 그들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요한일서 4:20 참조](*브리감 영 설교집*, 271쪽)

우리는 우리가 속한 가족들에게 사랑과 친절의 봉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사랑과 친절의 봉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확대시켜 나가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71쪽)

굳세고 강하게 항상 진리 안에 거하십시오. 결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악이나 증오심을 갖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은 결코 성도들에게 적합한 행동이 아닙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73쪽)

제가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확실한 원리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들의 사악함을 사랑하도록 요구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그들의 사악한 방법을 돌려 놓기 위한 노력과 소망에 관한 한 그들을 사랑하도록 요구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복음에 순종함으로써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72쪽)

여러분의 이웃 중 누군가 잘못된 일을 저지릅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자신들의 귀화한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지구 상의 다른 쪽으로부터 이곳으로 옵니다. 오래된 거주자들은 그들이 곧 자신들의 관습과 전통을 받아들이고 따르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새로운 정착민들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만약, 모든 남자나 여자나 어린 아이들이 나와 똑같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나와 똑같이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들은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을 수 있는 허다한 죄를 덮을 사랑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필수적인 일입니다.(*주간 데져렛 뉴스*, 1860년 1월 11일, 1쪽)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형제들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영생에 이르는 길에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71쪽)

영생을 얻기 위해 따라야 할 분명한 방법을 설정하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을 참여하게 하십시오. 그 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방법을 그대로 이해하십시오. 그 방법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대로 그것들을 바라보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274쪽)

친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절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게 하시며, 햇빛을 악한 자와 선한 자

에게 비취게 하십니다.[마태복음 5:45 참조]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사람을 위해 우리의 선행을 베풀어 나갑시다. 그러나 사탄의 영이나 그 영향력에 굴복해서는 안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72쪽)

모든 사소한 인색함을 버리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친절을 베풉시다. 징벌이 최선인 경우에는 징벌을 주십시오. 그러나 매를 들려고 하기 전에 먼저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77쪽)

만약 여러분께서 어떤 사람을 징벌하도록 요청 받는다면, 결코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징벌을 주어서는 안됩니다.[교리와 성약 121:43 참조](*브리감 영 설교집*, 278쪽)

사람들이 제가 믿고 있는 것처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남자나 여자로서 각 개인들에 대한 저의 느낌은 결코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웃으로서 저와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같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것은 저의 특별한 관심사가 아닙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78~279쪽)

다른 낯선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본받을 만한 우리의 모범을 보입시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정직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곳으로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머물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79쪽)

온화하고 친절하게 되는 것, 겸손하고 진실하게 되는 것, 신앙과 성실함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 잘못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선은 선을 지닌 모든 사람들의 주위를 사랑의 빛으로 비추어 줍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얼굴은 빛으로 밝게 빛나며, 그 빛의 밝은 광채로 소망스러운 그들의 친구들에게도 비추어 줍니다. 그들은 사악한 사람들에게는 미움 받고, 시기 당하며, 부러움을 받고, 때로는 두려운 존재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와 지상에 있는 모든 선한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받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80쪽)

선행. 우리 종교의 필수적인 본질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에게 선을 행하도록 허락하는 한, 모든 사람에 대한 자비를 갖는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72쪽)

서로에 대해 동정심을 가집시다. 강인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 힘을 갖도록 친절하게 보살핍시다. 무엇이 옳은지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때까지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71쪽)

자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279쪽)

여러분의 어떤 이웃이 죄를 짓고 신앙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은 그가 한때 지녔던 복음의 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복음의 영을 느낀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이 받았던 그 빛이 더욱 더 커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72쪽)

이곳에 먹을 것을 위해 집집마다 구걸하는 열 명의 걸인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중

아홉은 일하기가 싫어 구걸하며 악한 마음으로 인정 많고 동정심이 많은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기꾼 걸인들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의 집을 찾아온 열 명의 걸인 중에서 단지 한 명만이 여러분의 동정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을 돕기 위하여 열 명 모두에게 음식을 주는 것과, 또는 누가 진짜 도움이 필요한 걸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열 명 모두를 거절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최선의 것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들 중에서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단 한 명의 걸인을 쫓아버리는 것보다는, 열 명 모두에게 자비의 선물을 주겠노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행할 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하여 완전한 헌신으로 자선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합당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거나, 아니면 합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거나 상관없이 여러분이 누릴 축복에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74쪽)

비난하지 않음: 의로운 판단으로 심판함

여러분이 심판 받고 싶지 않으면 심판하지 마십시오.[마태복음 7:1 참조] 자신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친구를 심판하지 않게 합시다.[모로나이서 7:16~18 참조] 우리는 이 점에 대해 진지하게 심사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얼마나 종종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까…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으니, 그는 성도일리가 없어, 그가 성도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이 어떻게 압니까?… 그와 같은 사람들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들에 대한 주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성도가 아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말일성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때때로 몇몇 사소한 일로 인해 자신이 하나님의 영을 지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남을 심판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적으십시오. 그리하여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기억을 새롭게 해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것을 항상 지니고 다니며 자주 꺼내 보십시오. 제가 만약 저의 형제 자매들을 심판한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 한, 저는 그리스도의 영을 지니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만약 그렇게 했다면, 저는 어느 누구도 심판해서는 안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77~278쪽)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표준에 따르게 하고 자신의 자로만 재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많음을 보고 제 마음은 한없이 슬프기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철제 침상에 맞추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늘려야 하거나,[이사야 28:20 참조] 적절한 길이로 맞추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잘라 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몸이 너무 짧으면, 필요한 길이만큼 맞추기 위해 자신의 몸을 늘려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79쪽)

만약 그 장로들이 잘못을 범하는 형제 자매들을 본다면, 또한 어떤 일에 대한 그 형제 자매들의 방법이 자신들의 특별한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단번에 그 사람들이 성도일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는, 우정 증진을 중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진리의 길에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결론

손수레 부대는 종종 성도들의 기금이나, 가난한 성도들이 시온에 집합하는 것을 돕기 위해
영 대관장이 제정한 영구 이주 기금 등으로부터 지원 받았다.

을 내리는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79쪽)

서로에 대해 인내심을 가집시다. 저는 전적으로 여러분이 하는 것과 똑같이 사물을 보지는 않습니다. 저의 판단은 여러분의 것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심판할 때, 마음의 의도를 심판하십시오. 주님의 큰 날이 이르렀을 때, 인간은 말이나 특히 행동에 의해 심판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과 행동과 관련해서, 마음속의 감정과 의도가 고려될 것이고, 바로 이것에 의해 인간은 심판 받게 될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137:9 참조](*브리감 영 설교집*, 273~274쪽)

모든 말일성도들이 그들의 형제들의 약함은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합시다. 사람들이 우연히 잘못을 범하게 될 때, 그것을 그들의 죄 탓으로 돌리지 않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동정심을 갖는 법을 배웁시다. 자비롭고 친절함으로 모든 분노와 화를 진정시키게 합시다. 그리하여 우리는 모든 대화에서 서로에게 오래 참을 수 있고 유익함을 줄 수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73쪽)

주님께 봉사하고, 서로의 결점 찾기를 그치도록 노력합시다.[교리와 성약 88:124 참조] 여러분 자신에게서 어떠한 결점도 발견할 수 없도록 생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들의 결점에 대해 신경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각 사람은 모두가 자신의 결점이 있으니까요.(*브리감 영 설교집*, 280쪽)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들의 수천 가지의 결점을 볼 수도 있고, 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

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과 똑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살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과 똑같은 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도 여러분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자녀들이며, 가능한 한 서로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71쪽)

서로 존경하십시오. 서로에 대해 경박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개인적으로 조그만 불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이 지상에 거할 합당한 곳이 없다고 느끼며, 그가 지옥에 떨어지기를 바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비난하는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을 너그럽게 봐주십니다. 그들이 선을 행하는 한, 우리처럼 그들도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더 잘 알고 계시며, 자비와 친절함으로 가득하신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브리감 영 설교집*, 274쪽)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의로운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 안에 있는 나약함 때문에 우리에게 동정심을 갖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필멸의 육신의 큰 나약함과 무지를 고려해 볼 때, 서로에게 자비를 베풉시다.(*브리감 영 설교집*, 272쪽)

자비로운 사람은 자비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7 참조](*브리감 영 설교집*, 273쪽)

저는 현재 우리의 상태에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 매우 감사드립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망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충분한 지혜가 없으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로 가득 차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의 영은 격정을 이겨 낼 때까지, 영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까지, 육신을 다스릴 통제력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심판을 할 수 있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미래와, 심지어는 영원한 세상에서의 우리의 행동의 결과를 확인하고 알 수 있도록 행사하신 그 판단력을 얻어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78쪽)

서로 신앙을 발전시키고 논쟁을 피함

만약 우리가 서로에 대한 신앙과 확신을 얻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확신을 얻게 되면, 우리가 무엇인가 부탁을 할 때, 우리는 우리가 틀림없이 받을 것이라는 완전한 확신과 지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생활의 모든 거래와 상황에 있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행하도록 그것이 직접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요구 받은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우리를 자극합니다.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5리를 가자고 하면, 여러분은 10리를 갈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또한 그에게 외투를 줄 것입니다.[마태복음 5:40~41 참조] 이러한 원리는 우리가 서로의 관심사, 지상에서 하나님의 목적 및 주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증진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도록 우리를 고무시켜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일을 한 번에 기꺼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줍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75쪽)

그러나 우리가 서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면, 그리고 서로를 시기한다면, 우리의 평화는 파괴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감의 원리를 조성한다면, 우리의 기쁨은 가득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75쪽)

여러분과 제가 협력해 왔던 그 일은 사람들의 마음에 신뢰감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저는 형제들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상황에 대해 들을 때, 그것을 이 백성들의 성격의 오점으로 간주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우리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서로에 대한 어려움과 오해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 철저하고, 진지하며, 직접적이고, 상세하게 토론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쉽게 치료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지상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어려움들은 대개가 오해로부터 온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만약 목적과 계획에 실제로 잘못이 있다면, 그 문제가 철저하게 토론되어진다면, 그 잘못을 행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기꺼이 합의에 도달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76쪽)

양편의 판단에 차이점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함께 와서 서로 어려운 점들을 이야기하며, 스스로 겸손해지게 합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하게 합시다. "형제님(또는 자매님), 저는 올바르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형제님이 올바르게 되도록, 심지어는 제 자신마저 부당하게 다룰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의 이웃들에게 그와 같은 태도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의의 율법에 의해 정당함을 증명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판단은 함께 내려지게 되고, 그들은 서로 의견이 일치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3자를 불러올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취한 후, 만약 여러분이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없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3자를 부르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276~277쪽)

논쟁은 종종 서로를 소원하게 하여 형제들은 서로의 정직함과 성실함에 어떠한 신뢰감도 갖지 않게 됩니다. 틀림없이, 양자가 사소하고, 이기적이며, 무지한 개인적인 오해를 낳게 될 때, 그들은 서로를 교회로부터 잘라 내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경우가 매우 자주 제 앞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노출시킬 때, 그것은 아주 작은 일에 관련된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가장 사소한 이유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와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키우는 것을 피하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277쪽)

만약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여러분에 대해 나쁜 이야기를 하며 잘못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그 말을 들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리고 항상 그들이 올바른 일을 했던 것처럼 처신합시다.(*브리감 영 설교집*, 277쪽)

지금부터 우리와 접촉하고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의 신뢰를 얻도록 생활합시다. 필멸의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값진 보석 중 하나처럼 우리가 얻은 신뢰 하나 하나를 모아 둡시다. 저의 훌륭한 행동으로 저는 저와 관계한 이웃들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해 왔습니다. 저는 그 신뢰를 파괴시킬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게 되기를 기원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76쪽)

학습을 위한 제언

사랑의 끈으로 옷을 입힘

- 인간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서로 서로에 대한 어떠한 은혜"를 입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가?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아담과 이브의 잃어버린 아들과 딸들을 개심"시키도록 돕는가?
-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없는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대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은 왜 중요한 일인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기 위하여 어떻게 여러분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가?
-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인 사랑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다.(예를 들어, 모로나이서 7:45~47 참조) 영 대관장이 강조했던 사랑에 대한 표현 몇 가지는 무엇인가? 어떠한 방법으로 여러분은 여러분과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사랑을 보여주었는가?

비난하지 않음: 의로운 판단으로 심판함

- 영 대관장은 서로를 심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권고하였는가? 여러분은 여러분과 생각이나 행동이 많이 다른 사람들과 생활할 때 어떻게 이 권고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가?
-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의롭지 않게 심판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심판해야 할 위치에 있게 된다면, 우리가 의롭게 심판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모로나이서 7:14~18 참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보여주는 것은 왜 중요한가?
- 우리의 가족, 친구 및 지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는가?

서로 신앙을 발전시키고 논쟁을 피함

- 우리는 어떻게 서로에 대한 신앙과 신뢰감을 발전시키는가?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 결과는 무엇인가?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감을 갖지 못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는가?
- 논쟁의 몇 가지 원인은 무엇인가?(니파이이서 26:32~33 참조) 논쟁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과거에 논쟁을 성공적으로 피하기 위해 어떻게 하였는가? 논쟁과 갈등이 발생할 때, 영 대관장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도록 권고하였는가?
-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감에 대해 "필멸의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값진 보석 중 하나"라고 묘사한 것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은 무엇인가?

제 31 장

검소, 근면, 자립심

브리감 영 대관장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데 근면의 가치가 대단히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개척자들에게 이같이 권고하였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를 구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살펴봅시다."(브리감 영 설교집, 293쪽) 영 대관장의 친구이자 대관장단 보좌였던 히버 시 킴볼 대관장은 젊었을 적에 야외에서 여러 날 동안을 브리감 영과 함께 일을 했었다. 훗날 그는 그 시절에 관해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브리감 형제와 저는 숙식을 같이 하면서 일당 50센트를 받고 어깨를 나란히 하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건초가 있는 들에서 일을 할 때에는 일당 75센트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침 해가 떠오를 때부터 저녁 해가 질 때까지 일하였고, 비가 올 징조가 보일 때에는 밤 9시까지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크레이들러 수확기를 가지고 밀을 하루 1부셸(약 2말)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우리는 눈 속에 허리까지 파묻힌 상태에서 1코드(약 3. 5 입방미터) 당 15센트로 쳐서 벌목 작업도 했는데, 보수를 받을 때에는 1부셸 당 75센트로 쳐 옥수수로 받았습니다"(데져렛 뉴스, 1862년 7월 30일) 브리감 영 대관장은 검소와 근면 및 자립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씀했다. "영생으로 들어갈 자들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자들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90쪽)

브리감 영의 가르침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하고,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여 우리의 가족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야 함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입니다. 가능한 한 우리는 시간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복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간을 가장 유익하게 활용한다면 그 공은 인정되어 기록될 것이고 축복이 여러분에게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헛되고 어리석은 일에 우리의 시간을 허비한다면 그 사실도 기록되어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90쪽)

우리는 어리석은 일로 보낸 날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90쪽)

이 지상에 있는 인간들에게 할당된 시간 가운데는 잠시도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적당히 휴식을 취하고 긴장을 푼 후에는 단 하루 도, 한 시간 도, 아니, 단 일분도 무익한 일에 허비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매일, 매 시간, 매 분을 마음을 향상시키

고 성스런 복음에 대한 신앙과 사랑과 인내를 증진시키며 선행을 쌓는 일에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진리와 경전에 기록된 진리에 대한 지식을 쌓는 데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90쪽)

헛되이 시간을 보내는 것과 무익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하늘의 법도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과 원수들을 축복하는 데 풍요롭게 되기 위하여 비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비축하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290쪽)

시온의 건설과 관련된 것은 무엇이든 힘든 노동을 실제로 필요로 합니다.(니파이이서 5:17 참조) 노동을 통하지 않고 왕국 건설 운운하는 것은 허튼 소리입니다. 왕국 건설에는 우리 유기체의 각 부분의 노동 — 정신적인 노동이든, 육체적인 노동이든 혹은 영적인 노동이든 — 을 필요로 합니다. 노동만이 왕국을 건설하는 유일한 길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91쪽)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은 끊임없이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브리감 영 설교집*, 290~291쪽)

우리의 노동을 의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아내와 자녀와 이웃들의 유익을 위하여 매 시간을 유익하게 활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풍요인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90쪽)

만일 우리가 금으로 포장된 도로 위를 걷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일터로 가 광산에서 도로에 깔 금을 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금 하늘 나라에서 금으로 포장된 도로를 걷고 있는 천사들도 과거에 금을 캐어 도로에 깔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장차 포장된 도로를 갖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거기에 금을 깔아 놓은 후일 것입니다. 우리가 시온의 아름다움과 영화를 누릴 때가 온다면, 우리가 시온을 건설한 때에나 가능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시온을 갖게 된다면, 시온을 구속하고 준비한 후에 가능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된다면, 우리가 기초를 놓고 새로운 도성을 건설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업을 완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담이 그랬듯이 우리 자식들과 후손들을 위해 기초만이라도 깔아 놓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랬듯이 방주로 살아 남을 것이라면, 우리가 방주를 건설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만일 복음이 모든 민족과 나라에 전파된다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91쪽)

저의 신앙으로는 주님께서는 불에 익혀 놓은 불고기나 버터를 발라 놓은 빵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곡식을 재배하고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 상자를 만들 판들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곡식을 공급해 주는 수확기가 돌아올 때까지는, 우리는 곡식을 비축해 놓아야 합니다. 1년, 2년, 5년 혹은 7년 치의 식량을 보유할 때까지, 또는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한 곳을 찾아 우리에게로 오는 사람들에게도 빵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식량을 보유할 때까지 우리는 곡식[밀]을 비축해 놓아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91~292쪽)

1869년경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협동 창고.
영 대관장이 성도들 사이에 행해지고 있는 가내 공업과 검소한 생활 및 자립을 격려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용하도록 이 땅에 자원을 풍부하게 마련해 놓으셨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충만한 자원으로부터 삶을 풍요롭게 하는 온갖 위안물을 거둬들여 우리 자신의 필요와 행복의 조건에 맞게 변화시키는 방법을 배웁시다.[교리와 성약 59:18~20 참조] 우리는 자신을 무지한 상태로 방치하여 무지한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고 현명해지는 방법을 그들에게 보여줍시다.(*브리감 영 설교집*, 294쪽)

주님은 이 사업에서 그분이 맡으신 몫을 이미 마치셨습니다. 주님은 밀, 고기, 마, 울, 실크, 과일 등을 포함한 자원과 말일의 시온을 건설하고, 미화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우리 주위에 가득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의 충실함을 통해 하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혜에 따라서 우리의 필요와 욕구에 맞게 이들 자원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지상에 시온을 다시 세우십니다. 이 밖의 다른 방법으로는 하시지를 않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94쪽)

우리의 임무는 자립 자활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원수로부터 우리 자신을 수호하고, 현명하게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왕국 건설을 위해 고안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실행시키고, 하나님 면전에서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고 준비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능동적으로, 그리고 부지런히 하는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94~295쪽)

우리는 이 계곡에 비옥한 토지가 있고 이 땅에 씨앗을 뿌려 놓은 이상, 하나님께 먹을 것을 달라고 간구할 필요가 없고, 계속 빵을 마련해 주셔서 우리가 바로 먹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의 입장에 있다 해도 그런 기도는 듣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곡에서 스스로 식량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 식량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주님이 우리를 부양하기 위해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 만한 시기가 올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94쪽)

사람들은 서로 상대보다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여 세계의 모든 부를 손 안에 넣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다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터로 가서 우리의 모체인 땅의 표면과 지하에 있는 온갖 자원을 끌어 모아 쓰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에 무슨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쓰기에 충분한 양의 자원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보십시오. 말일성도 여러분, 그리고 말일성도가 아닌 비회원 여러분, 이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저는 우리가 여기에서 누구로부터도 방해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난방로를 만들고 광산을 개장하고, 철도를 부설하고, 토지를 경작하고, 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을 아름답게 하는 미화 사업에까지 손을 댈 수 있도록 이곳에 한동안이나마 충분한 평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되게 해 달라고 저는 비회원 여러분과 말일성도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95쪽)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함

한 나라의 부는 충만한 국고에 있다기 보다는 기름진 토지와 백성들의 근면에 있는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97쪽)

시간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온 인류의 자본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에서 모두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능력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해 엄정한 기록을 심판할 때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생각에 대한 기록도 심판할 때 제출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01쪽)

사람들의 체력과 노동만이 지상에 존재하는 자본입니다. 노동을 통해서 우리의 집회소, 성전, 법원, 음악홀, 학교 건물 등은 건립됩니다. 자녀들을 가르쳐서 각 교육 분야의 지식을 주입시키는 것도, 자녀들에게 모국어와 외국어, 그 밖의 모든 분야를 가르쳐 숙달시키는 것도 전부 노동을 통해 이루어집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00쪽)

무슨 물건이든지 폐기하지 마십시오. 사려깊게 생각하여 모든 것을 비축해 두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는 다량의 물건은 이웃들에게 소모시키는 방법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292쪽)

매사를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게 하십시오. 무슨 물건이든지 쉽게 폐기하지 말고 비축해 두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292쪽)

여러분은 자녀들이 빵 껍질이나 빵 부스러기를 버리는 것을 내버려 둘 정도로 충분한 양의 빵을 자신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령 어떤 사람이 수백 만 부셸의 곡식을 가지고 있는 부자일지라도 단 한 개의 낱알을 불 속에 내던져 버려도 좋을 만큼 부유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인가에게 먹히게 해서 다시 땅 속으로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생기게 되었던 목적이 성취되게 하십시오. 이 사실을 기억해 두십시오. 무슨 물건이든지 폐기하지 말고 잘 관리하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292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잘 관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축복을 그릇된 방향으로 관리한다면, 우리가 상속 받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권세와 영광은 우리에게 차단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중함과 검소함과 하나님이 주신 판단력에 의해서 만이 우리는 곡식과 가축과… 집과 토지를 보전할 수 있고, 또 우리 주위에 그것들을 불어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권세와 영향력을 전체적으로는 하나님 왕국의 권세와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나아갈 수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92쪽)

여러분이 거둬들인 수익은 여러분의 자신과 가족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저축하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292쪽)

여러분이 부유해지고 싶으면 수익금을 저축하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은 돈을 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돈을 저축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는 데는 지혜 있는 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92쪽)

우리는 좋은 집을 짓고 아름다운 집단 사회를 창조해야 함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훌륭한 집을 지으십시오. 포도밭과 과수원에 좋은 품종을 심으십시오. 우수한 도로를 만들고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하십시오. 도시 안에는 대중의 편의를 위한 멋진 건물들과 아름다운 도로들이 들어서게 하십시오. 도로 양쪽 가에는 그늘을 짓는 가로수와 분수대, 수정과 같은 물줄기 그리고 이 지방 풍토에서 번성하게 자랄 수 있는 각종 나무와 관목과 화초들이 즐비하게 들어서게 하십시오. 그같이 하여 우리의 이 고산 지대 고장을 낙원으로 만들어 요셉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원천이 되게 하고, 우리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를 늘 되풀이 하면서 감사에 찬 마음으로 이 고장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302쪽)

여러분의 집과 정원과 논밭을 아름답게 가꾸십시오.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것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땅은 살기 좋은 땅입니다. 이 땅의 자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진실하고 의롭게 이용만 하면 좋은 것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모두 힘을 다하여 손수 일하면서 건강하고 풍요롭고 아름답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최상의 상태로 항상 젊음을 유지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하면서 될 수 있는대로 오래도록 살아갑시다.(*브리감 영 설교집*, 302쪽)

우리가 매번 진보할 때마다 우리의 즐거움이 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풍요로움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02쪽)

성인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남편에게 부탁하여 아름다운 과수와 그늘을 짓는 나무를 정원에 심게 하고, 또 집 바깥 쪽에 장식할 포도 나무와 화초를 구해 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권리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남편이 그럴 만한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이 손수 구해다가 심으십시오. 혹 어떤 자매님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통나무 집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가당치 않는 이야기에요"라고. 그러나 그러한 집도 가능합니다. 통나무 집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문에 하얀 회반죽을 바르고, 그러고 나서 문 위로 뻗어 올라갈 포도 넝쿨을 가져다가 심으십시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참으로 아름다운 별장 같은 집이군!"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한 권고를 실행하는 것은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의 이 특권을 시험 삼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00쪽)

훌륭한 집을 지으십시오. 그러기 위해 집을 짓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훌륭한 기사와 실업가가 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집과 헛간과 창고를 짓는 방법, 논밭을 만들고 가축을 기르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월동 준비로써 적절한 보호 조처와 온갖 편의 시설을 장치하는 등 완벽한 관리 방법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같이 하여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현재 이 계곡이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보다 더 큰 부를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302쪽)

저는 주부를 위한 최소한의 편의 시설도 갖추지 않은 가정을 여러 집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집에는 물통을 얹어 놓을 긴 의자조차 없어 물통을 땅 바닥에 놓아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도 그 남편들은 해마다 땅바닥에 앉아 있기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윌리엄 카터가 1893년에 유타 주 세인트 조지에 있는 자신의 고향에서 쟁기로 밭을 갈고 있다.

물통을 없어 놓을 긴 의자를 마련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은 발전하지 못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98~199쪽) 하지만 그들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하려고 하지 않을 뿐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98~199쪽)

남편들은 가족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방과 찬장과 침실을 개량하십시오. 정원과 보도와, 그 밖의 것들을 개량하십시오. 포장을 하고 그늘 짓는 나무를 심어 주택과 주변의 환경을 아름답게 꾸미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198쪽)

우리는 자립하는 가족이 되고 자립하는 백성이 되어야 함

우리는 이제부터 여러분이 자립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78:14 참조] 오! 이스라엘이여, 들으십시오. 우리의 이웃들, 친구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모두 들으십시오. 이는 주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93쪽)

말일성도들이여, 자립하기를 배우십시오. 오늘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없으면, 그것 없이 지내는 법을 배우십시오. 돈을 주고 살 수 없거나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그것 없이 지내는 법을 배우십시오. 여러분은 스스로 마음을 굴복시켜 "자신의 재력 한도 내에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결심하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293쪽)

칭찬 받기에 합당한 분이 누구입니까? 자기 스스로를 보살필 줄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극히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자기를 보살펴 주시리라고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나

무를 심지 않을 때 과일을 공급해 주시리라고 주님께 기대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우리가 논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수확을 위한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을 때, 주님께 우리를 기근에서 건져 달라고 호소하는 것도 모순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자신이 어리석은 일을 하고 불순종하고 낭비를 일삼고 있으면서 장차의 불행한 결과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모순인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93쪽)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신뢰를 보이는 방법은 우리가 자립하여 항상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것이며, 협동 사회가 하나로 뭉쳐 단합하는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93쪽)

형제 여러분, 배우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많이 배우셨습니다. 그러나 더 배우셔야 합니다. 자립하기를 배우십시오. 기근의 날에 대비해서 식량을 비축하십시오. 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한 무엇인가를 구입하기 위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지막 남은 곡식을 팔아 달라고 남편에게 부탁하여 아무것도 없는 창고로 만들지 마십시오. 남편이 기근의 날에 대비해 비축하는 것을 도우십시오. 1년 혹은 2년 치의 식량을 늘 보유하고 계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293쪽)

주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를 바라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으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293쪽)

말일성도들이 지금까지 획득한 것은 전적으로 불요 불굴의 결의로 얻어진 것들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94쪽)

학습을 위한 제언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하고,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여 우리의 가족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야 함

- "매일의 매 분" 사용에 관하여 영 대관장이 권고한 말씀은 무엇인가?(앨마서 34:33 참조) 시간은 왜 그처럼 귀중한 은사인가? 여러분이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개선하는 데 어떤 원리가 도움이 되었는가?
- 헛되이 시간을 보내는 것과 무익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왜 "하늘의 법도"에 맞지 않는 일인가?
- 시온을 건설하는 일은 왜 모든 종류의 노동을 필요로 하는가? 시온을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면에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노동을 하여야 하는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용하도록 이 땅에 자원을 풍부하게 마련해 놓으셨음

- 주님은 어떻게 "이 지상에 시온을 다시 세우실" 것인가?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

온의 건설을 도울 수 있는가?

- 영 대관장은 "우리의 모체인 땅의 표면과 지하에는… 모든 사람이 쓰기에 충분한 양의 자원이 있다"고 말씀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세상에는 이처럼 빈곤이 많다고 생각하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서로 나눠 쓰기 위해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야곱서 2:18~19; 교리와 성약 104:14~18 참조)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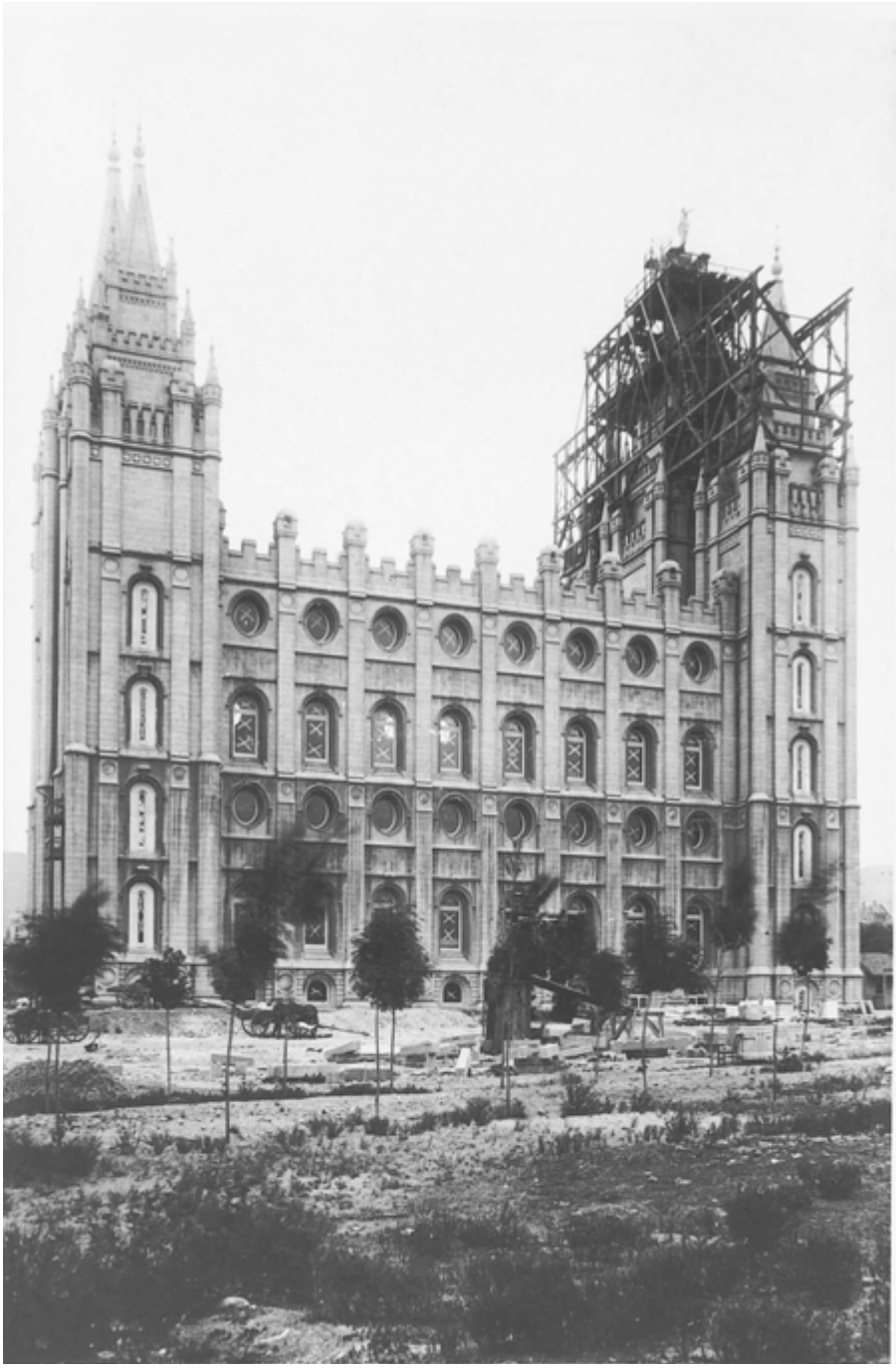
- 우리는 왜 "무슨 물건이든지 폐기하지 말고 잘 관리하여야" 하는가? 우리는 이 주제에 관한 영 대관장의 권고를 식량 비축과 비상시에 대비한 준비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
- 우리가 상속 받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권세와 영광은 우리에게 어떻게 차단되는가?
- "어리석은 사람은 돈을 벌 수는 있으나 그가 돈을 저축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는 데는 지혜 있는 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영 대관장의 권고를 우리는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

우리는 좋은 집을 짓고 아름다운 집단 사회를 창조해야 함

- 영 대관장은 성도들이 그들의 "고장을 낙원으로 만들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원천"이 되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했는가? 우리는 우리 가정과 지역 사회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교리와 성약 82:14 참조) 아름다운 환경은 우리에게 물리적, 정서적, 영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주는가?

우리는 자립하는 가족이 되고 자립하는 백성이 되어야 함

- 자신의 재력 한도 내에서 생활하는 방법에 관하여 영 대관장은 무슨 권고의 말씀을 했는가? 이 단순한 지침은 왜 따르기가 어려운가? 우리가 실제로 자신의 재력 한도 내에서 생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 영 대관장이 자립에 관해 말씀한 내용을 평가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궁핍할 때에 여러분의 가족이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실제로 행한 내용을 고찰한다. 여러분의 자립 원리를 여러분의 가족과 지역 사회에 확대 실시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 근면한 노동은 어째서 신앙을 입증하는 것이 되는가? 자립과 그리스도의 공덕을 의지하는 것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 영 대관장은 성도들에게 자기 스스로를 보살필 것을 촉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단 사회에서 단결할 것도 권고하였다. 자립 자활하는 노력과 집단 사회를 강화하는 노력은 서로 어떻게 작용하는가?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노력은 여러분이 더욱 자립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



브리감 영 대관장은 우리가 세상적인 재물을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헌납하여야 한다고 가르쳤다.

제 32 장

세상적인 부와 하나님의 왕국

브리감 영 대관장은 자신의 가족과 남들에게 물질적인 위안을 제공해 주는 검소하고도 근면한 실용주의자였다. 그는 손수 집을 짓고 논밭을 만들었으며 사업을 일으켜 세웠다. 그러면서도 그는 세상 것들에 얽매이지 않았고, 우리는 사소하고 썩을 것들에 너무 애착을 두고 있다고 경고하였다.(주간 데져렛 뉴스, 1856년 7월 16일, 2쪽) 그는 또 자신이 알기로는 세상 것들은 시종… 개인의 행복에 거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말씀했다.(주간 데져렛 뉴스, 1860년 1월 11일, 2쪽) 그 밖에 영 대관장은 세상적인 부는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위해 헌납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브리감 영 대관장의 가르침

우리는 세상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함

이 땅 위의 주민들을 살펴볼 때 저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군왕들, 통치자들, 큰 인물들, 유식하고 훌륭하고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또 세상 사람들이 이 생의 덧없는 것들을 그리워하며 갈망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서로 경쟁하고 비굴한 짓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저는 오! 어리석은 인간들이여, 그대들은 지금 세상 것들에 너무 얽매어 있노라고 나 자신에게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것들과 영원한 지혜를 외면하고 현세적인 부와 덧없는 것들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아도 볼 수 없고 귀로 들어도 들을 수 없으며 마음으로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06~307쪽)

저는 인간 세상에서 주위를 살펴볼 때 사람들이 서로 빼앗으려고 다투며, 또는 그것을 얻으려고 경쟁하는 것을 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자신을 크게 부풀리려고 노력하며, 자기 이웃들의 머리 위를 밟고 다니는 따위의 공동 사회를 무시하면서 까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봅니다.… 모두가 현실에서도 꿈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이웃보다 유리한 지위에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웃의 것을 빼앗아 내가 출세의 사다리에 오를 수 있을까"를 추구하고 계획하고 궁리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기 이웃을 희생시켜 가며 명예와 영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지성 있는 사람들의 사회에는 합당치 못한 사람들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07쪽)

재물은 생활 필수품이나 사치품과 교환하면 안락한 생활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단지 재물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행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을 훔치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그것을 획득했을 때에는 들키지 않을까, 벌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인간의 모든 행복을 상실합니다. 한편, 재물을 명예롭게 획득했을 경우에도 곧 죽음이 나의 재물을 앗아가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나의 재물을 소유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불안을 느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글픈 세상 살이를 마감한 후에는 그들은 무슨 희망을 가집니까? 그들은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단지 죽음과 지옥뿐입니다. 견실한 위안과 순수한 기쁨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14쪽)

이 세상에 있는 금과 은을 모두 소유한다 해도 인간의 불멸의 영혼의 욕망을 만족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성령의 은사 만이 선하고 온전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원래의 요소들을 조직할 수 있을 때까지 금과 은을 구하는 대신 하늘을 향해 지혜를 배우고자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여러분은 진정한 부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05쪽)

지구의 내부와 표면에 금과 은, 기타 재물이 얼마가 존재하든 그것들은 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의로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아보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재산은 주님에게 속합니다. 주님은 그 중 상당량을 우리 말일성도들에게 할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신앙과 인내와 근면으로 이곳에 안락하고도 훌륭한 집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상당히 여유있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재산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지를 알아내어 그것을 행하는 것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에서 지나치거나, 또는 좌로, 우로 치우친다면 우리는 합당하지 못한 일련의 불행한 사태에 빠져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이 전부를 바치는 것이든 십분의 일이나 잉여 부분 만을 바치는 것이든, 주님의 명대로 처분하는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05쪽)

부 또는 권력을 소유하는 것에서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행복을 놓치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의 복음 이외의 그 어느 것도 이 땅의 주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없을 뿐더러 현세에서와 현세 이후에 하늘의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켜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15쪽)

금전을 사랑함은 좌절과 영의 상실을 초래함

재물을 소유하는 것은 마치 그림자를 소유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태양 아래의 아침 이슬을 소유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재물을 소유하는 일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재물의 소유를 관리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05~306쪽)

우리는 없어질 소유물의 확실성에 대해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상한 것이며,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절망의 나락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06쪽)

악마는 이처럼 재물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좌지 우지할 수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06쪽)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지옥의 무리라기 보다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06쪽)

탐욕을 가지고 전세계를 장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그들은 이것 저것을 어떻게 하면 손에 넣을 수 있을지, 늘 계획하고 궁리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06쪽)

사람들은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얻기에 급급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합니다. 이 세상 것들은 우리를 안락하게 해주기 위해 계획된 것이며, 일부 사람들을 그지 없이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물이 말일성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는 결코 없습니다. 부 자체가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하늘에서 오는 성령 만이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06쪽)

돈 버는 일에 관심을 쏟는 말일성도들은 곧 하나님의 집에서 행해지는 의식에 대해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들은 기도하기를 소홀히 하고, 헌금 바치기를 꺼려하며, 십일조의 법은 그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하늘의 축복이 그들에게 차단될 것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좇은 결과 그것들은 전부 그들이 다루고 사용하는 도중 소멸되어 사라져 버릴 것이 분명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15쪽)

인내하여 일함으로써 세상적인 재물뿐 아니라 영원한 부도 얻을 수 있음

사실 이 세상의 재화를 소유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재화는 모든 사람들, 즉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 성도들과 죄인들 모두가 같이 공유하는 물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은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취게 하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리게 하십니다.[마태복음 5:45 참조] 이는 우리 자신의 눈으로 명백히 보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인이었던 고대의 솔로몬 왕은 빠른 경주자라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전도서 9:11 참조] 우리는 이 격언이 참되다는 증거를 일상 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덜덜 떨고 미약한 자들이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는 예가 있는가 하면 무식하고 우매한 자들이 멈칫멈칫 하다가는 부를 얻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08쪽)

참된 부란 주위의 자원을 가지고 편의와 안락함을 만들어내는 기술인 것입니다. 부가 가져다 주는 모든 위력과 존귀는 단지 그림자일 뿐이고, 그 실체는 끊임없이 수고하며 일하는 수백 만 개의 근육과 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훌륭하게 수행되는 노동은 우리들의

필요물을 공급해 주는 진정한 힘이 됩니다. 그것은 통치자들에게 왕다운 위엄을 주고, 성직자들과 정부 각료들에게는 교양과 식량을 제공해 주며, 이 땅의 수많은 아들 딸들에게는 그들의 필요물을 공급해 줍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09쪽)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노동력을 올바르게 관리한다면, 생계비를 벌기 위한 시간은 실제로 생계비를 벌기 위해 들이는 시간의 3분의 1 혹은 4분의 1이면 족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 즉 24시간 중에서 16시간을 일하면 곧 부자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는 모임에 참석하기 위한 시간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평일의 6일 동안 우리는 실제로 더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11쪽)

저는 오늘 말일성도들에게 이같은 권고를 드립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멈추십시오. 우리 지역 사회에서 부를 바라지 않는 사람, 자신을 안락하고 편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나 소유하고 싶지 않을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를 얻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요, 제가 모르고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제대로 말씀 드리면 저는 행운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운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서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임에 충분히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기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전도 충분히 읽지 않고 있습니다. 묵상도 충분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은 언제나 일에 매달려 있습니다. 무슨 일부터 해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분주하십니다. 그것은 결코 부유해지는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단순히 사용하는 "부유"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해의 왕국에서 영원한 부를 얻을 때까지 계속 마음을 이끌어 나갈 말입니다. 우리는 현세에서 상대적인 의미의 부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즉 생활을 안락하게 해주는 것들을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얻기를 바라고 계신다면 그것을 얻기 위한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이 교육 과정을 줄여서 단순한 한 마디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도 가정 생활에 관계되는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음식이 위로부터 쏟아져 내릴 때, 음식을 가득 담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릇을 준비해 놓으라는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10쪽)

각 개인이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줄 원리를 따를 때, 그가 마음속으로 소망하는 바는 조만간 틀림 없이 얻어집니다. 만일 그것이 오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일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일 현세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세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09쪽)

우리는 자립해야 하며 우리의 자원을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사용해야 함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땅을 상속 받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16쪽)

굶주리고 궁핍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식량을 함께 나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분들의 마음씨가 선량하면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

다. 이 땅의 부를 풍부하게 가진 자들이나 왕자들과 교제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듯이,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을 모두 존경합니다. 그들의 재산과 지위에 따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품에 따라 존경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17쪽)

주님께 속한 가난한 자들은 자신들의 성약을 잊지 않습니다. 한편, 악마에게 속한 가난한 자들은 자신들의 약속을 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17쪽)

가난한 자들은 정직하십시오. 그리고 부유한 자들은 재물에 관대하십시오. 계획을 세우셔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참여하십시오. 동시에 자신들을 풍요롭게 하십시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17쪽)

만일 가난한 자들이 부유한 자들의 잉여 재산을 전부 차지하려 한다면, 그들 가운데는 육욕을 좇아 그 재산을 다 써버리고 자신을 파멸시킬 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부자들이 그들의 잉여 재산을 전부 가난한 자들에게 주도록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한 젊은이가 자신이 구원 받으려면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 예수께 와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마지막에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진실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 젊은이에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으며,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누가복음 18:21~23 참조](*브리감 영 설교집*, 317~318쪽)

생활해 나가는 데 충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친척과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무언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계획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수치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18쪽)

우리는 세상적인 재물을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헌납해야 함

재물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축복을 주고 선을 행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가장 유용하게 쓰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위해, 이 땅에 진실을 실현시키기 위해, 이 땅에 건설된 하나님의 시온을 보고 시온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나누어 씁시다.(*브리감 영 설교집*, 307쪽)

만일 근면한 습관과 명예로운 거래에 의해서 여러분이 돈을 벌었다면, 그 액수가 크든 작든, 여러분의 손 안에 들어 온 그 돈을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위해 사려 깊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무인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13~314쪽)

만일 우리가 거금을 소유하고 있어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기 위하여 그 돈을 헌납한다면, 우리는 집집마다 다니며 문전 걸식하는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것을 받는 것과 같이 축복 받고 구원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유하고 충실한 사람도 가난하고 충실한 사람들이 받는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14쪽)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애착심으로 우리 안의 귀중한 진리의 씨앗이 질식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 기도하고, 행실과 말에 신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필요하면 모든 것을, 심지어 생명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14쪽)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주의하십시오. 이 세상과 현 상태의 세상 것들에 애착을 갖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오만하고 교만한 나머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바닥이나 자갈밭에 무관심하듯이 악인들이 몹시 추구하는 금은과 재물에 대해 무관심하여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14쪽)

제가 거액의 돈과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노동을 하는 것은 저의 천직이므로 저에게 체력과 능력이 있는 한, 저는 노동으로부터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자가 노동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재산의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책임의 축복도 그만큼 많이 받게 됩니다. 또한 지혜와 능력의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여 의를 확장하고 죄와 불행을 정복하며 인류의 상태를 개선시켜야 하는 책임이 그만큼 더 커지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과 다섯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각자 상응하는 책임을 갖습니다.[마태복음 25:14~30 참조] 만일 우리가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따른 막대한 책임도 지게 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15쪽)

학습을 위한 제언

우리는 세상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함

- 우리가 이 세상 것들에 얽매이는 것은 왜 어리석은 일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가?
- 영 대관장의 말씀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이 재물의 축복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이 합당하지 못한 일련의 불행한 사태를 따르고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은 복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세상적인 재물을 같이 나눠 쓴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가?

금전을 사랑함은 좌절과 영의 상실을 초래함

- 물질적인 부에 의존하는 것이 좌절을 초래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영 대관장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탐욕에 관해 염려했듯이 우리도 그에 공감할 만한 무슨 증거라도 보이는 게 있는가?
- 돈 버는 일에 관심을 쏟는 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사람들이 그릇되게 돈

에 너무 관심을 가지면 어째서 성전 사업, 기도, 십일조 등으로부터 돌아서게 되는가?

인내하여 일함으로써 세상적인 재물뿐 아니라 영원한 부도 얻을 수 있음

- "참된 부"는 무엇인가?(교리와 성약 6:7 참조)
- 세상적인 재물을 얻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 대해 영 대관장은 어떤 권고의 말씀을 하였는가?
- 하나님의 해의 왕국에서 영원한 부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 영 대관장은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는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닙니다."라고 말씀했다. 여러분은 그 분의 말씀이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은 그 분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

우리는 자립해야 하며 우리의 자원을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사용해야 함

-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에 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주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부자들에게는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모사이야서 4:16~28 참조)
- 성품이 세상적인 부보다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궁핍한 가족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

우리는 세상적인 재물을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헌납해야 함

- 세상적으로 부유한 자들의 책임은 무엇인가?
- 부유한 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위해 관대한 기부를 할 수 있는가? 그같이 하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가?

1880년 영국에 파송된 선교사 토마스 시 그리그 장로의 사진

제 33 장

선교 사업

브리감 영 대관장만큼 선교 사업의 대의를 위해 헌신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약 1년 동안의 선교 사업을 마치고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 도착했던 당시의 자신의 처지에 관해 그가 말한 내용은 이 사업을 위하여 그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던가를 알려주는 감동의 이야기가 된다 "우리가 커틀랜드에 도착했을 때(1833년 9월), 성도들 중에서 저보다 가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보살펴 주어야 할 두 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이 자식들이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저는 홀아비였습니다. 그때 이 브리감 형제에게 신발이 있었냐구요?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한테서 빌려 신은 장화 한 켤레 외에는 신발이 없었습니다. 저는 겨울 옷도 없었습니다. 집에서 만든 3, 4년 된 양복 상의 한 벌 밖에 없었습니다. 바지는 있었냐구요?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다녔느냐고요? 바지도 안 입고 다녔느냐고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번에 다른 바지를 구할 수 있을 때까지 다른 사람의 바지를 빌려 입었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면서 제게 있는 돈을 다 써버렸던 것입니다. 얼마 안되는 돈이 생기면 저는 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에 갈 돈 조차 없게 될 때까지 복음을 전파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요셉 형제님은 커틀랜드로 돌아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떠났습니다."(데져렛 뉴스: 주 2회 간행물, 1867년 3월 9일, 2쪽)

브리감 영의 가르침

복음은 모든 백성들에게 전파될 것임

주님은 이 사업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파할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우리를 쫓아내면 다른 나라로 가서 마음이 정직한 자와 우리가 보살피고 있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을 끌어 모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집의 구원의 의식에 참석하기 위해 구원자로서 시온 산에 오를 때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19쪽)

복음은 악인들이 변명할 여지가 없게끔 전세계에 전파되어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19쪽)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심판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19쪽)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형이시며, 이 세상과 모든 하늘의 구세주이신 예수께서는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이 땅의 모든 백성과 복음을 모르고 죽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준비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19쪽)

주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시대에 신권을 회복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외에 또 구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주님은 에서의 집을 구원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를 끊임 없이 박해하고 있는 가련한 저 인간들, 그러나 성령을 거스려 죄를 짓지 않은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시온 산이 세워지고 구원자들이 오르는 것을 볼 때까지 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집과 에서의 집, 그리고 이방의 모든 나라를, 구원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19쪽)

저는 모든 섬과 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지식이 있는 자나 지식이 없는 자나, 영생의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한 신권의 권세가 부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참으로 기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20쪽)

이 땅의 모든 왕들과 여왕들, 그리고 높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의 영향력은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질 때의 영향력과는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은 어떠한 것도 전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영원으로부터 영원까지 같은 복음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20쪽)

또 장로들은 복음 전파가 허락되는 한, 자신들의 선교 지역에서 유럽의 여러 나라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국법이 장로들의 복음 전파를 허락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나라들은 문호가 개방되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도록 주님께서 혁명을 일으키실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20쪽)

우리는 백성들 가운데 제일 가난한 자들과 배우지 못한 자들, 그리고 약간의 지식인들을 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가난하고, 구원 받기를 원하며, 높은 자와 교만한 자에게 억압을 느끼고 있는 그런 자들이 모일 것입니다. 그들은 구출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은 결국 귀가 열려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온갖 쾌락을 누리고 있는 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귀는 막혀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21쪽)

외국 선교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름을 받을 때에는 만인을 구원하는 행동 지침을 따르십시오. 구원의 은총이 허락된 영역 내에 속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식인들 가운데도 성령을 거스려 죄를 지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장로들의 구원의 복음을 들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21쪽)

선교사는 자신의 사명에만 전념해야 하며, 인간의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함

이 교회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선교사로서의 임무를 띠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임

무는 본인이 살아 있는 동안 계속되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임무는 선을 행하고, 의를 일으키고, 복음 원리를 가르치고, 자신과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원리를 실천하도록 설득하여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22쪽)

저는 이 교회에 들어오자 마자 곧바로 선교사로 출발했습니다. 강령을 받고 저의 선교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의 행동 강령은 진리를 밝히는 것이고, 저의 말씀 주제는 구원의 복음이었으며, 저의 선교 지역은 세계였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22쪽)

우리는 여러분의 영혼이 선교 사업에 있지 않은 채 선교 사업을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22쪽)

외국 선교부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기꺼이 그 부름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22쪽)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경험을 쌓으십시오. 지혜를 배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을 가르쳐 주는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22쪽)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불의한 길을 따를 경우, 여러분은 어떠한 은혜도 약속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은 선행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22쪽)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어떠한 질문에도 응답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고, 또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데 필요한 조언을 줄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은 영원히 욕을 받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형제님들의 마음속에 심어 주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쉬지 말고 열심히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세상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볼 것입니다. 그것들은 언제나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자신 안에 성령을 지닐 수 있도록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성령에 의해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를 곧 깨달을 것이고, 사물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사물의 진가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23쪽)

만일 장로님들이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 여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편이 좋습니다. 미주리 강, 미시시피 강, 오하이오 혹은 대서양에 도착한 후에 자신을 청결히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여기서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청결히 하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머리 끝에서 발바닥까지 청결히 하십시오. 언제나 그렇게 살아가십시오.[시편 24:4 참조] 그러한 태도로 나아가 그러한 태도로 자신의 일을 수행하십시오. 이같이 하여 깨끗한 백지처럼 다시 청결한 상태로 돌아가십시오. 이것이 선교사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같이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23쪽)

이제 곧 선교 사업을 떠날 장로님들은 각자의 선교부로 이동하면 주님께 의지하지 않

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생활하고, 청결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런 연후에 하늘에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권세로써 복음을 전파하여야 합니다. 죄가 되는 것은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돌아올 때에는 청결하고 깨끗한 상태로 돌아와야 하며 솔직한 표정으로 성도들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25쪽)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확고 부동하게 고정시키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배우며 이것 저것을 구하는 등 경박한 마음으로 선교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한다면, 여러분은 갔다가 아무런 보람도 없이 돌아올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심경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손을 대는 것만으로 병자를 고칠 수 있고, 더러운 영을 꾸짖어 쫓아내며, 사람들 가운데서 가난한 자를 기쁘게 할 수 있을 만한 신앙과 하나님의 권세가 충만한 상태로 나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시편 126:5~6 참조]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자신의 임무에 집중시키고 인간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325쪽)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바치십시오. 그들을 집에 두고 떠나십시오. 여러분이 영국, 그 밖의 다른 나라, 혹은 어디에 있든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에 관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마치 옷가방 속에 들어 있는 양 여러분 가까이에 데리고 다니지 마십시오. 집에 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틀림없이 그들이 살아 있는 한,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설사 그들이 죽는다 해도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또 내가 죽는다 해도 편안함을 느낄 것이고 살아도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며, 우리는 곧 다시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24쪽)

사람이 자신의 사명의 영을 지니고 자신의 부름을 자각하며 자신이 주님과 사람들 앞에 서 있음을 실감할 때, 그때가 그의 일생의 가장 행복한 시기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28쪽)

영은 논리로 따지거나 토론을 하지 않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개종시켜 줌

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심판 때까지는 아무리 교리를 성서로 입증한다 해도 그것은 단지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이지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성서를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고 여러분이 제시하는 말을 하나 하나 입증한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힘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성신의 권세에 의한 간증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사람들에게 빛과 지식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회개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신의 권세 이외에는 그 어느 것도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것입니다. 전에 제가 여러 차례 이런 말을 한 것을 여러분도 들으셨을 것입니다만, 저는 차라리 하나님의 권세에 힘 입어 다섯 마디 말만 하는 장로의 말을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 다섯 마디의 말이 영의 동반 없이 하는 긴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나타낼 것입니

1867년 유타 주 에코우 캐년에 있는 교회의 선교사들.
초기의 선교사들은 영국, 유럽 및 태평양 제도에서 복음을 가르쳤다.

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30쪽)

가령 선교사 한 사람은 요한계시록 구절을 여러 개 인용해 가면서 자기가 말하는 것을 신중하게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 가정하고, 그의 동반자와 다른 선교사는 비록 단 한 마디의 논증도 끌어낼 줄 모르고 열등 의식 때문에 덜덜 떨며 그래서 주님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지만[대개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힘을 의지하지만], 그러나 성신의 권세에 의해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은 무엇을 믿어야 하며, 무엇을 행하여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구원의 원리를 따라야 하는 것에 관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성신의 권세에 의해 증거하는 사람이 그저 논리적으로 잘 따지는 사람보다 정직한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설복시켜 끌어 모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30쪽)

진리를 증거하는 데 있어 토론과 논증은 주님이 영에 의해 장로에게 드러내는 바와 같은 큰 효과를 내지는 못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여러분은 모두 저와 동감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의 경험은 그러했습니다. 저는 저의 말이 우리 교회의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 주장하는 데 쓸, 축적 가능한 온갖 지식을 마음속에 채우려는 장로님들의 노력을 조금이라도 방해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는 장로님들이 종교와 통치에 관한 온갖 지식을 배우는 것을 조금도 방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장로님들은 지식을 많이 습득할수록 좋은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30쪽)

사람들에게 빛과 지식을 줌에 있어서 진리의 영이 미사 여구보다 더 큰 효과를 줍니

다.(*브리감 영 설교집*, 333쪽)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개개인에게 시의 적절한 말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신의 권세가 필요하고, 듣는 사람에게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듣는 사람에게 성신이 필요합니다.[교리와 성약 50:17~22 참조](*브리감 영 설교집*, 333쪽)

하늘로부터 내려진 성신의 은사와 권세에 의하지 않고 복음에 관한 설교를 한 사람이 일찌기 없었습니다. 성신의 권세 없이 복음을 전하는 말씀에는 영감의 빛이 없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33쪽)

만일 장로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영생과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권세와 합당하게 의식을 집행하는 권세 — 그것도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 집행할 수 있는 권세 — 가 자신에게 있음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자신의 선교 임무를 명예롭게 수행하지 못할 것이며, 또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그리고 하나님 왕국의 영광과 진보에 유익이 되게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읽을 수 있는 모든 지식과 제가 추측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계시와 영이 저에게 주신 계시를 근거로 생각해 볼 때, 어떠한 사람도 직접적인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권세에 의하지 않고는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파할 수 없고, 또 하늘의 인정을 받을 수도, 축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36쪽)

계속 충실히 노력하고 복음 전파의 영과 복음의 영을 계속 지님

귀환 선교사님들에게 저는 이같이 요청하고 싶습니다.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하는 장로님들은 자신은 지금 영국이나 다른 나라의 선교부에 있을 때처럼 이곳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28쪽)

우리는 흔히 형제님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선교 사업을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선교사로 나가서 더할 나위 없이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영적으로 뜨겁게 달아올라 기도하고 안수례 하고 사람들에게 구원받는 방법에 관해 전파하고 가르칩니다. 몇 년이 지나면 그들은 집으로 돌아와 상의와 모자를 벗어 던지면서 "하나님 사업은 그만, 나는 이제 나 자신과 가족들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나가야 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극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귀환 선교사가 여태까지 복음 전파하던 선교부에서 돌아오면, 이 설교단으로 와서 지난 날에 영국, 프랑스, 독일 혹은 여러 섬들에서 했듯이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환한 지 1주, 1개월, 1년, 혹은 10년이 되었을 때에도 자신의 내부에 있는 복음의 영과 복음 전파의 영은 선한 말과 가르침과 교훈과 모범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강물처럼 흘러 나와야 합니다. 만일 사실이 그러하지 못하다면, 그는 선교사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28~329쪽)

귀환할 때에는 자신 만만한 태도로 돌아오십시오. 머리 끝에서 발바닥까지 자신의 몸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십시오. 마음도 청결하게 유지하십시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풀이 죽은 채 얼굴을 숙이고 돌아올 것이고, 재기 불가능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28쪽)

대륙과 도서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업을 증거한 충실한 장로님들은 다섯 마디만 이야기했든, 길게 설교했든, 각자 노력의 열매를 보실 것입니다. 이 노력의 열매는 당장은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복천년이 올 때까지 못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장로님들의 복음에 대한 증거의 영향력은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전해질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29쪽)

학습을 위한 제언

복음은 모든 백성들에게 전파될 것임

- 영 대관장은 복음이 왕들과 여왕들에게 전해질 때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졌던 것과는 다른 영향력으로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했다. 사람들은 왜 제각기 복음이 가르쳐지는 방법에 따라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는가?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각기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데 있어 복음의 진리를 손상시키지 않고 우리의 교수 방법을 어떻게 적응시킬 수 있는가?
- 영 대관장은 주님은 복음이 가르쳐지는 것을 국법으로 금하고 있는 "나라들에는 혁명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했다. 이 예언은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 영 대관장의 말씀에 따르면, "구원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교리와 성약 18:10~16 참조)

선교사는 자신의 사명에만 전념해야 하며, 인간의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함

- 영 대관장의 말씀에 따르면, 이 교회의 모든 사람은 누구나 선교사로서의 임무를 띠고 있다.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여러분의 선교 활동에 성공을 가져다 주었는가? 여러분은 선교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더 효과적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것을 배웠는가?(모로나이서 10:32 참조)
- 영 대관장은 선교사들이 그들의 영혼을 선교 사업에 두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여러분이 이 장에서 읽은 내용을 기초로 해서 볼 때,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가?
- 영 대관장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였는가? 우리는 복음을 나눌 때 왜 성신의 동반을 구하여야 하는가?
- 복음 선교사들이 선교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청결해야 하는 것은 왜 중요한 일인가? 선교 활동을 하는 동안과 귀환한 후의 선교사의 합당성에 관해 영 대관장은 어떤 권고의 말씀을 하였는가?

- 선교사는 왜 마음을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확고 부동하게 고정시켜야 하는가? 향수병으로 시달리는 복음 선교사들에게 영 대관장은 어떤 권고를 해주었는가?

영은 논리로 따지거나 토론을 하지 않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개종시켜 줌

- 성신의 권세에 의해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이 이론과 논리로만 가르치는 선교사들보다 더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복음을 나누는 데 있어 논쟁은 왜 비효과적인 방법인가?
- 성신을 지니지 않은 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왜 빛이 없는가?
- 직접적인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영 대관장은 무엇을 약속하였는가?

계속 충실히 노력하고 복음 전파의 영과 복음의 영을 계속 지님

- 선교사들이 귀환하면 하나님 사업을 한쪽으로 제쳐 두는 데 그것은 왜 "극히 어리석은 일"인가?
- 우리가 부름에서 해임될 때, 우리는 어떻게 "복음의 영과 복음 전파의 영이… 선한 말과 가르침과 교훈과 모범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강물처럼 흘러" 나오게 할 수 있는가?
- 주님의 사업을 증거한 충실한 선교사들에게 영 대관장은 무엇을 약속하였는가?

제 34 장

영의 은사를 통해 성도들을 강화시킴

청년 시절에 브리감 영은 신약 전서에 기록된 복음의 은사들이 분명히 다 존재하는 종교를 열심히 찾았다. 침례 받기 전, 성신이 그의 이해력을 밝게 비췄을 때, 그는 교회의 강력한 증거를 받았다.(주간 데져렛 뉴스, 1854년 2월 9일, 4쪽 참조) 커틀랜드에서 처음 요셉 스미스를 만났을 때 브리감 영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브리감 영의 역사 기록, 1801~1844, 4~5쪽 참조) 그런 경험은 그의 생애를 통해 드문 일이었지만 자신을 포함한 말일성도들에게 쏟아지는 다양한 영적 은사를 그는 언제나 누렸다. "우리가 구세주의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고대인들이 가질 수 있었던 축복과 똑같은 축복을 우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현을 받은 것이 아니었으며 모든 사람이 꿈을 꾼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방언의 은사나 통변의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능력과 주시는 분의 축복에 따라 받았습니다."(주간 데져렛 뉴스, 1856년 2월 27일, 3쪽)

브리감 영의 가르침

주님은 우리와 가족 및 교회를 강화하고 축복하기 위해 영의 은사를 주심

복음의 은사는 믿는 자의 신앙을 강화시키기 위해 주어집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61쪽)

우리는 우리 시대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고대처럼 표적이 따르는가에 관해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장님이 보고, 절름발이가 뛰며, 귀머거리가 듣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병고침의 은사, 계시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표적은 믿는 자들에게 따른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마가복음 16:17 참조] 참된 교회가 존재하는 시대에는 어느 때나 예수님의 교회, 곧 왕국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랐습니다.(*데져렛 뉴스: 주 2회 간행물* 1868년 3월호, 1쪽)

제가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교회에 사도와 예언자를 두셨습니다. 복음 전도사와 목사와 교사도 두셨습니다. 여러 방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등 각종 영의 은사와 그 밖의 여러 은사도 있게 하셨습니다. 자, 저는 전세계에 묻고 싶습니다. 주님 교회의 이런 직분과 은사들을 주님께서 중단하셨다는 계시를

누가 받았습니까? 저는 그런 계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직분과 은사들은 교회 내에 있어야 하며, 그런 직분과 은사들이 없는[참된] 교회는 없다는 계시를 받았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36쪽)

오늘날 여러분은 복음의 의식은 지키고 방언은 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건 염려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칩시다. 그것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순절에 있었던 급하고 강한 바람을 수반하는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것도 여러분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은사가 특별히 필요했었던 과거 오순절은 유별나게 어려운 시련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 주어 예수께서 죄값을 치르시고 죽음으로써 세상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과 이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처형했다는 것을 전능하신 자의 권세로 주신 어떤 특별하고도 강력한 현시로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조치가 필요했었던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61~162쪽)

신앙의 은사: 여러분이 복음의 원리를 믿어 하나님의 은사인 신앙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은 더 큰 신앙을 주시고 신앙에 신앙을 더해 주십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신앙을 은사로써 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복음을 사실이라고 믿을 것인가, 거짓이라고 믿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고유한 특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54쪽)

병고침의 은사: 저는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안수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로 병 고침 받은 수많은 사례를 증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빈사 상태에서 일어서고,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서 소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실제로 영이 육신을 떠난 사람이 그 육신으로 다시 돌아온 사실도 보았습니다. 저는 구세주의 약속에 따라 안수례에 의해 병자가 고침을 받은 사실들을 보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62쪽)

저는 병자에게 손을 얹을 때, 하나님의 병 고치는 권세와 영향력이 나를 통하여 병자에게 전달되어서 병을 물리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모두 병이 낫는다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저의 병자 축복 집행에 의해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62쪽)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성스런 그릇이 될 때에는 전능자의 권세가 집행자의 육신을 통하여 환자의 신체 조직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으므로 환자는 건강하게 됩니다. 두통, 열, 그 밖의 병은 사라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62쪽)

저의 가정에서 제가 병 고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의 특권이듯, 이스라엘 장로인 모든 가장들이 그들의 가정에서 병 고치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그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저를 데리러 오는 사람들의 방문을 받습니다. 저는 이따금 같이 갑니다만, 가장이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는 자신의 특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는 저에게 자기 집 장작을 패어 자기 가족을 뒷바라지 해달라고 부탁하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신앙이 있다면 그는 제가 다른 임무들을 그만 두고 그의 요청에 응하는 수고를 저에게서 덜어 줄 수 있을 것이기 때

문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63쪽)

만일 우리가 병들어서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우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해달라고 부탁한다면, 그것은 구원의 복음에 관한 저의 지식으로는, 밭을 갈아 씨를 뿌리지 않고 주님께 우리의 밀과 옥수수를 자라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좋다고 하는 약을 바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몸을 고치기 위해 바른 약을 성결케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 같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63쪽)

가령 우리가 산을 여행하는 중에… 한두 사람이 병들었는데 부근에 약품같은 것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의 신앙으로는 그때는 전능하신 주님께… 환자를 고쳐달라고 부탁하여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를 돕기 위해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 때는 주님과 그분의 종들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능력으로 가능할 때, 내 스스로 하는 것은 나의 의무인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63쪽)

우리는 병자에게 손을 얹고 그가 낫기를 바라면서 주님께 고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언제나 고쳐 주신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62쪽)

예언, 계시 및 지식의 은사: 모든 사람은 계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영인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 그들에 관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예견하여 악을 피하고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31쪽)

제가 알기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신약 성서에 기록된 그분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누구나 성신을 받을 것이고… 현재, 미래, 과거의 일을 알 것이며, 자신의 직분과 자격에 따라 하늘의 것들, 땅의 것들, 땅 아래의 것들, 그리고 현세의 것들과 영원한 것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88:78~79 참조](*브리감 영 설교집*, 161쪽)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부지런히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에 관한 일은 여러분이 직접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일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확인되고 공식 통로로 전달되는 교회 본부의 권고를 통해 여러분에게 알려질 수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36쪽)

만일 이 백성들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실, 즉 현재, 과거, 미래에 걸쳐 참된 어떤 일들이나, 지금으로부터 25년 후에 일어날 이 백성들의 운명이나, 또는 지금으로부터 5년, 10년 혹은 20년 후의 이 교회의 교리 또는 왕국의 교리가 될 새로운 교리를 전능하신 주님께서 요셉 생존시에 요셉에게 계시를 전해 주었던 그 영, 그 사자, 소리, 권세를 통하여 대관장 이외의 어떤 대제사장에게 계시하신다면, 그것은 그 대제사장 개인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전체 백성의 도구가 되는 공식 기구를 통하여 드러내시기 전에는 그것을 이 지상의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장로들이 스스로 놀라운 일로 알고 있거나, 놀라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은 교회 대관장을 통해 계시하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들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여러분은 그들이 받은 그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참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악마로부터 나온 거짓 '하나님의 진리'로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공식 기구를 통해 그것을 받았다면, 그들에게 계시해 준 권세자는 그 계시를 그들은 꼭 지켜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었을 것이고, 또 그들은 그것을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38쪽)

기타의 은사: 자연의 눈으로 보는 은사도 방언의 은사처럼 일종의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주님이 주셨으며, 우리는 보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의 시력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자신의 파멸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상호간 의사 소통하는 은사도 역시 예언의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그 밖의 다른 은사처럼 하나님의 한 은사인 것입니다. 다만 시력, 맛보는 것, 언어는 너무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복음에서 말하는 은사들처럼 기적적인 은사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들 은사와 이 밖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른 은사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업을 욕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들은 우리가 이들 은사를 특별히 사용할 목적으로,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승영 받을 목적으로, 우리 자신의 유기체가 종식되지 않고 영원히 존속토록 할 목적으로 우리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은사들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모든 은사들을 엄격하게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고 우리 영이 거하고 있는 이 육신의 부활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육신이 부활할 때에는 이 육신은 청결하고 성스럽게 되어 영원토록 존속할 것입니다.(*주간 데져렛 뉴스*, 1956년 8월 27일, 2쪽)

기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의 신앙을 강화시켜 줌

하나님의 권세를 특별히 볼 수 있는 기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며,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 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신앙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41쪽)

어떤 사람이 보는 데서 그것은 하나님 또는 악마에게서 나온 기적이라는 것을 그 사람에게 확신시켜 주기 위하여 행해지는 기적은 사실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알려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병자를 고치도록 주님께서 의도하고 계신다면, 그 집행자는 병자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집행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악인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 기적과 악인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악인들은 그것에 대해 들어야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가난한 자들이 1847년 나부에서 미시시피 강 건너편에 천막을 쳤다.
주님께서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먹이를 공급함으로써 그들은 구조되었다.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특히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40쪽)

복음의 계획은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는 인위적인 기적은 그들에게 다만 저주가 될 뿐인 것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본 것을 말하는 것을 들을 때에는, 예를 들어 자기는 기적이 행해지는 것을 보았으며 그것을 보고 믿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에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한 말씀을 상기하십시오. 그들은 어찌할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야고보서 2:19 참조]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은 선한 목자의 음성이 들릴 때 그것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내적인 감식력으로 경험하는 것, 내적인 통찰력으로 보는 것, 영원한 영의 지각으로 즐기는 것 등은 좋은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음란하거나[마태복음 12:39 참조],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기적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선하고 정직한 사람은 기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40쪽)

이 교회에서 제일 많이 보았고, 제일 많이 경험하였으며, 제일 많이 이해하였다고 스스로 공언하는 사람들, 회중들 앞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등등을 보았다고 증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신앙으로 살아야 했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왕국을 떠난 자들이었습니다.[앨마서 32:21 참조](*브리감 영 설교집*, 342쪽)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난 후에는 전혀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기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무지한 사람들에게만 존재합니다. 기적은 원인 없는 결과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결과마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모르고 결과를 볼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39쪽)

내가 땅을 갈아 제때에 밀의 씨앗을 뿌리면 밀을 수확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런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베푸신 기적도 엄밀히 말해 같은 원리입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요한복음 2:1~11 참조], 포도주가 다 떨어져 모자랐을 때, 하인들은 구세주에게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주님은 각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인들은 시키는 대로 한 후 물을 뜨던 중에 보니 포도주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포도주였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일이 오늘날 악인들이 심리학, 전기 생물학, 최면술 등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물이 술이라고, 혹은 포도주 비슷한 성질의 것이라고 믿게 하는 그런 원리로 행해졌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구세주는 물을 포도주로 변환시켰던 것입니다. 구세주는 물에 포도주 성질을 채워 넣기 위해 필요한 원소들을 불러 모으는 방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원소는 우리 주위 도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원소를 먹고 마시고 호흡합니다. 예수님은 원소들을 불러 모으는 방법을 알고 계셨던 것이지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기적으로 보였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겉옷 자락을 만져 병고침을 받았던 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태복음 9:20~22 참조] 그녀는 신앙으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과정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방으로 군중에게 떠밀려 거의 헤쳐 나갈 수 없을 정도였지만 여인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감을 느끼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에게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사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을 버릴 수도 다시 취할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요한복음 10:17~18 참조] 이는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성서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와 그분의 사도들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권세를 자신의 내부에 갖고 계셨습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받은 유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버릴 수도, 다시 취할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안에 생명의 물줄기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살아나라" 하시면 사람들은 다시 살아났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40~341쪽)

만일 우리가 자신의 권세 안에 있는 생명과 죽음을 마음대로 하는 능력을 인식할 만한 신앙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질병을 향해 이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 질병을 꾸짖노라. 생명력과 건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환자의 신체

조직으로 들어와 환자의 병을 퇴치시키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손을 얹어 거룩한 복음의 의식을 집행하여 이같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42쪽)

성신은 최선의 은사를 구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왕국의 비밀을 드러내 줌

비밀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비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영원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더 이상 신비가 아닙니다. 알려진 것은 무엇이나 우리의 예지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발전함에 따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온갖 예지로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신비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38~339쪽)

우리가 이 주제를 면밀하게 살펴본다면, 왕국에 관한 일은 언제나 극히 일부분만이 드러내어졌으며 주님의 제자들에게까지도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왕국의 비밀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왕국의 비밀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비취어짐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드러내 주셨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즉시 그들의 마음의 시현을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종들에게 영원한 것들을 잠시만 보여주시고 곧바로 시현을 닫으시고는 종들을 그 전의 상태로 방치해 두십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신앙으로 행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했듯이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신앙으로 행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고린도후서 5:7 참조](*브리감 영 설교집*, 339쪽)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른바 '하늘의 왕국 비밀'을 받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누설하지 않고, 남에게 드러내지 말아야 하는 것을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입증하신다면, 그리고 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것들을 위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왕국 비밀을 속히 받으실 것입니다.[앨마서 26:22 참조](*브리감 영 설교집*, 93쪽)

형제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믿는 것만을 전파하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설사 우리가 그것을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우리의 철학이 그것이 참됨을 가르쳐 줄지라도 그냥 지나치십시오. 우리가 진실로 아는 것만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338쪽)

자신들이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과 친해질 수 있도록 스스로를 준비시키기 위하여 여기서 여러해 살아온 교회 회원들은 이미 충분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39쪽)

지상의 하나님의 왕국 비밀은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애정, 우리가 서 있는 땅, 우리

가 호흡하는 공기,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가 거주하는 집, 그리고 우리가 건설하는 도시들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케 하여 외국인들이 우리 나라에 들어오면 그들이 신성한 영향과 지식을 느낄 수 있고 자신들에 생소한 권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39쪽)

여러분이 왕국의 비밀과 계명과 계시를 받기를 원한다고 말한다면, 저는 이같이 대답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안식일을 빠뜨리지 않고 지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비가 지면을 덮듯 여러분에게 넘쳐 흐를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43쪽)

학습을 위한 제언

주님은 우리와 가족 및 교회를 강화하고 축복하기 위해 영의 은사를 주심

- 영의 은사는 무엇인가?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영의 은사가 있어야 함은 왜 중요한 일인가?(고린도전서 12:4~11; 교리와 성약 46:10~26 참조)
- 우리의 생활 속에 영의 은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 교회에서 영적인 은사를 분별하고 사용하는 책임은 누가 지는가?(교리와 성약 46:27, 107:18 참조) 영적인 은사를 교회 직분에서 사용하는 것과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어떻게 다른가?

기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의 신앙을 강화시켜 줌

- 기적이란 무엇인가? 기적의 목적은 무엇인가?
-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영원한 영의 지각으로 즐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기적은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간증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가? 극적인 방법으로 권세를 나타내는 것보다 영의 속삭임이 더 확신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기적에 어떻게 더욱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가?(니파이이서 27:23; 이더서 12:12 참조)

성신은 최선의 은사를 구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왕국의 비밀을 드러내 줌

- 영 대관장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왜 "왕국에 관한 일을 극히 일부분만 드러내시는가?"(교리와 성약 78:17~18 참조)

- 우리는 자신이 "왕국 비밀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교리와 성약 76:5~10 참조)
- 영 대관장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왕국의 비밀은 무엇인가?(교리와 성약 84:19~22 참조), 한 사람에게 비밀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평범하고 단순한 진리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에 관하여 사색하는 것이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끌 수 있는데, 왜 그런가?
- 영 대관장은 "만일 여러분이… 안식일을 빠뜨리지 않고 지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비가 지면을 덮듯 여러분에게 넘쳐 흐를 것이라"고 말씀했다. 성찬을 취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우리는 어떻게 계시를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는가?

이 그림은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미주리 주 잭슨 군,
일리노이 주 나부 시에서 성도들이 폭도들에 의해 추방 당하는 모습이다.

제 35 장

시련과 징계와 박해의 축복

브리감 영 대관장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이 지식을 그와 그를 따르는 성도들이 견뎌야 했던 환난의 시기에 적용할 수 있었다. 영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대업을 위하여 고난 당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매우 즐겁게 살아왔습니다. 고난에 관해 이야기한다면, 저는 고난은 닳고 닳아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은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 와서 아름답고 온전한 새옷을 주는 것으로 마음속으로 수 없이 비유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회중들 앞에서도 그렇게 비유해 말했습니다. 복음의 대업을 위해 제가 고난 당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이같이 비유하곤 합니다. 저는 낡은 옷을 벗어 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 입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48쪽)

브리감 영의 가르침

주님은 해의 영광에 합당함을 우리 스스로 증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련을 주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은 시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시련을 받았듯이 매사에 시련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경전에 씌어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101:1~4 참조] 만일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서너 가지를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 재물로 바치라는 명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일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성도들이 바라는 시련은 무엇이나 닥쳐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빛이 있다면, 육신의 시련은 실제로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46쪽)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이 장차 올 영생을 받기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를 시험하는 시련의 날에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45쪽)

영광과 불멸과 영생의 관을 쓰게 될 모든 예지의 존재는 영광과 승영을 얻기 위해 예지의 존재가 경험하도록 예정된 온갖 시련을 겪어야 합니다. 소수인들에게는 그들이 장차 주님의 면전에서 살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기 위하여 인간에게 닥칠 수 있는 온갖 재난을 그들이 당하게 주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아브라함이 얻은 영광을 얻고 싶다면 아브라함이 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에녹, 노아, 멜기

세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분들의 충실한 자녀들과 충실한 예언자들 및 사도들과 가까워지고 싶다면, 우리는 장차 해의 왕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동일한 경험을 겪어야 하고 동일한 지식과 예지와 엔다우먼트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겪어온 시련과 경험은 전부 여러분의 구원에 필요한 것들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45쪽)

우리의 수명이 천 년으로 연장될 경우, 역시 우리는 살아가며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갖가지 세상사는 경험과 실례로서 필요한 것이며 충실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받기 위한 준비로써 필요한 것들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45쪽)

만일 아담이 죄를 짓지 않고 이 후손들이 지상에 계속되었다면, 온갖 세력은 상반되는 것이 있음으로써 확연히 들어날 수 있다는 이 평범하면서도 단순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쓴 맛과 단 맛을 구별할 수 없었을 것이고 죄를 몰랐을 것이며, 의로움을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성도들이 사물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 그들은 시련을 겪어야 하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치러야 한다는 명을 받았을 때, 그 희생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최상의 축복이라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성도들이 상반되는 것 없이 참된 원리와 참된 즐거움만을 누린다면, 그들은 즐거움을 알지 못할 것이고 행복을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암흑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빛과 암흑을 구별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빛을 이해하는 분별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쓴 것을 맛보지 않을진데 어떻게 단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을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29:39 참조](*브리감 영 설교집*, 345~346쪽)

우리가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겪고 있을 때, 실상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련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충실한 자에게 더욱 풍성하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베드로전서 3:14 참조](*브리감 영 설교집*, 347쪽)

저는 말일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기만 하면 됩니다. 거짓말 하는 사람들은 계속 거짓말 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에게 저주의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을 계속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들은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위를 향해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것이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격파해 주실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47쪽)

우리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환난을 겪어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그다지 고생이 아니었음을 회원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겪어 온 모든 것은 기쁨이고 즐거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희생을 치러왔고 많은 시련과 유혹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소나마 유혹도 받아야 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재산이 약탈 당하는 것을 감수하기도 했습니다. 저 자신도 이 계곡에 들어오기 전까지 다섯 번이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들을 몽땅 털렸습니다. 제가 잃은 것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생활 수준으로는 적지 않은 재산이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47~348쪽)

시련에 관해 말하자면, 우리 교회의 영을 지니고 있는 분들에게는 시련이란 없습니다. 다만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서도 동시에 이 세상의 영을 고수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쓰라린 시련과 슬픔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도 그들에게는 계속 그러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48쪽)

원수의 멍에를 벗어 버리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멍에는 편하고 짐이 가볍군' 하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이를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47~348쪽)

주님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징계하고 핍박 받게 함으로써 그들을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도우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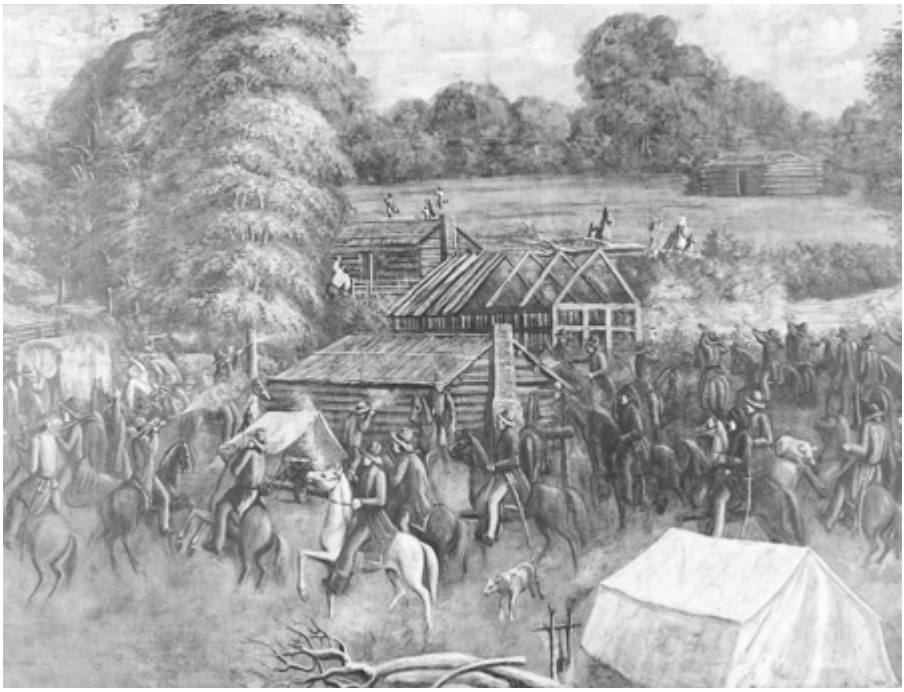
우리가 말일성도들을 볼 때, 과연 그들이 핍박 받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불순종한다면 핍박 받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을 징계해야 할까요? 불순종하면 그럴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05:6 참조]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의 요구에 순종한다고 해도 징계할 필요가 있을까요? 만일 필요가 있다면 저는 그런 원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순종하는 아이를 징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직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온전하게 순종하는 백성을 징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백성은 징계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50쪽)

거룩한 계명으로부터 돌아서는 자들은 참으로 시련을 맞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임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노하심을 느낄 것입니다. 잠잠하고 선량한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풍요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잠잠하십시오. 전능하신 주님에 대해 신앙을 가지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351쪽)

우리는 우리가 쫓겨났던 거주지에 그대로 남아서 우리의 농장과 정원과 창고와 기계류 등, 전에 우리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그대로 차지했더라면 축복 받았을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받아 온 핍박과 부당한 일로 인해 그보다 더한 큰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46쪽)

의로운 사람들은 악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나,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시므로 하나님의 사업은 앞으로 나아갈 것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참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모든 일에 시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고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설사 여러분이 재산을 약탈 당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후에도 계속 인도하십니다. 모든 형제 자매님은 주님 앞에 자신을 깨끗이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성결케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47쪽)



이 그림은 정부군 병사들이 때로 초기 성도들에 대해 적대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여 준다.

미국 여러 지방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조롱을 받아 왔습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계획이 무엇이냐고 물으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성도들은 해의 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하여 완전하게 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히브리서 5:8~9 참조]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비슷한 시련을 겪지 않고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안식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잠시라도 생각해서는 안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46쪽)

만일 요셉이 박해를 받지 않았다면, 그는 천 년을 산다 해도 완전하게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천 년을 사는 동안 박해를 받지 않으면서 이 백성을 인도하고 복음을 전파했다면, 그는 38세 때만큼 완전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백성이 고난 당하고 거주지에서 추방 당하며 낙담하고 흩어져 시달리는 것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사업을 더욱 더 빠른 속도로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51쪽)

"몰몬에 대한 박해가 있을 때마다 성도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성도들이 더욱 더 발전하게 하라" 전능하신 주님은 교회에 이같이 명하고 계십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51쪽)

만일 우리가 박해의 철권에 버티지 않아도 되었었더라면, 현세의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으며 갖가지 철학을 다

담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원리는 그에 냉담한 수많은 사람들의 수중에 들어갔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51쪽)

그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억압하려 할 때마다 우리는 도리어 강화되고 그들은 약화됩니다. 그들이 우리의 수효를 줄이려 할 때마다 우리는 더 늘어납니다. 그들이 우리의 신앙과 덕을 무력화시키려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신앙과 권세를 더 강화시킵니다. 악마가 파멸시키려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의로움과 권세는 하나님 안에서 빛으로 더욱 강성해집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51쪽)

만일 우리를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땅 끝까지 장로들을 파송하여 이스라엘 사람을 끌어 모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를 박해한다면, 우리는 더 빠른 속도로 이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홀로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자연 게을러져 조금 자고 싶어 하고 조금 쉬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우리를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좀더 느긋하게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를 박해한다면, 우리는 더욱 더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51쪽)

학습을 위한 제언

주님은 해의 영광에 합당함을 우리 스스로 증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련을 주심

- 여러분은 영 대관장이 왜 이 생을 "시련의 날"이라고 불렀다고 생각하는가?(아브라함서 3:22~26 참조) 시련은 어떻게 우리를 해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가?
- 서로 상반되는 선과 악의 세력을 경험하는 것은 왜 필요한 일인가?(니파이이서 2:11~14 참조)
- 영 대관장이 자신을 포함한 초기의 성도들이 받았던 시련에 대해 그토록 감사하게 여겼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이 받은 시련은 여러분 자신을 더 훌륭한 말일성도가 되게 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
- "그리스도의 멍에를 진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마태복음 11:28~30 참조)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지면 우리가 시련에 부딪쳐서도 즐겁게 지내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모사이야서 24:13~15 참조)

주님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징계하고 핍박 받게 함으로써 그들을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도우심

- 주님은 왜 우리를 때때로 징계하시는가?(교리와 성약 101:2~8 참조) 징계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이 원리를 올바르게 배우면 부모와 자식들이 보다 나은 가정을 만드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 영 대관장은 성도들이 "전에 소유했던 모든 것을 그대로 차지했더라면 축복받았을 것이지만 성도들은 그들이 받아 온 핍박과 부당한 일로 인해 그보다 더한 큰 축복을 받고 있다"고 말씀했다. 죄의 상태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보다 불순종 때문에 벌 받는 것이 어째서 더 큰 축복이 되는가?

의로운 사람들은 악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나,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시므로 하나님의 사업은 앞으로 나아갈 것임

- 영 대관장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핍박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순종하는 사람들, 이를테면 예수 그리스도, 요셉 스미스, 선교사들이 핍박 받은 것에 대해서도 말씀했다. 영 대관장의 말씀에 따르면, 악인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핍박하게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 영 대관장은 교회에 대한 핍박은 도리어 주님의 사업을 "더 빠른 속도로" 진척시킬 뿐이라고 말씀했다. 이 말씀은 진리에 대한 공격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박해를 이겨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제 36 장

지상의 정부와 하나님의 왕국

개척자이며 정치가요 유타 주지사인 브리감 영 대관장은 정부를 존중하고 그에 봉사했다. 아이오와에서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여행 준비를 하던 1846년 7월에 성도들은 미국 정부로부터 멕시코와의 전쟁에 참가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미주리 주와 일리노이 주에서 성도들의 시련 중에도 아무런 지원이 없었던 정부였지만 브리감 영 대관장은 몰몬 대대의 징병을 지시하여 전쟁을 돕도록 하였으며, 스스로 온당하게 처신한다면 전투를 치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대원들에게 약속했다. 이 약속은 성취되었다. 몰몬 대대의 입대는 성도들의 서부 이동에 드는 경비에도 일조를 했다. 5백 명의 장정들은 이스라엘 진영을 떠나 캘리포니아와 태평양을 향해 약 3천 킬로미터의 고된 행군에 들어갔다. 의용군들에 대해 영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의용군들을 떠올릴 때마다 '주님께서는 이 대대의 대원들을 영원히 축복하시며, 우리가 취한 이 모든 행동은 우리의 충성을 정부에 증명해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76쪽) 영 대관장은 성도들이 정부에 충성하고, 법을 지키며, 덕망 있는 사람을 선출하고 공직에서 청렴할 것을 끊임없이 권유했다.

브리감 영의 가르침

지상의 정부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해야 함

만약 국가가 온전한 율법을 어기고 완전 통제 하에 죄악의 잔이 가득 찰 때까지 그 국민이나 다른 나라를 억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권력자들을 그들의 권좌에서 내쫓아 잊혀지게 할 것이며, 비록 보잘것없이 열망의 경멸과 조롱과 미움을 받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취하여 권력과 지혜를 넣어 주셔서 지상의 위대한 국가로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57쪽)

하나님께서는 불가사의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인간의 고결함의 고지로 위대하고 강력한 제국들을 끌어올릴 것이며, 뜻하신 대로 이들로 하여금 실체를 벗어나 망각의 옛날로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위대한 변화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왕국의

서곡을 알리며 그 길의 준비를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거룩하고도 영원한 종교적, 정치적 평화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안에서 보잘것없는 자들이 마음에 기쁨을 얻을 때까지 영원히 지속되며 위대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그 날에 하나님의 왕국은 모든 곳에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57쪽)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부는 모든 법률이 의로움 가운데서 제정되고 집행되며 그 관리들은 전능하신 이로부터 받은 권세를 지니게 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54쪽)

만일 하나님의 왕국, 또는 신정이 지상에 세워졌었다면 오늘날 널리 행해지고 있는 많은 관행들은 폐지되었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54쪽)

한 사회가 반대 입장의 다른 사회에게 자신들의 표준을 정해 놓고 그것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일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즉 어느 한 종교가 종교적 신념과 예배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종교를 박해해도 좋다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종교적, 사회적 권리를 누림에 있어 충분히 보호 받아야 하며, 어느 국가나 정부나 사회나 누구든간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특권이 없습니다. 한 기독교 교파가 다른 기독교 교파를 딛고 올라서거나 박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54쪽)

지상에 온전히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을 보기 위해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 줄 정부를 볼 것입니다. 만약 지금 그런 정부가 통치한다면 로마 카톨릭 신자나 그리스 정교 회원, 성공회 회원, 장로교 신자, 감리교 신자, 침례교 신자, 퀘이크 교도, 쉐이크 교도, 힌두교인, 회교 교인 등 모든 종류의 예배자들은 모두가 그들의 시민권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그가 원하는 대로 어디서나 어느 모양으로나, 혹은 무엇이라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으로 엄격히 보호 받을 것입니다. 자신의 건전한 판단에 솔직한 사람이 더 큰 자유를 소망하지 않습니까?(*브리감 영 설교집*, 355쪽)

어떻게 공화 정부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설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어떻게 지탱할 수 있습니까? 하늘의 정부가 진리와 덕성의 영원한 바위 위에 있듯이 설 수 있으며, 그것이 정부가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기초가 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55쪽)

통치자들은 지혜와 성실성을 지녀야 함

저는 훌륭한 정부를 원하며 그 정부가 현명하고 공정하게 통치되길 원합니다. 하늘의 정부도 사악하게 통치될 경우에는 지상의 최악의 정부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부라 할지라도 의로운 자들이 다스리지 않는다면 그 정부는 사악한 정부가 될 것입니다.(*데저렛 뉴스*, 1863년 6월 3일자, 3쪽)

법률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법률을 지키며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법률에 삼가 순종함으로서 자신을 합당하게 증명해 보일 때까지는 어떤 존재도 통치하거나 다스리고 명령하

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57쪽)

좋은 정부는 정부의 행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백성들의 수용 능력에 따라 이해시킬 능력이 있는 지도자를 요구합니다. 그러한 지도자는 행정 정책이 국익에 최우선이 됨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헌법적인 테두리에서 공직에 적합한 훌륭한 사람만을 선택하고 조정하면서 임명권을 현명하게 행사하는 기질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는 법을 실행하고 투표자들의 희망 사항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해를 밝히 깨우쳐 주고 그들의 판단을 수정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진실로 공화주의 행정부의 모든 훌륭한 관리들은 어떤 정당이나 분파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확고한 권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63쪽)

국민들이 그들의 대통령으로 가장 적격인 사람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느낌이나 영향력 및 신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만약 그가 감자와 소금밖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자신을 뽑아 준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게 되길 갈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사는 대로 사는 데 만족하고 그들이 입는 대로 입으며 모든 좋은 것들에 있어 그들과 하나가 될 사람일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63쪽)

우리는 금과 은, 명예나 인기보다 국가의 더 큰 복리에 더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국가를 통치하길 원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64쪽)

교회 회원은 책임 있는 시민의 의무를 지님

각각의 정부는 하늘에 있든, 지상에 있든 모두가 참되고 효율적인 통치 체제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의 손안에 있는 정부는 국민들의 비탄 가운데 종식되어야 하지만, 의로운 자가 다스리는 정부는 영원히 지속되며 그 권세가 하늘에 닿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55쪽)

우리가 종교를 생활화하고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신권을 경외한다면 지상의 모든 온전한 정부와 법률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국가나 왕국 및 정부들은 필멸의 인간들에게 적합하게 만들어진 법률이나 규제나 규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58쪽)

우리는 정치적인 사람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참으로 매우 정치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당에 소속해 있습니까?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투표해야 할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시민의 원칙과 종교의 자유를 지지하는 사람, 최상의 것을 알며 가장 선한 마음씨와 정치가다운 두뇌를 가진 사람에게 투표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휘그당이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그 밖의 어떤 정당이든 그러한 사소한 것에는 신경쓰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정책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58쪽)

모든 다른 훌륭한 시민들처럼 우리도, 권력을 가진 자에게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느끼는 사람, 즉 법의 집행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신뢰를 보이려고 애쓰는 그러

한 사람이 권력의 자리에 앉도록 강구해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62쪽)

어떤 사람이 공직에 있길 원합니까? 통치자, 대통령, 정치가 및 그 외의 모든 신뢰와 책임이 요구되는 자리에 가장 적합한 훌륭한 사람을 원하며 이런 사람들이 정해지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신뢰를 보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진리와 의 가운데서 자신들과 국민들을 지키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58쪽)

학습을 위한 제언

지상의 정부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해야 함

- 영 대관장의 말씀에 따르면 지상의 모든 정부들은 어떤 율법에서 발생했는가? 이들 정부들은 철학과 관행에서 왜 차이가 있는가?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왜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야 하는가? 의로운 원리들에 근거하지 않은 정부는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이런 결과의 예로 몰몬경 전체를 통해 여러 번에 걸친 니파이 왕국과 레이맨 왕국의 번영과 몰락을 들 수 있다.)
- 영 대관장의 말씀에 따르면 지상의 정부가 있는 목적은 무엇인가?(교리와 성약 134:1 참조)
- 지상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부가 세워진다면 사회는 어떻게 달라지겠는가? 영 대관장은 하나님의 정부가 제공하는 가장 위대한 자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였는가?(교리와 성약 134:4, 7, 9 참조)

통치자들은 지혜와 성실성을 지녀야 함

- 정부의 지도자들이 지녀야 할 자질은 무엇인가? 정부 지도자들이 높은 지성과 지식을 갖추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직이나 미덕과 같은 자질들을 아울러 갖추는 것이 왜 중요한가?
- 예비 지도자는 왜 자신이 통치하기 전에 통치 받는 경험을 해보아야 하는가? 지도자들이 법률에 순종해 왔음을 보이는 것은 왜 중요한가?

교회 회원은 책임 있는 시민의 의무를 지님

- 각 정부 개체는 지상 정부의 성공에 왜 그렇게 중요한가? 통치 받는 사람들의 의로움은 정부의 성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여러분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을 때 투표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투표할 사람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
- 책임 있는 시민이 되기 위해 여러분은 어떻게 의무를 수행하는가?(교리와 성약 134:5~6 참조)

아버지께로 올라가기 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제 37 장

죽음과 부활의 이해

1874년 7월 13일, 토마스 윌리암스 장로의 장례식에서 브리감 영 대관장은 죽음이란 주제에 관해 말씀했다. "어둡고 음침한 골짜기! 우리는 죽음을 그렇게 일컫습니다. 필멸의 육체를 가진 존재의 상태에서 아무 것도 없는 텅빈 상태로 바뀐다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이 골짜기가 얼마나 캄캄할지, 이 길이 얼마나 불가사의할지, 어찌 되었든 우리는 이 길을 혼자 여행해야 합니다. 나의 친구, 형제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상태를 볼 수 있다면, 그것들을 보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 길을 건넜을 때 이 어둡고 음침한 골짜기는 너무나 하찮은 것이어서 우리는 뒤돌아 보고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슬픔과 비통과 애도와 비탄과 비참함과 고통과 번민과 실망의 상태를 벗어나, 육체 없이도 충분히 인생을 만끽할 수 있는 존재의 상태로 바뀐 지금이야말로 나의 존재 전반에 걸쳐 가장 좋은 때라 아니할 수 없다. 나의 영은 자유롭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으며, 잠자고 싶지도 배고프지도 않으며, 피곤하지도 않다. 나는 달리고, 걷고, 일하고,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온다.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고통이나 지루함이 없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나는 생명력이 넘치며 활기에 차있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권세에 의해 그분의 면전에서 즐기고 있다.' 친구 여러분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종교를 생활화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신앙대로 생활하여 영생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친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이러한 일들을 알고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데져렛 뉴스: 주 2회 간행물, 1874년 7월 28일자, 1쪽)

브리감 영의 가르침

지상의 행복은 의로운 평안 가운데에서 필멸의 상태를 떠나는 "영혼의 영광스럽고 기쁨에 찬 평화로운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음

사람이 평화로운 상태로 이 생을 떠나 영광스러운 부활이 확실시됨을 친구들이 알 때에 그들에겐 그것이 큰 기쁨과 즐거움과 위안이 됩니다. 땅과, 땅이 수용할 수 있는 이 지상에 관한 모든 것은 평화롭게 떠나는 영혼의 영광스럽고 기쁨에 찬 평화로운 행복과는 비교가 안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70쪽)

의로운 자의 죽음에 대한 애도는 영이 거하도록 조직된 육체라는 장막 안의 무지와 나약함에서 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통을 겪고 그 어떤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육신의 어미인 땅에 매달려 그 자녀 중 누구라도 우리를 떠나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회적 가족 관계를 함께 유지시켜 나가고 싶어하며 서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70쪽)

우리의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이 슬픈 건 사실입니다. 정열과 동정과 사랑의 피조물인 우리가 친구들과 헤어진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고통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이러한 감정들을 육체 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까? 훌륭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선한 일에 헌신하며 살아온 사람들의 죽음이 오히려 기쁨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브리감 영 설교집*, 371)

영생을 알고 그에 대한 지식을 갖고 나약함과 무지와 육체의 무기력한 상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면 우리는 눈물을 흘리거나 비탄에 빠진다든가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70쪽)

영의 세계는 너무나 생생하여 그 곳에서 잠 깨었을 때 여러분은 진실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시 한 번 세상을 산다면 나는 그 필멸의 생애를 좋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집을 위하여, 우리가 세울 시온을 위하여,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영원을 두고 거룩한 존재들이 여러분의 인품을 기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살아가기를 여러분에게 권고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은 도덕적인 삶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70쪽)

사망 시에 영과 분리된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영의 세계로 들어감

영생의 원리를 갖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육체를 흙에 속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 어미인 땅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죽으면 얼마 동안일지는 몰라도 영이 육신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일이며 수천 수백 만의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의 목적과 진정한 영생의 원리를 이해한다면 우리의 육체가 고통 받고 죽는 일은 사소한 문제에 지나지 않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68쪽)

주님께서는 여기 우리 육체인 장막을 조직하시고 영을 불어넣어 지능을 갖춘 존재로 만들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만지고, 느끼고, 보고, 다룰 수 있던 우리의 육체는 그 어미인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은 죽습니까? 아닙니다. 영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육체가 다시 흙 속에서 가루가 될 때 하나님이 장막 속에 넣어 주셨던 영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68쪽)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우리의 육체는 보고 만질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또한 육체가 이 세상의 것으로 태어났음을 압니다. 그 후에는 그 조직과 성장에 부합되는 성분들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른으로 성장하다가 늙고 쇠하여 흙으로 다시 돌아

가는 것입니다. 여러 번에 걸쳐 제가 설명했지만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죽음이라 부르는 것은 육체가 구성되었다가 영이 육체를 떠난 후 해체되는 생명의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영이 달아난 육체는 영원히 남아 마치 영이 떠나도 썩지 않는 것처럼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68쪽)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임

예수님은 최초로 사망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지상에 살았던 어떤 훌륭한 사람이라도, 설사 에녹이나 엘리야, 모세일지라도 천사가 무덤에 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방문한 후까지는 누구도 부활한 자가 없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처음으로 사망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의 주인이시며 부활의 영광을 받은 후 여기에 사신 첫번째 육신이셨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74쪽)

그분에게는 이것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로 생과 사를 주관하셨으며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를 지니셨습니다.[요한복음 10:18 참조] 이것은 그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약전서에 기록된 사도들의 말씀과 구세주의 행적을 믿는다면 예수께서 원래 스스로 이 권세를 가지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권세를 상속하셨으므로 그것은 합법적입니다. 그는 목숨을 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를 지니셨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40~341쪽)

예수께서는 갈보리 산에서 피흘리셨지만 다시 혈관으로 피를 받지 않았습니다. 피는 다 쏟아 내었지만 부활 시에 다른 성분들로 대체되었습니다. 부활한 모든 사람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피는 현재의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마련되었으며 육체와 함께 부활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가 해체되고 난 뒤 우리는 부활의 권세로 육체를 다시 얻지만 생명이라 부르는, 우리가 먹는 음식과 우리가 마시는 물로 만들어지는 피는 다른 성분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고린도전서 15:50 참조](*브리감 영 설교집*, 374쪽)

우리는 충실함으로써 영과 육이 다시 합쳐지는 영광의 부활을 준비할 수 있음

생명과 구원의 복음은 이것을 받는 각 개인에게 이 세상이 단지 일시적인 기간과 존재와 시련의 장소임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도록 창조된 데 반하여 이 세상의 모양과 용도는 짧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악인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 이상의 더 많은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현세의 옷을 벗고 불멸의 옷, 즉 이 육체를 벗고 불멸을 입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앨마서 11:43~44 참조] 육체는 흙으로 돌아 가지만 우리의 소망과 믿음은 원소들로부터 다시 육체를 받는 것이며, 우리가 이곳에서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조직을 받는 것이며, 우리가 [복음] 원리에 충실하다면 영원히 지속되

이 그림에 묘사된 바와 같이 평원을 횡단하는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늘 있는 현실이었다.

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72쪽)

영이 육체를 떠난 후에는 주님이 성임하신 율법에 의해 죽은 자의 부활을 가져올 때까지 영의 세계에서 장막 없이 남아 있게 됩니다.[교리와 성약 93:33~34 참조] 부활의 열쇠를 소지한 천사가 나팔을 불 것이며, 그 후 우리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특별한 기본 분자들은, 우리가 그것을 존중한다면, 비록 그것이 깊은 바다 속이나 동서남북,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눈깜짝할 사이에 다시 모아져 결합될 것이며 우리의 영은 그들을 소유할 것입니다. 그 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거하도록 준비되겠지만 그 전에는 그분들과 결단코 함께 거하도록 준비될 수가 없습니다. 육체를 떠난 영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거하지는 않지만 영을 위해 마련된 장소인 영의 세계에서 살게 됩니다. 자신의 장막을 존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필멸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멸의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육체는 바뀌어야 하며 그렇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영광에 거할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72쪽)

사망으로 영과 육이 분리된 후 우리는 이 지구에 속한 어떤 것을 맨 처음 받겠습니까? 거룩한 영이 먼저 애정을 가진 대상은 바로 무덤 저편의 육체입니다. 우리는 우선 육체를 소유하게 됩니다. 의로운 남녀의 영은 육체를 이겨내었으며, 육체는 모든 점에서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심어 놓은 거룩한 원리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내면의 영은 순수하고 거룩하며 하나님께 순수하고 거룩하게 돌아가서 영의 세계에서 순수하고 거룩하게 살다가 조만

간에 다시 육체를 취할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부활의 권세를 지니시고 먼저 혹심한 시련을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도록 파견될 것이며 우리의 영은 육체 속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후 우리가 육체를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육체는 지상에서 인간의 신성함을 보이는 첫번째 대상물이 됩니다. 육체는 죽지만 영은 항상 살아 깨어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73쪽)

우리는 신권의 반차에 따라 고인을 땅에 묻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에서 세상을 떠나는 형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땅에 묻힐 수가 없으니 천 자루에 넣어 바다에 던져져서 아마도 2분 후쯤엔 상어의 창자 속에 있게 되겠지만 그러한 자들도 마찬가지로 부활에 나아올 것이며, 합당한 모든 영광을 받을 것이며, 마치 금이나 은으로 장식된 관 속과 특별히 마련된 곳에 묻혀 있었던 사람들처럼 아름다운 모든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영광을 입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73~374쪽)

어느 누구도 부활한 몸을 갖지 않고서는 해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으며 해의 영광의 관을 쓸 수 없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75쪽)

유일하게 존재하는 참된 재산은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부활을 스스로 확고히 다지는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72쪽)

학습을 위한 제언

지상의 행복은 의로운 평안 가운데에서 필멸의 상태를 떠나는 "영혼의 영광스럽고 기쁨에 찬 평화로운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음

-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비록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어떤 점에서 우리는 그들의 죽음에 위안을 얻으며 기뻐할 수 있는가?
- 영 대관장은 지상 생활의 이 시험의 때에 관해 어떤 조언을 주셨는가? 그는 "거룩한 존재들이 우리의 인품을 기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우리는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행복의 시간이 되리라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사망 시에 영과 분리된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영의 세계로 들어감

- 죽음은 왜 "인생의 작업"의 한 부분이 되는가?
- 영 대관장은 영이 떠난 뒤의 육체에 대해 어떻게 가르쳤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임

-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부활을 가능하게 하셨는가?
-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부활된 존재들에 관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부활할 때 우리 육체는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는 충실함으로써 영과 육이 다시 합쳐지는 영광의 부활을 준비할 수 있음

- 영 대관장의 말씀에 따르면 부활은 어떻게 일어나는가?(앨마서 11:43; 빌립보서 3:21 참조)
- 우리의 장막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 "유일하게 존재하는 참된 재산"이 왜 "거룩한 부활"을 받는 것인가?

제 38 장

영의 세계

토마스 윌리엄즈 장로의 장례식에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브리감 영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영의 세계에 관해 언급하였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처럼 자주 일어나는 의문은 '내가 어디로 가게될 지 알 수만 있다면!' 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토마스 형제님이 지금 계신 영의 세계로 갈 것입니다. 지금 그의 영은 육체 속에 있을 때보다 더 높은 존재의 상태로 들어 갔습니다. '왜 나는 그를 볼 수 없습니까? 왜 나는 그의 영과 대화할 수 없습니까? 나의 남편 또는 나의 아버지를 볼 수 없으며 대화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함은 합당한 일이 아니며 옳은 일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특권이 있다면 추구할 목표도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킬 신앙의 시련은 똑같은 것들이 될 것이며, 걸어야 할 혹독한 고통의 길도, 싸울 큰 전쟁도, 이겨낼 위대한 승리도 없을 것이며 추구해야 할 목표도 없을 것입니다. 이 영의 세계의 장막은 지금 이대로 닫혀 있어야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그분의 요구에 철저히 순종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물론 천사도 보지 못하며 그들과 대화할 수도 없습니다.(데져렛 뉴스: 주2회 간행물, 1874년 7월 28일자, 1쪽)

브리감 영의 가르침

죽은 자의 영은 영의 세계로 감

이 육체의 장막이 눕히게 되면, 여러분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영의 세계로 갈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76쪽)

여기를 떠나 영의 세계로 가는 악한 자의 영은 거기서도 사악합니까? 그렇습니다.(*데져렛 뉴스*, 1856년 8월 3일자, 3쪽)

육체를 떠날 때 영은 영적인 것들을 보고, 듣고 이해할 준비를 합니다. 이 방 안에서 영을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건드리신다면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육체들을 보는 것처럼, [엘리사]의 사환이 그랬던 것처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열왕기하 6:16~17 참조]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지금 육안으로 육체를 보는 것처럼 분명히 이 세상을 떠난 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76~377쪽)

예수님께서 영의 세계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 주셨음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복음의 열쇠를 가지고 영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첫 번째 분이셨습니다. 그 열쇠는 영의 세계에 들어가신 그날 그 시간에 그에게 전달되었으며 그 열쇠로 그분은 영옥의 영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78쪽)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집에서의 의식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살아 있는 동안 복음을 듣지 못했던 자들을 데려 올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충분한 희생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호된 시련을 통과했지만 죄를 용서 받고 승영에 이르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집행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친구나 자녀들이나 그 후손들이 집행해 주어 하나님의 해의 왕국으로 데려 가 줄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06쪽)

오늘날 지상에 거하며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과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구원의 열쇠를 제시받지 못했던 자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영의 세계에는 우리가 수행해야 할 위대한 사업이 있다는, 내가 내린바 있는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77쪽)

왕국의 열쇠 없이, 지상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다가 죽은 수백만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해의 영광을 준비하지 못했으며, 또 신권의 열쇠 없이는 그들을 준비시킬 권능도 없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78쪽)

요셉 스미스의 아버지와 칼로스 스미스와 에드워드 패트리지 형제, 그 외 모든 훌륭한 성도들은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나 저와 마찬가지로 영의 세계에서도 바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들은 우리를 볼 수 있으나 우리는 눈이 열리지 않는 한 그들을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무엇을 할까요? 항상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가 이곳과 또 다른 곳에 성전 건립의 사업을 서둘도록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78쪽)

모든 충실한 자들이 할 일은, 구속될 것은 모두 구속하여 아버지에게 바칠 때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만큼 오래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위대한 사업이 놓여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78쪽)

이 지상에서 육체의 장막에 거하고 있는 영은 장막을 떠날 때 곧바로 영의 세계로 가게 됩니다. 놀라운 일은 그 곳에는 수많은 영들이 여기에 있을 때처럼 서로 뒤섞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들은 거기에 함께 있으며 여기에 있을 때처럼 가족 단위로, 집단으로 모이고 연합하며, 그것이 그들의 특권입니다. 의심할 바없이 그들은 여전히 보고 듣고 대화하며 좋든 나쁘든 서로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만약에 말일의 장로들이 영옥에 가서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면 살았을 때 악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가졌던 관계처럼 그 곳에서도 그들과 정확히 똑같은 관계를 가질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78쪽)

영의 세계는 발전과 진보가 가능한 활동적인 장소임

영의 세계에 가게 되면 모든 것들이 여기서처럼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영들은 여기 장막 안에 있을 때처럼 대화하고, 보며, 서로간에 친숙하고 자연스럽게 다양한 의사소통을 할 것입니다. 여기서처럼 거기서도 만물이 자연스러울 것이며 지금 우리가 자연의 것들을 이해하듯이 그것들을 이해할 것이며,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영들이 활동적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잠자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달성하려는 사람처럼 부단히 노력하며 부지런히 일하고 수고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80쪽)

비록, 영들이 우리의 이 육체의 조직과는 달리 만질 수 없는 정제된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육신과 육신의 관계처럼 그들도 서로 친숙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걷고 대화하며 모임도 가집니다. 어느 특정한 기간, 또다른 천체에서 일하기 위해 이 교회를 떠난 요셉 스미스와 장로들과 같은 훌륭한 분들의 영은 그들이 가진 모든 권능으로 다시 집결하여 이곳 저곳으로 복음을 전파하러 다닐 것이며, 요셉은 그들에게 지시하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길에 걸림돌이 되는 자들이 있다면 다가가서 흩어지라고 명하십시오. 여러분은 신권을 가지고 계시므로 그들을 쫓아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파하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379쪽)

우리의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 또한 우리 자신이 여기를 떠나 영의 세계로 가는 것에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영생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했기 때문에 전보다 더 큰 신앙을 행사하며 살기를 소망해 왔습니다. 다음에 거할 곳의 영광과 그 황홀함은 이루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오랜 세월, 우리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까 조심해야 했지만 그 곳에는 그런 방해물이 없습니다. 더러는 젊은이들이 발에 채여 넘어지는 걸 봅니다. 그러나 그 곳은 여기와 달리 쉽게 빛처럼 움직입니다. 예루살렘이나 여기 저기 가보고 싶은 곳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거리를 볼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세주 시대의 예루살렘을 보고 싶다거나 창조 당시의 에덴 동산이 보고 싶다면 그 당시대로 그 곳에서 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곳은 처음에는 영적으로, 그 다음엔 일시적으로 창조되었다가 다시 영적으로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구 창조의 시작을 볼 수도 있으며 지구 표면에 존재하는 어떤 도시를 보고 기뻐할 지도 모릅니다. 이들 서반구의 섬들이나 중국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를 알고 싶으면 실로 아침의 햇살처럼 우린 그 곳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동과 권세에 관해서, 그리고 빛의 움직임과 운행에 관해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세한 예를 보이며 몇 가지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80쪽)

영의 세계로 넘어갈 때 우리는 어느 정도 그분의 권세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 가지 병이나 우환으로 계속하여 고통 받고 있습니다만, 영의 세계에서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삶을 즐기고 영광과 예지를 누립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천사가 우리에게 말을 건네게도 하며 부활할 때까지 영의 세계에 있는 정의롭고 순수한 자들의 사귐을 즐길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80~381쪽)

악에 완전히 굴복한, 악한 마음을 가진 사악한 자가 죽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의 영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능을 향상시키고 영생에 거할 준비를 하도록 주신 모든 능력과 권세로 노력해 살다가 죽는 영은 어떤 성품을 지닌 채 다음 상태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들은 은총 속에서 진리를 배우며 번성하고 발전하는 더 높은 수준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79쪽)

우리가 영의 세계로 갈 때 타락한 영들, 즉 루시퍼와 그에게 간 천군의 삼분의 일과 이 지구에 살았던 사악한 영들의 연합체는 우리가 종교에 충실한 이상 우리의 영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 중에 다소는 그들, 악마 무리에 속할 자도 있으며 살아 있을 때처럼 그들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79쪽)

여기서는 충실한 자들이 사탄의 추적을 받아 곤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가 사탄의 힘을 지배할 수 있게 되어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1856년, 10월 3일자 *브리감 영 설교집*, 1쪽)

침례를 받고 죄를 용서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죽는 자는 충실한 복음 생활에 따르는 충만한 영광을 단번에 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다시 받아 아버지와 아들의 면전에 들어갈 준비가 될 때까지 영의 상태로 하나님의 집에서의 어느 한 곳에서 진리에 진리를, 예지에 예지를 더해 가며 학습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지의 상태로 해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78~379쪽)

우리는 이 세상보다 장막 저편의 영의 세계에 더 많은 친구가 있으며 그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부모님이나 친구들보다 더 열렬히 우리를 환호할 것이고 우리 또한 이 생의 친구를 만날 때보다 그들을 만나서 더 기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과 권세로 나아 갈 때 우리의 기쁨과 예지는 점차로 도를 더하며 행복감은 더욱 절묘하게 감지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79~380쪽)

이와 같은 존재의 상태를 지나 다음 단계에 들어 가서도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우리가 관리하고 집행할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서 이 지상에서 충실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왕관을 씌우고 지상에 관한 사업이 끝나서, 우리를 도와주셨던 구세주께서 과업을 이루시고 지상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나타내 보일 때까지 우리는 계속하여 그 다음,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후에 이들 충실한 사람들은 자신들에 해당된 축복과 왕관을 받을 것이며 정해진 상속을 받아 계속하여 여러 세상을 창조하고 지배하며 영원히 번성해 갈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76쪽)

죽음과 부활 사이에 구세주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구원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영의 세계에 가셨다.

학습을 위한 제언

죽은 자의 영은 영의 세계로 감

- 육체가 죽으면 영은 어디로 가는가?(앨마서 40:11~14 참조) 영의 세계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왜 영의 세계를 볼 수도 대화할 수도 없는가?

예수님께서 영의 세계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 주셨음

- 예수님께서 "영옥에 있는 영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 주셨다" 함은 무슨 뜻인가?(교리와 성약 138; 베드로전서 3:18~19 참조)
- 그리스도께서 영의 세계에 구원의 문을 여신 후에 복음은 그 곳에 어떻게 전파되었는가?(교리와 성약 138:30 참조)
- 육체에 관한 의식이 영의 세계에서 수행되지 않는다면 복음이 그 곳의 영들에게 전파되는 이유는 무엇인가?(교리와 성약 138:58~59 참조) 구원의 의식을 받지 못한 영의 세계의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가까이에 성전이 없을 경우라도 우리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죽은 자를 구속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가?
- 지상 생활에서의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영의 세계의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영의 세계는 발전과 진보가 가능한 활동적인 장소임

- 영 대관장은 영의 세계에서의 삶에 관해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영의 세계의 생활은 지상 생활과 어떤 점이 같은가? 어떤 점이 다른가? 여러분은 영의 세계에서의 어떤 면을 고대하는가?
- 영의 세계에서 사탄이 가진 힘과 영향력은 무엇인가?
- 방금 침례 받은 사람은 왜, 즉시 충만한 영광을 받을 준비를 못하는가? 이 축복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는 어디서 행해질 수 있는가?

제 39 장

영원한 심판

브리감 영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육체로 있을 동안 취한 행위와 마음의 생각과 뜻에 따라 심판 받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주간 데져렛 뉴스, 1869년 8월 17일자 2쪽: 교리와 성약 137:9 참조) 영 대관장은 모든 남녀가 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쳤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업적과 신앙과 소망과 하나님 앞의 정직, 또는 부정직에 따라 심판 받게 될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인품에 따라 상과 벌을 받을 것이며 하늘의 율법에 따라 심판 받게 될 것입니다."(주간 데져렛 뉴스, 1860년 9월 12일자, 2쪽)

브리감 영의 가르침

우리는 우리의 업적, 말, 생각과 진리에 대한 반응에 따라 심판 받게 됨

이 세상은 우리 자신을 증명해 보이는 곳입니다. 인간의 일생은 무지와 나약함과 적이 영향력을 떨치는 시험의 기간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친구이며 그분에게서 빛을 받는 자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며, 만군의 주, 만왕의 왕이 되기 위해서, 또한 해의 왕국에서 영광과 불멸과 영생의 관을 쓸 우리 가족을 온전히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지도자가 되기에 합당함을 하나님께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87쪽)

저는 심판의 날이 곧 여러분과 저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머지않아 이 육체의 장막을 눕히고 영의 세계로 들어 갈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우리가 땅에 누울 때 심판이 올 것이며 "나무가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전도서 11:3 참조]는 경전의 말이나, 다른 말로 사망이 우리를 떠날 때 심판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82쪽)

죽음 앞에서는 최고의 강한 군주도 굶주린 가난한 거지도 똑같습니다. 이 둘은 똑같이 육체로 있을 동안 취한 행위에 답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45쪽)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의 확신에 따라,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든지, 거절하든지, 즉 하나님께 봉사하든지 주를 부인하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거룩한 진리의 책인 경전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도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 심판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 올 것이며 우리가 육체로 있을 동안 취한 행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그분께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67쪽)

노동 시간과 노동력은 전 세계 인류의 주요 자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총으로 시간을 잘 활용하는 능력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세심하게 잘 배려해서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01쪽)

모든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저들이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의 생애가 선한 일로 채워졌다면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반면에 악한 것으로 채워졌다면 그 행위대로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이야말로 자신들의 승영과 영생의 기초를 놓기 시작하는 때이며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영예를 마음에 품고 선행의 결실을 내 놓아야 할 때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데저렛 뉴스*, 1854년 4월 13일자, 1쪽)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믿으며 의로운 결실을 맺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모든 것을 상속 받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계명과 주님의 집에서의 의식 준수를 거부한 자는 자신들의 입에서 나온 말로 심판 받을 것이며, 지금 자신이 행한 대로 자신을 꾸짖게 될 것이고 쓸모 없는 인간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의로운 자들의 반열에 끼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83~384쪽)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나은 영광의 상태에 들어간다는 상당한 확신이 선다면 상속을 더 받으려고 수고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디 그런 위험을 감수해 보십시오.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겐 그럴 특권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매 죄가 살아나 죽는 자도 있고 [복음]에 대항하는 자도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들으나 이를 거절하는 것, 이것이 사람들의 죄이며 세상의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요한복음 3:19 참조] 여기에 생명과 구원의 복음이 있습니다. 영광과 영예와 불멸과 영생은 이를 받을 자들의 것입니다. 이를 거절한다면 영광의 기회를 놓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84쪽)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빛이 인간에게 왔으되 이를 거절한 그것으로 정죄 받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83쪽)

우리 앞에 놓인 영생의 원리들은 우리의 힘을 증진시켜 주고 패망에서 보존시켜 주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와 상반되는 것들을 택해 사망에 이르는 원리들을 답습한다면 그 과오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구원을 얻는데 실패한다면 이는 우리의 행위에 의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는 모든 보상을 우리 스스로가 가두어 둔 결과이며,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그렇게 행동하도록 사용해 왔음을 깨닫게 될 것이며 정당함이 입증되든, 정죄를 받든, 우리는 자신이 한 말로 심판 받게 될 것입니다.(주간 *데저렛 뉴스*, 1859년 8월 17일자, 1쪽)

"[우리]가 지닌 가장 훌륭한 빛에 따라" 살아온 삶을 심판 받게 됨

어린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에게 전혀 납득이 안되는 한 가지는 이 세상에 살다가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사라져 간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 그리고 조상들이, 그들이 지닌 가장 훌륭한 빛에 따라 충실하게 살았지만 영원한 성약과 성신권이 없다는 이유로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84쪽)

모든 남녀는 사악해 지기 전에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계획을 들어보지 못했거나 인자에 관한 이야기를 접해 보지 못했거나, 구세주의 이름을 듣고 지상에 계실 동안의 행적에 관해 들었지만 자신들의 관습이나 교육을 통해 믿지 않도록 가르침을 받고 세상 사람들의 엄한 관념으로 불신앙에 빠져 신이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죄를 짓거나 불의에 빠져 사악해질 수도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84쪽)

도덕성에 관한 한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은 그들이 지닌 가장 훌륭한 빛, 즉 최상의 지식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자신들의 업적에 따라, 즉 자신들이 지니고 있거나 이해할 수 있는 최상의 원리에 따라 사는 모든 사람들은 평화와 영광과 위안과 기쁨과 예상 밖의 왕관까지 받게 된다고 누차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죽음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84쪽)

누가 만들었든 간에 자신들이 가진 법을 잘 알고 지킨다면 제가 설명한 바대로 상상을 초월한 영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인간을 위해 마련하신 영광을 우리가 최소한이라도 상상하기는 힘들 정도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85쪽)

지상의 모든 성직자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기독교도이든, 이교도나 [회교도]이든 간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닌 최상의 빛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예상했던 모든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84~385쪽)

멸망의 자식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궁극적으로 영광의 왕국을 상속 받게 됨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그들을 위해 마련된, 그들이 삶을 계속할 왕국으로 갈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지옥에 던져 질 멸망의 자식을 제외한 아담의 모든 아들, 딸들을 구속해 내실 것입니다. 그밖에 하나님의 진노를 겪을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시거나 정의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겪을 것이며 일전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까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다가 영옥 밖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파하기에 위험한 교리입니까? 일부에서는 이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날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 악마의 천사가 되지 않는 모든

사람이 영광의 왕국을 상속 받으러 나아 올 것이란 것은 사실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82쪽)

배도보다 충실함을 증명할 자가 더 많을 것입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해의 왕국에 들어가겠지만 반면에 해의 왕국의 율법을 따를 수 없어 거기 들어 갈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소망하며 살아온 대로 그에 알맞은 왕국에 이를 수는 있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83쪽)

이들 모든 서로 다른 영광들은 사람들의 자격과 조건에 맞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주간 데져렛 뉴스*, 1862년 8월 13일자, 2쪽)

성경은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고린도전서 15:40~42 참조]이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교리와 성약[76편 참조]에도 이들 영광들을 별의 영광, 달의 영광, 가장 높은 해의 영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영광들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의 서로 다른 세상, 또는 처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권세와 성령의 영향력에 대해 알지 못하고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끌리고 매달리면서 신앙 생활을 하는 모든 남녀는 해의 영광에 결코 들어갈 수 없으며 기대하는 왕관을 받을 수도 없고 결코 신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다스릴 수 없으며 다른 사람들을 다스릴 말도 할 수 없으며 다만 어린 아이처럼 모든 사소한 일에도 명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조금도 관리할 수 없으며 베드로나 야고보나 그 밖의 어떤 사람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으며 통치자로서 영광과 불멸과 영생의 왕관을 쓸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결단코 해의 왕국의 영광과 주권과 권능의 홀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 홀을 잡겠습니까? 이들은 하늘의 진정한 자유로 영감 받은 용감한 자들로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 뜻대로 사는 동안 자신은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 과감히 나아가며 모든 사람이 정반대의 길을 간다 해도 자신은 올바른 길을 가기로 결심하는 자들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82~383쪽)

죄 가운데 생활하는 사악한 자들이, 예수께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면전으로 걸어 나와야 할 때에 그들의 상태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거하는 것보다 더 참기 어려운 고통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운명론자들의 교리는 한 뼘의 시간적 여유도 없이 유아를 지옥으로 건네주는 반면에 간음하는 자, 음행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살인하는 자 및 온갖 가증스런 일을 하는 자들은 같은 교리에 의해, 죽기 직전에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면전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갈 수 있다 해도 그들에게 있어 그 곳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85쪽)

하나님의 벌은 존엄합니다. 그 벌은 저주를 면할 시간이 결코 없는, 항상 지옥이 기다리는 곳에서 영원히 지속됩니다. 저주 받은 자들이 지옥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남아 있을지, 어느 정도의 고통을 겪을 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들이 죄지은 정도를 어떻게든 계산할 수가 있다면 어쩌면 그들이 받을 고통의 양을 알아내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벌은 영원하지만 악인들이 벌받는 상태로 영원히 남게 될 지는 증명하지 못하겠

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83쪽)

학습을 위한 제언

우리는 우리의 업적, 말, 생각과 진리에 대한 반응에 따라 심판 받게 됨

- 영 대관장은 "인간의 일생은 시험의 기간"이라고 가르쳤다. 우리는 필멸의 존재로 있을 동안 무엇을 "하나님께 증명"해 보여야 하는가?
- 우리는 심판의 날에 무엇에 대해 책임지게 되는가?(앨마서 12:14, 41:3 참조)
-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는 자는 누구인가?
- 영 대관장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로 심판"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다. 우리는 "정당할지, 정죄를 받을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영 대관장은 우리의 시간 활용에 따라 심판 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다. 시간 활용은 왜 그토록 중요한가? 현재 여러분의 시간 사용 방법은 어떻다고 판단되는가? 시간을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교회 회원이나 친구 및 이웃으로부터 어떤 것을 배웠는가?

"[우리]가 지닌 가장 훌륭한 빛에 따라" 살아온 삶을 심판 받게 됨

-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있어 어떤 환경이나 조건들이 그에 관한 주님의 심판을 용이하게 하는가? 우리와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해 주기 위해 이 원리들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겠는가?
- 영 대관장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어떤 조건에 따라 다음 세상에서 "예상 밖의… 평화와 영광과 위안을" 받겠는가?

멸망의 자식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궁극적으로 영광의 왕국을 상속 받게 됨

- 자신들의 죄 가운데서 죽은 사악한 사람들은 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거할 수 없는가?(몰몬서 9:3~4; 교리와 성약 88:22 참조)
- 영 대관장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자신들이 소망하며 살아온 대로 그에 알맞은 왕국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소망하는 왕국을 얻기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의 여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영 대관장은 멸망의 자식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영광의 왕국을 상속 받게 된다고 가르쳤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와 자비에 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그것은 그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제 40 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브리감 영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아무도 쫓겨 날 자가 없겠습니까? 아무도 전능하신 이의 진노를 겪을 자가 없겠습니까? 제가 목숨을 다해 설교해 왔다시피 저는 지옥을 전파하거나 사람들을 저주하려는 영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시도해 왔고, 지난 안식일에도 그랬고 오늘도 악인들이 겪을 고통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악인들은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엔 사람들의 구원 외의 어떤 것도 염두에 둘 수가 없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88쪽*) *영 대관장은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브리감 영 설교집, *391쪽*)*이라고 가르쳤다. 그는 구원이 "모든 인간 가족에게 이를 것"*(브리감 영 설교집, *389쪽*)*이라고 말씀했다. 또한 영생은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엄격히 지키며 계속하여 충실한"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했다.*(브리감 영 설교집, *387쪽*)

브리감 영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이 모든 인간 가족에게 미침

모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의 선하심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강한 어버이 정신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시려는 사람들은 말일성도들뿐만 아닙니다. 해의 왕국 율법의 첫째 되는 원리들에 대한 특권을 가진 자들 뿐만도 아닌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전세계적인 구원, 즉 범우주적인 구속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88쪽)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호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특성을 부인하거나 도전하지 않는 모든 자들, 즉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짓지 않는 모든 자들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87쪽)

모든 나라가 이 축복을 나눌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세주의 구속에 포함될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이미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의 권세 안에 있으며 그의 말씀대로 멸망의 자식을 제외한 모두를 그분이 구하셨습니다. 지구와 거기에 있는 인간과 이성이 없는 짐승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 곤충과 모든 기어다니는 것 등 지구에 속한 모든 것들, 즉 그의 권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구세주께서 구속하셨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88쪽)

아담의 아들과 딸의 이름들이 어린양의 생명의 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제거될 때가 있습니까? 예. 멸망의 자식이 될 때입니다. 그때까지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언제까지고 그 책 속에 이름을 보류시킬 특권이 있습니다. 만일에 이 특권을 무시한다면 그때는 이름이 지워지겠지만 그 전까지는 아닙니다. 모든 인간 가족들의 이름이 그 책에 씌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이름을 보류해 두셨다가 그들이 진리에 대해 알게 되어 주님께 대항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짓게 될 때 이들을 지옥에 던질 것이며 그들의 이름은 어린양의 생명의 책에서 없어질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87~388쪽)

우리의 [청지기 직분]의 권세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사람을 구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멸망의 자식을 제외하고는 잃을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멸망의 자식 외엔 어떤 형제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권세로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사람을 구하도록 합시다.(*브리감 영 설교집*, 388쪽)

우리의 종교는 모든 인간 가족이 감당해 낼 만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영원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도록 보내지 않으며, 아담과 이브의 아들과 딸들을 마지막까지 구할 것이며, 영옥의 문을 열고 끌어내어 속박을 끊고 구원받을 모든 영들을 데리고 나올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89쪽)

천상에서는 사람들이 구해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마음이 강퍅하고 불신앙에 빠져 믿음과 행동이 더딘 사람들 때문에 통곡하고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88~389쪽)

하나님께서 요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에게 계시하시면서 모든 사람에게는 그들이 받은 빛과, 악을 거절하고 선을 행함에 따라 마련된 처소가 있다고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커다란 시험이 되었으며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교도와 유아들을 영원히 지속되는 벌로 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때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처소를 가지고 계시며 어떤 교회에 속했느냐의 여부를 떠나 정직하며 고결하고 진실한 자를 축복할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 한 이 세대를 위한 새 교리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90~391쪽)

멸망의 자식을 제외한 아담의 아들과 딸들에게 왕국과 거처와 영광과 편안한 처소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 영광스럽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모든 자가 다 첫째 부활에 나오지 않고 대부분이 둘째 부활에 나올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91쪽)

복음의 의식과 율법에 충실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해의 왕국에서 구원 받게 됨

지상에 살았거나 현재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승영의 기회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으며 진리와 빛과 의로움이 세상에 보내졌으니 이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해의 왕국에서 구원 받을 것입니다. 무지와 관습과 미신과 조상들의 그릇된 신념으로 이러한 것들을 받지 못하는 자들도 자신들이 계시를 받지 않는 한, 좋은 영광의 왕국을 상속 받을 것이며

인간의 마음에 들어와 본 적이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많이 받고 누릴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89쪽)

이러한 말들[교리와 성약 88:21~24 참조]은 예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요한복음 14:2; 교리와 성약 98:18]라고 말씀하실 때 언급하신 사실입니다. 그 처소가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가장 높은 해의 왕국, 그 다음으로 낮은 달의 왕국, 세 번째인 별의 왕국의 세 가지로 분명히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들더라도 주님께서 말일의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어서 지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대비해 두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악을 극복하고 자기 내부의 부정 행위를 뿌리뽑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게 살기를 소망하며 최소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그 왕국들 중 하나를 소유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또는 지상에 있는 하늘 왕국의 충만한 복음을 받은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율법과 의식과 계명과 계시를 엄격히 지킴으로써 해의 왕국을 상속 받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면전에 들어가도록 준비해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91쪽)

사람들의 마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충분히 작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외관상 인간의 본질적인 약점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일로 더러는 비틀거린다 하더라도 그들은 구원 받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89쪽)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는 모든 생각과 사상과 사고에서, 사적인 모임에서, 거래에서, 신고에서, 모든 생활 행동 규범에서, 이후에 나타날지도 모를 모든 실수나 거짓의 원리를 두려워하거나 상관함이 없이 정직해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89쪽)

비록 우리가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구원은 각 개인의 일입니다. 즉 모든 사람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히 말할 시간이 있어야겠지만 여러분에게 암시를 드리겠습니다. 이 교회에는 다른 사람들의 의로움으로 구원 받겠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놓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문이 닫치는 바로 그때 도착할 사람들로서 내쫓김을 당할 지도 모르며 그런 경우, 자신의 충실함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 해의 왕국의 문으로 들어온 누군가가 와서 문을 열어 주도록 부탁하겠지만 이 일은 그들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떤 형제, 자매님의 의로움에 의지하거나 그들의 영향을 통해 구원 받으리라는 헛된 희망을 가진 자들의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해의 왕국의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통행권인 여러분 자신의 의로움과 충실함을 유념하시기를 미리 경고하는 바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90쪽)

만약에 브리감 형제가 길을 잘못 간다면 하늘의 왕국에서 쫓겨날 것이며 브리감 형제 외에 벌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만이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지옥에서 벌을 받게 될 유일한 자가 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90쪽)

이것은 모든 말일성도들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과업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구원이 제게 이를 때 저는 이를 거절할 수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받을 경우엔 평생 동안 그 구원을 가능케 한 제작자와 저를 지도하도록 임명하는 자에게 무조건적인 순종과 복종을 표시할 것이며 거절할 경우는 창조주

의 뜻보다는 제 자신의 뜻에 따를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90쪽)

넘치게 구원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 받은 자나 앞으로 구원 받을 모든 사람은 간신히 구원 받을 뿐입니다. 영혼의 모든 힘을 다해 행하며 극복하려는 노력없이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87쪽)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거하는 곳, 그 곳이 왕국이니, 곧 해의 왕국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88쪽)

해의 왕국의 자리를 얻고자 소망하는 남녀는 매일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투쟁해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92쪽)

깨끗하고 거룩한 처소에서 살 준비가 되지 않은 채 하나님의 해의 왕국에서 구원 받겠다는 사람은 말도 안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종교를 생활화하는 대신에 자신의 종교를 위해 투쟁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면전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실수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빨리 마음을 바꾸어 우리의 종교를 생활화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92쪽)

하늘의 운영 체제는 모든 사람을 하늘로 모으며 구원 받을 자 모두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87쪽)

사람들은 지상에 태어나는 자 중, 그럴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 왕국에서 구원 받을 수 없는 남녀는 아무도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87쪽)

이 지상에 살았거나 살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받을 특권을 지닙니다. 영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기 우리처럼 사도와 예언자와 성직자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진리와 의의 길을 안내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과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87쪽)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저 개인으로서 해의 왕국에 갈 가능성이 있으며 같은 이치로 여러분이나 그 밖의 모든 사람들도 그 곳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87쪽)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용감한 자녀들이 권세와 영광으로 영원히 그의 면전에서 살도록 그들을 승영시킬 것임

모든 영들이 같은 은사와 능력을 부여 받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해의 왕국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교리와 성약 131:1~4 참조] 몇몇 영들은 다른 영들보다 더 고귀하며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서도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영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91쪽)

지상에 거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능력에 따라 왕좌와 왕국과 권력과 권세로 승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며 뜻이고 마음입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합당성을 증명하

기 위해서 먼저 필멸의 육체적 죄와 재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복음이 그들을 붙잡고 가르치며 단합시키고 이해를 밝혀 주고 주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신앙과 기도와 희망과 애정 및 모든 소망들이 하나의 목표로 모아지게 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91~392쪽)

의로움과 죄, 영생과 죽음, 행복과 불행의 서로 다른 점은 승영에 이른 자들이 갖는 특권과 축복이 속박이나 한없이 계속되며, 그들의 왕국과 왕좌와 지배권과 권력과 권세가 끝이 없이 영생을 통해 증진된다는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63쪽)

누가 인간의 신성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영생의 참된 원리, 즉 생명과 구원에 관한 원리들을 이해하는 자들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승영함으로써 천부적으로 받은 권세와 능력을 잃지 않지만 반대로 생명에 이르는 길을 택함으로써 그 길의 매 과정마다 더 큰 권세와 영향력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92쪽)

해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 왕국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면전으로 갈 준비를 할 수 있는 왕국입니다. 그 영광을 상속 받도록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셨고 예수께서도 약속하셨으며, 옛날에도 오늘날에도 예언자와 사도들은 우리가 그 보상을 위해 산다면 주님 앞에 의로움으로 소망하는 모든 것에 따라 보상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주간 데져렛 뉴스*, 1860년 10월 31일자, 1쪽)

구원은 여러 천사와 신들과 인간들이 충만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세와 현세와 내세의 삶, 곧 영생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엄격히 준수하며 계속하여 충실하다면 이 영생 모두를 상속 받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87쪽)

여러분에게 금과 은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과 자신의 의무 사이에 두지 마십시오. 승영을 얻기 위해 여러분이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영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헌납하는 것이 지체될 정도로 애착이 가는 어떤 것이 있다면 우선 그것을 헌납하십시오. 모든 걸 다 바치는 것이 어쩌면 완벽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경우, 만약 이 일에 저의 마음이 충분히 내키지 않는다면 마음이 허락될 때까지 저의 시간과 재능과 수고와 소유물을 계속 바칠 것입니다. 제가 그 일에 굴복하며 머리를 숙일 때까지 저는 하나님을 위해 수고할 것입니다.… 저는 방금 승영을 얻기 위해 우리가 추구할 과정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애정을 갖는 대상은 주님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목표와 왕국 건설은 우리가 맨 처음 고려할 사항입니다.(*주간 데져렛 뉴스*, 1854년 1월 5일자, 2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 받지 못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 개개인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대의 명분과 방법과 사업을 가지고 계시며 이를 완수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구를 구속하고 신성케 하여 그의 형제, 자매들을 아버지의 면전으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 힘을 다해 수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모든 인간 가족의 정화를 위해, 하나님과 더불어 그의 왕국에서 거할 준비를 위해 예수님과 더불어 일하고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89쪽)

학습을 위한 제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이 모든 인간 가족에게 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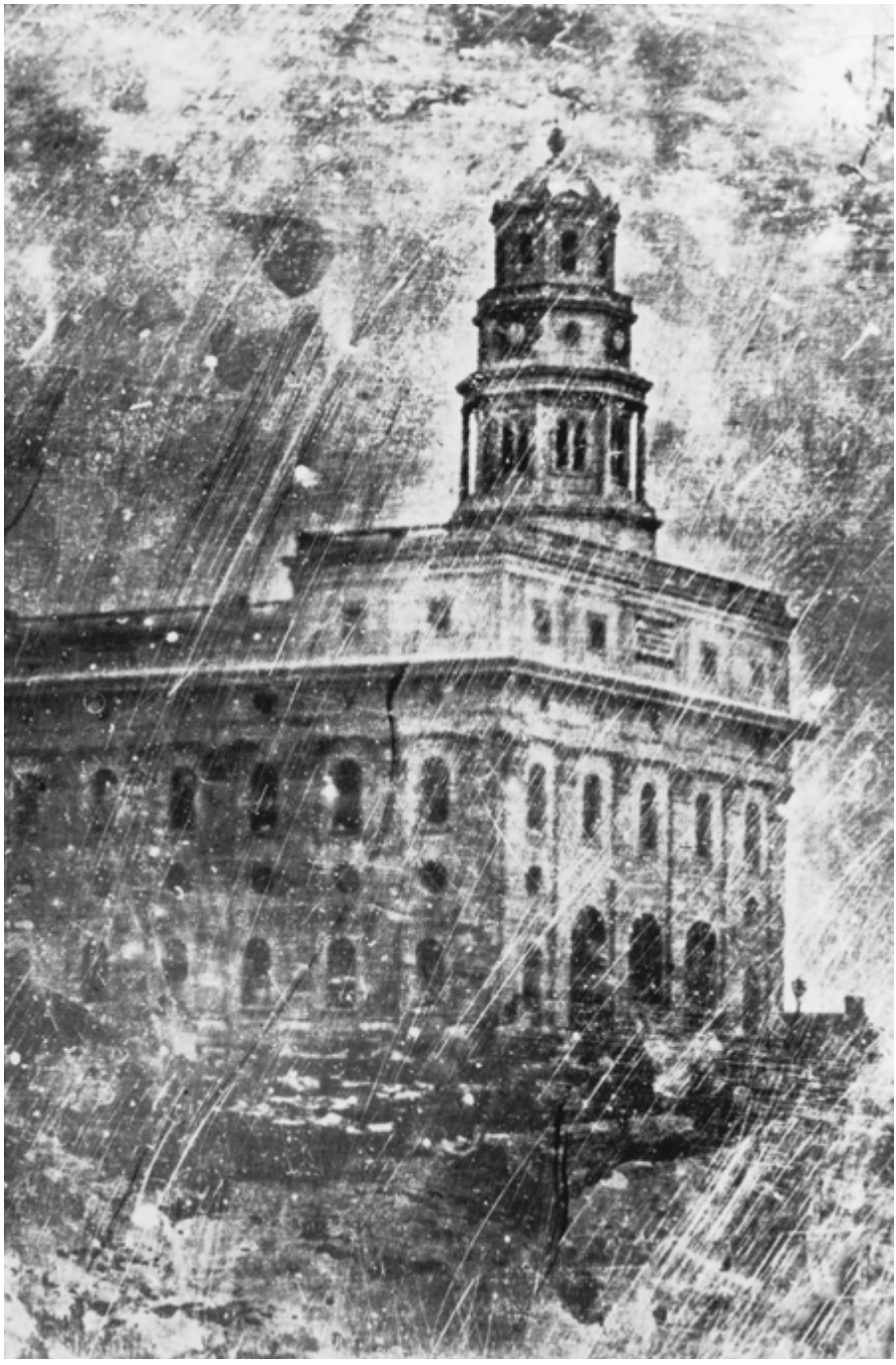
- 어떤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이 "전세계적인 구원, 즉 범우주적인 구속"인가? 이러한 전세계적인 구원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갖는 "강한 어버이 정신"을 어떻게 보여 주는가? 이와 같은 지식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가?
- 영 대관장은 하나님께서 요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에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계시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배도했다고 말씀하셨다. 그 가르침은 왜 일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고 생각하는가? 오늘날 현대의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한 이와 유사한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복음의 의식과 율법에 충실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해의 왕국에서 구원 받게 됨

- 브리감 영 대관장이 말씀하신 "구원은 각 개인의 일"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왜 구원은 "영혼의 모든 힘을 다해 행하기"를 요구하는가?(니파이이서 25:23 참조)
- "다른 사람들의 의로움으로 구원 받겠다고 생각하는" 자들에 관한 영 대관장의 토론과 구세주께서 들려주신 열 처녀의 비유를 비교해 본다.(마태복음 25:1~13; 교리와 성약 33:17; 45:56~57 참조) 영 대관장은 또한 "우리는 모든 인간 가족의 정화를 위해 [예수님]과 더불어 일하고 있다."고 말씀했다. "구원이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 영생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 왜 가장 충실한 성도조차도 해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필요로 하는가?
- 영 대관장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구원을 거절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어떤 경험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우는가?
- 준비가 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왜 "말도 안되는 어리석은" 일인가?(몰몬서 9:4 참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충실하게 봉사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를 해의 왕국에 들어가도록 준비시키는가? 이 준비는 왜 "매일 투쟁"을 우리에게 요구하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용감한 자녀들이 권세와 영광으로 영원히 그의 면전에서 살도록 그들을 승영시킬 것임

- 복음이 우리를 "주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든다는 영 대관장의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가?(요한복음 17:4; 니파이일서 1:15~17; 교리와 성약 38:27 참조)
- 브리감 영 대관장은 "예수께서는 그의 형제, 자매들을 아버지의 면전으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 힘을 다해 수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와 더불어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가르쳤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모든 인간 가족의 정화를 위해"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가?



나부 성전 사진 중의 한 장. 영 대관장과 다른 십이사도들은 성도들이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떠나기 전에 나부 성전에서 엔다우먼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루 밤낮을 봉사하였다.

제 41 장

성전 의식

박해가 더욱 심해지고 나부를 떠나야할 필요성이 긴박해지자, 브리감 영 대관장은 성도들이 떠나기에 앞서 성전에서 봉사하며 신성한 의식으로 그들을 축복하였다. 그는 어느 하루의 일을 이렇게 기록했다. "143 명의 사람들이 성전에서 엔다우먼트를 받았다.… 이것은 [성전 의식을] 받으려는 성도들의 열망과, 또한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의식을 집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표출된 것이었다. 나는 밤낮으로 성전에서 주님의 사업에 나의 모든 것을 바쳤으며, 하루 평균 네 시간 이상을 자지 않았고, 일 주일에 한 번밖에 집에 가지 않았다."(교회 정사, 7:567) 브리감 영 대관장은 서부에 도착하자마자, 새로운 성전을 지을 부지를 선정하였다. 그는 유타의 솔트레이크시티, 세인트 조지, 맨타이, 로간에서 네 개의 성전 건축을 지휘하였으나, 그의 생전에 세인트 조지 성전만이 완공되었다. 1877년 1월 1일에 의자에 앉혀 방으로 옮겨질 정도로 약해진 다리를 이끌고, 그는 세인트 조지 성전의 아래층을 헌납하기 위해 만난 회중들에게 설교를 하며 이렇게 선언하였다. "우리는 지상에 살았던 그 어떤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 일곱 우뢰가 치듯이 외치고 싶습니다." (데져렛 뉴스, 1877년 1월 16일자, 1쪽)

브리감 영의 가르침

주님의 집인 성전은 성도들을 승영에 이르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신성한 의식이 집행되는 곳임

우리는 왜 성전을 짓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성품에 비견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지상의 집이 없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것이며, 그래야 주님께서 언제든지 그의 집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상에는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오셔서 거하실 수 있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높은 산 정상이나 죄지은 인류가 그 더럽혀진 발로 땅에 그 흔적을 결코 남긴 적이 없는 동굴이나 그러한 곳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93~394쪽)

주님께서는 친히 오셔서 그의 뜻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집을 주님을 위해 지을 것을 그의 종들에게 요구하십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94쪽)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전을 지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어딘가에 성전

하나를 지을 것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요구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브리감 형제님, 이 문제에 관해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이를 위해 하늘에서 계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진실로 성전 건축에 관한 계시를 항상 받고 있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11쪽)

우리는 여러 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이 율법은 인류의 후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93쪽)

우리는 의식 집행을 목적으로 지어진 성전을 갖기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합당하게, 온전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높은 차원의 의식들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94~395쪽)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전을 짓고 싶지 않아. 항상 그 일을 시작할 때면 지옥의 종이 울리기 시작하기 때문이야." 저는 다시 그 종소리를 듣고 싶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10쪽)

우리는 커틀랜드와 나부에서 성전을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할 때면 지옥의 종소리가 울리지 않았습니까? 그 종들은 매주 그리고 매일 울렸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10쪽)

저는 주님과 이 백성의 도움을 받아 주님을 위해 성전을 짓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그렇게 하도록 강권하는 것은 저의 특권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시고 싶을 때, 거하실 곳이 있도록 또는 주님께서 그분의 종을 보내야 할 때 그 종이 묶을 적절한 곳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을 위해 집을 지을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집을 지어 본 적이 있으며, 여러분도 대부분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집을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브리감 영 설교집*, 411쪽)

우리에게 성전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성전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안식을 취하고 있는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의식들은 적절한 장소가 아니면 [집행될] 수가 없습니다. 공공 집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신권을 위해 곧 신권을 질서와 위계 [아론 및 멜기세덱] 안에서 충만히 정돈하고 조직하고, 성도들의 승영을 위해 신권의 의식을 그들에게 베풀기 위해 우리는 성전을 바라고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94쪽)

성전은 엔다우먼트을 위해서, 곧 신권의 조직과 가르침을 위해서 존재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12쪽)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교리와 성약 132:22 참조]으로 들어가는 준비에 필요한 모든 열쇠와 축복과 더블어 주님의 집의 의식을 받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 우리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복음을 모른 채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의식을 집행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94쪽)

세인트 조지 성전은 유타에서 처음으로 완공되어 헌납된 성전이다.

성전 의식에 우리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성전에서의 만족이, 참으로 우리가 우리 주 구세주와 공동 작업자이며, 우리가 구원의 위대한 사업에서 작은 역할을 맡고 있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순종할 특권과 복음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행복을 얻을 특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이러한 의식을 수행하는 특권 뿐만 아니라 복음을 모른 채 잠자고 있는 우리의 부모들과 조상들 또한 생명의 물을 나누어 마셔 육체로 사람처럼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베드로전서 4:6 참조] 그들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행하는 특권을 우리가 지니고 있음을 스스로 인식하는 데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특권이요, 축복으로 어떤 사람도 이를 지니지 못한다면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 안에 있는 계시의 영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받아들이셨음을 알기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서로 어울림에서 참으로 많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노년과 중년, 그리고 청년들이 이 영광스러운 사업에서 기쁨을 누려 왔으며, 즐거워 하였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19~420쪽)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선하고 열렬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백 만 달러 상당의 성전을 지으려 하고, 여기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재산을 바쳐야 한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라 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시

간과 재산을 바쳐야 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의 적들이 우리를 성전에서 쫓아낼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 지녔던 것과 같은 정도의 기꺼운 마음으로 성전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또는 그분의 종들의 수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명하실 때, 그의 백성은 순종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전이 완공되더라도 그 곳에 들어갈 수 없음을 미리 알더라도 우리는 이곳에서 천년을 살면서 성전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아는 것처럼 기꺼운 마음으로 이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11쪽)

여러분께서 이 사업을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에 관하여 불평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기꺼운 마음으로 시작하여, 기꺼운 마음으로 전체 건물을 짓는 데 참여할 수 없다면, 금광이 있는 캘리포니아로 떠나십시오. 빨리 떠날수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금 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행동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에서 우선으로 그것도 가장 우선으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주위의 살아 있거나 죽은 친척들을 위한 구원의 의식에 있지 않다면 어서 가십시오! 빚이 있다면 그것을 갚고 평화스러운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어떤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인지를 여러분의 행동으로 증명하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417~418쪽)

우리는… 아담의 시대 이후로 그 어떤 백성도 누리지 못하였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성된 성전이 있어, 그 곳에서 하나님의 집의 모든 의식이 그의 백성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까?(*브리감 영 설교집*, 393쪽)

엔다우먼트는 우리가 언젠가 주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줌

[커틀랜드 성전에서] 집행되었던 예비 의식은 비록 천사의 집행과 주 예수의 임재 하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충만한 주님의 집의 의식에 대한 어렴풋한 모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악마의 선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모든 것을 받았으며, 하나님만큼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배도하여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확언하건대, 형제 여러분, 현재 지상에는 엔다우먼트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장로가 아주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들은 경험을 해야 하며,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성전이 지어져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15~416쪽)

여러분께 간략하게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엔다우먼트는 주님의 집에서 그러한 모든 의식을 받는 것이며, 이 의식은 여러분께서 이 생을 떠난 후에 여러분께 필요한 것으로 파수꾼으로 서 있는 천사를 지나가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가게 해줍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16쪽)

이 모임에서 어떤 분이 엔다우먼트를 받았으며 이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엔다우먼트의 열쇠는 여러분에게 있으며, 수천의 사람들이 그것을 받았으며, 종들을 거느린 악마는 단지 몇 사람을 죽임으로써 지상에서 다시 거룩한 신권을 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마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백성, 곧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을 구속하셨으며, 루시퍼는 하나님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16쪽)

성도들이 이 짧은 생이 끝나기 전에 준비를 갖추어 파수꾼을 완전히 지나, 해의 왕국과 하나님의 면전으로 인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집의 의식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95쪽)

하나님의 집의 의식은 인류 가족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주님에 의해 하늘로부터 인간의 자녀들에게 맡겨진 구원의 열쇠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쇠를 지닌 사람이 있는 한, 인류 가족의 구원을 위해 이 귀한 열쇠가 활용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의식이 집행되는 장소인 성전의 건축은 구속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며, 이것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에 영광스러운 주제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96~397쪽)

저는 때때로 자신들이 맺는 성약의 본질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한 그것을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성취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성약을 맺는 사람들을 엄하게 꾸짖고 싶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96쪽)

어떤 장로들은 열국으로 나아가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다가, 성약의 본질을 철저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인간은 자신에게 해가 돌아갈지라도 서약을 지켜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전도서 5:4~5 참조)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은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께 여러분이 참으로 성실하다는 것을 보일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96쪽)

인봉 의식은 아담의 의로운 후손을 신권 권능을 통하여 영원히 연결시켜 줌

목적을 위해 특별히 세워진 성전에서 수행되어야 할 하나님의 집의 의식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성전이 없이도 집행할 수 있는 다른 의식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받기 위한 안수례 등이 여기에 속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이 없이도 사람들에게 주어진 많은 축복을 받는 특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 준비된 성전에서 행하여지지 않았으나, 주님께서 나타내신 율법에 따라 다른 축복들과 집행되지 않는 의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권의 고리를 아담에서부터 현재까지 연결하기 위해, 자녀를 그 부모에게 인봉하고 부모들을 그 조상들에게 인봉하여 거룩한 신권과 관련된 의식, 곧 [죽은 자를 위한] 인봉 의식을 행할 때, 이 의식들은 성전이 없다면 행해질 수 없습니다. 앞으로 세워질 성전에서 의식들이 수행될 때, [자녀들이] 그들의 [부

모에게] 인봉되어, 잠자고 있는 자들이 시조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입니다. 지상에서 신권의 연결 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 일이 행해질 것입니다. 신권이 백성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백성이 신권을 져버렸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율법을 범하고, 의식을 변경하였으며, 영원한 성약을 깨버리고[이사야서 24:5 참조], 신권이 백성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이 신권을 떠난 뒤였습니다. 이 신권이 다시 회복되었으며, 그 권능으로 인봉 의식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를 조상들과 연결하여 시조 아담으로부터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를 연결하는 완벽한 고리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28:18 참조] 이 의식은 성전 외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집행되지 않을 것이며 자녀들도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그들의 살아 있는 부모들에게 인봉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들이 엔다우먼트를 받고 현세와 영원을 위해 인봉된 연후에 다른 자녀를 갖게 되면, 그 자녀들은 성약 아래서 태어난 것이 되어, 왕국의 합법적인 상속자가 되며, 이들은 왕국의 열쇠를 지니게 됩니다. 부모들이 충만한 성약에 참여하기 전에 태어난 자녀는 성전에서 부모에게 인봉되어야 신권의 합법적인 상속자가 됩니다. 그들은 의식은 의식과 엔다우먼트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들과 함께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 자녀들이 부모에게 인봉되지 않는다면 부모들은 영원히 합법적으로 부모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인봉 의식이 집행되지 않는다면 그 연결 고리는 완성되지 않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99~401쪽)

만일 인봉 의식에 관해 계시된 것이 없었다면, 성약 밖에서 태어난 자녀는 그들의 부모에게 인봉될 수 없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97쪽)

인봉 의식은… 세대를 잇는 고리가 인봉 의식 안에서 아담에 이르기까지 완전하게 만들어질 때까지는 이곳에서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이 지구가 성결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과 천사가 거할 수 있도록 준비될 때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으고 바빌론에서 떠나(교리와 성약 133:14 참조),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명을 받았으며, 도시와 성전을 건설하고 황량한 자연에서 나라를 구해내어 우리의 하나님의 시온을 세우라는 명도 받았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07쪽)

학습을 위한 제언

주님의 집인 성전은 성도들을 승영에 이르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신성한 의식이 집행되는 곳임

- 왜 우리는 성전을 짓는가? 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지옥의 종이 울리게" 하는가? 여러분은 영 대관장이 왜 "저는 다시 그 종소리를 듣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였다고 생각하는가?
- 어떤 방법으로 성전 봉사는 우리가 "우리 주 구세주와 공동 작업자"가 되도록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받아들이셨음"을 알 수 있는가?

- 영 대관장은 “우리는 이 성전에 관하여 불평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왜 성전 건축과 성전 예배에 “선하고 열렬한 의지”와 자발적인 순종이 요구되는가? 여러분이 어떻게 한 것이 성전 건축과 성전 예배에 관해 불평을 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왜 구원의 의식이 “우선으로 그것도 가장 우선으로”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있어야 하는가?

엔다우먼트는 우리가 언젠가 주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줌

- 영 대관장은 성전 엔다우먼트의 목적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쳤는가?
- 성약이 지닌 신성한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고 성약을 맺는 것의 위험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성약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그것들을… 성취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이 성전에서 맺어지는 성약의 신성한 본질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는가?

인봉 의식은 아담의 의로운 후손을 신권 권능을 통하여 영원히 연결하여 줌

- “시조 아담으로부터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를 연결하는 완벽한 고리를” 만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고리를 만드는 데 있어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교리와 성약 128:18 참조) 이와 같이 연결시키는 것이 어떻게 현재와 미래에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가?
- 인봉 의식은 어떻게 “바빌론에서 떠나며,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시온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가?
- 여러분의 생활에서 성전의 인봉 의식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조상과 후손 및 직계 가족을 연결시켜 영원한 가족을 이룰 수 있음을 알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느꼈는가? 여러분이 매일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것에 관해 여러분이 느끼는 것에 이러한 지식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세인트 조지 성전의 최근 사진. 1877년 4월에 헌납된 이 성전에서 성도들이 죽은 자를 위한 엔다우먼트 집행을 시작할 수 있었다.

제 42 장

성전 봉사

세인트 조지 성전이 1877년 4월에 헌납되었을 때, 브리감 영 대관장은 성도들이 마침내 죽은 자를 위한 성전 엔다우먼트 수행을 시작할 수 있음을 기뻐하였다. 그는 그 곳에서 봉사를 시작한 성도들이 "축복된 시간을 가졌으며, 그것은 우리가 알기에 수세기 동안 지상의 그 어떤 다른 백성도 누려 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고 보고하였다.(브리감 영 설교집, 419쪽) 영 대관장은 아들 로렌조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적었다. "세인트 조지 성전의 완공 이후로 죽은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 의식을 집행하며 또한 산 자를 위한 필요한 의식에 참여하고자 하는 정신을 이 계곡에 있는 모든 충실한 교회 회원들이 지녀왔다. 아마도 성도들은 교회의 조직 이래로 이러한 주제에 대하여 현재 그들이 지니고 있는 것만큼의 흥미를 느꼈던 적이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관심은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며, 성전 건축 사업이 진전됨에 따라 이러한 정신이 교회의 모든 지부에서 더욱 커다란 권세와 함께 느껴지게 될 것이다."(브리감 영 서신철, 288~289쪽)

브리감 영의 가르침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에게 성전 축복을 누릴 기회를 주심

저희 아버님께서는 엔다우먼트가 행하여지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분 자녀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 분께 인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나부에 있던 시간을 돌이켜 보면,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우리는 그 곳에 거의 머무르지도 못하고 급하게 서둘렀습니다. 그 곳에서 폭도들은 우리를 파멸시킬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집들을 불태울 채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이전부터 그런 짓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에게 주어진 계명에 따라 성전을 완공하고는 그 곳을 떠났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별로 없어 성전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아버님의 자녀들이 그 분께 인봉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아버님의 아들들 모두가 성전에 참여할 기회를 갖기 전에 영원의 세계, 곧 영의 세계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후손들이 100년이 걸릴지라도 성전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01쪽)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태어나고, 지상에서의 짧은 인생을 살다가 그들 자신과 그들을 위해 마련된 구원의 계획에 대해 모른 채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의해 만들어진 이

영광스러운 계획이 다음 지체로 그들을 쫓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영생을 받아들이고 왕권과 통치권과 주권과 권력을 지니고, 승영할 기회를 줌을 아는 것은 커다란 위안이 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04쪽)

우리는 이 경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죽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138:57 참조](*브리감 영 설교집*, 397쪽)

영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죽은 육신이 이틀 밤과 하루 낮을 무덤에 뉘여져 있는 동안, 영의 세계로 가셔서 그 곳의 형제들에게 영의 세계에서 그들이 어떻게 왕국을 건설하고 진리로 가득한 지식을 영들에게 가져다 주어야 하는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 지상에서 하셨던 것처럼 그 곳에 가셔서 그들에게 본보기를 보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 곳에 있는 영들도 진리를 받아들일 특권을 지니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도 그 곳에서 침례를 받습니까하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성신의 은사를 받기 위한 안수례를 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와 관련된 어떠한 외형적 의식도 영의 세계에서는 집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빛과 영광, 그리고 성신의 권세를 이 지상에서와 마찬가지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율법들이 있으며, 그들은 이 율법 하에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97쪽)

우리는 그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곳에 성전을 하나 지으려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공적이고 축복을 받으며 보호를 받는다면, 아마도 두 세 개를 더 지으려 할 것이며, 죽은 자를 구속하려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업이 요구하는 만큼 빨리 계속 지을 것입니다. 몇몇 저의 조상이 복음의 축복을 모른 채, 또는 복음을 들어 보지도 못하고 살다가 죽었으나, 그들도 저만큼이나 정직하였으며, 저 만큼이나 또는 지상에 살았던 어떤 사람들만큼이나 고결하였으며, 또한 이제까지 살았던 사도나 예언자들이 의로웠던 만큼 그들도 알고 있는 만큼 의로웠음을 계시를 통해 알아, 저는 가서 침례를 베풀고 확인을 하고 씻음과 기름부음을 받고 그들을 위해 모든 의식과 엔다우먼트를 행하였는데, 이는 그들에게도 해의 왕국으로 가는 길을 열여 주기 위해서 였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03쪽)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관한 이 교리는 위대한 교리로, 인류에게 계시된 가장 영광스러운 교리 가운데 하나이며 이 교리에는 빛과 권세, 영광과 명예 그리고 불사 불멸이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99)

교회가 조직된 이후로, 제가 알기에 이미 돌아기신 분들, 곧 선하고, 정직하며, 존경할 만하며, 모든 사람에게 자비롭고, 선행을 하며, 고결한 생활을 하신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어 왔습니다. 우리는 그 분들께서 지옥으로 내려가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은 너무도 광대하여 그 분들을 높은 곳으로 올려 그들이 예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도 있는 곳으로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03쪽)

그들은 고난이 있는 필멸의 세상을 지나 자신들의 죄사유함과 자신의 승영을 위한 개

인적인 의식 집행이 불가능한 곳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의 해의 왕국으로 인도되기 위하여 오로지 친구나, 자녀와 후손들을 믿고 이들이 자신들을 위해 의식을 집행해 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06쪽)

만일 우리 조상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말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수 천년을 이곳 감옥에 누워서 이 경륜의 시대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우리 귀에 대고 어떤 말을 속삭이겠습니까? 만일 그들에게 권세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사업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마치 그들의 속삭임이 하늘의 뇌성처럼 우리에게 크게 들릴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천사가 숫적으로 적은 이 백성을 지켜 보고 있어 이들이 인류의 구원에 매진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악마들 또한 이 백성을 지켜 보며 우리를 넘어뜨리려 노력하고 있으며,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또한 행하도록 주신 사업을 행하기 보다는 여전히 악마의 사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03~404쪽)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조상들의 구원을 위해 가족 역사 탐구를 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실 것임

온 세상이 우리가 분명히 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일로 [복천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이제까지 지옥이 우리를 대적하여 싸움을 일으키지 않고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했던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전 안에서 무엇을 하려 합니까? 그 곳에서 행해져야 할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천년이 올 때까지, 또한 지상에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전을 갖자마자 우리는 시작하여, 우리 조상들의 구원을 위한 일을 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조상들의 계보를 모을 것입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는 조상들에 관한 완벽한 계보를 모으게 될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우리는 우리의 친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식을 집행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02쪽)

우리는 지금 죽은 사람들… 곧 우리의 아버지들과 어머니들,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아주머니, 친척들, 친구와 오래된 지인들을 위하여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영감을 주셨으며, …자신들이 지닌 계보를 쫓으며 조상에 관한 기록을 출판하고 있는 넘치는 열정을 지닌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거들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되어 아버지부터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버지로 이어져 그들이 이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조상의 계보를 얻을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06쪽)

지상에 주님의 왕국이 세워지고, 시온이 건설될 때 주님께서는 그의 종을 구원자로 시온산 위로 보내실 것입니다.[오바댜 1:21 참조] 과거 시대에 지상에 살았던 하나님의 종

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은 각양 각색의 사람들이 살았던 곳을 나타내며, 그들의 이름을 주며 말할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의 종들아, 나아가서 너희들의 권리와 특권을 행사하라, 가서 복음을 모른 채 시험의 날을 끝낸 사람들과 각기 구원을 받게 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의 의식을 수행하며, 그들을 보다 높은 곳을 끌어올려 해와 달과 별의 왕국을 상속 받도록 하라" 이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그리고 선하든 악하든, 많든 적든 그들이 육체로 있을 동안 행해진 행위에 따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07쪽)

주님께서는 예언자 엘리야의 열쇠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조상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조상에게로 돌이키는 교리를 전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교리와 성약 2편; 110:13~15 참조] 지금 자녀인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조상들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모른 채 돌아가신 분들이 전능하신 주님께 여러분을 위한 약속을 얻게 해 달라고 간구하였기에 그 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열심히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후손들이 잊어서는 안되는 약속을 우리 조상들은 얻었습니다. 우리 조상의 후손이 되는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 여러분의 조상들을 위한 의식을 집행해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08쪽)

우리는 돌아가신 우리 친족들을 위해 성전 의식을 집행함으로써 시온산 위의 구원자가 됨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지상의 여러 나라를 구속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 없이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조상들이 없이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이 거룩한 신권에 이를 위한 연결고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지상에 살고 있는 가장 최근의 세대에서부터 우리의 시조 아담까지를 하나로 묶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이들을 그들이 구원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왕국에 데려가기 위해서입니다. 이 신권이 이 일을 수행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신권의 목적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07쪽)

구세주께서 주신 교리는 믿는 사람들에게 구세주께서 성신을 거스린 죄를 지은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시온산 위에 서실 것이라는 원리를 나타내고 알게 하여 주었습니다. 남성과 여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비유로 말하자면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며[요한계시록 3:12], 수천년 동안 잠자고 있던 자들을 위해 해마다 의식을 집행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07쪽)

이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 뿐만 아니라 수천 개의 성전이 있어야만 되며, 수천의, 아니 수만의 남성과 여성들이 이 많은 성전으로 들어가 주님께서 나타내실 만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지상에 살았던 사람들을 위한 의식을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94)

이것이 지상에 거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저는 많이 쉬고 싶은 생각이 들기보다는 하루 종일 근면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생각을 할 때, 이 일이 상당히 부지런히 일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우리에게 낭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10)

주님께서 신권을 받게 될 사람들에게 다시 부여해 주신 신권은 바로 그들을 해의 왕국과 관련된 원리들에 익숙하게 준비시키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에 순종하고, 이 율법을 깨트리지 않고 지키며, 이에 따라 생활한다면, 우리는 해의 왕국의 축복을 누릴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일 그들에게도 특권이 주어졌더라면, 우리가 가르치는 율법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였을 지상에 있는 수천 수백만이 그들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시온으로 오시고, 파숫군들이 눈으로 마주 보며, 시온이 세워질 때, 구원자들이 시온산 위에 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아담의 모든 아들과 딸을 위해 의식을 집행함으로써 그들을 구원할 것입니다.(*주간 데져렛 뉴스*, 1860년 5월 16일자, 1쪽)

우리 조상들은 우리가 없이는 완전해질 수 없으며, 우리도 조상들이 없이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을 모두 마치고 이제 잠들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일을 행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인간이 지상에서 행하였던 가장 위대한 사업입니다. 이 지상에 살다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은 수백 만의 우리 동료들이 영생을 상속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질서 정연하게 의식을 집행하여야 합니다.[즉 복음을 받아들였을 모든 이들에게] 우리는 이 사업에 참여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06쪽)

누가 이 지구와 그 충만함을 소유할까요? 주님께서 이 영광을 위해 남겨 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구원자로 시온산 위로 와서 복천년 동안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수고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07~408쪽)

복천년의 사업에 성전 건축과 성전 봉사가 포함될 것임

우리는 산 자와 죽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 자들은 자신들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으나, 죽은 자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 중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나 신권, 우리가 누리는 기회도 누리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앞으로 나아가 그들을 위해 의식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천년, 곧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천년 동안 우리는 성전을 짓고 그 곳에서 수백 수천년 동안 잠들어 있는 자들, 곧 만일 기회만 주어졌더라면 진리를 받아들였을 사람들을 위해 의식을 집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더욱 높은 상태로 끌어올리고, 아담에게 이르는 온전한 연결고리를 만들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04쪽)

제가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복천년의 사업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 선택된 후손, 왕의 후손, 주님의 축복을 받은 이들, 주님과 성약을 맺은 이들이 수행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걸어나가 이곳 지상에서 구원을 받게 될 아담의 모든 아들과 딸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에 있는 모든 영들에게 복음을 가르

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에게 구원의 원리들을 전할 것인데, 이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특권을 지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육체와 관련된 복음의 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손을 이곳 지상에서 갖게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03쪽)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며 우리는 복천년 동안 인류 가족을 위해 그리고 그들을 대신하여 침례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백 개의 성전을 갖게 될 것이며, 또한 복음을 듣고 또 순종할 특권도 지녀 보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나아와 영광스러운 부활을 지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왕국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성전에서 의식을 집행할 수천의 남자와 여자를 갖게 될 것입니다. 악마는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 열심히 싸울 것이며, 우리는 복음의 권세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믿는 신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악마와 대적한 싸움에서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온 세계가 이 교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교리에 어떤 해로운 것이 있습니까? 세상이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그들은 그것을 기뻐할 것이며, 그에 대항하여 싸우기보다는 그토록 영광스러운 교리를 나타내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01쪽)

학습을 위한 제언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에게 성전 축복을 누릴 기회를 주심

- 복음의 충만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을 구속하는 "영광스러운 계획"이 영 대관장에게는 "커다란 위안"이 되었다. 그 이유는? 그 계획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 영의 세계에서는 복음의 전파가 어떻게 그리고 언제 조직되었는가? 현재 누가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가?(교리와 성약 138:57 참조)
- 우리의 죽은 자를 구속하고 그들에게 해의 왕국을 열어 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교리와 성약 138:58 참조)
- 왜 사탄은 그토록 활동적으로 성전 사업을 반대하는가? 사탄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거나 또는 구원 의식 사업이 발전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는 어떤 증거를 여러분은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조상들의 구원을 위해 가족 역사 탐구를 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실 것임

- 영 대관장은 우리가 우리의 계보 또는 가족 역사를 완수하게 될 때에 대하여 말씀했다.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할 것인가? 여러분의 가족 역사에 기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 영 대관장에 의하면, 누가 그들의 조상에 대하여 알아보려 '많은 자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가? 여러분은 어떤 증거를 오늘날에도 이것이 참되다는 것을 보았는가?
- "엘리야 예언자의 열쇠"는 무엇인가?(교리와 성약 27:9; 110:13~15 참조)

우리는 돌아가신 우리 친족들을 위해 성전 의식을 집행함으로써 시온산 위의 구원자가 됨

- 우리는 어떻게 시온산 위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 우리의 죽은 친족이 우리에게 의하지 않고는 완전하게 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죽은 친족 없이 완전하게 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복천년의 사업에 성전 건축과 성전 봉사가 포함될 것임

- 무엇이 "복천년의 사업"이 될 것인가? 누가 이 사업을 수행할 것인가?
- 우리는 어떻게 사업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시도를 이겨낼 수 있는가? "복음의 권세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믿는 신앙"은 어떻게 우리가 복천년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성경의 신중한 독자였던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였다.

제 43 장

진리와 개인적인 간증을 추구함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브리감 영 대관장의 추구는 한 사람의 진지하고도 간결한 간증으로 결국 해결되었는데, 그는 "단지 '저는 성신의 권세를 통해 몰몬경이 참되며, 요셉 스미스가 주님의 예언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말주변도 별로 없는 사람이었다." 영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성신은 나의 이해력을 밝혀 주었으며, 빛과 영광, 불사 불멸이 내 앞으로 다가왔다."(데져렛 뉴스, 1854년 2월 9일자, 4쪽) 일생을 통하여, 그는 복음 진리에 따라 생활하면서 이렇게 말씀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는 하나님의 참된 지식과 경건 속에서 발전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저는 지상에 평화와 의로움을 세우고 또한 의의 원리에 귀기울이게 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경건, 그리고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 그리고 그들이 하늘 및 하늘의 존재와 맺고 있는 관계 등을 알려 주기 위해 영향력과 전능하신 이의 권세를 더 많이 갖기를 소망하였습니다.…저는 이러한 일이 저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일어나 우리가 은혜와 진리의 지식 안에서 자라나며 주님 앞에 온전해질 것을 간구하였습니다."(데져렛 뉴스, 1857년 6월 10일자, 3쪽)

브리감 영의 가르침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기를 바라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님

지상의 주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옳은 일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을 다스리는 그 무엇이 있어 그에게 충고하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한다면, 그것이 진리와 덕으로 인도합니다.[모로나이서 7:15~17 참조](*브리감 영 설교집*, 423쪽)

세상 곳곳에 있는 정직한 사람들은 올바른 길을 알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찾아왔으며, 지금도 이것을 찾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는 주님의 길을 알고 싶어 온 마음을 다하여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능력을 다하여 선한 것을 만들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21쪽)

너무 많은 죄를 지어 은혜로 구원 받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면, 모든 사람에게는 기꺼이 악을 대적하고 거부하며 진리를 받아들이려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기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들을, 곧 유덕하고 거룩한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으며, 자신과 비슷하게 간악한 동지들을 경멸하지 않을 정도로 몹시 나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안에서, 주님의 영이 그 사람과 함께 하여 그의 마음을 밝히기를 그칠 정도로 죄를 짓지 않는다면, 선과 진리, 그리고 유덕한 것들을 기꺼이 반기지 아니할 사람이 지상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21쪽)

눈이 있으되 보지 못하며, 귀가 있으되 듣지 못하며, 마음이 있으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마음을 지니고 있으며, 마음의 시현이 열려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육체적인 감각을 주신 권세가 바로 여러분에게 진리에 대한 이해를 주신 같은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88:11~13 참조] 후자의 권세는 내적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외적인 또는 실제로 시선을 통해 옷 색깔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의 내적이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감각을 통하여 이제까지 있어 왔고, 현재에도 있으며, 앞으로 있을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적인 빛이 그들에게서 거두어질 때, 그들은 이전보다 더욱 검게 되어, 이해할 수 없게 되며 하나님의 것에서 멀어지게 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21~422쪽)

이러한 육체에 거하는 영들은 본질적으로 진리를 사랑하며, 본질적으로 빛과 예지를 사랑합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덕과 하나님 그리고 경건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육과 더욱 밀접히 연합하면서 그들의 동정이 섞이게 되고 육체와 영이 모두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연합되어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93:33~34 참조] 그리고 세상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의 이해를 밝혀 주는 주님의 영과 복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성신의 권세가 우리의 영을 밝혀 주지 않는다면, 영은 필멸의 육체에 있는 죄의 영향을 받게 되며, 악마의 권세와 죄에 굴복당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22~423쪽)

이 시대나 또는 과거의 시대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진리를 좋게 보고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지닌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으며, 그들 안에 있는 영이 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서도 그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복음을 받아들일 경우 잃어버릴 위험도 있는 아주 많은 이익들을 지니고 있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의 것만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는 다시 큰 갈등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의 변명들을 극복하고 성신의 인도를 따르기도 하지만, 이 부류에 속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은 생각에 넘어가 자신들이 바라는 세상적인 것들에 집착하게 됩니다.(*브리감 영의 가르침*, 434쪽)

우리는 모두 지식과 진리의 증거를 구할 책임이 있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까? 지식과 경험을 더욱 많이 쌓고,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입니다.(*주간 데저렛 뉴스*, 1871년 9월 27일, 5쪽)

배도를 하지 않는 한, 우리는 배우는 것을 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점

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주간 데져렛 뉴스*, 1856년 2월 27일, 2쪽)

만일 우리가 특권을 갖는다면,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찌우고, 하늘의 지혜에 담긴 빛나는 보물로 이 필멸의 육체를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밀레니얼 스타*, 1862년 10월, 630쪽)

우리가 교육적으로 추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봉사에 있습니다. . 이 모든 수고는 지상에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지식과 지혜, 신앙의 권세 및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이해를 키우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지체와 예지에 거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데져렛 뉴스: 주 2회 간행물*, 1870년 10월 25일자, 2쪽)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을 이겨내어 사물들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볼 때까지 지식과 이해를 얻는 것이 가능하며, 이렇게 된 후에 그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데져렛 뉴스*, 1855년 11월 28일자, 2쪽)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구한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어떠한 사람도 선행을 행하며, 인류의 영원한 이익을 촉진하며, 사람들을 불사 불멸에서 승영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그 어느 것도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영원에 있는 왕국에서의 승영과 영생을 위한 준비를 갖추기 위하여 지혜를 받는 것이 여러분과 내가 할 일입니다.(*주간 데져렛 뉴스*, 1853년 5월 14일자, 3쪽)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진리와 간결함 속에서 전해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듣자마자, 이것이 참된 것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여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이러한 과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은 혼자 애쓰다가 스스로 자신들은 지상의 어느 사람들 보다도 정직하다고 믿게 되지만, 그들은 정직한 것이 아니며, 자신들이 가장 관심이 있던 일 곧 진리를 아는 일에도 무관심하게 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30쪽)

여러분이 탐구하고 다시 탐구하여 지혜를 얻어 여러분이 가르치는 것을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사업이라면, 굳건히 설 것입니다.(사도행전 5:38~39 참조)(*브리감 영 설교집*, 435쪽)

자신들의 종교가 참된 것인지를 아는 것이 말일성도들의 책임이며 특권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29쪽)

이 사업이 참되다는 지식을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얻도록 합시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사업이 참되다는 것을 알기 전에 그렇게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안다면, 그 지식은 마치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여러분께 그렇게 말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지니는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29쪽)

진리를 스스로 아는 것은 모든 참된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특권이며 성스러운 복음의 축복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29쪽)

저는 사람들이 이 사업의 참됨에 대한 간증을 구하기 위해 저나 또는 총관리 역원들에

게 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그들에게 신성한 진리가 있는 경전을 보도록 하십시오. 그 곳에는 피곤한 여행자들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 주는 안내판처럼 분명하게 그 길이 그들에게 보여집니다. 그 곳에서 그들은 사도나 또는 이스라엘의 장로에게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가서, 필요한 정보를 구하라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정직하고 진실되게 이러한 과정을 걷는 그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진리를 구하는 정직한 사람에게서 멀어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의 계시를 통하여 사실성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주님의 계시에 열려 있을 때, 육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 어느 것보다도 계시를 더욱 빨리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ㅡ이는 속일 수가 있습니다.ㅡ하늘에서 주님께서 계시하여 주는 것으로 확실하고, 굳건하며 또한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29~430쪽)

우리에게 진리와 오류, 빛과 어두움,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분별하도록 해주며, 또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 주는 주 예수의 간증을 지녀야 합니다.… 실제로 사람을 교육시켜 그가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게 해주며, 그를 해의 영광에 준비시켜 주는 다른 방법이나 절차는 없습니다. 그는 내심 복음의 영에 대한 간증을 지녀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29쪽)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안에 예수에 대한 간증을 지녀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 있는 증인을 지녀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30쪽)

진리는 모든 정직한 사람들의 마음에 통하여, 이것이 얼마나 간결하게 들리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받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 생활에서 오래 전부터 친숙해 왔던 것처럼 들립니다. 그것은 많은 대다수 말일성도들의 간증으로 그들은 가르친 말은 복음을 처음으로 들었을 때,… 비록 복음이 그들에게 전혀 새로운 것이었지만, 마치 그들이 복음을 이미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고, 그들이 마치 태초부터 "몰몬"이었던 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32쪽)

성신은 우리에게 진리의 지식을 전해 줌

여기서 사람들이 일어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업이며, 요셉이 예언자였으며, 몰몬경이 참되며, 요셉 스미스가 받은 계시가 참되며, 또한 지금이 하나님께서 손을 펴사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집합시키실 때가 찬 말일의 경륜의 시대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것을 알았습니까? 사람들은 영의 나타내심을 통하여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알고 또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조직 특성상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것들을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의 많은 부분이 오직 성신의 권세와 간증을 통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고린도전서 2:9~14, 12:3 참조](브

리감 영 설교집, 430쪽)

성신 이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사업임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영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의 세상적인 지혜로 이것의 오류를 증명하거나 대적하여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지혜만으로 이것이 참됨을 자신들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이길 수 없다고 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그릇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지혜로 승인된 많은 이론과 체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이해를 밝혀 주는 전능하신 이의 권세 외에는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사람들의 마음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30~431쪽)

우리는 어떻게 선한 목자의 음성과 낯선 이의 음성을 구별해야 합니까? 누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답은 아주 쉽습니다. 제가 세상의 모든 철학자들에게 말씀드리건대, 여러분의 눈은 속을 수 있으며, 제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귀도 속을 수 있으며, 저의 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느끼는 감촉도 속을 수 있으며, 저의 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피조물을 계시와 영원의 빛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영은 잘못 판단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계시는 결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이 하늘의 진리를 말할 때, 양들은 이것을 들으며(교리와 성약 29:7 참조), 주님의 영이 이들의 가장 깊숙한 영혼으로 관통하여 영혼의 깊은 곳에 내려앉는 것입니다. 성신의 간증에 의해서만이 빛이 그들 안에 피어 오르며, 그들이 스스로 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31쪽)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증거와 관련하여 오직 하나의 증거, 즉 간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 가운데 확산시켰던 영입니다. 그분의 뜻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의 권능으로 말하였는지 아니면 그 자신의 권능으로 말하였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하신 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또는 아닌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요한복음 7:16~17 참조]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영의 계시를 통해서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31~432쪽)

부지런하고 기도를 하십시오. 혼자 힘으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분이 이 말일에 사업을 행하고 계시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 받은 종임을 아는 것은 여러분들의 특권입니다. 이 지식을 좇아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지식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뜨거워지십시오.(브리감 영 서신철, 245쪽)

저의 간증은 경험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얻은 경험과 관련된 저의 간증입니다.… 하늘의 진리는 모든 사람들의 판단과 그들의 신앙, 좀더 구체적으로 그들 자신과 하나님, 그리고 이웃에 정직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지각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조금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그 사람이 더욱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정직한 느낌으로 첫번째 원리와 두 번째 원리를 받을 수 있다면, 그는 아직도 더많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33쪽)

저의 간증은 확실합니다.… 저는 태양이 비취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제가 존재하며 실체를 지니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저는 하나님이 계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며, 그분이 세상의 구세주임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하늘과 그 반대되는 곳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요셉이 하나님의 예언자였으며, 그가 많은 계시를 받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이 간증을 잘못이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에 대해 논박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잘못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저는 스스로 보고 들어서 이러한 것들이 참됨을 알고 있으며, 지상의 어떤 사람도 이것들을 잘못이라고 증명할 수 없습니다. 눈, 귀, 손, 모든 감각이 현혹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영은 미혹될 수 없습니다. 영에 의해 영감을 받아 사람이 지식으로 충만할 때, 그는 영적인 눈으로 보고, 그것이 인간의 권세로는 반박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 지구에 대해, 정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저의 타고난 능력만을 통해서가 아닌,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며 따라서 저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33쪽)

진리의 증거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의를 구해야 함

하나님 아버지와 긴밀하게 되는 것은 구원의 교리에 있는 첫번째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경전은 그것은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요한복음 17:3 참조] 이는 어떤 사람도 이 점을 알지 못하고서는 영생을 누리거나 영생을 준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주간 데저렛 뉴스*, 1857년 2월 18일자, 4쪽)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 의를 먼저 구한다면, 모든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더하여지리라는 약속을 우리는 지니고 있습니다.[니파이삼서 13:33 참조]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먼저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를 찾아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오류에서, 어둠과 불신앙에서, 인간의 자녀들 가운데 속이기 위해 돌아다니는 헛되고 그릇 인도하는 영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방법을 찾고, 복음을 전하고 왕국을 건설하며 우리 하나님의 시온을 세우기 위해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구원하고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주간 데저렛 뉴스*, 1860년 1월 11일자, 1쪽)

저는… 영원한 원리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러한 원리를 아는 데 있으며 그것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영원한 진리를 먹고 있는 제 안에 있는 영원한 존재가 과연 없어지기 위해 조직되었습니까? 이것이 영원한 진리 위에서 살아 있으면, 이 유기체가 과연 끝이 나겠습니까? 아닙니다.… 노력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께 그분의 영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영원한 영적인 불꽃으로 거할 때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빛이 여러분 안에서 비취도록 하면 모든 것이 잘될 것입니다.(*주간 데저렛 뉴스*, 1860년 1월 11일자, 2쪽)

우리는 영생의 말씀을 지니고 있으며, 영광과 불사 불멸, 그리고 영생을 얻는 특권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은 이러한 축복을 얻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자리를 얻기 위해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겠습니까? 아니면 승영에 이르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지옥으로 내려가겠습니까?(*주간 데저렛 뉴스*, 1856년 10월 1일자, 3쪽)

어떠한 공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로움이 사랑스럽고, 청결하며, 거룩하고, 아름답고, 높이는 것이므로 의로워지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의로움은 사람을 빛과 영광, 그리고 예지로 가득채워 최대한의 능력을 갖는 정도까지 행복하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28쪽)

학습을 위한 제언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기를 바라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님

- 영 대관장에 따르면, 무엇이 "지상의 주민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옳은 것을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도록 하는가?
- 왜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증거를 얻은 후에도 의롭게 생활하는 데 실패하는가? 여러분이 발전시킨 간증에 따라 생활하는 데 여러분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모두 지식과 진리의 증거를 구할 책임이 있음

- 무엇이 우리의 교육적인 추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가? 세속적인 것을 사랑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어떻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은 우리가 진리와 오류를 구분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성신은 우리에게 진리의 지식을 전해 줌

- 복음은 참되고, 예수는 그리스도이며, 우리가 주님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통해 여러분이 허락만 한다면 성신은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렇게 할 것임을 알게 되었는가?
- 왜 세상적인 지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복음의 진리를 증명하거나 반박하지도 못하는가? 진리를 추구함에 있어 우리의 육체적인 감각은 미혹될 수는 있으나, "잘못 판단될 수 없"다고 영 대관장이 말한 것은 무엇인가?

- 어떻게 영 대관장은 그처럼 강한 간증을 지닐 수 있었는가?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간증을 강화시킬 수 있는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더욱 강한 증인이 되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진리의 증거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의를 구해야 함

-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에서 자리를 얻"을 수 있는가?

제 44 장

하나님의 왕국과 이스라엘의 집합

1847년 7월 26일, 첫번째 개척자들이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들어선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브리감 영 대관장과 몇몇 신권 지도자들은 훗날 솔트레이크시티가 된 지역의 북쪽 언덕에 올라갔다. 그들은 이사야의 예언, 곧 여호와께서 "기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 올 것"(이사야 5:26)이라는 예언을 기억하여 그 언덕을 엔사인 피크라 이름지었다. 영 대관장은 나중에 이 언덕을 자신이 시현을 통해 본 장소, 곧 성도들이 번영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고 말일의 이스라엘이 집할할 수 있는 장소로 확인하였다. 이후로 몇 년에 걸쳐 선교사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세계 곳곳에 전하였으며, 새로 개종한 성도들이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들어왔다. 오늘날에도 왕국의 건설과 이스라엘의 집합이 백여 개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이스라엘의 집합은 우리가 관여하고 있는 이 위대한 사업의 중대한 일부이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필요한 자원과 영향력을 이곳에서 활용하기를 항상 갈망하고 있습니다."(브리감 영 서신철)

브리감 영의 가르침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추구함

지상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과 더블어 제 앞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권세와 빛, 지식과 예지, 부의 원리들과 하늘과 땅의 원리들을 올바르게 나누는 능력을 신속하게 갖출수록 그러한 것은 이 백성들에게 그만큼 빨리 임하게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38쪽)

이 교회에서 다니엘이 본 왕국이 자라날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바, 계속 자라나고 퍼지며 번성하리라고 한 백성이 바로 이 백성입니다.[다니엘 2:44 참조] 만일 우리가 충실하지 않다면, 다른 백성이 우리의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이는 이 교회와 백성이 영원히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38쪽)

우리의 사업은 이 지상에서 그 완전함과 아름다움 속에서 시온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는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43쪽)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으며, 전파하고 또한 건설하려고 애쓰고 있는 왕국은 별이 빛나는 하늘이나 또는 태양에 있는 것이 아닌, 바로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우리는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리고 적절하게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 곧 그들의 느낌, 신앙, 감정, 소망, 생활의 모든 행동이 구현되는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며, 이는 사람이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하나님의 왕국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39쪽)

하나님의 왕국이 지상에 충만히 세워지고 설립되어 다른 모든 나라나 왕국들 보다 우위에 설 때, 하나님의 왕국은 그 백성을 보호하여 그들이 무엇을 믿든지, 무엇을 주장하든지, 또는 무엇을 예배하든지 간에 그들이 가진 권리를 누리도록 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40쪽)

저는 오래 전에 주님께서 시온이라는 배의 키를 잡고 계셔서 그 가야 할 방향을 인도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정확하게 이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행함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초기부터 경험을 통해 알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야 할 모든 방향에서, 우리는 진리에 따라 정확하게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를 알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비록 이 지상에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틀림없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온 힘을 다해 노력한다면, 그 행동이 인내와 끈기로 장식되어 최소한 단호하고 확고한 마음가짐을 증명하여 줄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모든 굳건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더라도, 주님께서는 그분의 손을 펼치사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41쪽)

이 백성이 받아들인 원리에 따라 생활한다면, 그들은 여러 나라에 권고를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의로운 기초 위에 짓고 있으며, 우리의 원리들이 진리와 의로움, 그리고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리가 어리석은 생각들을 눌러 없앨 때까지 그러한 것에 충실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 나라에 지혜의 선생이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41쪽)

복음 회복의 마지막 결과는 무엇이며 또한 말일성도의 운명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신권에 성도들이 충실하다면 복음은 인류가 사는 온 세상에 대변혁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 지구가 성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며, 성도들이 아버지와 아들의 면전에서 이 지구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38쪽)

하나님의 왕국의 사업은 이스라엘 지파의 집합을 포함하고 있음

우리는 마음속에 한 가지 목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상의 주민들 가운데

서 영향력을 얻는 것으로 이 일은 의로움, 권세 및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올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이름이 도처로 흘러 내려가도록 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이 영화롭게 되며,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그분의 자녀로서 지녀야 할 성품에 합당하게 행동하기 위해서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38~439쪽)

우리는 시온을 건설하고, 이스라엘 지파을 집합시키며, 지상의 나라들을 구속해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115:4~6 참조] 이 백성에게는 우리가 살아서 그것을 보거나 또는 보지 못하거나 관계없이 해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37쪽)

이스라엘 지파에게 복음을 가르쳐 이들이 복음을 지니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37쪽)

우리는 지금[1863년] 요셉과 그의 아들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에브라임의 가계를 이어온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집합시키고 있는데, 에브라임의 자손들은 지상의 온 나라들에 섞여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37쪽)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그들의 조상들을 통하여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창세기 22:17~18 참조] 그리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 또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제 마음에 느껴집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37쪽)

이스라엘은 지상의 온 나라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혈통이 다른 백성의 혈통과 함께 지상의 곳곳에 섞여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인류가 살고 있는 온 세상에 모반자의 후손들과 섞여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37쪽)

[태평양의] 섬 주민들과 [미대륙의] 원주민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출신들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조만간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그 뿌리와 가지 곧 조상과 후손이 모두 멸망될 것입니다.

복음의 영을 지니고 유지하며, 이스라엘을 집합시키고, 시온을 구속하며,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에 먼저 그것도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그것이 대관장단과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에,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의 모든 역원들의 마음에서 가장 으뜸되는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37쪽)

하나님의 왕국은 멸망될 수 없음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는 일을 시작하셨으며, 온 지옥과 그 악마들이 이것에 대적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옥이 그 입을 크게 벌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 악마들과 악한 사람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바로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멸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42쪽)

1892년의 솔트레이크 성전 사진.
이 성전은 초기 성도들의 신앙과 결심을 기리는 기념비다.

만일 이 도시나 다른 곳에 혹시 우리가 멸망될 것인지 또는 하나님의 종들의 예언에 따라 이 교회가 견디어 이 지상에서 강한 권세를 갖게 될 것인지를 두려운 마음으로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겁내고 있는 분들에게 그런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한 가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자신들에 관한 것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께 나누어 주신 진리를 떠나 어둠 속에서 방황하다가 세상의 경멸스러운 것들로 돌아가 다시 세상적인 것들을 좇아 죄의 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42쪽)

사악한 자들이 태양을 날려 더 이상 해가 비추지 않게 할 권세를 가질 때, 그들이 원소의 작용을 끝내고, 전 자연계를 정지시키며, 하나님의 방법과 목적을 그들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질 때, 그들은 "몰몬주의"가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저지하고 하늘의 변경될수 없는 목적을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121:33 참조] 사람들이 몰몬주의의 교리를 믿는 백성을 박해하고, 거짓을 보고하고 출판하여 백성들에게 환란을 야기하고, 땅과 지옥이 몰몬주의에 대적하여 크게 연합하여, 그 사악한 권세를 한껏 행사할 수도 있으나, 몰몬주의는 하늘 기둥과 같이 모든 환란의 와중에서도 굳세고 흔들림이 없이 서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언자를 박해하고 예언자를 믿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이 성도들을 내쫓고 죽일 수는 있지만, 이것들은 "몰몬주의"가 담고 있는 진리의 한 획에도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는 이 진리들은 원소들이 뜨거

운 열에 녹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며, 땅이 분해되는 때에도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이사야 34:4; 교리와 성약 88:95 참조](*브리감 영 설교집*, 442~443쪽)

어머니의 품에 안긴 갓난 아기에게서 우리는 성장한 사람, 사도, 성도를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세대의 왕국과 왕위와 권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리고 연약한 육신이 위대하고 강한 결실을 잉태하고 있을진대, 그 가치는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린 아기가 그러하다면, 우리는 이 태동하는 왕국에서 무엇이 자라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위대함과 선함, 힘과 권세, 지배와 영광에 속한 모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태동하는 왕국의 정당한 권리을 참으로 철통같이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그리고 항상 왕국의 이익을 지키며, 왕국의 율법과 신성한 제도를 지지해야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39쪽)

제 가슴에 위안을 받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들의 면전에서 추적당하고, 내쫓기고, 내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과 지옥의 권세가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멸하기 위해 애써 왔습니다. 사악한 자들은 과거에 그렇게 하는 데 성공을 하였습니다만, 이제 그들은 이 왕국을 멸할 수 없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42쪽)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실제 가치가 있는 모든 것입니다.(마태복음 6:33 참조) 그 밖의 모든 것은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 소유할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없다면, 그 밖의 모든 것은 태우기 위해 준비된 마른 나무 같아서, 모두 타버리고 또 그 재는 사방에서 부는 바람에 날릴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44쪽)

저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면 이 지상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왕국이 없다면 저는 온 세상의 부와 영광, 명성과 권세에 단 1원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그것은 풀 위의 이슬같이 사라지고 잊혀지며 또한 풀꽃같이 시들어 버려 아무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가장 힘센 군주와 굶주리는 가장 가난한 거지에게도 같이 찾아오며, 모두 다 육체로 있을 동안 행한 행위에 대해 대답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앉으신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요한계시록 20:12 참조](*브리감 영 설교집*, 444~445쪽)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면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지키거나 또는 물론 노력하다가 죽지는 않겠지만 죽기로 노력할 것입니다. 단언컨대 많은 사람들이 애써 노력하다가 죽지는 않는다는 사실에 위안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의 왕국을 지킬 것이며, 우리가 이를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적으로도 죽게 될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맛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활하도록 합시다.(*브리감 영 설교집*, 445쪽)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어떤 것을 바쳐야 한다면, 여러분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내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에 헌납하기 위해 여러분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입니다. 얼마나 주어야겠습니

까? 가진 재능 모두를 주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재능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은 은사입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을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헌납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온전히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45쪽)

학습을 위한 제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추구함

- 교회 회원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지상에 건설하려는 노력의 일부를 여러분이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는 어떤 책임들이 들어 있는가? 하나님의 왕국이 지상에 충만히 세워질 때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 우리의 행동이 "주님께서 명하신 것"과 정확하게 맞는지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 어떻게 교회 회원들이 개인 또는 집단으로 "여러 나라에 지혜의 선생이 될" 수 있는가?
- 우리가 충실하다면 "말일성도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왕국의 사업은 이스라엘 지파의 집합을 포함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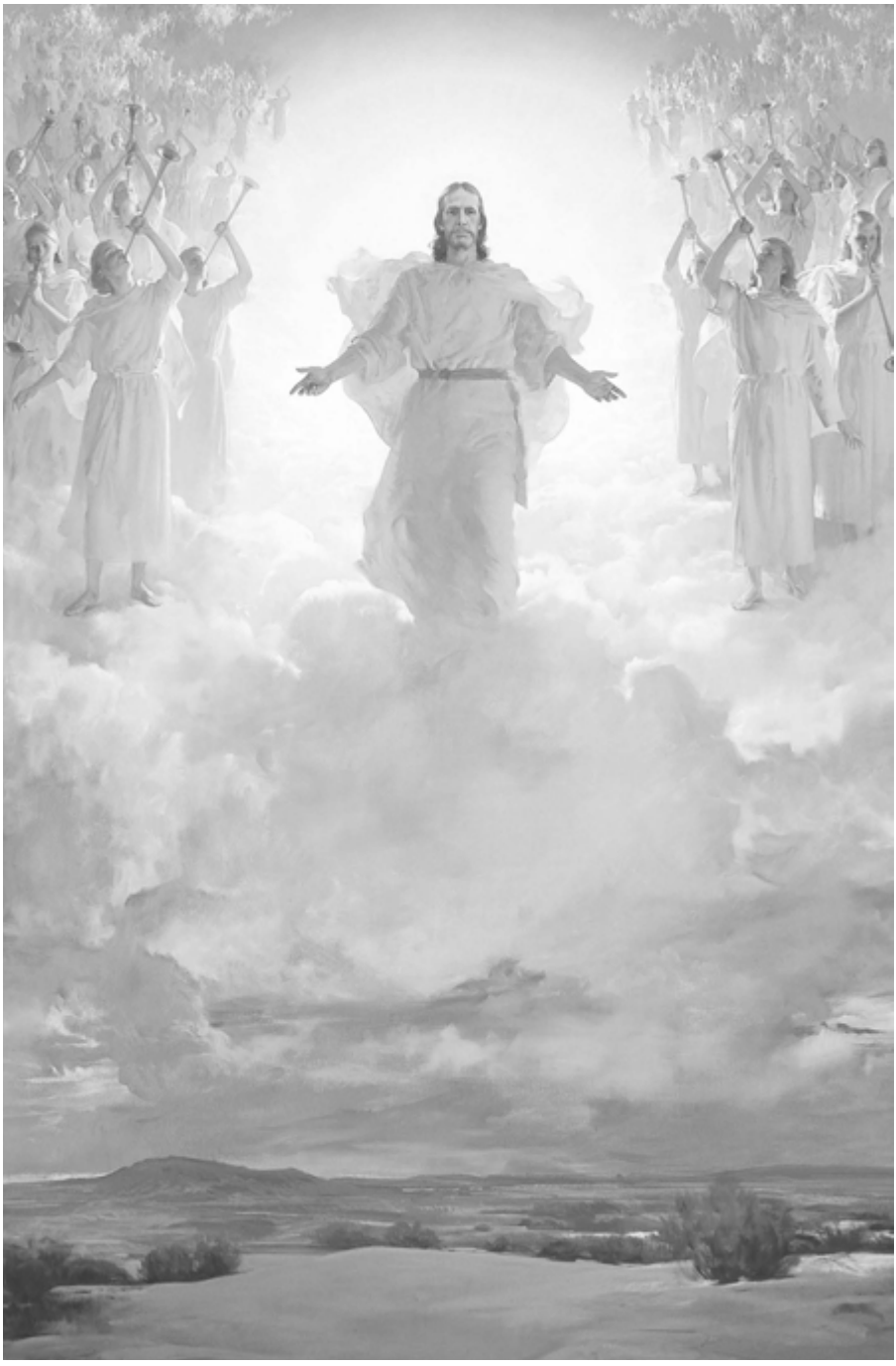
-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에 "합당하게 행동"할 수 있는가? 어떻게 여러분의 행동은 주님과 그분의 사업을 영예롭게 하고 경건하게 할 수 있는가?
- 누가 이스라엘 지파에 속하게 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이스라엘 지파의 집합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왕국은 멸망될 수 없음

- 여러분은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멸망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어떤 증거를 보았는가? 우리는 그들의 사악한 노력에 대항하도록 우리의 가족들을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는가? 하나님의 왕국이 멸망될 수 없다는 지식이 어떻게 유혹에 대항하고 시련을 참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강화시켜 주는가?
- 영 대관장에 따르면,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가 자신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한 가지 두려움은 무엇인가? 이러한 두려움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복음을 연구하는 것은 여러분이 느낄 수도 있는 두려움을 없애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 영 대관장은 왜 하나님의 왕국은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여러분은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라는 말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어떤 재능이나 은사를 기꺼이 헌납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셔서 복천년의 시대를 여실 것이다.

제 45 장

말일

브리감 영이 사도에 성임되었을 때, 그에게는 "세상에 나아가, 주님께서 오시는 큰 날에 대비하여 택하신자들을 모으라"는 책임이 주어졌다.(교회 정사, 2:188)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행하면서, 그와 그의 동료 사도들은 선교와 출판, 그리고 미국에 있는 유넌기의 교회 본부로 개종자들의 이주 준비 프로그램 등을 시작하였다. 자신들의 활동을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보고서에서 영 장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복음이 퍼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악마가 울부짖고 있습니다. 저는 악마들이 가라지를 묶고 있으며, 밀이 모여지고, 나라가 두려워 떨며, 왕국이 쓰러지려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고 있습니다.'"(교회 정사, 4:114) 거의 40년을 교회 지도자로 생활하면서, 영 대관장은 성도들에게 주님의 구속 사업에 계속 참여할 것과 말일에 대해 예언된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가르쳤다.

브리감 영의 가르침

말일은 큰 혼란의 시기가 될 것임

이제까지 우리가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은 이제부터 말씀드릴 설교의 서문에 불과할 뿐입니다. 장도들의 간증의 전해짐이 끝나고 주님께서 이들에게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이제 내가 지상의 나라들에 나의 말을 전하리라"라고 말을 하실 때, 현재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불과 검, 폭풍, 지진, 우박, 비, 천둥과 번개, 그리고 두려운 멸망과 함께 전해질 말씀의 서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차 몇 대가 파괴되는 것을 이러한 멸망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현재 사람들이 우상처럼 우러러보고 있는 크고 화려한 도시들이 땅 속으로 가라앉고 그 주민들이 매장 당했다는 사실을 듣게 될 것입니다. 바다가 파도를 크게 하여 그 경계를 넘어 커다란 도시를 삼킬 것입니다. 기근이 여러 나라에 퍼져, 우리 나라와 외국에서도 나라가 나라를, 왕국이 왕국을, 또한 이 주가 저 주를 대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멸망시키고, 그들의 이웃들과 가족들의 피와 생명, 또한 그들 자신들의 생명을 돌보지 않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11~112쪽)

사도들의 시대 이후에 참된 교회가 없어진 이후로, 현재에 이 백성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신앙과 힘이 요구되고, 그리고 전능하신 이의 기술, 지혜와 권세가 그들과 함께 하기를 요구되는 시대가 오랫동안 없었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으며, 또한 교회가 멸망되고, 신권이 지상에서 거두어져 가며, 어두움의 권세와 땅과 지옥의 권세가 지상에서 하나님과 경건에 대해 현재처럼 그토록 악감정을 품고, 화를 내며 성을 돋군 적이 이 땅에 이제까지 없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12쪽)

하늘에서 모반이 일어났던 때에 그랬던 것처럼, 악마는 현재에도 예수님을 크게 대적하고 있습니다. 악마가 사람들을 사악하게 하여 그 수를 늘리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또한 사람들을 겸손하고 의롭게 하여 그 수를 늘리고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인류라는 가족은 투표소를 향하며 어떤 정당이 승리를 하게 될 것인가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처럼 이제 곧 그리스도와 악마 가운데 선택을 하게 될 것이며 누가 승리를 할 것인지를 알고 싶어하고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12쪽)

의로움이 세상의 종말에 승리하게 될 것임

만인이 무릎을 꿇으며 주님께 고백하며, 그분을 인정할 날이 그리고 이 지상에 살면서 절대자의 존재와 그로부터 온 계시를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에 넘어지며, 스스로를 겸손케 하며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당신을 거부했으며, 당신의 말씀을 믿지 않았으며, 당신의 권고를 소홀히 했으나 이제 우리는 부끄러움 속에 당신께 머리 숙이고, 하나님이 계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나이다."라고 외칠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단언하건대 이런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복음을 믿는 신앙을 지니고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12~113쪽)

그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시온의 지혜를 듣게 될 것이며 왕들과 나라의 통치자들이 시온으로 올라와 주님의 길을 물으며 가장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위대한 지식과 지혜 그리고 이해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13쪽)

그들은 무릎을 꿇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의 죄의 고통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세상의 구속주이심을 고백하며 또한 그분의 피흘림을 통하여 그분께서 남자와 여자, 어린이, 짐승, 새, 물고기, 그리고 이 지구 자체와 요한이 보고 들은 대로[요한계시록 5:13 참조] 하늘에서 찬양하고 있는 만물을 구속하셨음을 고백해야만 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13쪽)

조만간 세상은 예언자의 말씀에 따라 뒤덮일 것이며, 우리는 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을 볼 것이며, 또한 죄와 가증함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의 권세와 원리는, 그것들을 원리라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구세주의 의로운 행진 앞에 조금도 양보하지 않겠으나 그들은 조금씩 뒤로 밀려나게 될 뿐이며, 우리는 그들을 힘으로 몰아내어 그들의 영역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정신적인 힘과 선행을 통하여, 이 지상의 나라들이 예수가 성도들의 왕인 것처럼 나라들을 다스릴 왕이 되실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느낄 때까지 복음의 행진이 커지고, 퍼지며, 자라나고, 번성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13쪽)

여러분께서는 지금 사탄이 이 지상을 다스리는 기간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

까? 예수께서 통치하시기 위해 오시고 계시니, 여러분의 적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여러분 모두는 그들을 두려워하기를 그치고, 하나님께 무례를 범하지 않을까, 그분의 율법을 범하지 않을까, 여러분의 이웃 또는 세상의 어떤 존재에게 악행이나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배우고, 사탄과 그의 권세 또는 사람을 해칠 권세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14쪽)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흐르면서, 우리는 예언이 성취되고 우리 주 구세주께서 지상에 거하시는 재림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의 피난처가 소탕되며, 또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며 의와 종교의 원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도시와 나라, 또는 정부가 완전히 없어지고 멸망될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14쪽)

복천년은 단합과 평화 그리고 성전 봉사의 시간이 될 것임

복천년은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는 상태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왕국이 커져 하늘의 경륜에 반대하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사탄이 결박되어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풀려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밖의 다른 것들은 현재의 그대로여서 우리는 먹고, 마시며 옷을 입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15쪽)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도록 합시다. 그러면 그들의 발 아래 있는 땅도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 가득할 것이며 또한 모든 동물과 땅에 기는 것들에 평화가 가득할 것입니다. 지구의 토양에 힘이 있을 것이며, 땅에서 나는 열매가 사람에게 좋은 음식이 될 것입니다. 청결하게 존재할수록, 기근이 적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동물들에게 친절할수록 평화가 더욱 증대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맹수들의 잔혹한 성질이 사라질 것입니다. 만일 백성들이 살고 있는 동안 한 순간도 악마를 섬기지 않는다면, 만일 이 회중이 이러한 영과 결심을 지니고 있다면, 복천년은 여기 이 회당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도시의 주민들이 이러한 영을 지니도록 하고, 이 준주의 경계 내의 백성들이 이 영을 지니도록 한다면, 복천년은 여기 존재하는 것입니다. 전체 백성들이… 이 영을 지니도록 한다면 복천년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며 그것이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갈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15~116쪽)

복천년에, 이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권세와 영광, 그리고 완전함 속에 세워지고 또한 그토록 오랫동안 퍼져 있던 사악함의 통치가 정복될 때,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들의 성전을 건립하고,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의 성전을 받치는 기둥이 되는[요한계시록 3:12 참조] 특권을 지니게 될 것이며, 그들은 죽은 자들을 위한 의식을 집행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들은 우리의 친구들이 나아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아마도 그 중 일부는 우리가 이곳에서 얼굴을 익힌 적이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계시를 통하여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이브에 이르는 우리의 조상들을 명확히 알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그들을 위해 의식을 집행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세대를 잇는 연결 고리가 완벽하게 아담까지 이어질 때까지 [자녀들이 부모에게] 인봉되어, 신권의 연결 고리가 아담에서부터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는 종말의 순간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복천년에 말일성도들이 해야 할 사업이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16쪽)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비하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함

주님께서 그분의 사업을 속히 행하실 것이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걱정을 한 가지 일에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우리의 감정을 청결하게 하며, 우리에게 속히 다가오고 있는 일들에 대해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것이 우리의 연구 대상이 되게 하고,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악한 자들의 넘어짐을 보고자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17쪽)

세상이 일년 안에 타버리든, 아니면 천년 안에 타버리든 이것은 저나 여러분에게 조금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말씀을 지니고 있으며, 영광과 불사 불멸, 그리고 영원한 삶을 얻을 특권을 지니고 있으니, 이제 여러분은 이러한 축복들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브리감 영 설교집*, 117쪽)

우리에게는 세워야 할 하나님의 왕국, 구속해야 할 시온이 있습니다. 장자의 교회와 함께 들리워지도록 준비되기 위해 우리는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하며, 우리가 매일 매시 발전한다면, 그러고 나서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는 의로운 상태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산다면, 우리는 참으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계시될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받는 데 실패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44쪽)

주님의 시간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친절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인내하셔서, 진노를 조용히 참고 계시며 자비가 완전히 고갈될 때까지 진노를 참으실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심판이 그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모르고 있지만, 지금 그것을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종교에 따라 생활해야 할 것인가를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이렇게 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17~118쪽)

학습을 위한 제언

말일은 큰 혼란의 시기가 될 것임

- 영 대관장에 따르면, 말일에 어떤 시련이 닥칠 것인가? 왜 이러한 심판이 지상에 내리는가?
- 영 대관장은 교회에 대한 박해가 그치는 유일한 원인은 무엇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는가?

- 어떻게 하늘에서의 전쟁이 오늘날 지상에서도 행해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와 여자”들에게는 이 말일에 어떤 것들이 요구되는가?

의로움이 세상의 종말에 승리하게 될 것임

- 지상의 사악한 사람들이 “시온의 지혜를 듣게 될”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 “사탄이 이 지상을 다스리는 기간이 끝나가고” 있는 이 때에 우리는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배워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의로움 속에서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를 지킬 수 있는가?
- 영 대관장은 사악한 사람들이 “신앙의 정신적인 힘과 선행을 통하여”, “뒤로 밀려나”며 “복음의 행진이 커”질 것이라고 말하였다. 신앙이 어떻게 “정신적인 힘”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선행이 사악함을 이겨내는가? 우리는 어떻게 “복음의 행진이 커지고, 퍼지며, 자라나고, 번성”하도록 도울 수 있는가?

복천년은 단합과 평화 그리고 성전 봉사의 시간이 될 것임

- 영 대관장에 따르면, 복천년이란 무엇인가?(교리와 성약 43:30~31; 88:110 참조)
- 지구와 그 위의 주민들이 어떻게 평화스럽고 거룩하게 될 것인가?
- 복천년 동안 말일성도들이 해야 할 사업은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비하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함

- 영 대관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비하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했다. 우리는 어떻게 성결하게 되는가?(힐라맨서 3:35; 교리와 성약 20:31 참조)
- 우리는 왜 재림의 정확한 시기에 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가?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브리감 영의 집인 비하이브 하우스.
영 대관장은 이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매일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했다.

제 46 장

부모의 책임

브리감 영 대관장은 어린이들을 사랑했으며, 그는 어린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하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 그가 성도들에게 말씀한 대부분의 설교 중에는 그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보살펴 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권고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그 한 가지 예로, 브리감 영 대관장에게는 작은 아들이 있었다. 그 아이는 자기 앞에 빵과 우유 그릇과 숟가락이 놓여지면 그때마다 그것들을 방 바닥에 톡톡 두드리는 버릇이 있었다. 이를 본 아이의 어머니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래서 영 대관장은 이렇게 조언을 해주었다. "다음에 그 애가 그것을 가져가 방바닥에 두드리면 당신 손으로 밀어 애를 의자에 기대앉게 하고 당신은 아무 말 말고 볼일을 보러 가십시오." 그의 처는 그렇게 해보았다. 그러자 아이는 의자 옆에 서서 그의 엄마를 쳐다보았고, 다음에는 자신이 방바닥을 두드린 숟가락과 그릇을 바라보았다. 결국은 숟가락과 그릇이 있는 곳으로 기어가 그것들을 가져다가 식탁에 도로 얹어 놓았다. 그 후로는 식탁에 있는 그릇을 가져다가 두드리는 일이 없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자기 부인의 행동에 관해 이렇게 말씀했다. "수많은 위대한 자들이 그렇듯이 저의 처도 매질을 해서 상처가 나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들이 자신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안다면, 폭력을 쓰지 않고도 아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브리감 영 서신, 115쪽) 브리감 영 대관장이 자신이 가르친 원리대로 살았다는 것은 그의 딸 수사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도 입증된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 분은 이상적인 아버지였어요. 정말 결점이라 할 정도로 너무 친절하고 부드러우셨어요. 또 사려 깊고 공평하고 확고하셨어요.… 우리 가족 중에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모두가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브리감 영의 생애 이야기[영문], *356쪽*)

브리감 영의 가르침

부모는 하나님 자녀들의 보호자이며 자녀들을 보살피고 교육하고 훈련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보호자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킬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녀들을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길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판 받을 때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서신*, 114쪽)

부모는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에 관해 주님 앞에 책임을 집니다. 경전은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시편 127:3~5]"(*주간 데저렛 뉴스*, 1864년 12월 7일, 2쪽)

부모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존중하기를 힘쓰십시오. 교양과 훈계로 그들을 양육하십시오. 자녀들을 그릇되게 인도하지 말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가르치십시오.[신명기 6:5 참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관해 가르치십시오.(*데저렛 뉴스: 주 2회 간행물*, 1877년 8월 8일, 1쪽)

어머니들은 나라의 운명을 선도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움직이는 도구입니다. 어느 나라에 속하든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그들이 성장한 후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원수들이 걸어 온 전쟁에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이같이 가르친다면, 자녀들의 마음은 그러한 정신으로 투철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 주고 싶은 것은, 어머니들이 모든 인간들에게 열의를 불어넣어 주어, 지상에 있는 인간들의 삶과 운명을 선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곧 아시게 될 겁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99~200쪽)

우리는 가냘픈 싹들을 바로잡아 주어 그 가지들을 쳐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슬기롭게 기술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싹들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뻗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건전한 환경 속에 두어 그들에게 적절한 가르침을 주고 그들의 마음 속에 예로부터 전해지는 참된 원리들을 심어 준다면, 우리는 자녀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09쪽)

부모는 사랑과 친절로 자녀들을 양육하여야 함

부모되시는 분들은 자녀들이 대접 받고 싶어하는 대로 자녀들을 대접하십시오.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합당한 모범을 보여 주십시오.(*주간 데저렛 뉴스*, 1864년 12월 7일, 2쪽)

주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십시오. 그들의 기질과 성품을 연구하여 그에 따라 자녀들을 다루십시오. 격렬한 감정에 사로잡혀 자녀를 바로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여러분을 무서워하기보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207쪽)

우리가 매일의 생을 추구함에 있어, 우리 개개인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성품을 지녔든, 말일 성도라면 집에 있을 때나 집 밖에 있을 때나 한결같은 마음을 지녀야 하고 감정을 누그러뜨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심술부리고 조급해 하며 까다롭게 하거나, 처와 자녀들에게 쓰리고 가슴 아픈 말을 하거나, 가정에 암울하고 서글픈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가족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거나 하는 등, 이같은

일들로 말일성도 가족들이 가정 불화나 그 밖의 불쾌한 상황을 겪어서는 안됩니다. 분노가 우리의 마음속에 일게 해서는 안되고, 화난 감정이 섞인 말이 입 밖에 튀어나오게 해서도 안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합니다.[잠언 15:1 참조] 분노는 잔인하고 흉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입니다.[잠언 19:11 참조](*브리감 영 설교집*, 203~204쪽)

세상사를 겪으면서 저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몹시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자녀를 다스릴 수 없는 사람보다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를 다스리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야 그 어머니는 자녀를 자신의 뜻대로 완전히 따르게 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없다면, 어떻게 자녀들이 — 비록 그들이 이해력에 있어서는 아직 유아이지만 — 몸만 큰 아이가 되기 보다는 현명하고 분별력 있는 훌륭한 아이가 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데저렛 뉴스: 주 2회 간행물*, 1870년 7월 12일, 2쪽)

부모는 자녀를 강제로 몰고 가서는 안됩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지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됨에 따라 그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선도하여야 합니다. 징계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로 다스리기보다는 신앙으로 다스려야 하고, 훌륭한 모범을 보이면서 온갖 진리와 거룩한 길에 들어서도록 그들을 선도하여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121:43 참조](*브리감 영 설교집*, 208쪽)

만일 우리의 자녀가 아직 사리를 판단할 수 없는 아이라면, 자식들이 부모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했다고 해서 그들을 징계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사리를 분간할 줄 알고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나이가 되었을 때에는 그들이 반항할 경우, 그들은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 자식들이 징계 받아야 함은 전적으로 옳은 일입니다.(*데저렛 뉴스: 주 2회 간행물*, 1873년 7월 8일, 1쪽)

제가 여기서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려는 것은 자녀들의 아직 교육되지 않은 천성을 순종시키는 데는 자녀들에게 매질을, 즉 신체적인 벌을 가하는 것보다는 그들에게 친절한 말을 하고, 사랑스런 행동을 보이는 것이 훨씬 더 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리고 잠언 13장 24절에는 "초달[채찍]을 차마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라고 씌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들 성구들은 자녀를 지혜롭고 분별심 있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애정과 친절의 빛 속에서 자란 자녀를 징계함에 있어서는 그들로 하여금 부모의 불쾌한 심사를 의식케 하여 부모로부터 부드러운 꾸지람을 듣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신체적인 벌을 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주간 데저렛 뉴스*, 1864년 12월 7일, 2쪽)

저는 이 회중 가운데서 부모가 매를 사용하여 자녀들을 부모로부터 멀어지게 한 수많은 사람들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엄격함이 있는 가정에는 부모와 자식 쌍방 간에 애정도 효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와 같이 있기보다 부모로부터 떨어져 있기를 좋

아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03쪽)

우리는 매를 사용해서는 순종하는 자녀를 만들 수 없습니다. 신앙과 기도와 모범을 보임으로써 순종하는 자녀를 만들 수 있습니다.(*주간 데저렛 뉴스*, 1865년 8월 9일, 3쪽)

남편이나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야만적인 폭력을 쓰는 존재로 비쳐지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탁월한 예지를 가진 사람으로 비쳐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가장의 지위에 두신 이상, 여러분은 온갖 겸손과 인내로써 가장의 역할을 다하십시오. 포악한 지배자로서가 아니라 성실한 동반자로서, 관대하고 애정 깊은 아버지로서, 오만하지 않고 사려 깊은 상사로서 가장의 역할을 다하십시오. 성실과 근면으로써 여러분의 가장으로서의 지위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의 책임 하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방향으로 여러분 자신의 직분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주간 데저렛 뉴스*, 1862년 7월 23일, 2쪽)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선한 영을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계속적으로 선한 영을 유지하고 있다면, 자녀가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자녀들을 의로움 안에서 다스리되,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의 정신으로써 다스리십시오. 이같이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따를 것입니다.(*데저렛 뉴스: 주 2회 간행물*, 1868년 4월 7일, 3쪽)

자녀들에 대한 다정한 표정, 친절한 말씨와 행동, 사랑스러우면서도 성스러운 태도는 자녀들을 우리에게 쉽게 끊을 수 없는 유대로 묶어 줍니다. 반면에, 자녀들에 대한 학대와 불친절은 자녀들을 우리에게서 멀리하게 하여, 영원한 성약 안에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묶어 주는 온갖 성스런 유대를 산산 조각 나게 합니다. 만약 저의 가족들과 저의 형제 자매들이 모든 사람과 모든 하늘들 앞에서 친절 등의 칭찬할 만한 행동을 바탕으로 저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때에는 온갖 선한 세력들이 그들에게서 물러날 것입니다.(*주간 데저렛 뉴스*, 1864년 12월 7일, 2쪽)

우리 종교[교회]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생활합시다. 그리하면 우리는 평화와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유쾌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유쾌한 자녀를, 유쾌한 가족을, 유쾌한 이웃을, 유쾌한 지역 사회를, 그리고 유쾌한 도시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은 목표로서 영위한 가치가 있는 생활입니다. 참으로 말일성도들은 이런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04쪽)

부모는 의로운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녀들을 친절하고 견고하게 이끌어야 함

여러분은 언제나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애정을 보이는 가운데 그들을 선도하여야 합니다. 매를 들어 뒤에서 몰려고 하지 말고 언제나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십시오. 이같이 하면 여러분은 "따르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매를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자녀들은 여러분이 언제나 자기들을 위로해 주고 자기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을 기꺼이 따를 것이고 여러분의 말씨와 다스리는 태도를 좋아할 것입니다. 만일 자녀들이 다소 못된 짓을 하면, 지나치다고 생각될 때 그들을 중지시키십시오.… 그들이 어떤 한계를 넘어 범법할 때에는 우리는 그들이 중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만일 여러분이 앞에서 자녀들을 선도하고 있다면, 그들은[그들의 범법을] 중지할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뒤에서 매를 들고 그들을 몰고 있다면, 그들은 여러분에게서 도망칠 것입니다.(*데져렛 뉴스: 주 2회 간행물*, 1868년 12월 8일, 2~3쪽)

어린이는 그 어머니의 미소짓는 얼굴을 사랑하고, 반면에 찡그린 얼굴을 싫어합니다. 저는 어머니들에게 권고드립니다. 자녀들이 악한 일에 빠지는 것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러나 부드러움으로 그들을 대하십시오. 만일 어떤 어린이가 올바른 길로 들어서야 하는데 그가 그렇게 하기를 꺼려하는 것 같다면, 그를 부드러운 태도로 올바른 길에 들여 놓고, "아가야, 내가 말하는 대로 해야 해." 하고 타일러 주십시오. 어린이들은 지도가 필요합니다. 친절하고 애정 깊은 태도로 그들에게 옳은 것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09쪽)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할 때 우리가 보고 용인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우리는 어린이가 따라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을 모범으로 그들에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부모들 자신은 비참함과 질책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자녀들에게 순종하라, 좋은 행실을 보이라, 친절한 말을 쓰라, 유쾌한 표정을 지으라, 고운 음성으로 말하라, 밝은 면을 바라보아라 등, 이같은 일을 요구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모순되고 불합리한 일입니까?(*브리감 영 설교집*, 208쪽)

자녀들은 영원한 유대로써 부모에게 결속될 수 있음

말일성도 교회 회원이신 부모님들은 의로운 길을 선택하십시오. 평생 그릇된 일을 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할 것을 온 마음을 다해 노력하십시오. 자녀가 한 명이든 백 명이든, 만일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대로 처신을 잘할 뿐만 아니라 신앙과 기도로써 자녀들을 주님께 결속시킨다면, 그 자녀들은, 그들이 어디로 가든, 반드시 그들의 부모에게 영원한 유대로써 결속될 것이고, 지상의 어떠한 권세와 지옥도 그들을 부모로부터 영구히 갈라놓지 못할 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생겨난 근원으로 되돌아 올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08쪽)

학습을 위한 제언

부모는 하나님 자녀들의 보호자이며 자녀들을 보살피고 교육하고 훈련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

- 브리감 영 대관장의 말씀에 따르면, 부모는 왜 자녀들의 보호자가 되는가? 이러한 견해는 자녀들의 양육에 대한 여러분의 사고 방식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 자녀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와 같은 지도를 하기 위해 부모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은 무엇인가?
- 브리감 영 대관장은 충실한 부모의 축복은 무엇이라고 말씀했는가? 이 축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부모는 사랑과 친절로 자녀들을 양육하여야 함

- 부모는 어떻게 자녀들이 부모를 무서워하지 않고 부모를 사랑하도록 교육시킬 수 있는가? 이것은 왜 중요한 일인가?
- 어떤 부모들은 왜 자신들의 자녀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싶어하는가? 부모가 자녀들을 의롭게 다스릴 수 있기 전에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분노에 사로잡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을 성공적으로 억제할 수 있었는가?
- 말을 듣지 않는 아이를 징계하는 것과 그런 아이를 말로, 혹은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징계하는 것은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적절한가? 자녀를 징계함에 있어 신체적인 벌보다는 친절이 더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 브리감 영 대관장이 "부모님의 애정과 친절의 빛 속에서 자란 자녀를 징계함에 있어서는 그들로… 부모로부터 부드러운 꾸지람을 듣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신체적인 벌을 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말씀했을 때, 여러분은 그가 무엇을 의미했다고 생각하는가?
- 자녀들을 그들의 부모에게 결속시켜 주는 것은 어떠한 행동인가? 어떠한 행동이 자녀들을 그들의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가?

부모는 의로운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녀들을 친절하고 확고한 태도로 이끌어야 함

- 자녀들은 언제 지시를 필요로 하는가? 자녀들에게 "한계"를 정해 주는 것이 왜 중요한가?
- 영 대관장에 다르면, 자녀들에게 지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부모들은 자녀들을 내몰지 않고 이끌고 가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자녀들은 영원한 유대로써 부모에게 결속될 수 있음

- 여러분은 어떻게 자녀들과 영원한 결속을 맺을 수 있는가?

제 47 장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대한 브리감 영 대관장의 증언

요셉 스미스의 사업과 사명에 관해 성도들에게 들려준 여러 차례의 설교 중에서 브리감 영 대관장은 한번은 이렇게 증거하였다.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 성임하셨고, 지상에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여 유지시킬 열쇠와 권능을 주셨던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제가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언제나 할렐루야를 외치고 싶은 심정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56쪽) 자신의 생애 동안 교회 지도자로 있으면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대해 품고 있었던 사랑과 존경심을 영 대관장은 이렇게 표현했다. "참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요셉은 비록 약점이 있기는 하지만—이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이 없겠지만—그러나 그는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존재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참된 예언자로서의 자질과 요건을 다 갖춘 인물이었다고 제가 늘 생각해 왔다는 것입니다."(브리감 영이 데이빗 피 스미스에게 전한 서신, 1853년 6월 1일, 브리감 영 기록: 1832~1878) 브리감 영 대관장이 일생 동안 선견자 요셉과 그의 사업에 대해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었는가는 그의 임종시 자신에게 나타난 요셉을 알아보고, 그가 먼저 "요셉, 요셉, 요셉" 하고 불렀던 그의 최후의 심경 표현에서 확인되고 있다.(브리감 영의 생애 이야기, *362쪽)*

브리감 영의 가르침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이 경륜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를 마련함

이 땅의 기초가 놓이기 오래 전에, 이 세상의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려 주고 하나님 아들의 충만한 신권의 권세와 열쇠를 받을 자는 요셉 스미스라고 선포되었습니다. 당시 주님께서는 요셉과 그의 아버지와 그의 조부를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까지의 그들의 조상을 살펴보시고, 이어 아브라함부터 노아의 홍수 때까지, 노아의 홍수 때부터 에녹의 시대까지, 에녹의 시대부터 아담의 시대까지의 그들의 조상을 살펴보셨습니다. 아담부터 요셉 스미스 출생까지의 가계와 혈통을 쭉 살펴보셨습니다. 결국 요셉 스미스는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를 이끌어 갈 자로 전세에서 예임되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08쪽)

요셉이 겨우 소년이었을 때, 주님은 그분의 말일의 왕국의 기초를 마련토록 하기 위하여 그분의 종 요셉 스미스 이세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일을 시키기 위해 왜 요셉 스미스를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요셉 스미스 한 사람밖에 없었을까요? 이 사업은 주님의 지도 하에 이루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없이 요셉 외에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이유는 그것뿐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60쪽)

장로들이 해외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그들이 자주 듣게 되는 비난의 소리는 우리 교회의 창시자가 일개 무식하고 가난한 소년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논할 문제가 아니었는데도 이 세상의 지혜롭고 학식 있는 자들은 구원의 교리를 반박하기 위해 곧 잘 그런 말을 강력한 무기의 하나로 꺼내곤 하였습니다. 주님은 무식하고 가난한 소년에게 나타나실 게 아니라 당시의 학식 있는 성직자나 재능 있는 인사에게 나타나셨어야 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선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학식과 영향력으로 복음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기도 합니다. 이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고린도전서 1:26~29 참조](*브리감 영 설교집*, 321~32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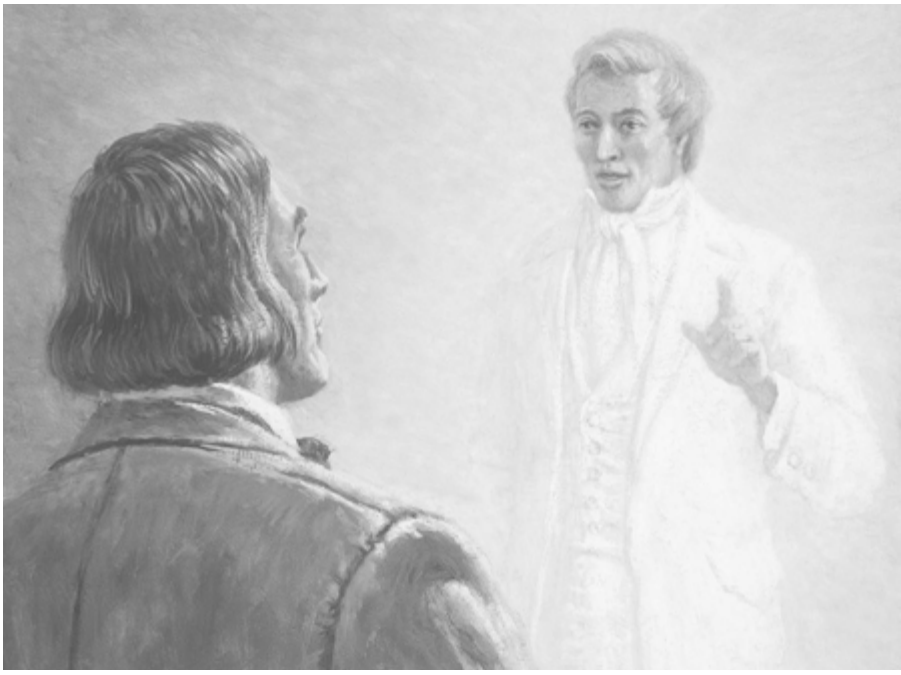
그 당시(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저는, 만일 내가 옛날에 이 땅에서 살았던 예언자와 같은 그런 예언자의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즉 계시를 받고, 그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격을 알고 있는 그런 예언자의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저는 손과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이 세상 여기저기를 자유롭게 돌아다녀서 그런 사람을 찾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며, 어디에 계시며, 인격을 가지신 분인지, 영원이란 무엇인지 등을 아는 사람을 만날 수만 있다면, 저는 제가 감당 못할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주간 데져렛 뉴스*, 1856년 10월 8일, 3쪽)

요셉의 사명의 성격과 아름다운 점은 무엇입니까?… 그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 그는 하늘과 땅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을 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58쪽)

요셉 스미스는 이 말일에 하나님 왕국의 기초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위에 구조물을 쌓아 올릴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58쪽)

저는 요셉 스미스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인격과 개성과 처소에 관해, 천사에 관해 또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해 무엇이든지 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알아내기 위하여 누구 못지 않게 열심히 노력을 했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58쪽)

비유로 말하자면, 요셉은 하늘을 들어 땅에 내려놓고, 땅을 들어 하늘에 올려놓으면서



이 그림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사망 후
브리감 영 대관장에게 시현으로 나타났음을 보여 준다.

하나님에 관한 기사를 분명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그의 사업의 아름다운 점입니다. 하지만 저는 요셉이 주님의 예언자라는 간증을 그 보다 훨씬 오래 전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 간증은 저에게 큰 위안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기로도 요셉이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까? 요셉이 경전을 가지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곤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요셉은 그 점이 참 훌륭했어요. 그의 말씀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하나로 만드는 것이었지요." 시간에 관해서는 영원히 사는 방법을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58~459쪽)

저는 요셉 스미스의 이름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의 이름을 들으면 제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저는 그의 이름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도 매우 좋아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58쪽)

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요셉 스미스를 통해 받은 것입니다. 요셉은 제가 구원의 지식을 얻는 데 사용된 도구였습니다. 만일 제가 요셉이 예언자임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의 원리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시대 이후로 구원의 원리는 다른 누구에 의해서도 알려졌거나 선포된 적이 없었고 설명된 적도 없었습니다. 만일 제가 몰몬경을 믿지 않는다면, 요셉이 예언자라는 사실도 부인해야 합니다. 만일 제가 교리와 성약을 믿지 않는다면, 따라서 이스라엘 집합과 시온의 건설에 관해 전파하기를 그만둔다면, 저는 성경도 믿

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세 가지 경전 없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느니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58쪽)

신약 성서와 몰몬경 그리고 말일성도가 쓴 교리와 성약에 각기 기록되어 있는 생명의 길과 구원에 관한 것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 예수는 살아 계시고 그분의 복음은 참되다고 말하면서도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니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였다는 믿음은 강한 간증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간증은 참됩니다. 어떠한 사람도 이 책[성경책에 손을 얹으면서]은 참되고, 주님의 말씀이며,[생명의] 길이며, 길 안내판이며,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는 책이라고 말하면서도 몰몬경은 참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몰몬경을 읽을 수 있는, 또는 몰몬경이 읽혀지는 것을 들을 수 있는 특권과 몰몬경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특권이 있다면, 그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 두 가지 경전[성경과 몰몬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울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 성경은 참되고 몰몬경은 거짓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형제이든 자매이든 어떠한 말일성도도 몰몬경은 참되다고 말하면서도 성경은 참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하나가 참되면, 둘 다 참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가 거짓이면, 둘 다 거짓입니다. 예수가 살아 계시고 이 세상의 구세주이시라면,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예언자입니다. 그는 지금 그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습니다. 비록 그는 사람들에게서 죽임을 당하긴 했지만, 그는 지금도 살아 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천사들처럼 순결합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람도 예수는 살아 계시다고 말하면서도 예언자 요셉에 대한 저의 단언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요셉에 대한 저의 단언은 저의 간증입니다. 이 간증은 확고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59쪽)

주님은 주님의 종 요셉 스미스에게 계시를 통해 "진리에 진리"를 가르치셨음

요셉은 금판을 받은 날 이후는 물론, 그 이전에도 주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매일, 매 시간 지시를 받았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61쪽)

요셉은 계시에 계시를, 규례에 규례를, 진리에 진리를 계속 받았으며 마침내는 아담의 가족에 속하는 모든 사람의 구원에 필요한 온갖 것을 받았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61쪽)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해 침례를 받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61쪽)

우리는 지금까지 한 가지 사실에서 다른 사실로 차례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한 차원의 지식에서 다른 차원의 지식으로 바꿔 가며 말할 것입니다. 요셉이 처음 구모라 언덕에 있는 금판에 관한 지식을 받았을 때, 그는 아론 신권의 열쇠는 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금판이 거기에 있다는 것과 주님께서 금판에 관해 말씀하실 것이라는 지식만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미대륙 최초의 주민들이 한때 복음을 지니고 있었다는 지식을 받았습니다.

그때로부터 그는 계속 조금씩 조금씩 지식을 받아 오다가 마침내는 금판과 함께 우림과 둠밈을 받았고 금판을 번역하는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로 그가 사도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그러한 사실로 그가 왕국의 열쇠를 받았다거나 이스라엘 장로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성임 받기 전에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계시로 펜실베이니아로 가라는 지시를 주셨을 때,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몰몬경 번역을 마쳤습니다. 주님께서 다른 계시에서 요셉에게, 돌아와 뉴욕 주로 들어가서 노부 휘트머[휘트머는 당시 워터루 맞은편에 살고 있었음]를 만나고 거기에 머물라고 명하셨을 때,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요셉은 거기서 모임을 가졌고 그의 간증을 믿는 몇몇 사람을 모았습니다.[*교회 정사* 1:48~51 참조] 요셉은 아론 신권을 받았고, 그러고 나서 멜기세덱 신권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조직하였습니다.[교리와 성약 13; 20; 128:20 참조] 요셉은 처음에 침례를 배푸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후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그가 받을 것이 더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가 더 받아야 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는 멜기세덱 신권의 열쇠와 침례 후 확인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다른 사자들, 즉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보내 요셉에게 멜기세덱 신권을 주도록 하시지 않았다면, 요셉은 침례 요한과 같은 신분으로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후 우리는 다른 의식도 받았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61~462쪽)

이 때[1840년], 우리에게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계시가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 처음에는 침례 받은 자들의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지시는 없었습니다. 그후 그런 취지의 계시를 요셉이 추가로 받고 나서야 기록이 유지되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62~463쪽)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고 알기 쉽게 가르쳤음

요셉 스미스가 해야 할 일은 진리를, 주님께서 그에게 계시해 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사람들에게 구원 받는 방법을 알려 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 요셉에게 몰려가 그의 주위에 모여들었고 자신들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그를 따랐습니다. 요셉은 참된 구원의 원리와, 말일에 성도들을, 곧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모으는 원리를 전파하는 일만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모든 자들은 그의 말씀들이 참됨을 증거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63쪽)

요셉 스미스 형제의 인물의 탁월한 점은 천국에 관한 것들을 유한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전파할 때, 이를테면, 하나님에 관한 기사, 하나님의 뜻, 구원의 계획, 여호와의 목적, 우리와 여호와의 관계, 천국의 모든 존재 등을 사람들에게 알려 줄 때, 자신의 가르침을 각 사람의 이해력에 맞게 분명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성스러운 권위와 권세를 믿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하지 않고는 그 어떠한 사람도 요셉만큼 가르칠 수가 없었고,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에 관한 일들을 드러낼 수가 없었

던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63쪽)

하나님이 요셉 스미스에게 위임하여 그를 사람들에게 내보내시기 전에는, 회개와 죄 사함 받기 위한 침례, 그리고 침례 의식을 집행하는 권능에 관하여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시기 이전에 교회에 관한 모든 것을 탐구하였었습니다. 이 세상에 순수한 종교 같은 것이 있는지 알아내기 위하여 방방 곡곡을 돌아다녀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천국, 천사, 영생에 관한 것을 다소라도 나에게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믿고 있었지만, 그리스도 교회가 지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63쪽)

저는 성경과 그 밖의 관련한 모든 서적을 계속 연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없었다면, 하나님, 참된 종교,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구속에 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신세가 되었을 것이고, 무지한 상태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바로 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63쪽)

요셉 스미스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러 오는 신사들은 흔이 요셉에게 이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들은 당신이 말하는 것만을 행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이에 요셉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전혀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어떤 원리를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일에 그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주님께서 악인들로부터 그분의 백성을 끌어 모으시고 의를 행하여 주님의 사업을 단축시킬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계시해 주신 원리를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그러면 그들은 그 원리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다스려 갑니다."

신사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지금 이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위대한 비결입니다. 제가 그들을 다스리는 것으로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단지 제 자신을 다스려 바르게 처신하고, 이 사람들이 지켜야 할 원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뿐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70쪽)

저는 요셉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 나가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는 이렇게 말하곤 했었던 일을 자주 회상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아직 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의 말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도 주님으로부터 시현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신앙을 행사하고 자신의 종교대로 생활하며,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해야 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69쪽)

현재 저 자신과 형제 여러분은 아직도 선하지 못하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온전해지기까지는, 또 우리가 누려야 할 특권을 얻기까지는 아직 요원하기는 합니다만, 만약 예언자 요셉 스미스 이세 당시의 회원들이 요셉의 음성에, 오늘날 우리 회원들이 자신들

의 대관장의 음성에 기꺼히 순종하는 만큼 기꺼히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더라면, 요셉은 행복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살아가는 동안 고투하고 시달리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의 용기는 천사의 용기와 같았고, 그의 의지는 전능자의 의지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원수들에게 살해될 때까지 참으로 고군 분투한 사람이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64쪽)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자신의 간증을 피로써 인봉함

예로부터 많은 예언자들이 자신의 간증이 후에 효력을 발생토록 하기 위하여 그 간증을 자신의 피로써 인봉해 왔습니다.… 엣날에 그러했듯이 오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스미스가 자신의 간증을 자신의 피로써 인봉했을 때, 그의 간증은 그 순간부터 전세계에 효력을 발생한 것입니다. 그의 간증에 대해 적대적인 자들에게는 화가 미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67쪽)

요셉 스미스는 카테지에 갈 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갑니다. 나는 운명의 최후를 맞을 것입니다." (*브리감 영 설교집*, 467쪽)

요셉이 죽기 이전까지 그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해 주었던 분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요셉이 죽음의 일보 직전에 있었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가 미주리에서 투옥되었을 때에도 요셉이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그가 틀림없이 빠져 나올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40세까지 살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그 예언은 틀린 예언일 것을 바라며 그가 우리와 같이 영원히 있어 주기를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그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교회의 순교자로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후 저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의 예언은 들어맞았습니다. 이제 그의 간증은 완전히 효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피로써 그 간증을 인봉하였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69~470쪽)

요셉의 직분은 그에게서 아직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능자의 다른 운영 부서로 일하러 갔을 뿐입니다. 그는 아직도 사도요 예언자입니다. 사도와 예언자의 직분을 아직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보다 한 발자국 앞서 갔으며, 여러분과 내가 아직 얻지 못한 승리를 그는 쟁취하였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68쪽)

저는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주신 계시와 성신의 증거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면, 저는 이른바 "몰몬"이 아니었을 것이고, 오늘날 여기에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주간 데져렛 뉴스*, 1862년 10월 22일, 2쪽)

학습을 위한 제언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이 경륜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를 마련함

- 요셉 스미스를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의 최초 예언자로 준비시킴에 있어, 그의 조상들은 어떤 역할을 했었는가? 여러분의 조상들의 신앙은 여러분의 생애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여러분은 후손들에게 의로운 영향을 주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주님은 이 말일에 주님의 왕국의 기초를 마련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 소년을 부르셨는데, 여기서 어떤 유익을 찾을 수 있는가? 이 사실은 여러분의 생활에 주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음을 아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말일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를 마련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그 위에 구조물을 쌓아 올릴 것이라고 영 대관장은 말씀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란 무엇인가?(교리와 성약 5:9~10; 135:3 참조) 기초 위에 쌓는 구조물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은 현재 교회의 기초 위에 구조물이 쌓아지고 있는 어떤 증거를 보고 있는가? 우리는 모두 이 사업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 영 대관장은 "요셉의 사명의 성격과 아름다운 점"은 무엇이라고 설명하였는가? 우리는 어린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치는 방법을 어떻게 따를 수 있는가?
-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가? 이 가르침은 현세의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주님은 주님의 종 요셉 스미스에게 계시를 통해 "진리에 진리"를 가르치셨음

- 여러분은 주님이 진리를 계시하실 때, 왜 한번에 다 주시지 않고, 단계적으로 조금씩 "계시에 계시를" 주신다고 생각하는가?(교리와 성약 93:11~14 참조)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생애 동안 이 계시의 방법은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여러분의 생활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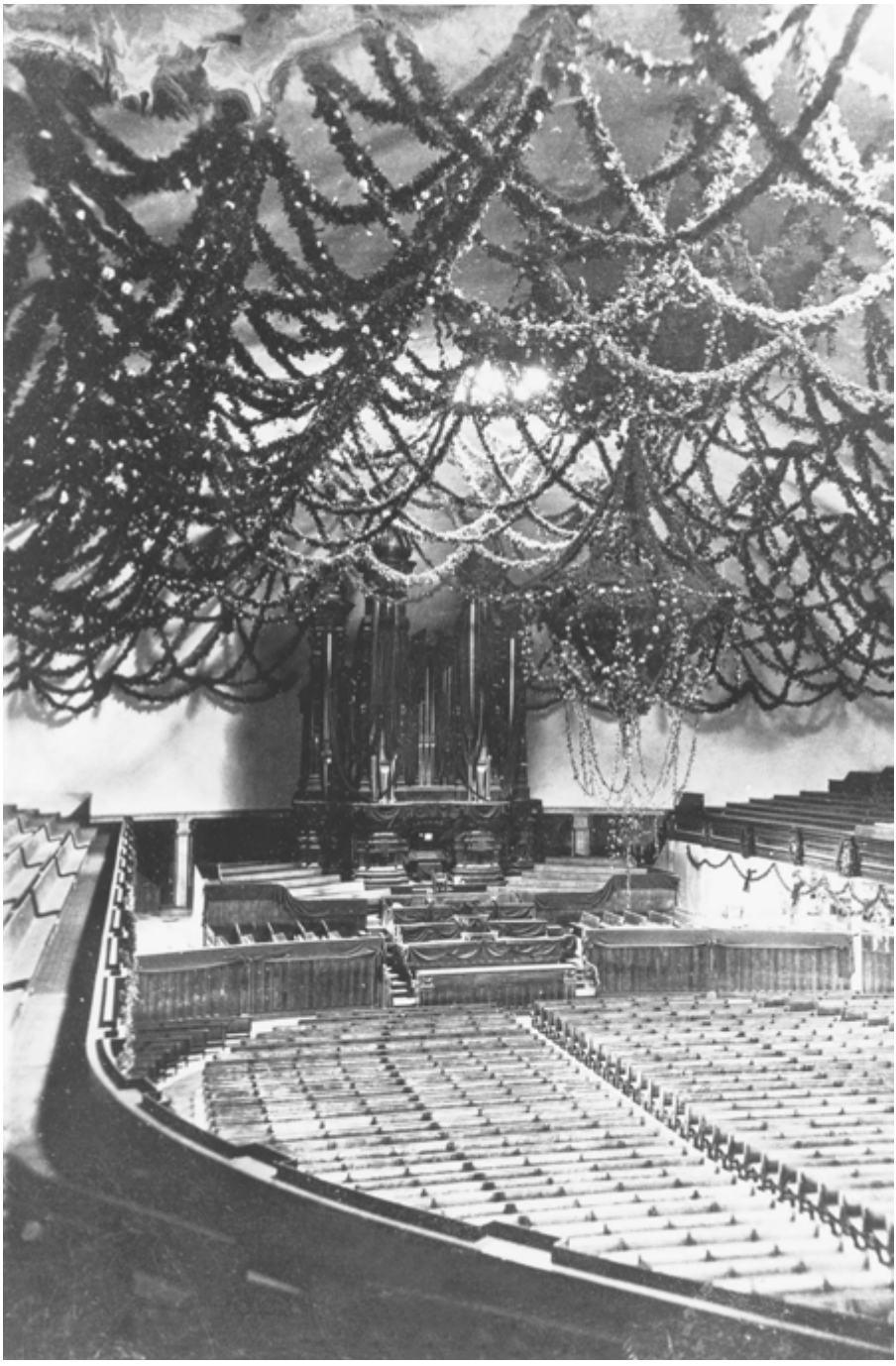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고 알기 쉽게 가르쳤음

-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매우 감화력 있는 다정한 교사였던 이유는 무엇인가? 주님의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 그의 "위대한 비결"은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원리를 우리 자신의 책임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
- 예언자 요셉은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시현을 받을 수" 있었으며, "자신의 믿음이 흔들

리지 않도록" 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주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는 왜 복음에 대한 간증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충실하여야 하는가?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자신의 간증을 피로써 인봉함

- 요셉과 하이람 스미스는 왜 자신들의 간증을 자신들의 피로써 인봉할 필요가 있었는가?(교리와 성약 135편; 136:39 참조)
- 브리감 영 대관장은 "저는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주신 계시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했다. 여러분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은 그 분에 대한 느낌을 가족, 친구 또는 동료들에게 어떻게 적절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가? 예언자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을 여러분의 후손들을 위하여 어떤 형식으로든 기록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브리감 영 대관장의 장례식을 위해 휘장이 드리워진 솔트레이크 태버내클

제 48 장

단합과 간증에 대한 권고와 축복

젊은 시절에 브리감 영 대관장은 자신의 영적 갈망을 만족시켜 줄 종교를 추구하였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1830년 몰몬경을 소개 받고 회복된 복음을 약 2년간 공부한 후에야 자신이 진리를 발견하였음을 깨달았다. 그는 침례 받아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복음에 대한 그의 간증은 흔들리지 않았다. 영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복음에는 천지의 모든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 원리가 존재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질서, 신권에는 모든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데져렛 뉴스: 주 2회 간행물, 1866년 5월 5일, 2쪽) 브리감 영 대관장의 강한 간증과 교회에의 전적인 헌신은 초기의 성도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 영향으로, 광야에서의 가정을 확립하는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었고, 성도들이 주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로 단합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주님의 교회가 건설되고 전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업이 가능케 되었다. 브리감 영은 이같이 선언하였다. "하나님, 천사들 그리고 선한 사람들이 우리를 돕고 있는 이상, 우리는 목표에 도달하여 하나님 왕국을 소유할 때까지 중단 없이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소신이자 신앙입니다. 우리는 성취하고야 말 것입니다. 저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이같이 예언합니다. 우리는 온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53쪽) 브리감 영 대관장의 간증은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브리감 영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단합하려고 노력함

우리는 시온을 건설하기 위하여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시온을 건설합니까? 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관해서 저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노력함에 있어 하나로 단합되어야 합니다. 단합된 신앙을 가지고 한 사람이 하듯이 일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번성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84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은 사람들을 하나로 단합하도록 하며 고대에 복음에 순종했던 사람들의 신앙과 단합으로 돌아가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영광을 누리게 해 줍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83쪽)

저는 우리 형제님들, 감독님들, 장로님들, 칠십인들, 사도님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과 어린이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도중에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모세서 7:18 참조](*브리감 영 설교집*, 281쪽)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만이 사람들을 구원해 줍니다. 왜냐하면 지능이 있는 인간들은 영생에 속하는 원리를 따르지 않고는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간악한 의도 안에서 부분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물의 본질상 그러한 단결은 일시적으로만 지속됩니다. 그들이 부분적으로 단결하는 그 원리 자체가 다툼과 분열을 낳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82쪽)

하늘의 종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묶어 하나가 되게 합니다. 가령, 끌어 모은 어떤 집단이 있다고 합시다. 그들의 정치 이념이 아무리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들을 하나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설사 그들 사이에 온갖 정당 소속의 사람들이 혼재해 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을 하나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85쪽)

우리 [말일성도] 사회에는 귀족과 같은 상류 계층이 따로 없습니다. 가령 어떤 형제가 보잘것없는 너구리 모피 모자를 쓰고 있든, 고급 비버 모피 모자를 쓰고 있든,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이, 설사 머리에 버팔로 모피 조각을 걸치고 있을지라도, 그가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 같이 성찬을 취할 수도 있고, 거리에서 그를 만나 형제님 혹은 친구라고 불러 함께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교 모임에서 만나 동료로서 대할 수도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83~284쪽)

구세주께서는 해의 왕국에서는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그 사회를 지배하며, 아버지와 아들, 그 분들의 종 및 성신은 하늘과 지상에서 성역을 베풀 때 하나가 된다는 것을 늘 제자들의 마음속에 심어 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만일 천군의 무리가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데 전적으로 부적합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82쪽)

예수님은… 자신과 그분의 아버지가 하나이듯이 그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해의 왕국에서 그들이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그들의 다양한 능력과 직분에 따라서 보고 듣고 이해하고 행하기를, 주님이 육신으로 계실 동안 하셨듯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주님과 그 분의 아버지와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요한복음 17:20~21; 니파이삼서 19:23 참조](*브리감 영 설교집*, 281쪽)

말일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디에 있든 — 북부에 있든, 남부에 있든, 동부에 있

든, 서부에 있든, 또는 땅 끝에 있든—그들이 서로 똑같이 느끼고 이해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은 어찌된 일일까요? 그것은 구세주께서 지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그 분이 약속하셨던 것, 즉 보혜사를 받기 때문입니다. 보혜사는 한 하나님, 한 가지 신앙, 한 가지 침례만을 인지할 수 있고, 높은 데 거하는 거룩한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에베소서 4:5 참조] 그의 마음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보혜사 안에서는 한 가지 신앙과 한 가지 행동만이 거하고, 분열과 혼란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들 [말일성도들]이 이 보혜사의 빛을 받을 때에는 그들은 즉시 형제 자매가 되고, 영원한 성약의 유대로써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입양됩니다. 그들이 서로 아는 사이이든, 모르는 사이이든 그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혜사의 빛을 받을 때, 그들은 릇이 말했던 그 아름다운 말을 이같이 외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브리감 영 설교집*, 282~283쪽)

만일 우리가 하나라면,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의 형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천사들에게, 지상의 선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온 인류에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가 아니라면, 참된 의미에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38:27 참조](*브리감 영 설교집*, 281쪽)

영 대관장은 끊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음

구원의 복음은 특히 죄인들을 성도로 만들고, 선이 악을 이기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못되고 악한 사람들을 선하고 성스런 사람으로 만들며, 선한 사람들을 더욱 선한 사람으로 만들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악하든, 또는 어떤 일에 악감정을 가지고 있든, 복음은 우리가 악을 극복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순결하도록 영향력과 힘을, 지식과 지혜를, 그리고 이해력을 우리에게 줍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48~449쪽)

우리의 종교는 우리에게 진리와 덕을, 거룩함을,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종교는 신비를 드러내며 과거, 현재, 미래의 일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우리의 종교는 우주의 물리적인 운행을 이해하는 기초가 됩니다. 우리의 종교는 지상의 모든 생물에 예지를 부여하는 영입니다. 모든 참된 원리는 지혜와 지식과 진리와 권세로부터 생성되는 이 원천에서 나옵니다. 이 원천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동료를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불순종하고 무지한 자들에게 동정심과 자비심이 많은, 오래 견디고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종교에는 참된 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지상의 다른 어떠한 종교에도 없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은 모든 예지의 원천입니다. 그 영광은 하늘을 땅에 내리고 땅을 하늘로 들어 올리며, 하나님이 인간들의 마음속에 넣어 주신 온갖 예지를 영원 속에 존재하는 예지와 뒤섞이도록 준비시켜 주고, 인간을 타락시켜 파멸케 하는 현세의 하찮은 것들로부터 마음이 초연하도록 해줍니다. 그 영광은 인간의 마음을 어두움과 무지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하늘의 예지를 인간에게 주며,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을 준비

시켜 줍니다.(*주간 데져렛 뉴스*, 1859년 6월 1일, 1쪽)

우리의 믿음은 지상의 모든 사람에게 평화와 선의를 가져다 줍니다. 선의는 그 명령을 진지하게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의로움과 평화의 영을 가져다 주며, 자신들의 가정에서 평화롭게 지내게 해주며, 아침 저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게 해줍니다. 그들은 평화의 영으로 충만해 있으므로 아무도 비난이나 징계를 받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를 비난하거나 징계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기상할 때, 그들의 영은 이 땅에 활력과 열을 공급하는, 떠오르는 태양처럼 평온하고 상쾌하며, 여름 날 저녁의 미풍처럼 고요하면서 유연합니다. 그들은 결코 분노하거나 악의를 품거나 다투지 않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49~450쪽)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들이 버려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위한 죽음입니다. 그들이 버리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즉, 그들은 빛을 위하여 어두움을, 참된 것을 위하여 그릇됨을, 하나님 일에 대한 지식과 확실성을 위하여 의심과 불신앙을 버립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50쪽)

모든 시대의 성도들은 그들이 수난을 당할 때, 전능자의 권세에 의해서 보호와 지지를 받아 왔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교의 권세가 그들을 보호하고 지지하여 왔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50쪽)

저에게는 우리 종교[교회]가 늘 축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슬픔 대신에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외치고 싶어합니다. 만일 제가 제 능력으로 지식과 권세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악마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악마에 관한 것은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같은 지혜와 지식과 권세를 원합니다. 저는 의로운 사람들에게 준비된 평안과 안식의 상태에 도달하여 신성한 자들과 함께 영원토록 살기 위하여, 나를 더 높은 등급의 예지로 끌어 올려 주고 계속 견딜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줄, 그런 원리를 받기를 원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51쪽)

저는 소위 "몰몬이즘"이 나를 오늘의 상태로 만들어 준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래에는 하나님의 은총과 권세와 지혜가 저를 현세와 영원에서 마땅이 되어야 할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51쪽)

주님은 저에게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늘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제가 시온을 건설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저는 엄청난 축복을 받아 왔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워." 하고 의심할 정도로 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된 어떤 매우 이상한 상황에 관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은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시온과 그 율법을 세우며, 백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만 몰두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두려워하는 것은 제가 저주 받을 것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또 어떤 큰 은사나 영원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이 땅의 주민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계시하신 원리가 순전하고 성스럽고 고결하기 때문입니다. 그 원리에는 영광과 영원한 증식이 있습니다. 그 원리는 빛에서 빛으로, 힘에서 힘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지식에서 지식으

로, 권세에서 권세로 계속 이끌어 줍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52쪽)

저는… 말일성도들과 교제를 할 수 있고, 하나님 왕국의 한 구성원이 되는 특권에 대해, 그리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친구들을 두고 있는 데 대해 매우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52쪽)

"몰몬이즘"은 지상에서 언제나 저를 위해 행해진 모든 것을 가능케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선한 느낌과 기쁨과 즐거움을 채워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복음의 영을 갖기 전에는, 저는 다른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을 듣고 괴로워 했었습니다. 그들이 때때로 실망하고 낙담하고 우울해 하는 내용을 듣고, 그리고 때때로 나에게도 암울한 국면으로 보이는 상황을 듣고, 저는 괴로워 했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52쪽)

그러나 제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로는 아무리 돌이켜 생각해 봐도, 어떠한 상황도 저에게는, 단 30초 동안도 암울한 국면으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53쪽)

사방에서 당장이라도 일어날 듯한 폭도들의 살인과 파멸적인 상왕으로 둘러싸였을 때, 저의 영은, 마치 지금 제가 즐거워하고 있듯이, 그저 기쁘기만 했었다는 것을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전망이 아무리 흐리고 암울하게 보일지라도 그 결과는 진리의 대의와 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음 안에서 유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지 못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매사에 주님의 손길이 닿고 있는 것에 늘 기쁨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53쪽)

"하나님, 천사들 그리고 선한 사람들이 우리를 돕고 있는 이상, 우리는 목표에 도달하여 하나님 왕국을 소유할 때까지 중단 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소신이자 신앙입니다. 우리는 성취하고야 말 것입니다. 저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이같이 예언합니다. 우리는 온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할 것이며, 이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53쪽)

브리감 영 대관장은 충실한 성도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였음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권리와 특권으로 신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복을 받으십시오. 이것은 말일성도들에게 드리는 저의 축복입니다. 동시에 아담의 가족에 속하는 모든 인간들이 저의 축복을 받고 싶다면, 역시 그들에게 드리는 저의 축복이기도 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56쪽)

하나님은 모든 선한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피조물에게도 축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업에도 축복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지상에서 전쟁과 다툼을 없에기 위하여 하나님은 악인들과 경건치 못한 자들과 자기 동료를 파멸시키려는 자들의 계획을 전복시킵니다. 오, 주님이시여, 이들 악인들을 그들의 직분에서 제하여 주시고 선한 사람들을 열국들의 머리에 앉혀 주소서. 그리하여 그들로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고 이성을 가진 문명인들처럼 지상에서 평화를 유지하며 서로 선을 하게 하소서.[이사

야 2:4 참조](*브리감 영 설교집*, 456쪽)

저는 여러분에게 언제나 축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생명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유익과 영광과 긍지와 위안 등, 저의 모든 것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차 제가 갖기를 기대하는 모든 것이 이 교회에 영원토록 존재하기 때문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56쪽)

만일 저에게 권세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들이 바라는 모든 것을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저에게 권세가 있다면,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자신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들이 갖도록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57쪽)

만약 이 땅에 주님께서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국민이 있다면, 주님이 그들에게 못 부어주실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창고에는 그들이 육신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축복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들을 입증한 국민들에게 주님이 부어 주시는 축복은 필설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고린도전서 2:9 참조](*브리감 영 설교집*, 455쪽)

우리가 더욱 더 충실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늘들의 권세를 더욱 더 받으면 받을수록, 의로운 자들은 더욱 더 속박되는 대신, 더욱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충만하게 가질 때까지, 주님에게 부지런히 구합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충만하게 가진 자들은 참으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55쪽)

저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전능하신 자의 면전에서 걷고 생활하고 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실한 자들은 전능하신 자가 자신들을 보고 계시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영원 가운데 존재하며, 거룩한 분들의 면전에 거하고, 머지 않아 그분들의 면전에서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축복 받은 자들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54~455쪽)

매사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는 데까지 잘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이 하는 것을 의롭다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코 그 일을 행하지 마십시오.(모세서 6:60 참조) 만일 여러분이 매일 매일의 삶을, 자신의 지식이 미치는 데까지 최상의 빛과 자신의 이해력에 따라 살아간다면,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왕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55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성이 뜨거운 자가 되십시오.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가르침을 잘 듣는 자가 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잘 보살피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영향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데 힘쓰십시오. 이것이 제가 여러분을 위해 끊임 없이 기도하는 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브리감 영 설교집*, 456쪽)

학습을 위한 제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단합하려고 노력함

-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온전히 하나가 된다" 또는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요한복음 17:20~21 참조)
-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건설해야 한다면,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왜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인가?
- 주님의 사업에 있어서 복음은 어떻게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차이를 가진 교회 회원들이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가?
-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동료인 성도들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진실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는가?

브리감 영 대관장은 끊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음

- 브리감 영 대관장은 복음이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라고 설명했는가? 여러분이 보기에 이러한 영향이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생활에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 복음은 어떻게 우리가 "하늘을 땅에 내리고 땅을 하늘로 들어 올리도록 돕는가?"
- 브리감 영 대관장은 자신의 종교를 "끊임 없는 축제"라고 일컬었다.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즐길 수 있는가? 이 학습 과정에서 브리감 영 대관장의 어떤 가르침이 여러분이 복음과 복음의 가치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가?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채워 주고 있는가?

브리감 영 대관장은 충실한 성도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였음

- 교회 회원들은 어떻게 주님 앞에 자신을 입증할 수 있으며, 주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큰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가?
- "더욱 더 충실함"은 어떻게 "더욱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하는가? 그리고 또 더욱 더 많은 권세를 누리게 하는가? 순종과 신앙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여러분은 어떻게 "매일 매일의 삶을 최상의 빛과 여러분 자신의 이해력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
- 복음에 대한 브리감 영 대관장의 흔들리지 않는 간증과 열의는 여러분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인용 서적 및 약자

BYL	브리감 영 서신철, 6:33~36. 역사부 기록 보관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BYP	브리감 영 기록: 1832~1878. 역사부 기록 보관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CHC	비 에이치 로버츠, *교회사 요해*.
DBY	브리감 영, *브리감 영 설교집*. 존 에이 윗소가 선집했음. 1941년.
DEN	*데져렛 이브닝 뉴스*.
DN	*데져렛 뉴스*.
DNSW	*데져렛 뉴스: 주 2회 간행물*.
DNW	*주간 데져렛 뉴스*.
HC	*교회 정사*.
HRF	랄프 프로스트의 역사, 엘리사와 루시 그로브즈의 증손. 특별 수집 자료. 브리감 영 대학교.
JD	*설교집*.
JH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 일지, 1847년 2월 23일. 역사부 기록 보관소.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JSB	제임즈 에스 브라운, *개척자의 생애, 제임즈 에스 브라운 자서전*, 1900년, 121~122쪽.

JTB — 토마스 불럭의 일지, 1948년 6월 20~30일, 7월 2일. 역사부 기록 보관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LBY — 브리감 영, *브리감 영 서신*. 딘 시 제시 편. 1974년.

LL — 크릴 조지, "주님의 사자" *콜리어스*, 1926년 9월 4일, 36쪽.

LSBY — 수저 영 게이츠, 리어 디 윗소와의 공저, *브리감 영의 생애 이야기*, 1930년.

MAAY — 매리 앤 애젤 영에게 보낸 브리감 영의 서신, 1847년 4월 20일. 역사부 기록 보관소. 말 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MFP — 제임즈 알 클라크 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메시지*, 총 6권, 1965~1975년.

MHBY-1 — 브리감 영, *브리감 영의 역사 기록, 1801~1844년*. 엘든 제이 왓슨 편. 1968년.

MHBY-2 — 브리감 영, *브리감 영의 역사 기록, 1846~1847년*. 엘든 제이 왓슨 편. 1971년.

MS — *밀레니얼 스타*.

MSS — *밀레니얼 스타(보충 자료)*

WWJ — *윌포드 우드럽의 일지*, 스코트 지 케니 저, 1983년. 총 3권, 1847년 7월 25일.

색 인

ㄱ

가난한 자
—를 돌보는 것의 중요성, 25~26, 217~219, 238~239
—의 진영, 104~105

가르침
부모가 가족을 —, 171~175
아버지가 가족을 —, 164~166
어머니가 가족을 —, 167~168

가장. 부모 참조
—은 의로운 모범을 보임, 164~166
—은 친절하게 인도함, 164~166

가정
훌륭한 —을 이룩해야 함, 229~230

가정 비축, 231

가족
가장은 —을 의롭게 인도함, 164~166
부모는 모범과 친절로써 —을 가르침, 171~175, 337~341
어머니는 —을 사랑하고 가르침, 167~168

가족 역사, 307~312

감독, —의 책임, 140~142

감사, 177~179

감정, —을 조절함, 205~207

개인적인 배도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은 —를 초래함, 80~81
—는 어둠과 혼란을 가져 옴, 81~82
영을 구하고 —를 피하기 위해 충실해야 함, 82~83
작은 잘못에서 비롯됨, 79~80

겸손, 179~180

경륜의 시대
노아의 —, 94
때가 찬 말일의 —, 96~98
모세의 —, 95
아담의 —, 93~94
아브라함의 —, 94~95
에녹의 —, 94

경전
모든 표준 —에 대한 믿음, 119~123
—의 메시지는 간결함, 122~123

계시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준비가 필요함, 21~22, 42~44
그리스도의 —는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됨, 318
—의 은사, 253~254
하나님은 —를 통해서 그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심, 42~44

고결(성실), 사업상의 거래에서 성실해야 함, 24

교리와 성약, 120

교육, 만인에게 —이 중요함, 193~199

교통, 하나님과 인간과의 —, 41~46

교회 선도 조치, 140~142

교회
—선도 조치, 140~142
신권 정원회를 관리함으로써 인도됨, 137~140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 323~324

구원, 구원의 계획 참조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 291~296
예언자들에게 계시됨, 93~94
충실한 자에게 영생을 가져다 줌, 49~52

그리스도의 빛, 모든 사람에게 주어짐, 41~42

그리스도의 영, 모든 사람에게 주어짐, 41~42

극장, 188~189

금식 주일, 150

기도
가족 —, 45~46
—를 통해 진리에 대한 증거를 얻음, 317~318
쉬지 않고 기도함, 44~46
기도하고 싶은 소망을 갖게 할 수 있음, 45

기적
신앙을 강화시켜 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 254~256
예수님의 —에 아버지의 뜻이 나타남, 32, 255~256

ㄴ

나부, —를 떠나는 이주, 101~102, 104~105

나부 성전, 6, 10~11

남편, 영원한 결혼 참조
아내와 가족을 위해 봉사함, 164~166
안락한 가정을 이룩함, 229~230

ㄷ

다툼, —을 피함, 222~223

단합, 주님은 성도들의 —을 요구하심, 353~355

대배도, — 기간에 신권과 복음의 진리가 상실됨, 95~96

돈. 부(재물) 참조

ㅁ

말, 다른 사람들을 들어 올려 주고 위로해야 함, 207~208

말일
—에 큰 재앙이 일어남, 331~332
의가 승리하게 됨, 332~333

멸망의 자식, 38, 288~289, 291~292

몰몬경
요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됨, 96~98
—은 성경의 진리를 증거함, 119~123
—의 가르침은 성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음, 119~123
이 경륜의 시대를 위해 보존됨, 96~98

몰몬 대대
—의 조직과 행군, 103~104
정부에 대한 성도들의 충성을 보여 주었음, 103~104

무용, 188~189

미(아름다움), 우리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229~230

ㅂ

배움, 연구와 신앙으로 —, 193~199

병자를 고침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는 모든 의료 수단이 사용되어야 함, 252~253
합당한 멜기세덱 신권 형제들이 병자를

고치는 특권을 갖고 있음, 252~253

복천년
—동안 성전 봉사가 행해짐, 311~312
—동안의 생활, 333~334

부. 재물 참조

부모. 아버지, 어머니 참조
말씀과 모범으로 의를 가르침, 171~175, 337~341
브리감 영의 부모의 적극적인 영향력, 1
자녀를 가르침, 196~197, 337~338
화를 내지 않고 자녀를 인도함, 171~175, 338~341

부활
예수님은 첫번째로 부활하신 분임, 275
—의 정의, 275~277
해의 영광을 얻는 데 필요함, 275~277

분노
—를 억제하는 것을 배움, 205~207
파괴적인 성품임, 173~175

ㅅ

사도. 십이사도 정원회 참조

사랑
다른 사람들을 의롭게 판단함, 220~223
다툼을 피함, 222~223
서로 신앙을 쌓게 함, 222~223
—의 힘은 구원을 가져 옴, 218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함, 217~219

상호부조회. 여자 참조
가난한 자를 돌봄, 11, 131~132
브리감 영에 의해 재정비됨, 11, 132~132
선을 위한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음, 134~135
하나님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큰 잠재력을 갖고 있음, 132~135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 영원한 결혼 참조

선교사의 봉사
논쟁이 아닌 봉사 정신이 사람들을 개심시킴, 246~248
선교사들에게 봉사하도록 권고함, 244~246, 248
우리는 모두 봉사하도록 부름 받았음, 243~244

선도 조치, 교회 —, 140~142

선택. 자유의지 참조

설교, —에 관한 권고, 147~150

성결케 함, 시온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함, 111~113

성경
—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해 줌, 119~123
—의 가르침은 몰몬경의 진리를 증거함, 119~123

성령. 성신 참조

성신
선교사들은 —에 의지해야 함, 246~248
성신의 임무, 33, 67~68
성신이 물러가면 개인적인 배도가 생김, 81~83
우리가 온전하게 되도록 인도해 줌, 67
—은 모든 진리를 가르쳐 줌, 318~320
—은 신비를 밝혀 줌, 257~258

성전. 성전 의식 참조
—건축은 노동과 희생이 요구됨, 299~302
—건축은 복천년 동안 계속됨, 311~312
—건축의 목적, 299~302
성전을 건설하기 위한 브리감 영의 노력, 10~11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 —건축이 필요함, 302~304

죽은 자를 위한 의식, 307~312

성전 봉사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죽은 사람들에게 이로움, 307~312
복천년 동안 계속됨, 311~312, 333~334

성전 의식. 성전 참조
나부 성도들을 위한 —, 10~11
시온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함, 302~303
엔다우먼트의 정의와 목적, 302~303
요셉 스미스는 사도들에게 —에 대해 가르쳤음, 6
—의 권세는 세대들을 함께 결속시켜 줌, 303~304, 307~312
죽은 자를 위한 —, 307~312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 필요함, 171, 32~304

성찬
—의 목적, 150~151
자녀들에게 —의 중요성을 가르침, 151

세상(세계)
—에는 진리가 있음, 16~17
—의 종말에는 의가 널리 퍼짐, 332~333

세상적인 일. 일 참조
왕국을 건설할 때 영적인 일과 똑같음, 22~26
소문, —에 연루되는 것을 피함, 207~208

솔선. 자립 참조

솔트레이크 계곡, —을 향한 개척자들의 여행, 9~10, 101~108

수련, 가족 간에 의롭게 사용해야 함, 171~175, 337~341

순교, 요셉과 하이람 스미스의 —, 6~7, 101~102, 349

순종
기꺼이 순종하는 것을 배움, 75~76
선택의 결과를 선택할 수 없음, 71~73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 살도록 해줌, 73~75

승영, 291~296

시간, 현명하게 사용함, 225~229

시련. 징계, 핍박 참조
감사로 —을 받아들임, 177~179
불순종자에게 징계가 됨, 263
성도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줌, 262~263
승영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켜 줌, 261~263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 인도하심, 263~265

시민권, 훌륭한 시민으로서 활동적인 역할을 함, 269~270

시온산의 구원자, 310~311

시온
우리의 목적은 —을 건설하는 것이 되어야 함, 111~113,
—을 건설하기 위한 브리감 영의 노력, 10~11
—을 건설하기 위해 일과 희생이 필요함, 114~116, 225~226
헌납이 —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함, 158~160

시온 진영, 4

식량 비축, 231

신권. 신권의 열쇠 참조
가족을 축복함, 129
개인적인 의로움이 필요함, 128~129
말일에 회복됨, 95~98
—에는 구원을 얻게 하는 힘이 있음, 18~19

—의 정의, 18, 125~126

신권의 열쇠. 신권 참조
—가 교회에 남아 있게 됨, 126~128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모든 —를 지니고 있음, 138~140
요셉 스미스가 십이사도 정원회에 줌, 6~7

신권 정원회, 교회를 인도함, 137~139

신앙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 56~57
복음의 첫째되는 원리, 55~56
서로 —을 쌓도록 해줌, 222~223
선행을 통해 나타남, 57~58
하나님을 믿는 —으로 초기 성도들이 힘을 얻었음, 101~108

심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으면 심판이 보류됨, 220~222
우리가 받는 영광의 등급을 결정해 줌, 288~289
육신을 입은 동안 행한 우리의 행위에 따라 —받음, 285~287
지상에서 우리에게 주이진 율법에 달려 있음, 287

십이사도 정원회
—의 책임, 137~139
첫번째 정원회가 조직됨, 4
초기 성도들이 만장 일치로 지지함, 7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모든 열쇠를 지니고 있음, 137~139

십일조
만물이 주님의 것이므로 —를 바침, 155~157
—의 올바른 사용, 157~158
영원한 율법, 155

ㅇ

아내. 영원한 결혼 참조
—에게 주는 권고, 167~168

아론 신권, 140

악령, 멸망의 자식 참조

안식일
금식 주일, 150
—예배에 관한 유의 사항, 145~151
—을 거룩히 지키면 축복이 옴, 145~147

애통, 영원에 대한 지식으로 애통함을 달램, 273~274

앤젤, 매리 앤, 4

어린 아이
사랑으로 양육해야 함, 338~341
잘 교육을 시켜야 함, 195~196, 337~338
화를 내지 않고 인도해야 함, 171~175

어머니. 부모 참조
자녀들에게 의로움을 가르침, 167~168, 171~172

엔다우먼트, 성전 의식 참조
—의 정의와 목적, 302~303

여자. 상호부조회, 아내 참조
하나님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큰 능력을 갖고 있음, 132~135

역경. 시련 참조

연예(오락), 185~189

영, 브리감
개심, 침례 및 확인, 2~3
결혼, 2, 4
데져렛의 지사, 9~10
생애의 역사, vii
선교 여행, 3~6
성도들을 서부로 인도함, 9~10, 101~108
성전 건축, 10~11

시온 진영, 4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성임됨, 4
요셉 스미스를 닮음, 7
요셉 스미스와의 첫만남, 3
요셉 스미스의 증인, 343~347
출생과 유년 시절, 1

영광의 왕국, 288~289, 291~296

영생
우리에게 영원한 증식을 가능하게 해줌, 89~90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사, 89~90
—을 향한 진보, 87~89
지상 생활에서 —을 위해 준비함, 85~87
지식을 얻음으로써 —을 위해 준비함, 193~199
하나님의 삶, 50~51

영
영의 세계로 감, 279~281
죽은 후에도 살며 육체와 재결합함, 273~277

영원한 결혼. 남편, 아내 참조
부모와 자녀를 함께 결속시켜 줌, 163~164, 171
아버지에게 주는 권고, 164~166
어머니에게 주는 권고, 164~166
청남들에게는 영원한 결혼을 하라는 권고가 주어짐, 164

영의 세계
모든 죽은 자들의 영들이 거주하고 있음, 273~274, 279~280
—에서 복음이 전파됨, 280~281
—에서 진보가 계속됨, 281~282

영의 은사
믿는 자의 신앙을 강화시킴, 254~256
성신의 은사, 67~68
옛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똑같이 —가 주어짐, 251~254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참조
구원의 계획에서의 —의 역할, 49~52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함, 291~296
—를 믿는 신앙, 복음의 첫째되는 원리, 55~58
—의 기적, 255~256
—의 사명, 31~32
—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짐, 41~42
—의 재림, 32~33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맨 처음 부활하신 분, 38~39, 275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수단이 됨, 18~19
모든 경륜의 시대에서 똑같음, 93~95
모든 진리가 포함되어 있음, 15~17, 347~349
변화를 가져 오게 하는 힘이 있음, 21~2, 347~349
복음대로 생활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됨, 183~185
성도들에게 지식을 넓히도록 격려해 줌, 193~194
영적인 면과 세상적인 면이 똑같음, 22~23
율법과 질서의 체제, 15~17
—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됨, 243~244
일상 생활의 지침이 됨, 23~25
자립을 가르침, 25~26
진리는 규칙에 규칙을 더하여 계시됨, 21~22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예수 그리스도 참조
—를 통해 우리는 영광의 왕국을 상속함, 38~39, 292~294

멸망의 자식들 외에 모든 사람을 구속해 줌, 38, 288~289, 291~292
모든 소망의 원천, 55~56
용서를 가능하게 함, 39
충실한 자들이 해의 왕국에서 구원을 얻도록 해줌, 37~39, 292~294
회개를 통해 효력이 발생함, 61~62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해야 함, 334
—의 때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심, 334
—전에 혼란이 일어남, 331~333

예언, —의 은사, 253~254

예임,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줌, 52

예지. 지식 참조
연구와 신앙으로 —을 얻음, 193~199

오락, 육체와 영에 이로움, 185~189

왕국의 신비, 257~258

요셉 스미스
—를 통해 충만한 복음이 회복됨, 96~98, 343~348
말일의 경륜의 시대를 관리하도록 예임됨, 96~98, 342~344
브리감 영과 —의 관계, 3~6
성도들의 서부 여행에 대해 알았음, 101
—의 사명, 343~349
—의 순교, 6~7, 101~102, 349

웍스, 미리엄 앤젤린, 2~3

음악, 높이 들어 올려 주는 힘이 있음, 188~189

의사 소통,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중요함, 222~223

의식. 성전 의식 참조

의지. 자유의지 참조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지파 참조

이스라엘의 지파
우리의 의무는 —를 모으는 것임, 324~325
—의 정의, 324~325

일. 세상적인 일 참조
시온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함, 112~116
시온을 건설하기 위해 현명하게 일함, 225~232
—을 통해 배움, 1~2
—의 중요성이 초기 성도들에게 강조됨, 9~10, 104~106
참된 재물을 얻게 해줌, 237~238

ㅈ

자립
각자에게 —할 책임이 있음, 25~26, 228~232
초기 성도들의 —, 9~10, 104~108

자비, 서로에게 자비를 보임, 217~219

자유의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짐, 51~52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음, 51~52
선택의 결과를 선택할 수 없음, 71~73

재물
가난한 자와 —을 나눔, 238~239
—만으로는 행복을 느끼지 못함, 235~237
우리가 얻는 것을 저축함, 228~229
—을 사랑하면 어둠이 초래되고 영을 잃게 됨, 236~237
참된 —의 정의, 237~238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을 사용함, 239~240

절제
우리의 감정을 억제함, 205~207
우리의 말을 통제함, 207~208
하나님의 뜻에 따름, 203~205

정부
—는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를 두어야 함, 267~268
—에 대한 교회 회원들의 의무, 269~270
—지도자들은 현명해야 함, 268~269

정직
모든 성도는 —해야 함, 180~181
자녀들에게 —을 가르침, 181
정직하게 거래함, 24

주일학교, 11

죽음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 단계임, 271~277
예수 그리스도는 —을 이기셨음, 275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것임, 271~277

지식. 예지 참조
모든 —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옴, 193~194
우리가 우리의 지식을 발전시켜 나감에 따라 하나님은 더 많은 지식을 주심, 87
우리에게는 —을 추구할 책임이 있음, 317~318
—을 얻음으로써 영생을 위해 준비함, 85~90, 193~199

지혜, 하나님에게 —를 구함, 198~199

지혜의 말씀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해줌, 212~214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명, 211~212

진리
규칙에 규칙을 더하여 계시됨, 21~22
모든 —가 충만한 복음에 들어 있음, 16~18
모든 —를 모으고 수용할 의무가 있음, 16~18, 317~318
성신에 의해 계시됨, 318~320
우리는 진리를 추구할 책임이 있음, 317~318
우리에게 의로움을 가져다 줌, 320~321
진리를 추구하는 자는 많으나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는 적음, 315~317

징계, 박해, 시련 참조
겸손과 기도로 —를 받음, 75~76
불순종하는 자를 겸손하게 만듦, 263

책임, 287

청남 조직, 11

청녀 조직, 11

친절, 하나님 아버지처럼 똑같이 —을 보임, 218~219

칠십인 정원회, —의 권능과 목적, 137~139

침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함, 62~64

커틀랜드 성전, 4

태만(게으름),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되는 것임, 225~226

ㅍ

핍박. 징계, 시련 참조
악인들의 —으로 인해 교회가 강화됨, 263~265
초기 성도들의 —, 101~102, 104~105

ㅎ

하나님 아버지
—의 속성, 29~31
모든 영을 창조하셨음, 50~51

하나님의 왕국
—에서 의를 구함, 320~321
—은 멸망될 수 없음, 325~326
—을 건설하기 위해 열심히 일함, 225~226
—을 건설하기 위해 재물을 사용함, 239~240
—을 위해 모든 것을 줌, 327~328
이스라엘의 지파를 모음, 324~325

행복
복음대로 생활함으로써 느끼게 됨, 183~185
재물만으로는 행복하게 되지 않음, 235~237
적절한 오락을 통해서 행복을 느낌, 185~189

행위
선행은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해줌, 57~58
우리의 —에 따라 심판 받음, 285~287

헌납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함, 158~160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필요함, 158~160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함, 327~328

형벌, 하나님의 —, 288~289

회개
속죄를 받아들이는 데 필수적임, 38~39, 61~64
임종시의 —는 효력이 없음, 62

희생, 시온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함, 114~116

노 트

노트

노트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KOREAN
4 02355 54320 9
35554 320